

# 2025년 국내 결연아동 근황조사 분석 보고서

## PART I 조사 개요

## PART II 주요 주제별 분석 결과

1.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2. 스트레스
3. 정서적 어려움
4. 주관적 행복감 및 관계 만족도
5. 새학기 현황
6. 사교육
7.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8. 자립 능력과 준비 정도
9.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10.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## PART III 기타 근황 분석 결과

1. 수면 시간 및 충분 정도
2. 방학생활 및 새학기 계획
3. 관심사 및 여가 활동
4. 장래희망



PART / |

# 조사개요

1. 조사 설계
2. 조사 과정
3. 문항 구성
4. 응답자 특성

# 1. 조사 설계

## 조사 목적

- 초록우산에서는 결연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조사를 수행함.
- 후원자에게는 아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, 아동에게는 후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음.

구분	내용
조사 방법	온라인 조사
조사 대상	만 18세 미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국내 결연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
표본크기	11,897명 *미취학 아동: 1,038명 / 초등학생: 4,149명 / 중학생: 3,278명 / 고등학생: 3,432명
조사 지역	전국
조사 기간	2025년 8월 20일 ~ 10월 17일
조사 협력 기관	초록우산 협력 기관(938개)
조사 수행 기관	(주)한국리서치

## 2. 문항 구성 - 건강 및 성장·발달

대분류	중분류	조사대상	조사항목	비고
건강	영양	전체	식사의 질 및 결식 빈도	추가(개발)
		전체	식사/영양 관련 필요 지원 내용	추가(개발)
	수면	전체	아동수면 빈도(주말/주중)	기존
		전체	아동수면 인식(수면의 충분도)	기존
	정신건강	초/중/고	스트레스 상태	기존
		초/중/고	스트레스 요인	기존
		초/중/고	스트레스 해소방안	추가(개발)
		초/중/고	정서적 어려움 상태 (외로움/우울/짜증/공격성 경험)	추가(개발)
		초/중/고	정서적 어려움의 발생 원인	추가(개발)
		초/중/고	정서적 어려움이 관계에 미친 영향	추가(개발)
		전체	행복 점수	기존
		전체	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	기존
	관계	초/중/고	관계 만족도(친구/학교 선생님/가족)	추가(개발)
		초/중/고	관계에 대한 태도/인식(친구/학교 선생님/가족)	추가(개발)
		초/중/고	가장 큰 고민거리(어려움)	기존
		초/중/고	고민을 이야기 하는 주된 사람	기존
		초/중/고	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도움 정도	기존
		초/중/고	고민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	추가(개발)
		초/중/고	전문가 도움 필요 인식 (병원, 심리 상담가 등)	추가(개발)

대분류	중분류	조사대상	조사항목	비고
성장·발달	학교생활	초/중/고	학교 생활 전반적 만족도	기존
		초/중/고	학교 생활 만족 이유	기존
		초/중/고	학교 생활 불만족 이유	기존
		초/중/고	학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	기존
		초/중/고	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점	기존
	학습	초/중/고	현재 받고 있는 교육 별 시간_주중/주말(사교육)	기존
		초/중/고	사교육 만족도	기존
		초/중/고	사교육 만족 이유	기존
		초/중/고	사교육 불만족 이유	기존
		초/중/고	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 과목	기존
		초/중/고	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 유형(형태)	기존
		초/중/고	사교육을 가장 받고 싶은 과목	기존
		초/중/고	사교육을 가장 받고 싶은 과목 이유	기존
		초/중/고	사교육을 이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	기존
		초/중/고	사교육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	추가(개발)
	진로	전체	장래희망	기존
		중/고	장래희망 평소 생각 빈도	추가(개발)
		전체	내가 되고 싶은 어른의 모습	기존
		중/고	진로 교육 경험 유무	기존
		중/고	진로를 설정할 때 어려움	기존
		중/고	진로를 설정할 때 필요한 지원	기존
		고등	고등학교 졸업 직후 진로/진학 희망	기존
		중/고	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자립분야(1-3순위)	추가(개발)
	자립	중/고	현재 자립 준비 정도(경제/심리정서/사회적)	기존
		중/고	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?(1-2순위)	기존
		중/고	가장 필요한 자립기술 분야?(1-2순위)	기존
		중/고	진로(꿈) 설정이 자립에 미치는 영향	추가(개발)
		중/고	현재 거주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	추가(개발)
	지역 및 주거 환경	중/고	자립 후 거주지 이동 희망 여부	추가(개발)
		중/고	자립 후 희망 거주지	추가(개발)
중/고		자립 후 거주지 이동 희망 이유	추가(개발)	
관심, 흥미	전체	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	기존	
	전체	가장 자주 하는 놀이/여가 활동	기존	

## 2. 문항 구성 - 권리·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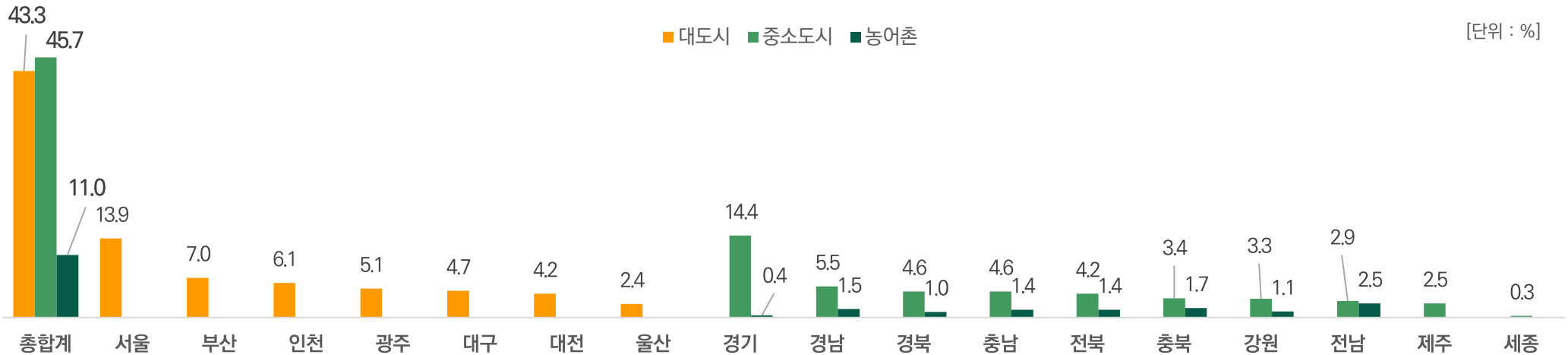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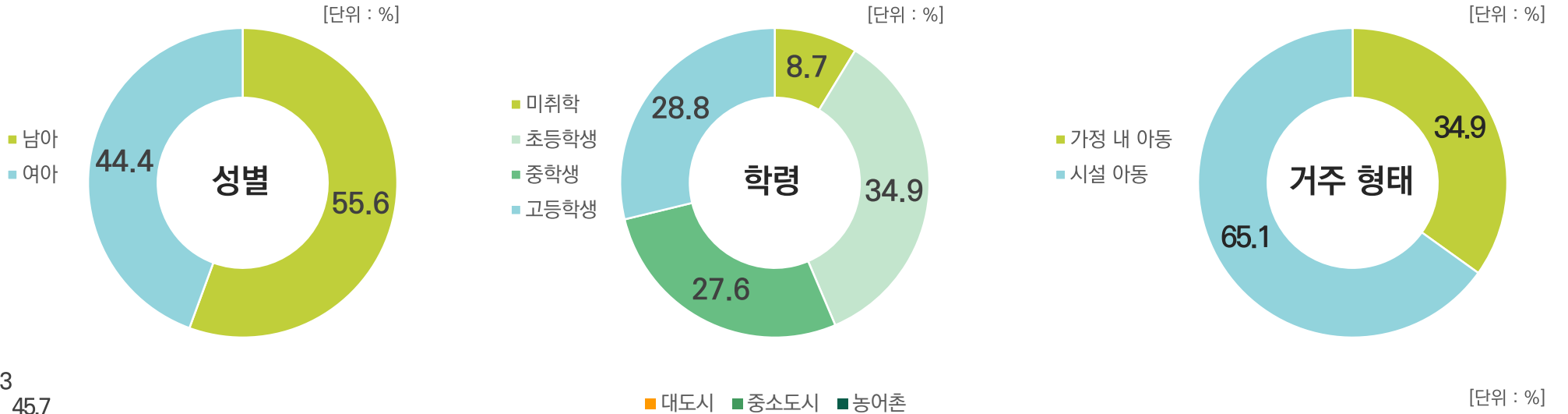


대분류	중분류	조사대상	조사항목	비고
권리·환경	방학	초/중/고	방학에 가장 걱정되는 것	추가(개발)
		초/중/고	방학에 가장 하고싶은 것	추가(개발)
		초/중/고	방학에 가장 필요한 것	추가(개발)
	새학기	초/중/고	새학기를 준비하며 가장 기대되는 것	추가(개발)
		초/중/고	새학기에 이루고 싶은 목표	추가(개발)
		초/중/고	새학기를 준비하며 가장 필요한 것	추가(개발)
	아동권리	초/중/고	아동존중 인식	추가(개발)
		초/중/고	아동의 4가지 기본 권리 인지 여부	추가(개발)
	온라인 환경	초/중/고	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_주중/주말	추가(개발)
		초고/중/고	온라인 세이프티 인식	추가(개발)
		초고/중/고	온라인 환경에서 피해 경험	추가(개발)
		초고/중/고	온라인 아동권리교육 경험	추가(개발)
		초고/중/고	온라인 아동권리교육 필요도	추가(개발)
		초고/중/고	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	추가(개발)
	후원금 (자립성장비)	전체	후원금 사용처/사용비중(%)	기존
		전체	구체적인 사용처_생활비	기존
		전체	구체적인 사용처_교육/학습/자기계발비	기존
		전체	구체적인 사용처_의료비	기존
		전체	후원금 지원 인식	기존
		전체	후원금 도움 정도	기존
전체		후원금 충분도	추가(개발)	
전체		후원금 지속 희망 정도	추가(개발)	
전체		후원금 지원 후 달라진 점	추가(개발)	
전체		후원자님께 전하는 감사메시지	기존	

### 3. 응답자 특성

- 이번 조사는 총 11,89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, 응답자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음.
- 전체 응답자 중 남아는 55.6%, 여아는 44.4%를 차지함. 미취학 아동 8.7%, 초등학생 34.9%, 중학생 27.6%, 고등학생 28.8%임.
- 가정 내 아동은 34.9%로 가정 외 아동(시설 아동)이 65.1%인 데 비해 낮은 비중을 보임.
-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(43.3%)와 중소도시(45.7%)에 거주하는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, 농어촌 지역은 11.0%임.

####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



PART /



# 주요 주제별 분석 결과

1.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
2. 스트레스

3. 정서적 어려움

4. 주관적 행복감 및 관계 만족도

5. 새학기 현황

6. 사교육

7.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
8. 자립 능력과 준비 정도

9.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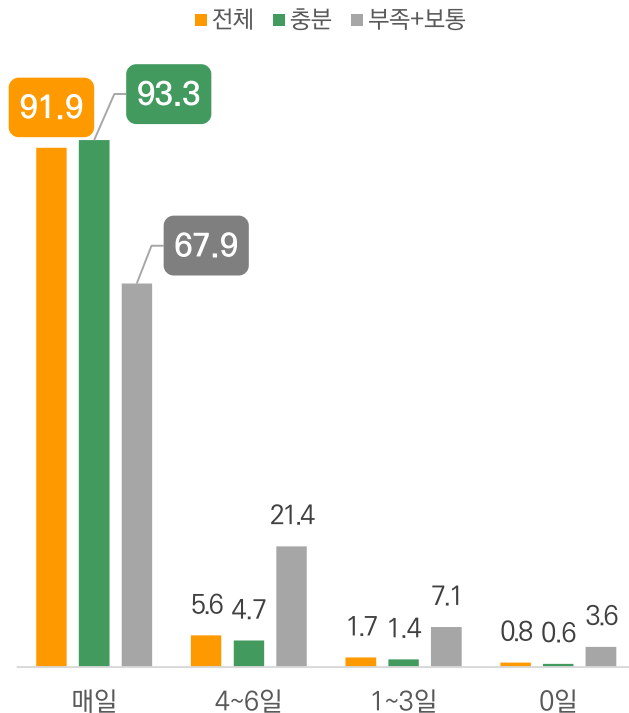
10.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# 가. 미취학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
- 미취학 아동의 91.9%가 매일 아침을 먹는다고 응답, 일주일 내 편의점·배달 음식 ‘전혀 먹지 않음’ 비율 91.2%, 단백질 섭취 주 4일 이상 비율 83.9%로, 아침 결식 거의 없고 전반적으로 식사의 질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.
- 후원금이 충분한 아동은 매일 아침 섭취하는 비율이 93.3%, 편의점·배달 음식 ‘전혀 먹지 않음’ 비율 91.9%, 고기반찬 주 4일 이상 섭취 84.6%로, 대부분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- 반면, 후원금이 부족+보통 아동은 매일 아침 섭취하는 비율이 67.9%, 편의점·배달 음식 ‘전혀 먹지 않음’ 비율 80.4%, 고기반찬 주 4일 이상 섭취 71.4%로, 상대적으로 식사의 질이 낮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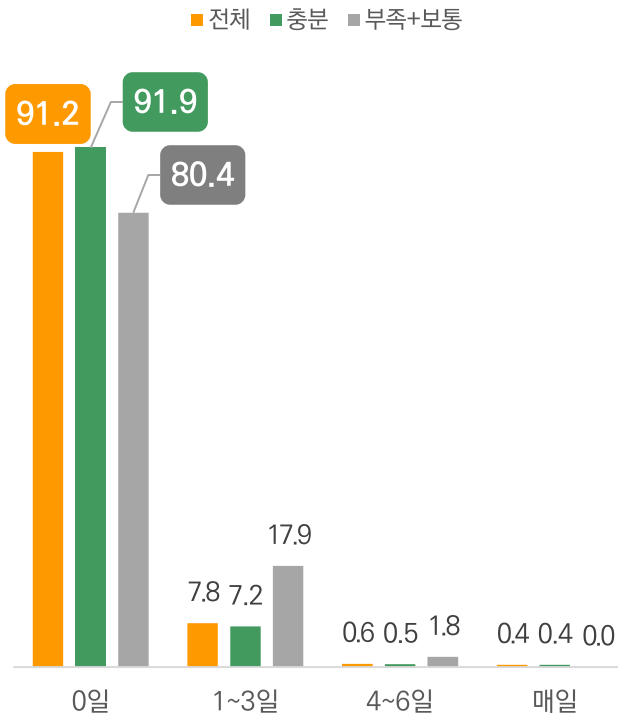
## 아침 섭취율

[Base:미취학 아동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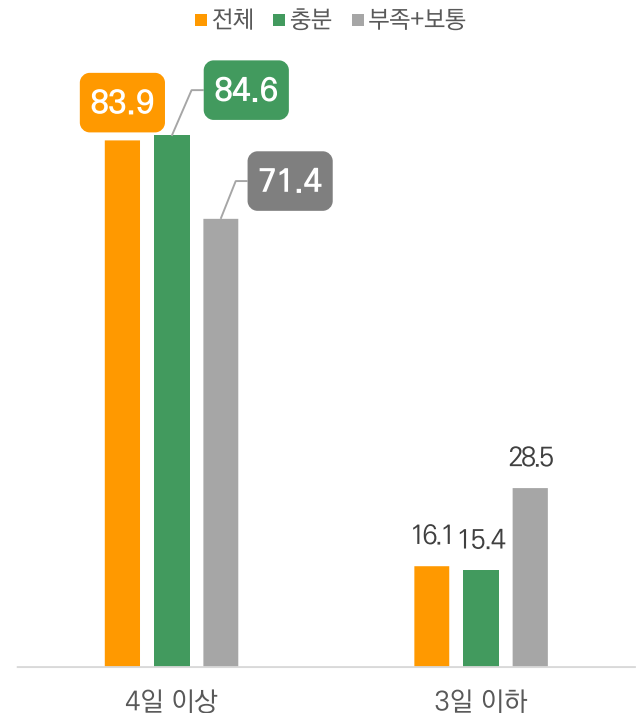
## 편의점·배달음식 섭취율

[Base: 미취학 아동 전체, Unit:%]



## 고기반찬 섭취율

[Base: 미취학 아동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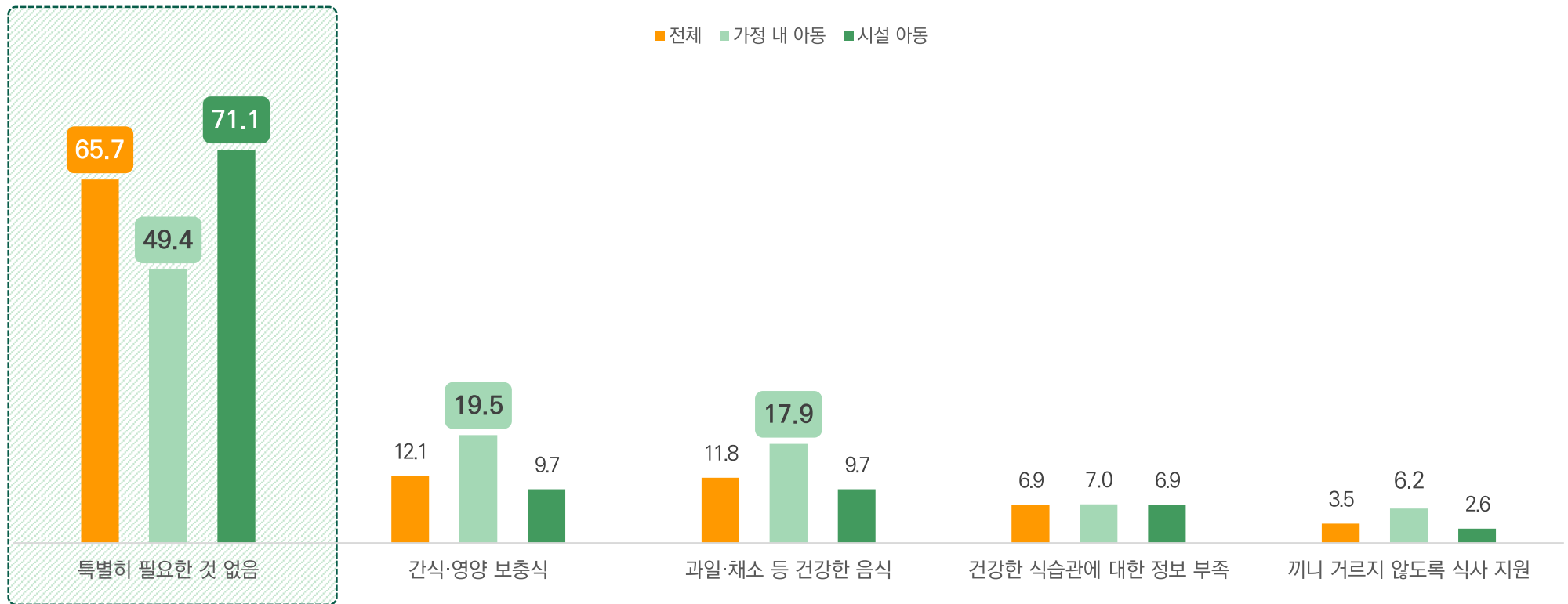
# 가. 미취학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
- '특별히 필요한 것 없음' 응답이 65.7%로 가장 높음.
- 가정 내 아동은 '특별히 필요한 것 없다'는 비율이 절반을 미치지 못하며(49.4%), '간식·영양 보충식'(19.5%)과 '과일·채소 등 건강한 음식'(17.9%) 등 균형 잡힌 식사 지원에 대한 욕구가 약 20%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시설 아동은 '특별히 필요한 것 없음'이 71.1%로 가정 내 아동(49.4%)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며, 여러 추가 지원에 대한 요구 정도도 10% 미만으로 나타남.

⇒ 전체적으로 식사·영양 관련 추가 지원 필요가 높지 않음  
 ⇒ 가정 내 아동 대상의 영양 보충 및 건강식 지원 확대가 필요함.  
 ⇒ 시설 아동은 기초 식생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편임.

## 식사·영양 관련 필요 지원

[Base: 미취학 아동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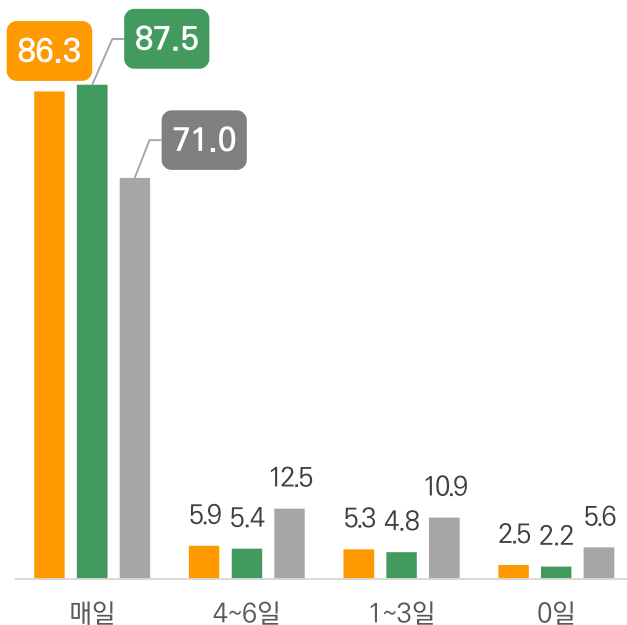
## 나. 초등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
- 초등학생의 86.3%가 매일 아침을 먹는다고 응답, 일주일 내 편의점·배달 음식 ‘전혀 먹지 않음’ 비율 78.0%, 단백질 섭취 주 4일 이상 비율 80.3%로, 미취학 아동보다 식사의 질이 떨어지지만,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남.
- 후원금이 충분한 아동은 매일 아침 섭취하는 비율이 87.5%, 편의점·배달 음식 ‘전혀 먹지 않음’ 비율 79.1%, 고기반찬 주 4일 이상 섭취 81.2%로 나타난 반면, 후원금이 부족+보통 아동의 비율은 각각 71.0%, 64.7%, 69.6%로 나타남.
- 후원금 충분 정도가 높을수록 식사의 질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.

### 아침 섭취율

[Base: 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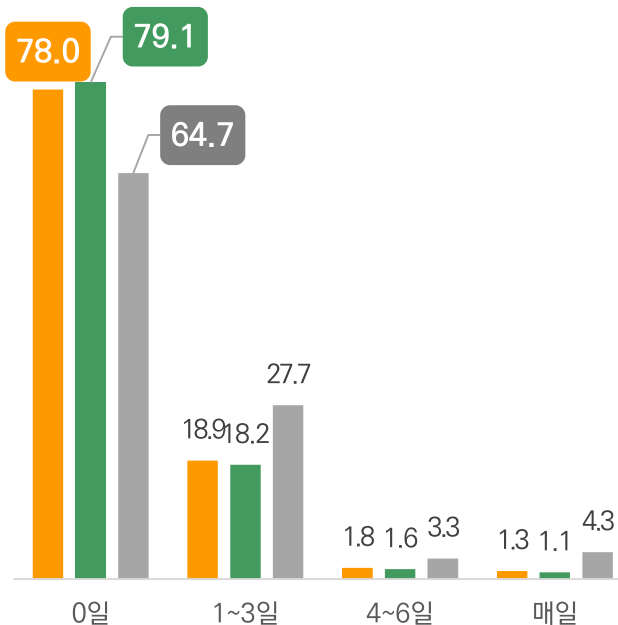
■ 전체 ■ 충분 ■ 부족+보통



### 편의점·배달음식 섭취율

[Base: 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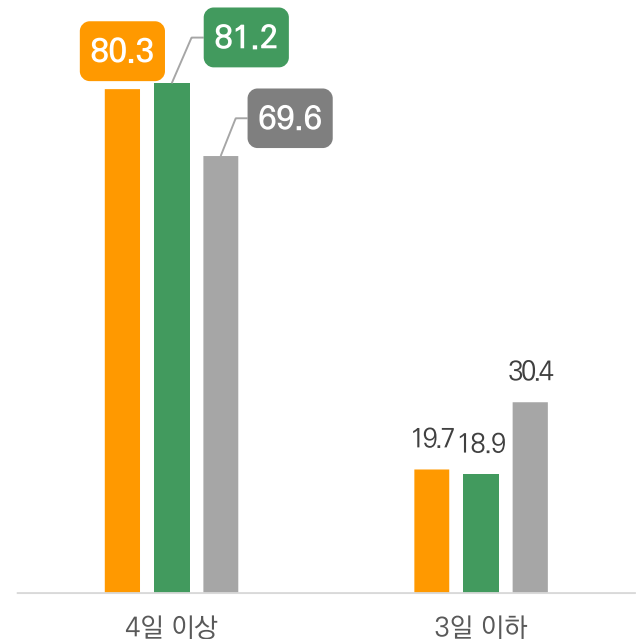
■ 전체 ■ 충분 ■ 부족+보통



### 고기반찬 섭취율

[Base: 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■ 전체 ■ 충분 ■ 부족+보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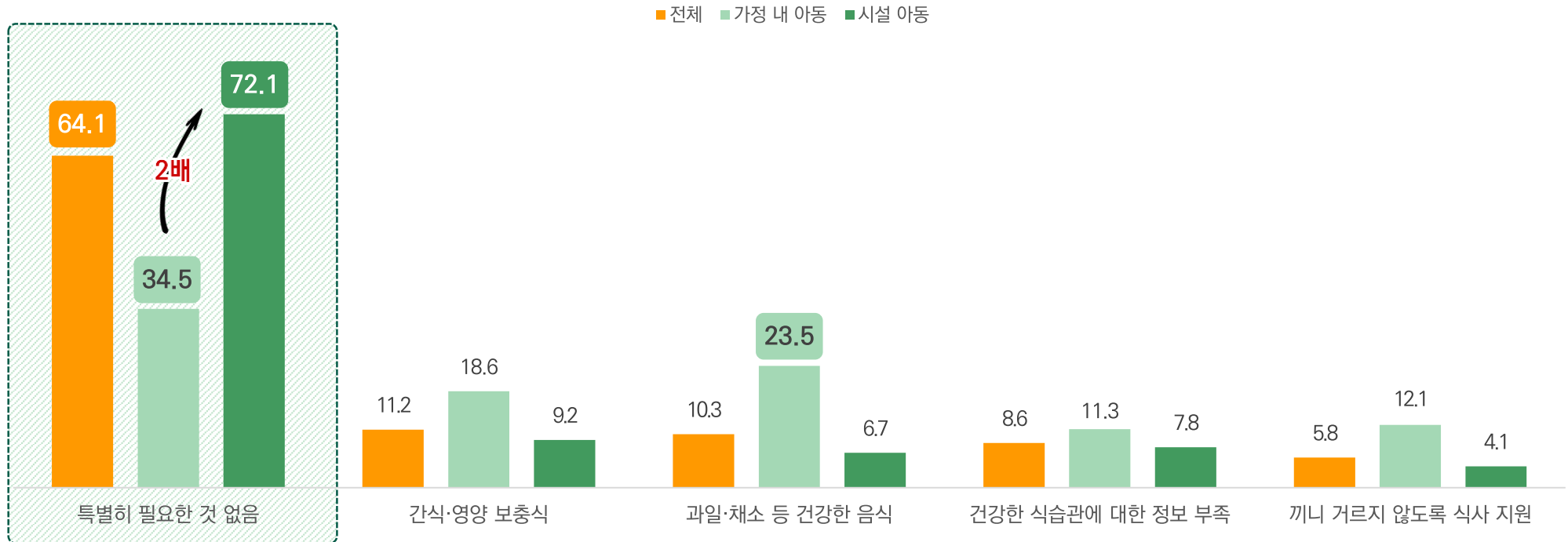
## 나. 초등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
- '특별히 필요한 것 없음' 응답이 64.1%로 가장 높음.
- 가정 내 아동은 '특별히 필요한 것 없다'는 응답이 34.5%로 전체 평균(64.1%)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며, '과일·채소 등 건강한 음식'(23.5%)에 대한 요구도 약 4명 중 1명으로 나타나 식사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.
- 시설 아동은 '특별히 필요한 것 없음'이 72.1%로 가정 내 아동(34.5%)의 약 2배 수치로 높게 나타나며, 여러 추가 지원에 대한 요구 정도도 10% 미만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식사·영양 지원 요구는 크지 않은 편으로 보임.

⇒ 전체적으로 식사·영양 관련 추가 지원 필요가 높지 않음  
 ⇒ 가정 내 아동 대상의 과일·채소 등 건강한 음식 지원 확대가 필요함.  
 ⇒ 시설 아동은 기초 식생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편임.

### 식사·영양 관련 필요 지원

[Base: 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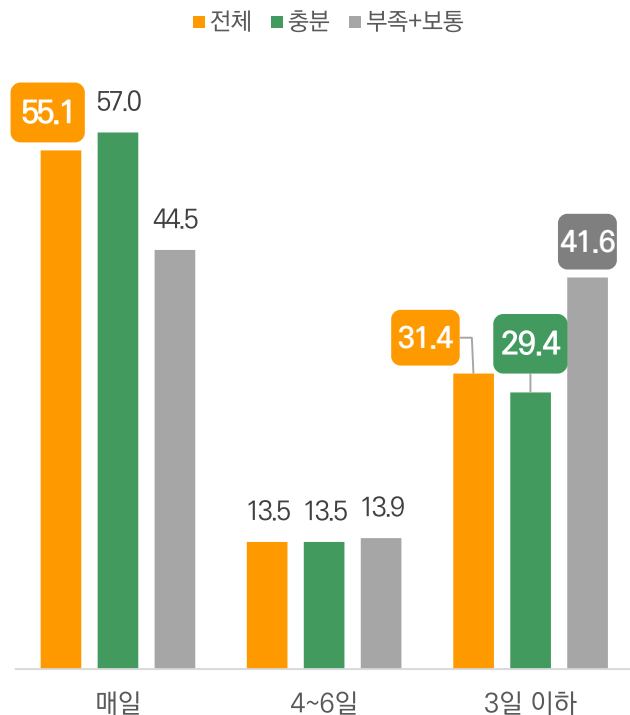


## 다. 중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
- 중학생이 매일 아침을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5.1%로 저학년 대비 급격히 낮아지며, 주 3일 이하로 아침을 먹는 비율이 31.4%로 급증함  
→ 3명 중 1명은 식습관이 불안정한 수준으로 나타남.
- 일주일 내 편의점·배달 음식 미섭취 비율 61.0%로, 학력 상승에 따라 간편식 이용 증가한 것으로 보임.
- 후원금이 충분한 아동은 아침을 주 3일 이하로 섭취하는 비율이 29.4%, 편의점·배달 음식 '전혀 먹지 않음' 비율 62.9%, 고기반찬 주 4일 이상 섭취 73.0%로 나타난 반면, 후원금이 부족+보통 아동의 비율은 각각 41.6%, 50.8%, 62.2%로 나타남.
- 후원금이 부족한 아동은 충분한 아동에 비해 식사의 질이 낮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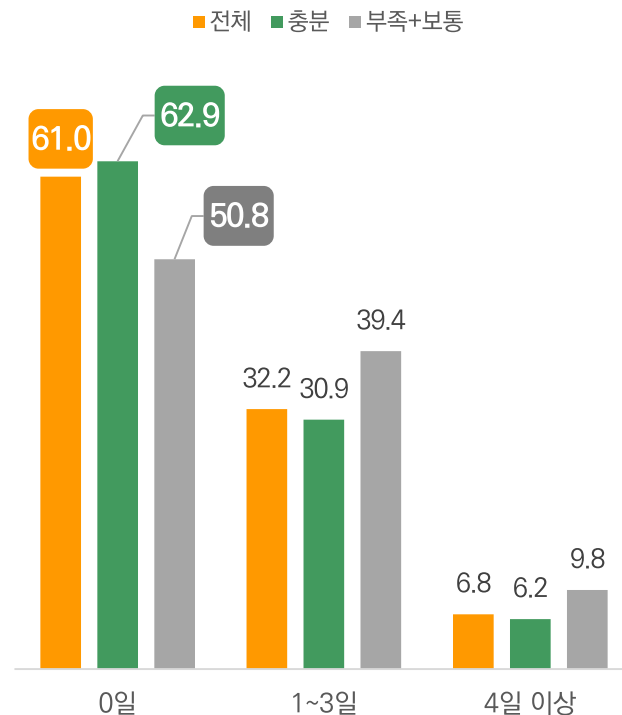
### 아침 섭취율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 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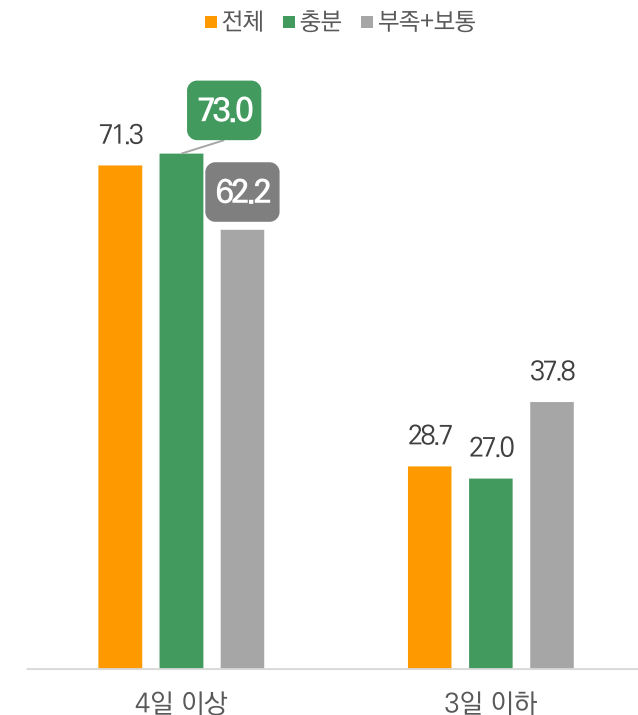
### 편의점·배달음식 섭취율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 %]



### 고기반찬 섭취율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 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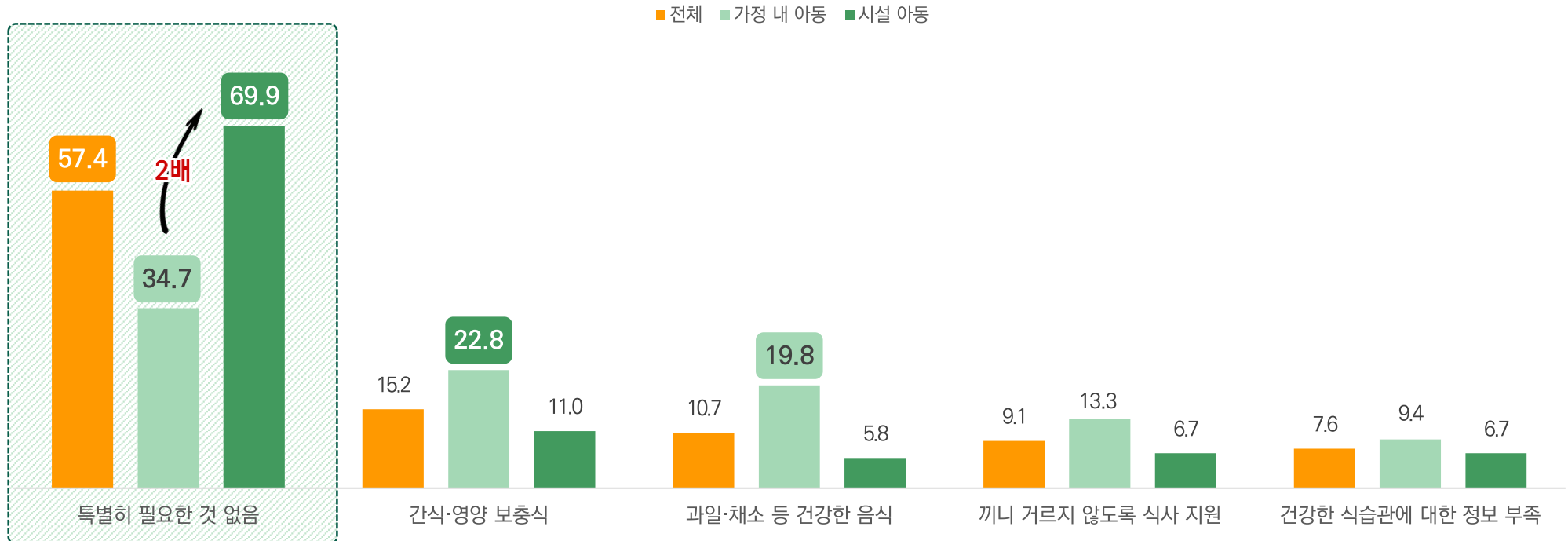
## 다. 중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
- '특별히 필요한 것 없음' 응답이 57.4%로 가장 높으나, 미취학 및 초등학생에 비해 비율이 떨어짐.
- 가정 내 아동은 '특별히 필요한 것 없음' 응답이 34.7%로 전체(57.4%) 대비 낮은 편이며, '간식·영양 보충식 부족'(22.8%)과 '과일·채소 등 건강한 음식 부족'(19.8%) 등 영양의 질·균형 관련 요구가 높게 나타남.
- 시설 아동은 '특별히 필요한 것 없음'이 69.9%로 가정 내 아동(34.7%)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, 여러 추가 지원에 대한 요구 정도도 10% 미만으로 나타남.

⇒전체적으로 식사·영양 관련 추가 지원 필요가 높지 않음.  
 ⇒가정 내 아동 대상의 영양 보충 및 건강식 지원 확대가 필요함.  
 ⇒시설 아동은 기초 식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이며, 추가적인 식사·영양 지원 필요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.

### 식사·영양 관련 필요 지원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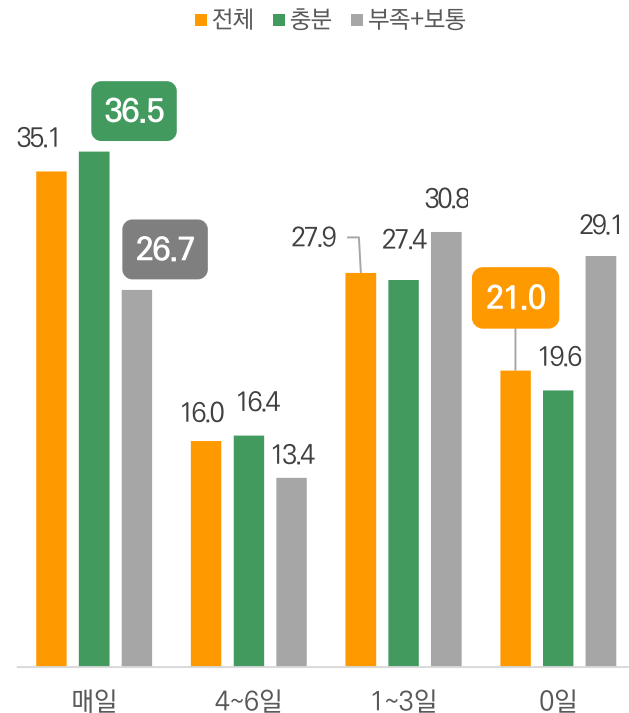


# 라. 고등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
- 고등학생의 21.0%가 아침을 전혀 먹지 않음 → 5명 중 1명 아침 결식
- 편의점/배달 음식 주 4일 이상 섭취 8.8% → 약 11명 중 1명은 영양불균형한 식사
- 후원금이 충분한 아동은 부족+보통군 아동보다 전반적으로 식사의 질이 높음.
- ‘매일’ 아침 섭취율: 충분 36.5% vs 부족+보통 26.7%
- 편의점·배달 음식 ‘주 4일 이상’ 섭취: 충분 8.3% vs 부족+보통 11.9%
- 고기반찬 주 ‘4일 이상 섭취’: 충분 65.6% vs 부족+보통 48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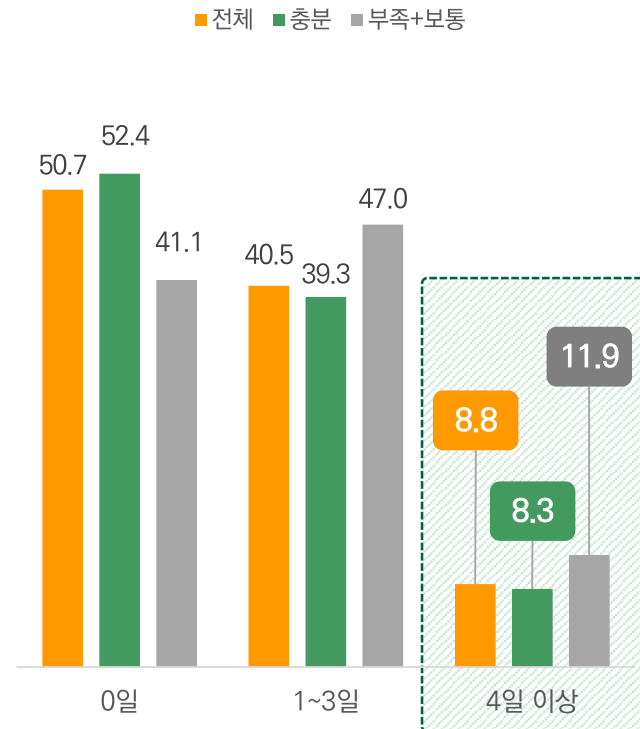
## 아침 섭취율
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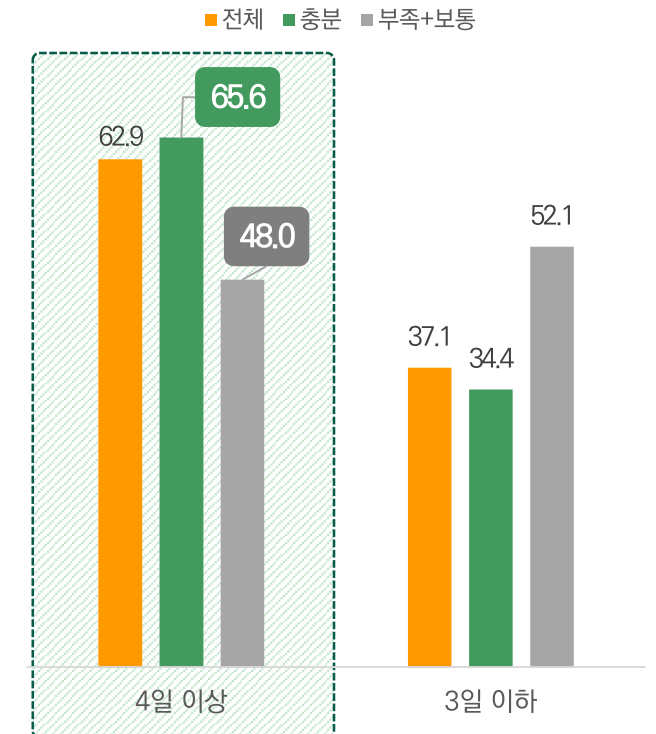
## 편의점·배달음식 섭취율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 고기반찬 섭취율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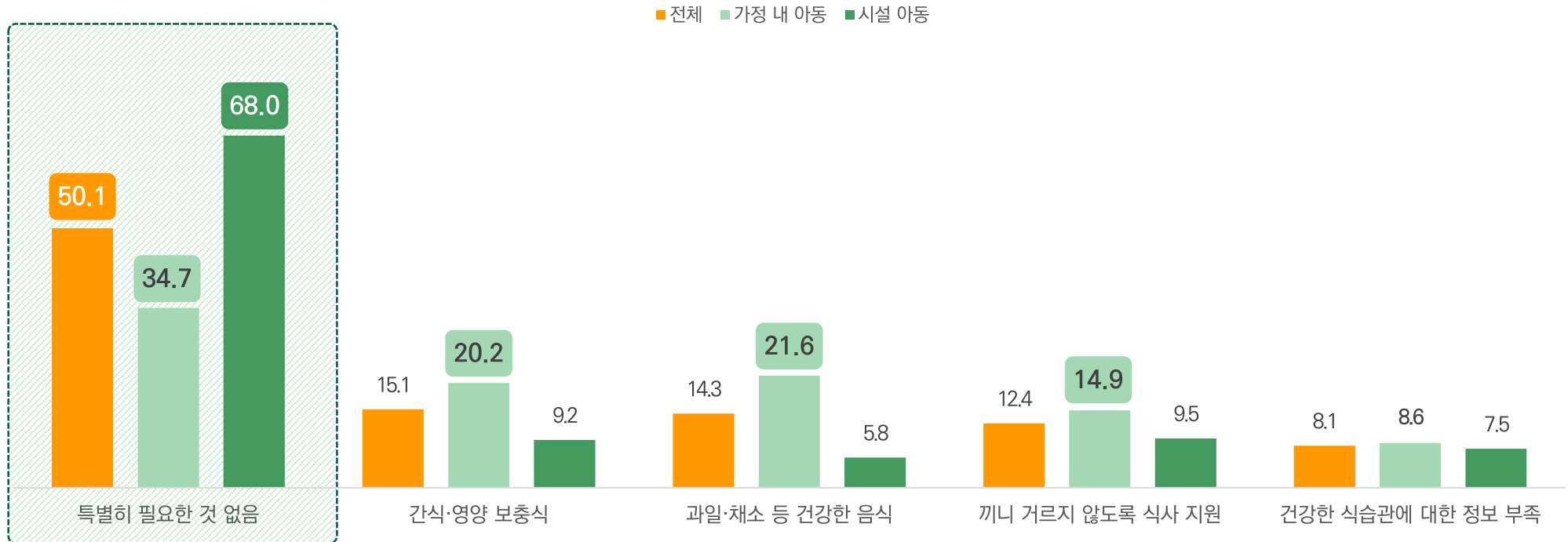
## 라. 고등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
- '특별히 필요한 것 없음' 응답이 50.1%로 절반 수준이며, 전학령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남.
- 가정 내 아동은 '특별히 필요한 것 없음' 응답이 34.7%로 전체(50.1%) 대비 낮게 나타나며, '과일·채소 등 건강한 음식 부족'(21.6%), '간식·영양 보충식 부족'(20.2%), '끼니 거르지 않도록 식사지원 필요'(14.9%) 순으로 영양의 질·균형 및 기본 식사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고르게 나타남.
- 시설 아동은 '특별히 필요한 것 없음' 응답이 68.0%로 전체(50.1%) 및 가정 내 아동(34.7%)보다 훨씬 높으며, 나머지 항목들은 대부분 10% 미만임

⇒ 식사·영양 관련 추가 지원 필요가 높아짐.  
 ⇒ 가정 내 아동 대상의 건강식·영양 보충 식품 지원 및 기본 식사 안정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.  
 ⇒ 시설 아동의 기본 식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이며, 추가적 영양 지원 요구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판단됨.

### 식사·영양 관련 필요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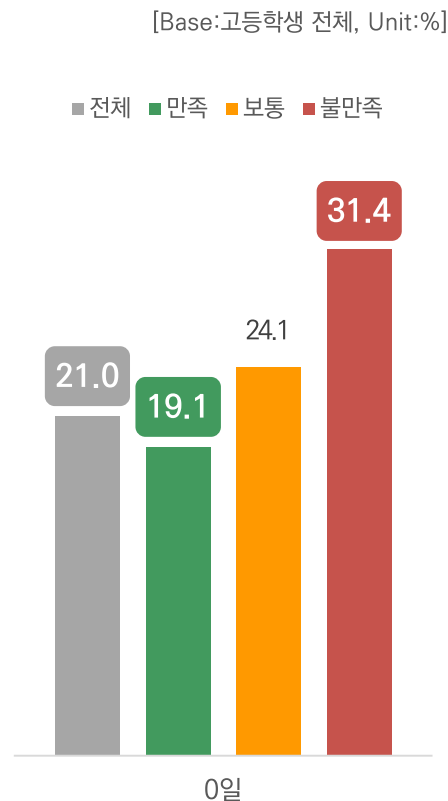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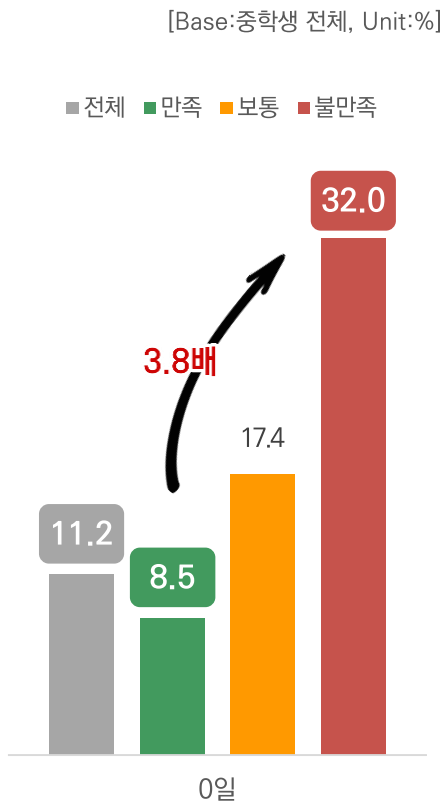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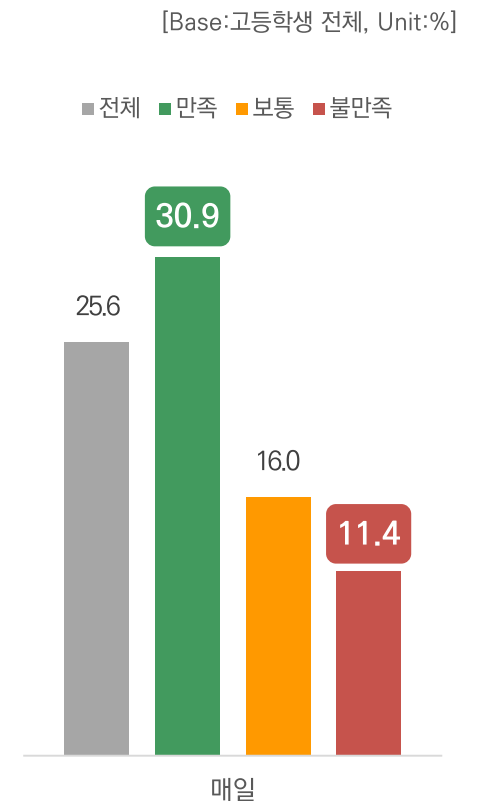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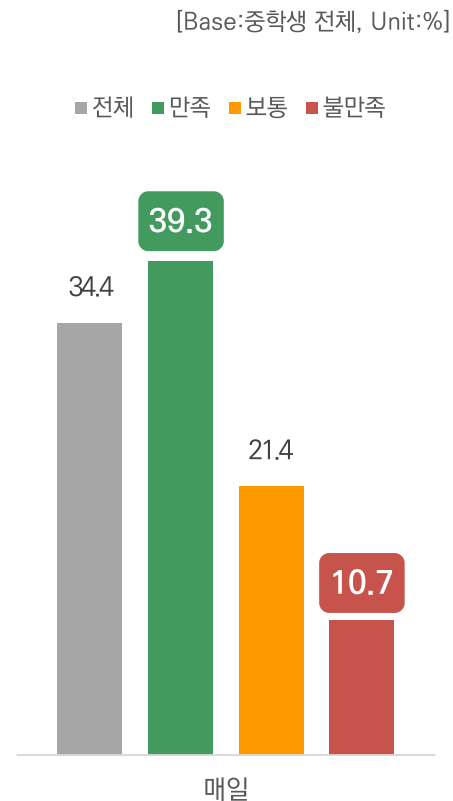
# 마. 주거환경 만족도별 **근황** 분석 결과 :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
- 중학생의 경우 주거환경 만족 그룹의 아침 결식률은 8.5%인 반면, 불만족 그룹은 32.0%로 약 4배 가까이 높아 식습관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짐.
- 고등학생의 아침 결식률은 전체 21.0%로 중학생(11.2%)보다 높으며, 만족 그룹(19.1%)에 비해 불만족 그룹은 31.4%로 높은 수준을 보임.
- 중학생의 ‘매일’ 고기반찬 섭취율도 만족 그룹 39.3%에 비해 불만족 그룹은 10.7%로 크게 낮아 영양 섭취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.
- 고등학생의 ‘매일’ 고기반찬 섭취율도 주거환경 만족 그룹 30.9%에서 불만족 그룹 11.4%로 큰 차이를 보이며,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른 식사 질 차이가 명확하게 확인됨.

## 아침 결식률



## 고기반찬 섭취율



# 마. 주거환경 만족도별 욕구 분석 결과 :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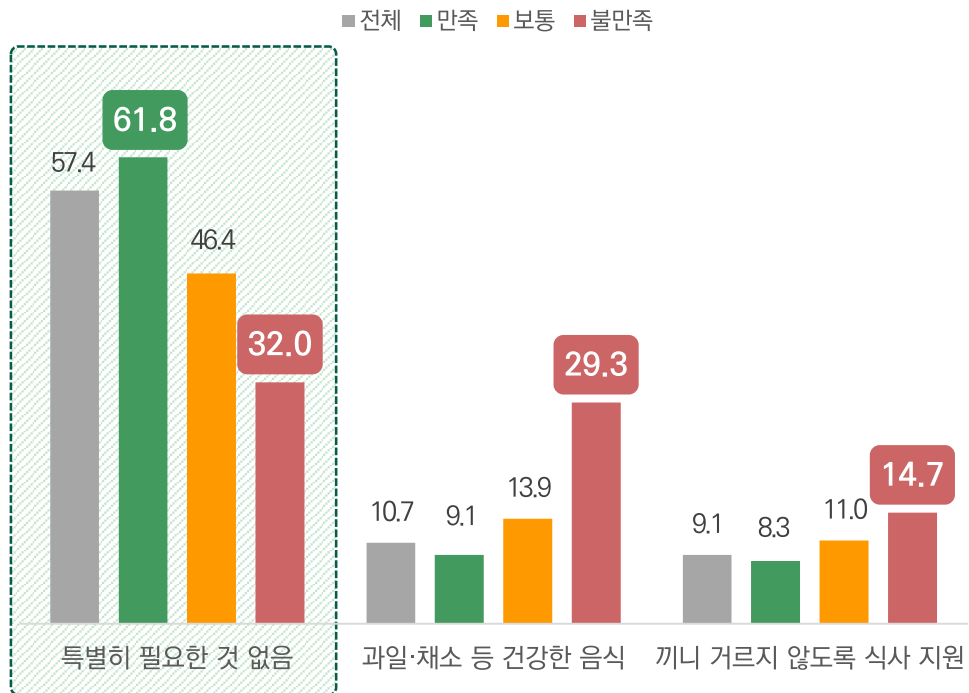
- 주거환경 만족군 중·고등학생은 ‘특별히 필요 없음’ 응답이 각각 61.8%, 57.9%로 높게 나타나지만, 불만족군에서는 각각 32.0%, 18.1%로 크게 낮아짐.
- 중학생의 불만족 그룹은 ‘과일·채소 등 건강한 음식’(29.3%)과 ‘끼니 거르지 않도록 식사 지원’(14.7%) 요구가 높아, 영양의 질과 결식 예방에 대한 필요도가 뚜렷하게 나타남.
- 고등학생의 불만족 그룹 역시 ‘과일·채소 등 건강한 음식’(24.8%)과 ‘끼니 거르지 않도록 식사 지원’(26.7%) 요구가 주요 항목으로 나타나며, 만족 그룹 대비 식사 관련 지원 필요성이 확연히 높은 수준임.

⇒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아동일수록 식사·영양 관련 지원에 대한 요구가 뚜렷하게 나타나, 아동의 생활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원 영역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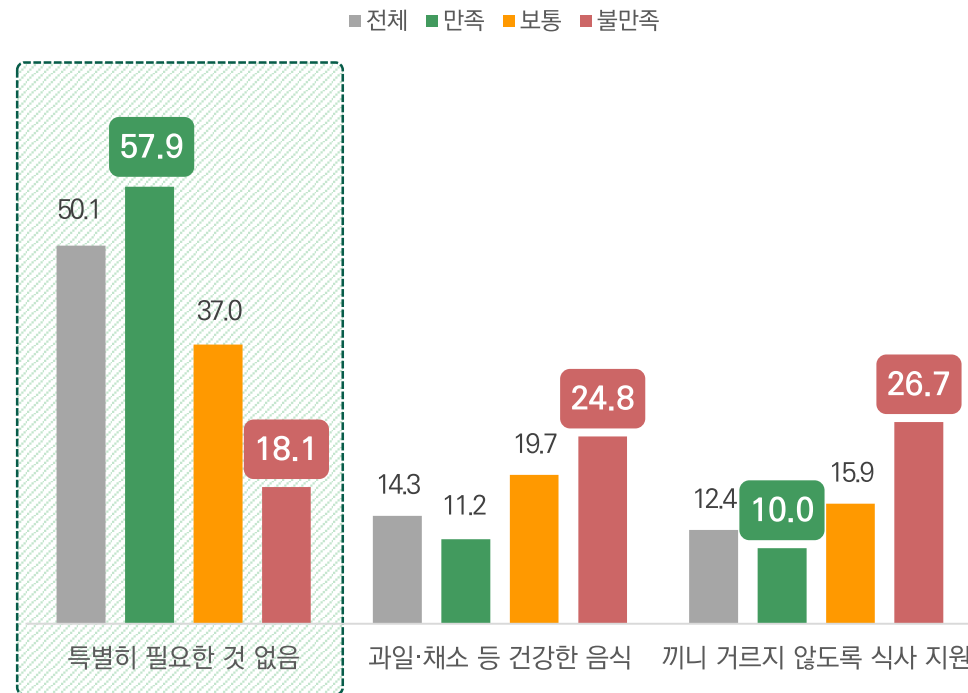
⇒ 특히 중·고등학생 불만족 그룹에서는 건강한 음식 제공과 결식 예방에 대한 요구가 공통적으로 높아, 기본적인 식생활 지원이 핵심 필요 영역으로 확인됨.

## 식사·영양 관련 필요 지원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 바. 학령간 분석 결과 및 시사점 -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
##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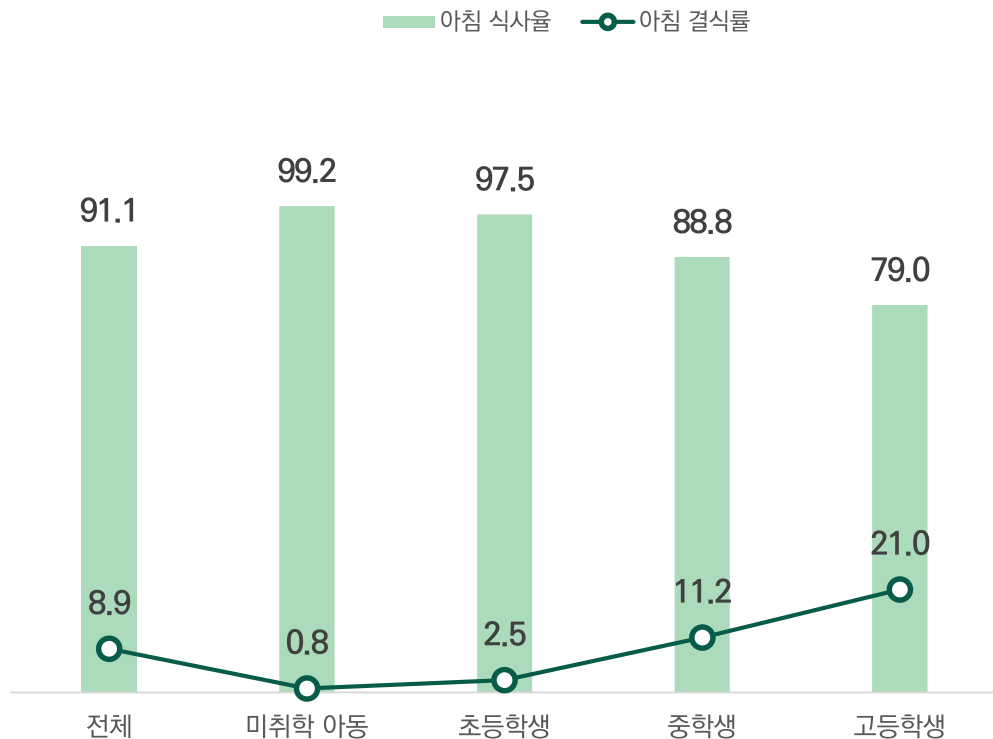
- 학령이 높아질수록 식사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됨.
- '아침 결식률'은 미취학(0.8%) → 초등(2.5%) → 중등(11.2%) → 고등(21.0%)로 급증함.
- 고등학생의 21%는 아침을 전혀 먹지 않음 → 영양 불균형 심화됨.
- 후원금 부족 아동은 모든 연령에서 식사 질이 더 낮게 나타남.

## 시사점

- 학업 부담 증가와 불규칙한 생활이 기초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.
- 고등학생에서 영양 불균형 위험이 가장 심각, 개입 필요성이 높음.
- 경제적 취약성이 식생활 안정에 직접적 영향 → 지원 격차 확대 우려
- 연령·경제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식생활 및 영양 지원 강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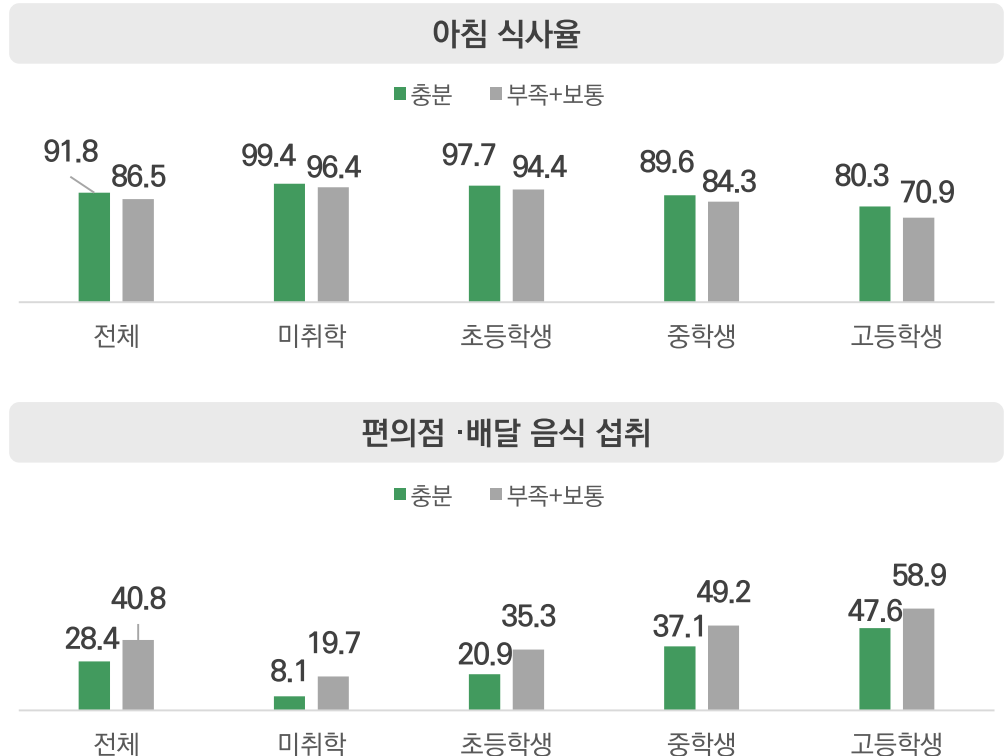
### 학령별 아침 식사율

[Base:학령 별 전체, Unit:%]



### 후원금에 따른 식사 현황 비교

[Base:학령 별 전체, Unit:%]



# 사. 종합 제언 : 「한 끼의 힘」 프로젝트

## “따뜻한 한 끼, 건강한 내일”

- ✍ 시설 아동은 가정 아동보다 아침식사·단백질 섭취율이 높아 시설급식 효과가 나타남.
- ✍ 후원금이 충분한 아동은 기초 식생활이 안정적이며, 결식·편의식 섭취율이 낮아 후원금이 영양 안정성에 기여함.

### 콘텐츠 구성안

#### 아이들의 영양 결핍을 줄이는 맞춤형 콘텐츠

##### 핵심 메시지

- ☑ “후원금이 아동의 식생활 안정에 핵심 역할을 하지만, 여전히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 교육은 필요하다.”

##### 콘텐츠 목표

- ☑ 단순히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, 아동 스스로 ‘건강한 식습관을 배우고 실천하는 힘’ 기르는 것
- ☑ 모든 아이가 ‘한끼의 힘’을 통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

##### 콘텐츠 내용

- ☑ ‘내가 만든 아침’, ‘건강 도시락 챌린지’ 등 자주적 식습관 교육
- ☑ 식단 짜보기·영양 맞추기 게임
- ☑ 학교와 연계한 “건강한 한 끼 주간”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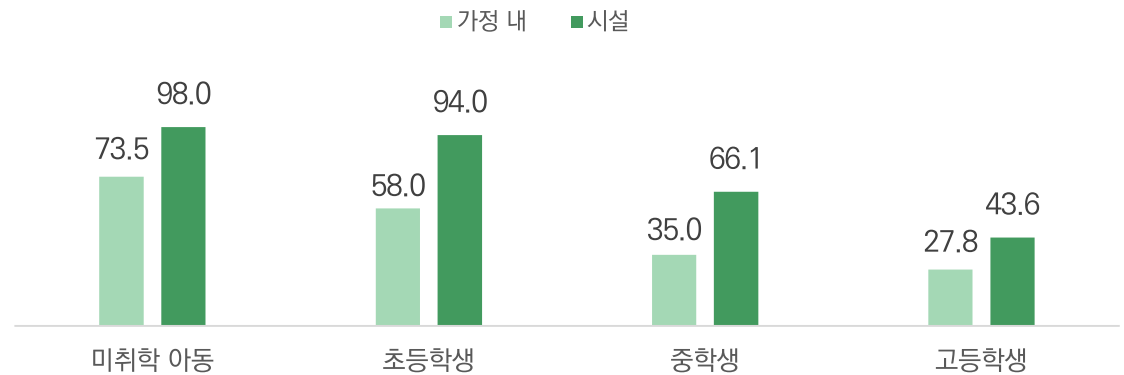
##### 기대 효과

- ☑ 결식률 감소
- ☑ 영양 균형 향상
- ☑ 건강한 식습관 구축
- ☑ 후원권 효율성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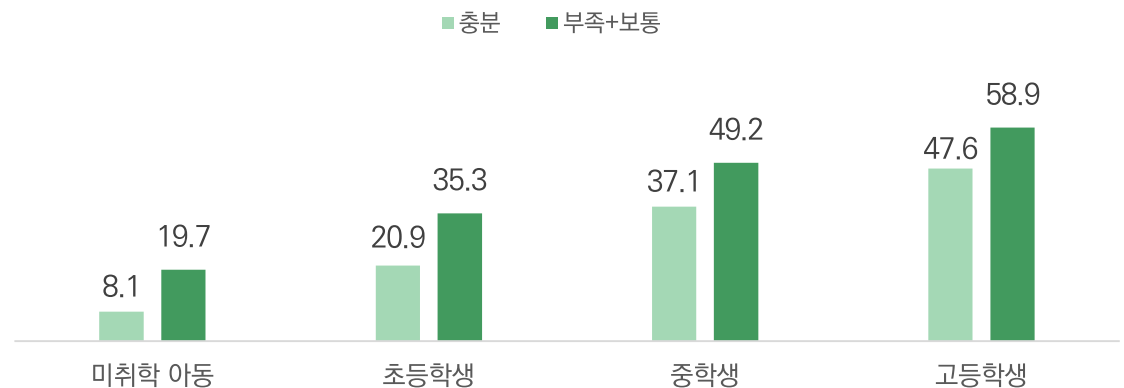
### 기초 식생활 안정성 비교

[Base:학령 별 전체, Unit:%]

#### 아침 식사율



#### 편의식 섭취율



PART /



# 주요 주제별 분석 결과

1.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2. 스트레스
3. 정서적 어려움
4. 주관적 행복감 및 관계 만족도
5. 새학기 현황
6. 사교육
7.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8. 자립 능력과 준비 정도
9.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10.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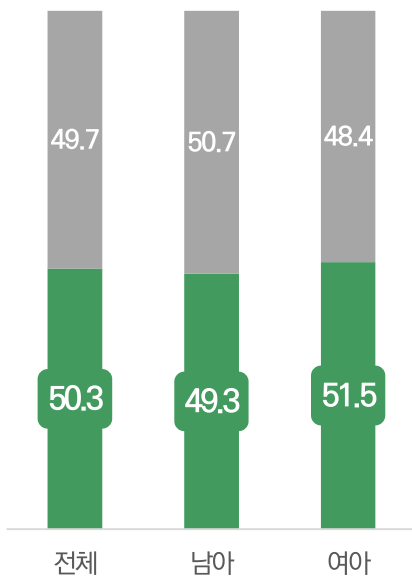
# 가. 초등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스트레스

-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50.3%로, 남아 49.3%, 여아 51.5%로 성별 간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. 이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임.
- 후원금 충분군(10.5%)에 비해 부족군(22.4%)의 스트레스 수준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.
- 스트레스 주요 요인은 ‘주변 사람들과의 관계’(38.3%), ‘공부·시험 부담’(27.5%) 순으로 나타남.
- 시설 아동은 ‘주변 사람들과의 관계’(43.0%) 응답 비율이 가정 내 아동(23.5%)보다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나 관계·환경적 스트레스가 두드러짐. 반면, 가정 내 아동은 ‘공부·시험 부담’(35.5%) 응답 비율이 시설 아동(25.0%)에 비해 높게 나타나,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더 크게 체감함.

##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상태

[Base: 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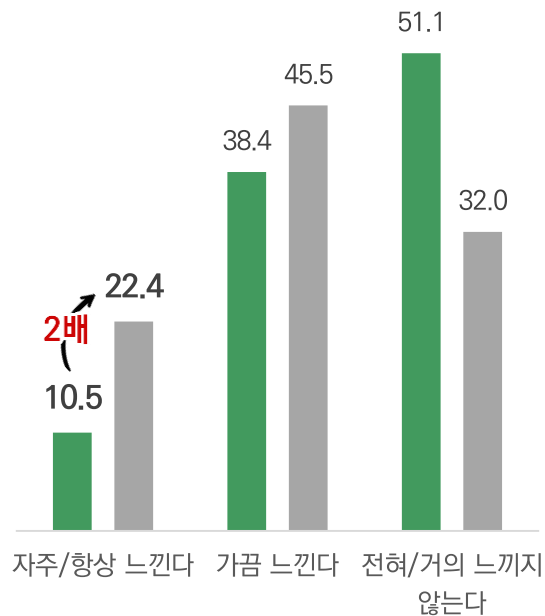
- 전혀/거의 느끼지 않는다
- 자주/항상 가끔 느낀다



## 후원금 충분도에 따른 스트레스 상태

[Base: 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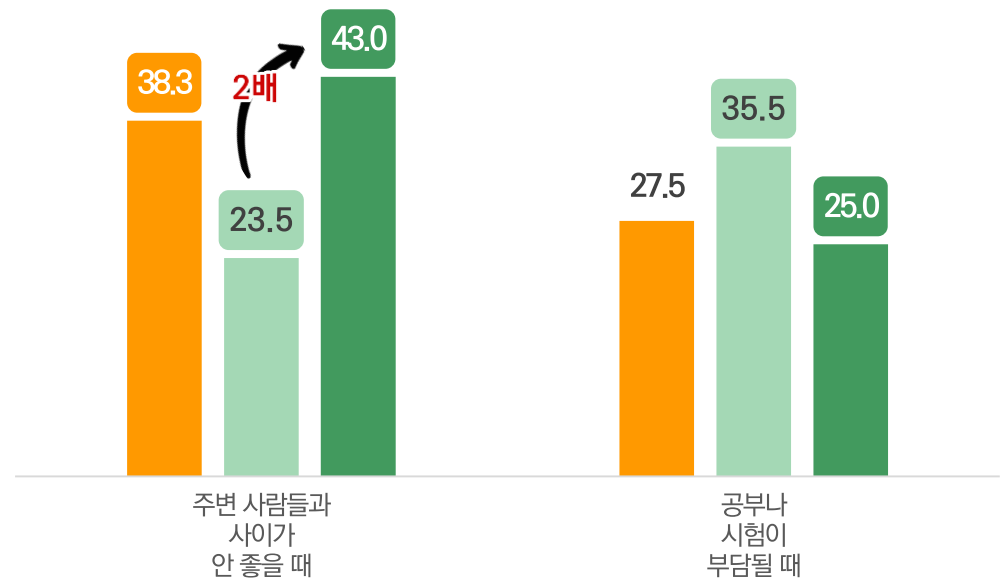
- 충분
- 부족+보통



## 스트레스 요인

[Base: 스트레스 경험 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- 전체
- 가정 내 아동
- 시설 아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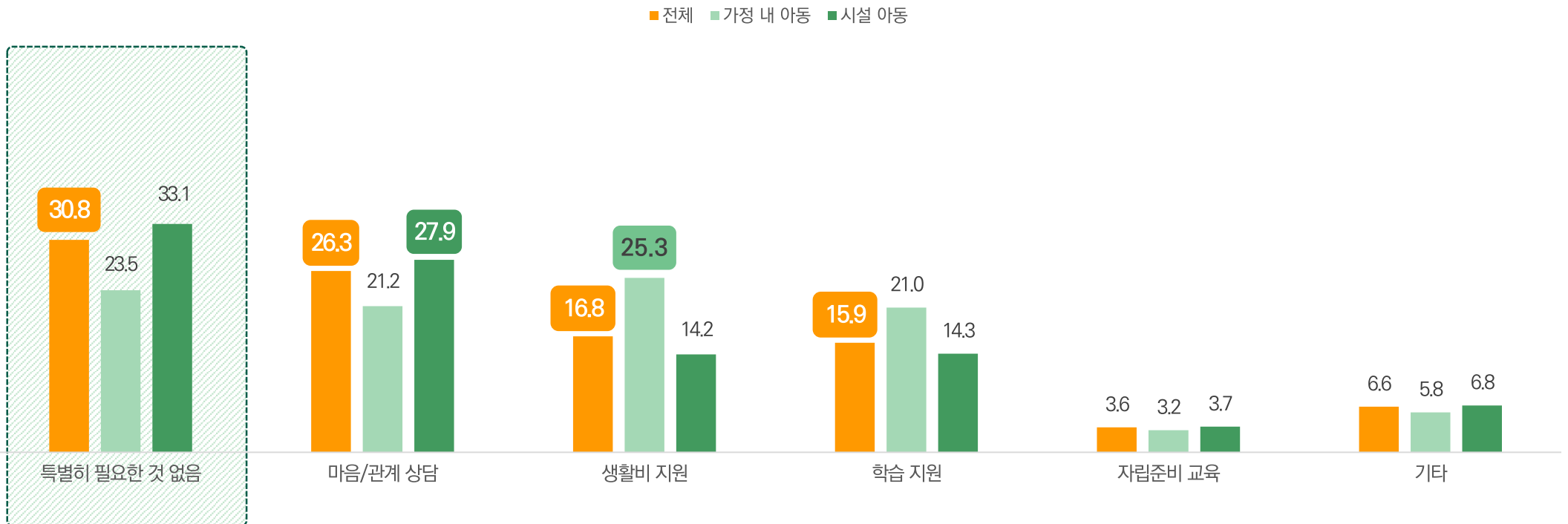
# 가. 초등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스트레스

- 초등학생이 필요로 하는 스트레스 해소방안은 '특별히 필요한 것 없음'(30.8%)이 가장 높게 나타남. 그 외에는 '마음이나 감정에 대한 상담'(26.3%), '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생활지원'(16.8%), '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지원'(15.9%) 순으로 응답이 나타나, 정서적 지지와 일상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드러남.
- 시설 아동은 상담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나며(27.9%), 가정 내 아동은 생활비 지원 요구가 두드러짐(25.3%).

⇒ 초등학생은 일상적 돌봄과 안정된 환경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 부담을 줄일 수 있음.  
 ⇒ 시설 아동은 상담 중심, 가정 내 아동은 생활지원 중심의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해, 아동 유형별 맞춤 지원 체계가 요구됨.

## 스트레스 해소방안

[Base: 스트레스 경험 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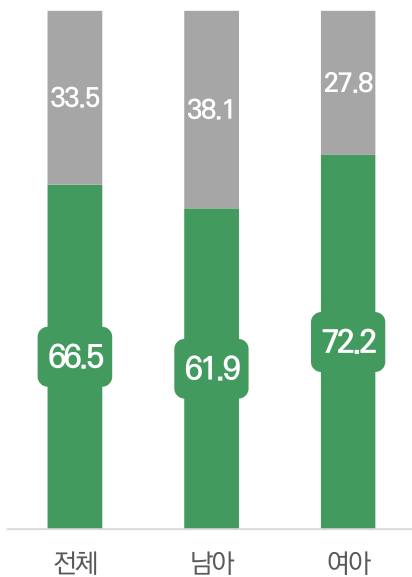
## 나. 중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스트레스

- 중학생 중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66.5%로 10명 중 6명 이상 수준이며, 초등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.
- 그중 남학생은 61.9%, 여학생은 72.2%로 여학생의 스트레스 경험률이 더 높아,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자주 체감하는 것으로 해석됨.
- 후원금 충분군(64.4%)에 비해 부족군(78.1%)의 스트레스 수준이 뚜렷하게 높아, 후원금 충분 정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됨.
- 스트레스 주요 요인은 '공부·시험 부담'이 36.1%로 가장 높고, 이어 '주변 사람들과의 관계' 31.2%, '필요한 걸 못 살 때' 10.8% 순으로 나타남.
- 가정 내 아동은 '공부·시험 부담'이 43.4%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크게 체감하는 반면, 시설 아동은 '주변 사람들과의 관계'가 36.4%로 가장 높아 관계적 스트레스가 더 두드러짐.

###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상태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 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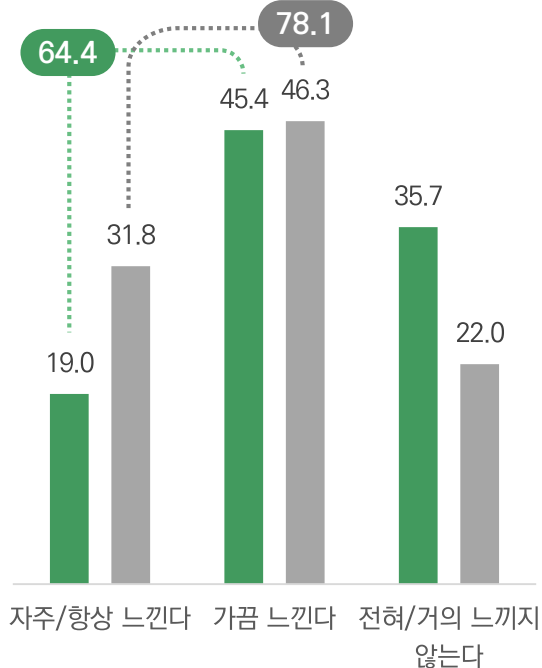
■ 전혀/거의 느끼지 않는다  
■ 자주/항상/가끔 느낀다



### 후원금 충분도에 따른 스트레스 상태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 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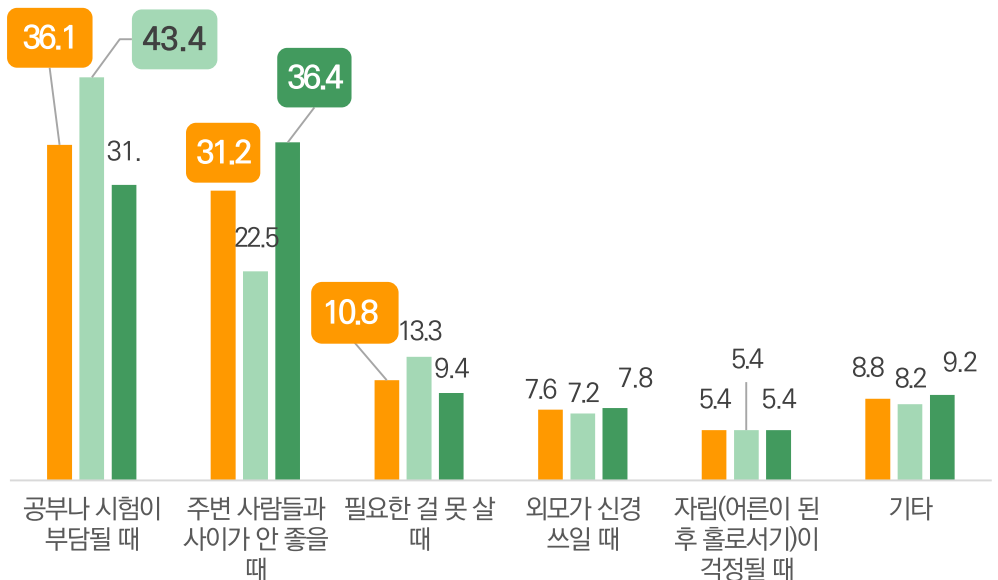
■ 충분  
■ 부족+보통



### 스트레스 요인

[Base: 스트레스 경험 중학생 전체, Unit: %]

■ 전체  
■ 가정 내 아동  
■ 시설 아동



## 나. 중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스트레스

- 중학생이 필요로 하는 스트레스 해소 방안은 '생활비 지원'이 26.0%로 가장 높고, 이어서 '상담' 18.6%, '학습지원' 13.1% 순으로 나타남. 이는 경제적 부담·정서적 스트레스·학업 부담이라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 아동들의 해소 요구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모습임.
- 가정 내 아동은 생활비 지원 요구가 32.6%로 가장 높았으며, 학업 스트레스가 큰 그룹인 만큼 학습지원 요구도 19.8%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.
- 반면 시설 아동은 관계 스트레스가 두드러지는 그룹으로 상담 요구가 20.6%로 가정 내 아동(15.4%)보다 높게 나타났고, 생활비 지원 요구도 22.0%로 높은 편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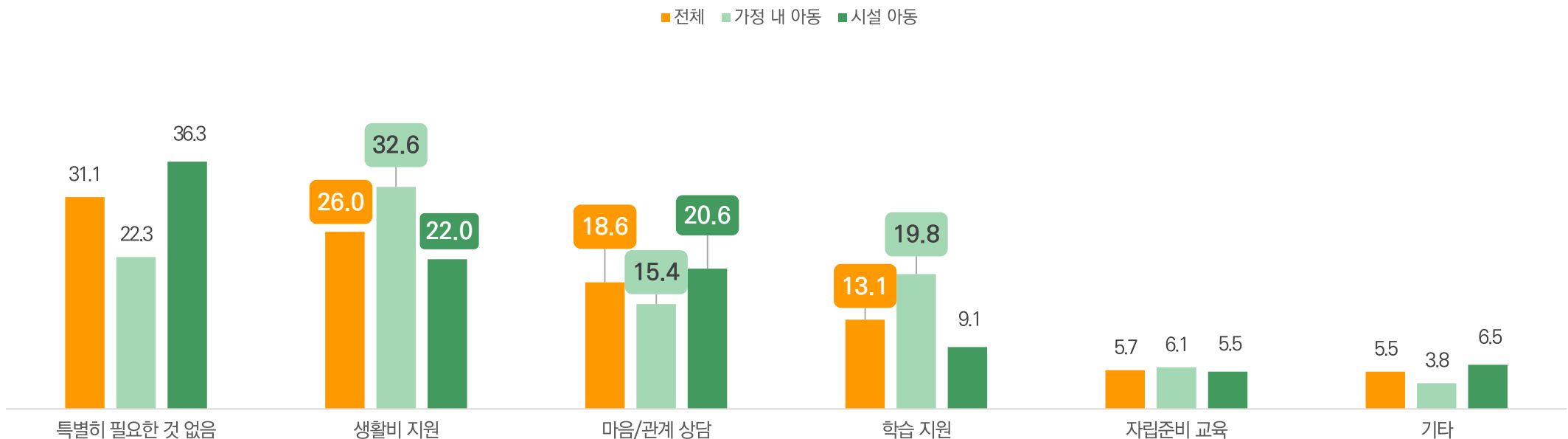
⇒가정 내 아동은 생활비와 학업 부담이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나, 생활비 지원과 학습지원 중심의 통합 접근이 필요함.

⇒시설 아동은 관계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, 정서 상담 중심의 지원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.

⇒아동이 처한 거주 환경과 스트레스 원인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명확히 다르므로, 생활·학습·상담 영역을 구분한 맞춤형 스트레스 완화 지원 체계가 요구됨.

### 스트레스 해소방안

[Base: 스트레스 경험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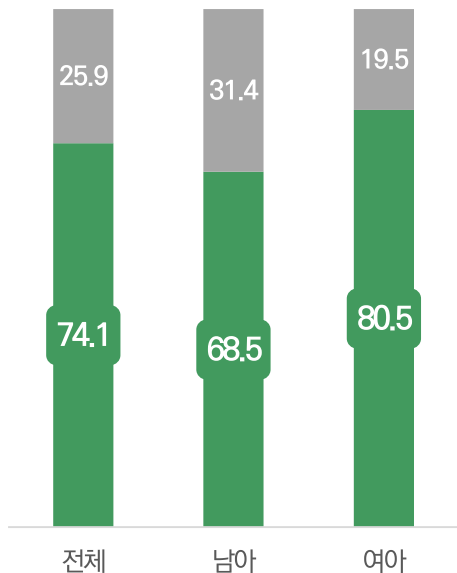
## 다. 고등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스트레스

- 고등학생 중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율은 74.1%로 4명 중 3명 수준이며, 초·중학생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.
- 남학생 68.5%, 여학생 80.5%로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스트레스 경험률이 더 높아, 여학생의 스트레스 체감이 더욱 크게 나타남.
- 후원금 충분군(72.3%)에 비해 부족군(84.3%)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나, 후원금 충분 정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됨.
- 스트레스 주요 요인은 '공부·시험 부담'이 36.2%로 가장 높고, 이어 '주변 사람들과의 관계' 22.5%, '필요한 걸 못 살 때' 15.9% 순으로 나타남.
- 가정 내 아동은 '공부·시험 부담'이 41.6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시설 아동 역시 '공부·시험 부담'이 29.3%로 1순위 요인으로 확인됨. 이는 양 그룹 모두 고등학생 진입에 따라 학업 부담이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.
- 시설 아동은 '주변 사람과의 관계'로 인한 스트레스도 27.2%로 높게 나타나, 학업 부담과 유사한 수준의 관계 스트레스가 함께 확인됨.

### 스트레스 상태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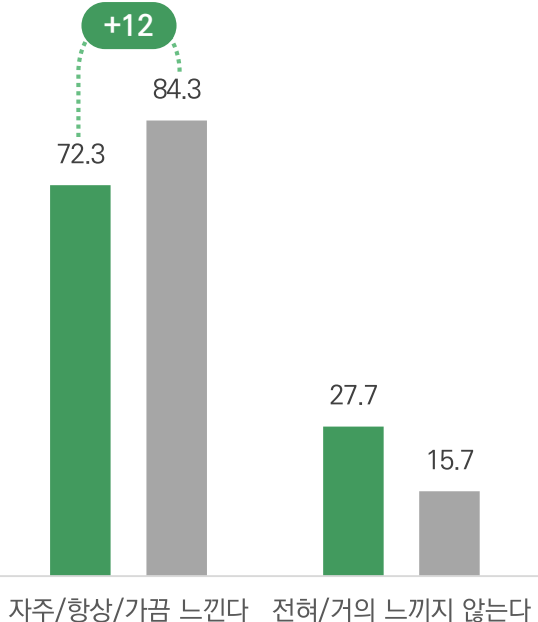
■ 자주/항상/가끔 느낀다 ■ 전혀/거의 느끼지 않는다



### 후원금 충분도에 따른 스트레스 상태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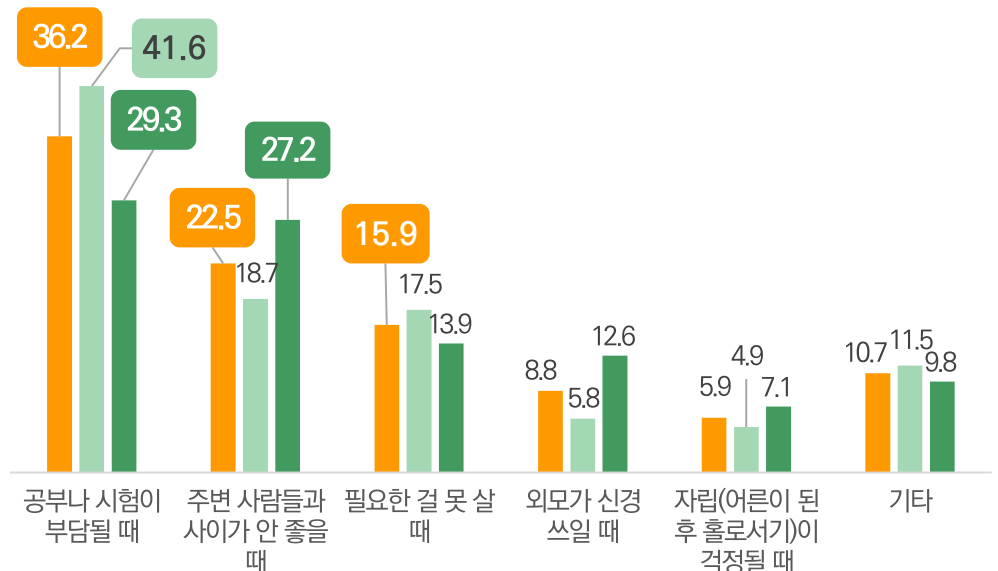
■ 충분 ■ 부족+보통



### 스트레스 요인

[Base: 스트레스 경험 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■ 전체 ■ 가정 내 아동 ■ 시설 아동



## 다. 고등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스트레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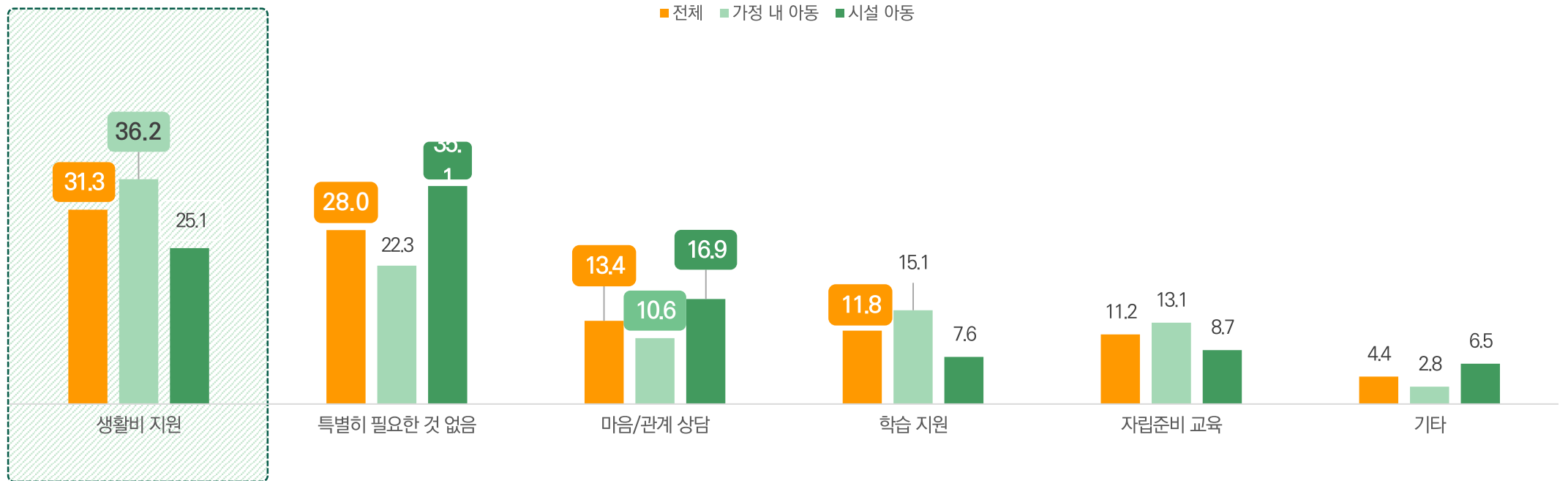
- 고등학생이 필요로 하는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는 '생활비 지원'이 31.3%로 가장 높아 전 학령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. 이어서 '특별히 필요 없음' 28.0%, '상담' 13.4%, '학습지원' 11.8% 순으로 나타남.
- 학업 부담이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지만, 해소 요구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더 크게 반영된 모습임.
- 가정 내 아동은 생활비 지원 요구가 36.2%로 매우 높아, 경제적 압박이 학업 스트레스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. 시설 아동은 '특별히 필요한 게 없음'(35.1%) 응답이 가장 높지만, 상담 요구(16.9%)는 가정 내 아동(10.6%)보다 높아 정서적 지원 필요성이 더 크게 나타남.

⇒ 고등학생은 학업·경제·정서 부담이 복합적으로 큰 시기인 만큼 생활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 지원과 정서 상담 확대, 학습·진로 지원 프로그램 강화가 동시에 필요함.

⇒ 가정 내 아동은 생활비·학습지원 중심, 시설 아동은 상담·정서지원 중심으로 접근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.

### 스트레스 해소방안

[Base: 스트레스 경험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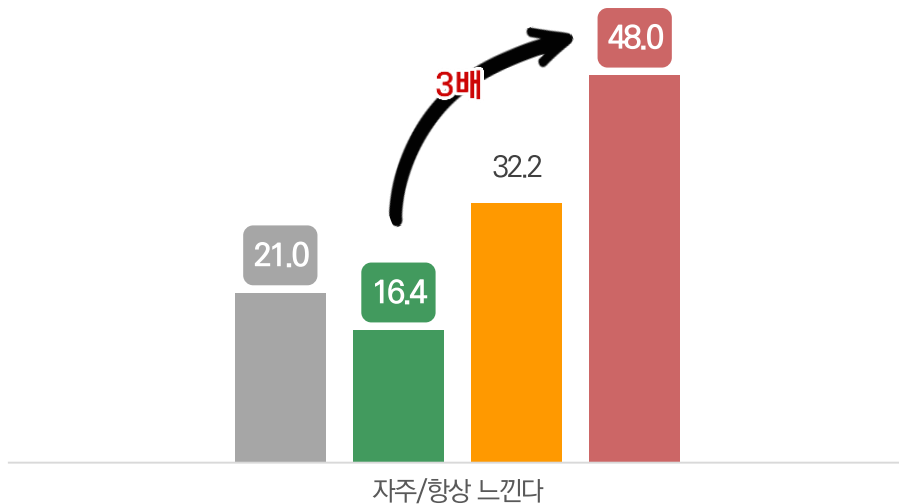
## 라. 주거환경 만족도별 **근황** 분석 결과 : 스트레스

- 중학생의 경우, ‘스트레스를 자주/항상 느낀다’는 응답 비율은 주거환경 만족군에서 16.4%로 나타난 반면, 불만족군에서는 48.0%로 높게 나타나 만족군 대비 약 3배 수준의 차이가 확인됨.
- 고등학생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, 만족군의 ‘자주/항상 스트레스 경험’ 비율은 19.0%인 반면, 불만족군은 58.1%로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남.
- 중·고등학생 모두에서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며, 이러한 차이는 고등학생에서 절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.

###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른 스트레스 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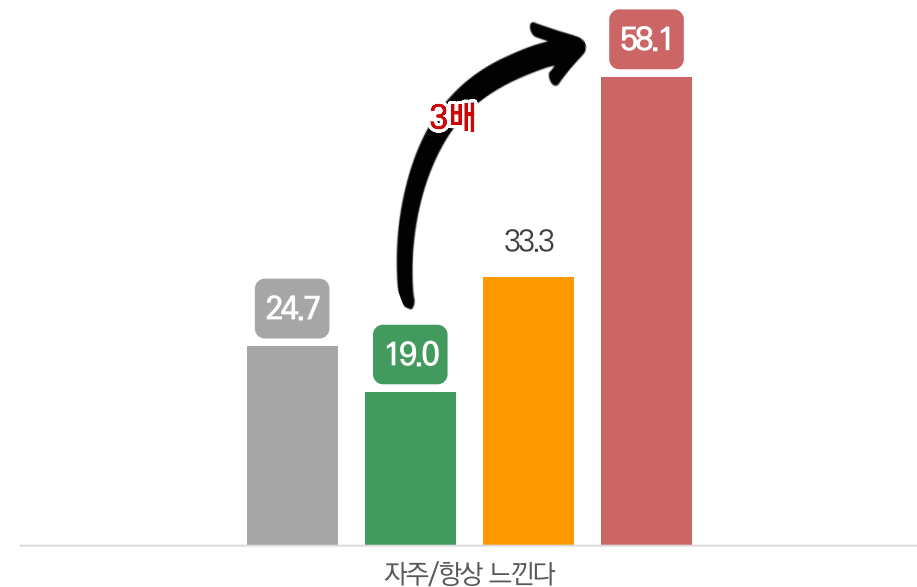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■ 전체 ■ 만족 ■ 보통 ■ 불만족

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■ 전체 ■ 만족 ■ 보통 ■ 불만족



## 라. 주거환경 만족도별 욕구 분석 결과 : 스트레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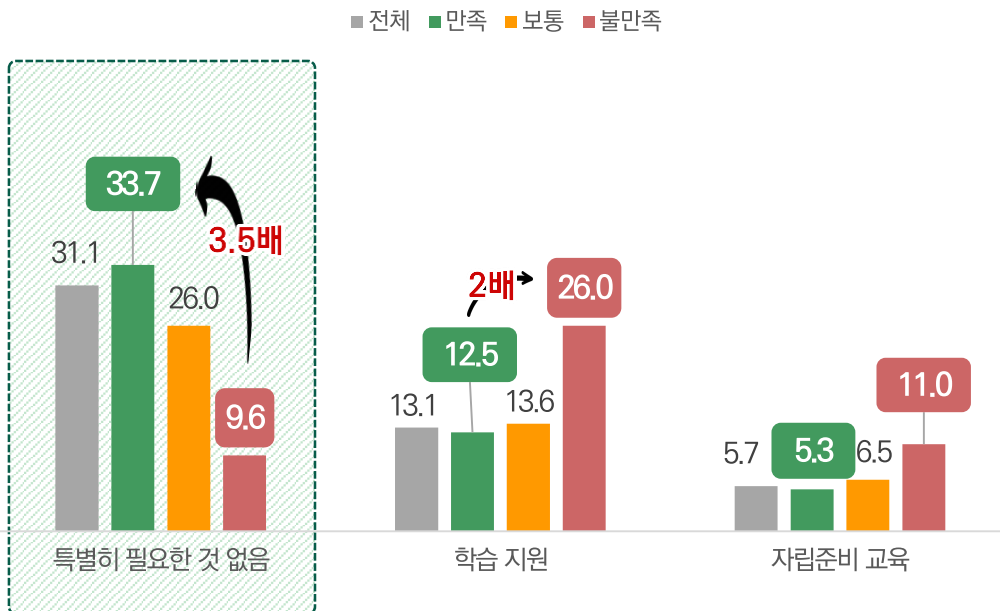
- 중학생의 경우 '특별히 필요 없음' 응답은 주거환경 만족군 33.7%에서 불만족군 9.6%로 그룹 간 차이가 약 3.5배 가량 나타나며,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구체적 지원 요구가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됨.
- 불만족군의 '학습 지원' 요구는 26.0%로 만족군(12.5%)의 약 2배 수준이며, '자립준비 교육' 역시 11.0%로 만족군(5.3%) 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.
- 고등학생은 중학생과 달리 '생활비 지원'이 핵심 요구로 나타남.
- 고등학생은 '생활비 지원' 요구가 만족군 27.8%, 불만족군 48.0%로 나타나 가장 큰 격차를 보였으며, '특별히 필요한 것 없음' 응답 비율에서도 만족군 31.4%, 불만족군 14.7%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됨.

⇒ 중학생은 학습·자립 관련 지원 요구가, 고등학생은 경제적 부담이 맞물려 생활비 기반의 경제적 지원 요구가 더 크게 확인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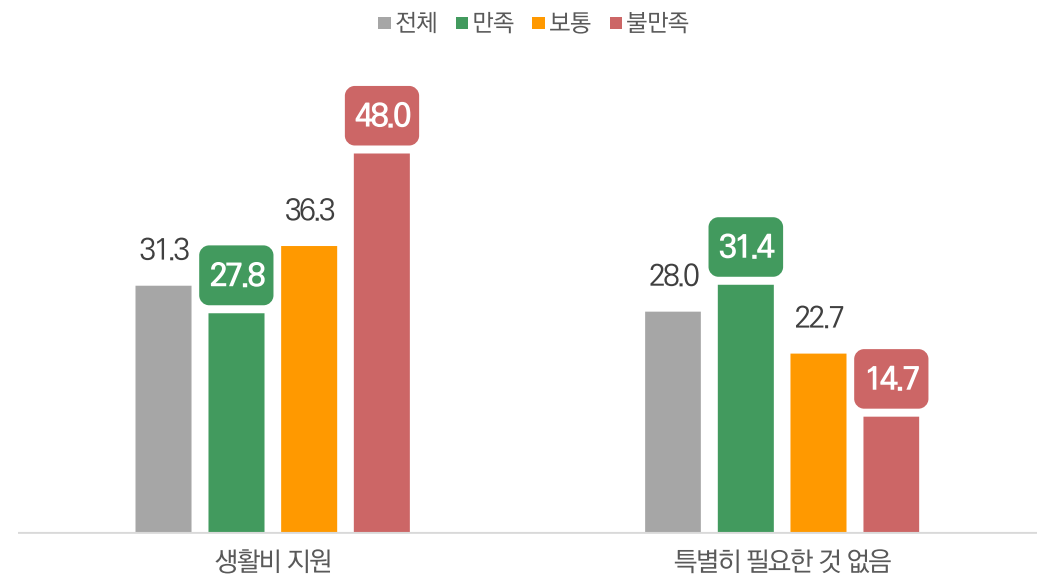
⇒ 또한 주거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을수록 '특별히 필요 없음' 응답은 감소하고, 구체적인 지원 요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, 학령 단계와 환경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함.

### 스트레스 해소방안

[Base: 스트레스 경험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[Base: 스트레스 경험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 마. 학령간 분석 결과 및 시사점 - 스트레스

##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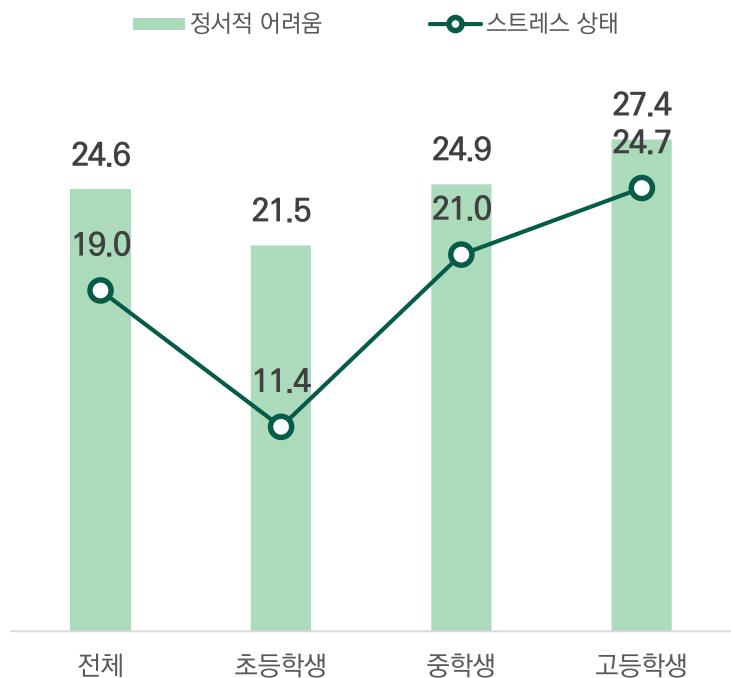
-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은 학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함.
- 스트레스 '자주/항상' 경험률: 초등 11.4% → 중등 21.0% → 고등 24.7%.
- 초·중·고 공통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관계 갈등과 공부·시험 부담.
- 정서적 어려움(외로움·우울 등)도 학령에 비례해 증가하며,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임.

## 시사점

- 학령이 높아질수록 정서·심리적 압박이 누적되는 구조,
- 중·고등학생 중심의 개입 필요. 관계·학업 스트레스가 핵심 요인이므로 학교·가정·또래 기반 지원체계 강화 필요.
- 특히 정서적 어려움이 큰 여학생에게는 세분화된 맞춤형 심리정서 프로그램 필요.
- 전 학령기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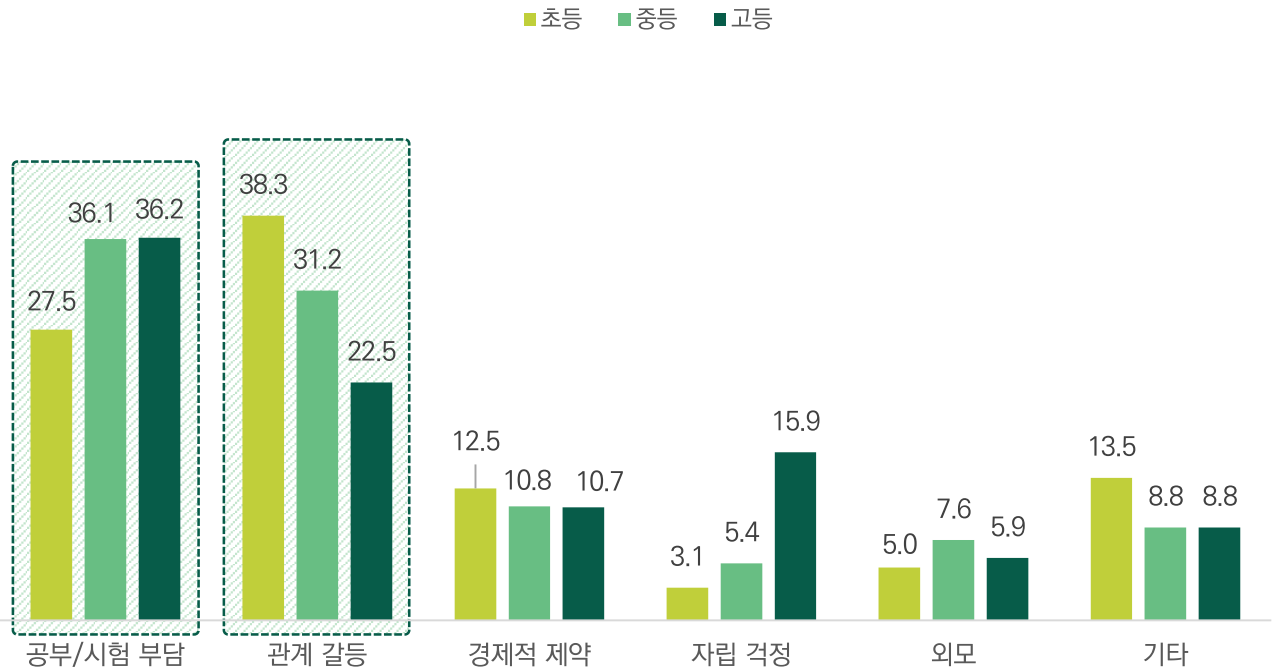
### 스트레스 및 정서적 어려움

[Base: 초·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스트레스 요인

[Base: 스트레스 경험 초·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PART /



# 주요 주제별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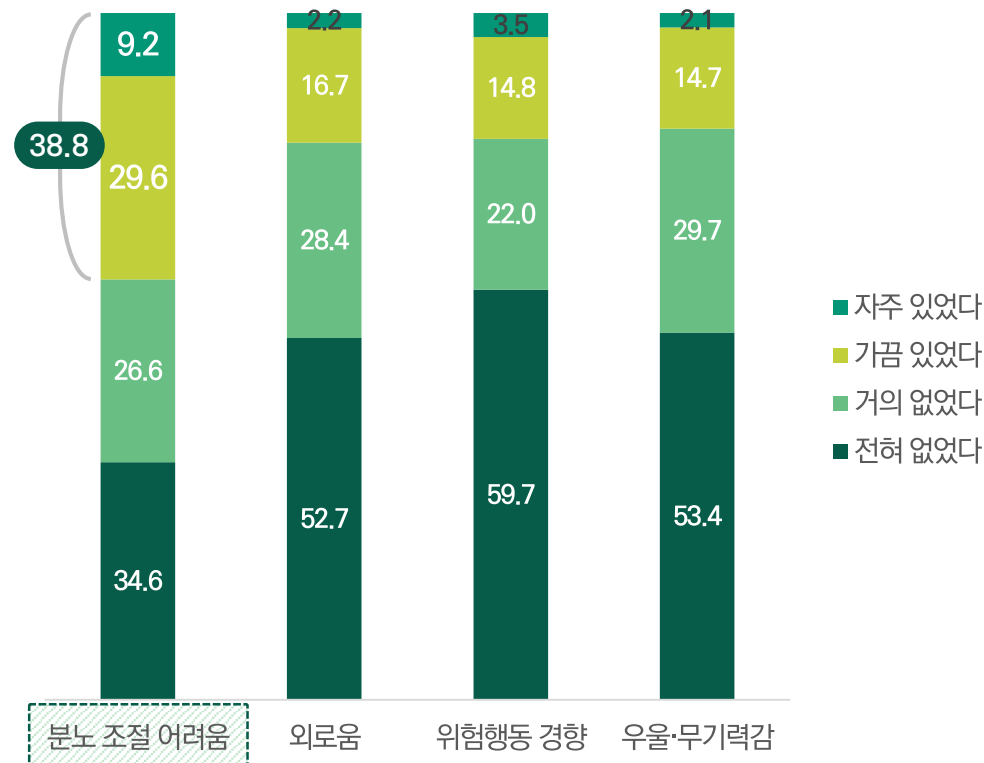
1.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2. 스트레스
3. 정서적 어려움
4. 주관적 행복감 및 관계 만족도
5. 새학기 현황
6. 사교육
7.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8. 자립 능력과 준비 정도
9.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10.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# 가. 초등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정서적 어려움

- 초등학생 10명 중 약 4명은 '분노 조절 어려움'(38.8%)을 자주(9.2%) 혹은 가끔(29.6%)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.
- 그 외의 정서적 어려움으로 외로움, 위험행동 경향, 우울, 무기력감 등에 있어서는 '자주 있었다'는 응답은 5% 미만, '가끔 있었다'는 응답도 15% 내외로 나타나 10명 중 8명이 해당 경험이 없는 편으로 확인됨.
- 정서적 어려움의 주된 원인은 '주변 사람들과의 관계'(28.7%), '뚜렷한 이유 없음'(23.8%) 순으로 나타남.
- 이는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개입이 요구됨을 시사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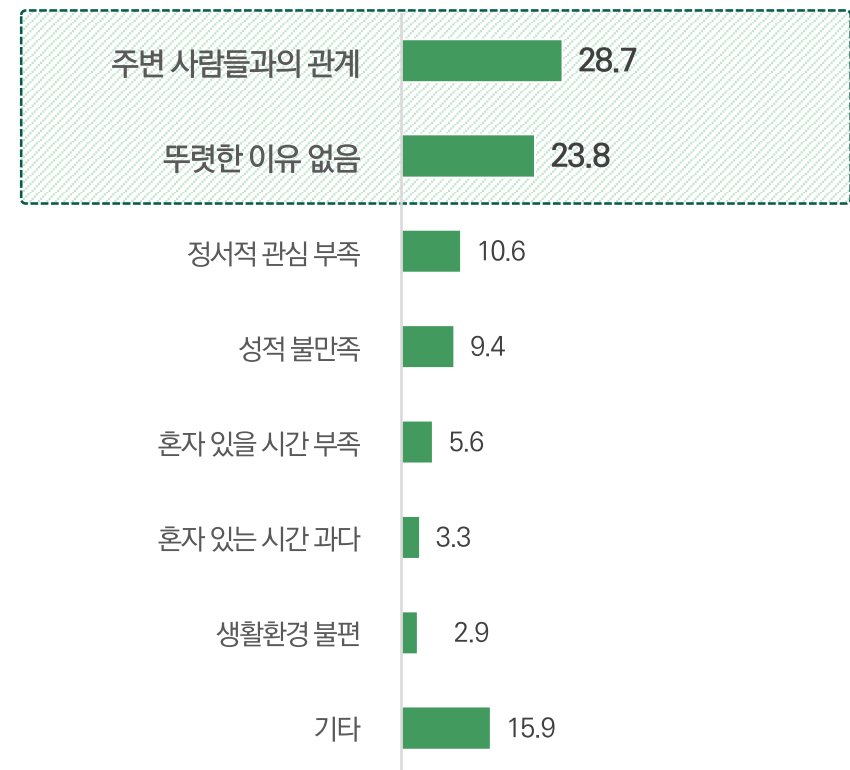
## 정서적 어려움 경험 비율

[Base: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 정서적 어려움 발생 원인

[Base: 정서적 어려움 경험 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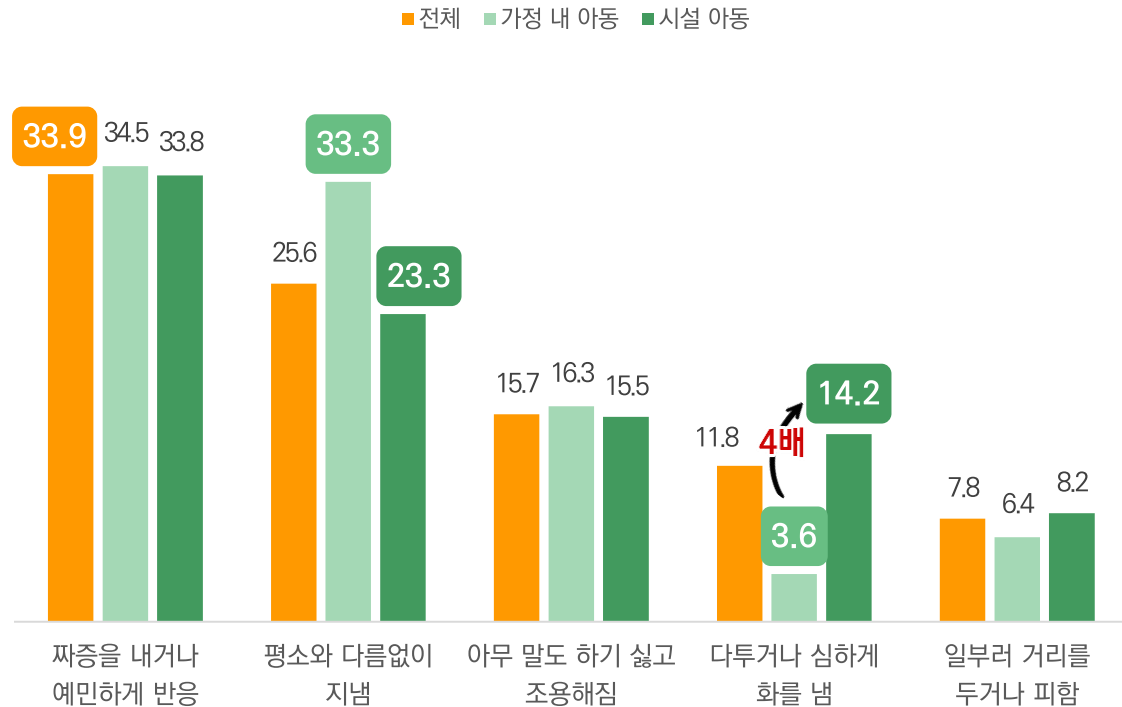
# 가. 초등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정서적 어려움

- 초등학생 3명 중 1명은 어려움을 느낄 때 ‘짜증을 내거나 예민하게 반응’(33.9%)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.
- 가정 내 아동 3명 중 1명은 ‘평소와 다름없이 지낸다’(33.3%)고 응답했으며, ‘다투거나 심하게 화를 낸다’는 응답은 3.6%로 극소수로 나타남.
- 반면, 시설 아동은 ‘평소와 다름없이 지낸다’는 응답이 23.3%로 상대적으로 낮고, ‘다투거나 심하게 화를 낸다’는 응답은 14.2%로 가정 내 아동(3.6%)보다 약 4배 높게 나타남.
- 초등학생의 58.9%가 전문가(병원, 심리상담가 등)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함.

⇒ 가정 내 아동은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, 시설 아동은 분노·갈등 등 외부 표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  
 ⇒ 전문가 도움 필요성도 과반으로 확인됨에 따라, 정서적 어려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가정 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이를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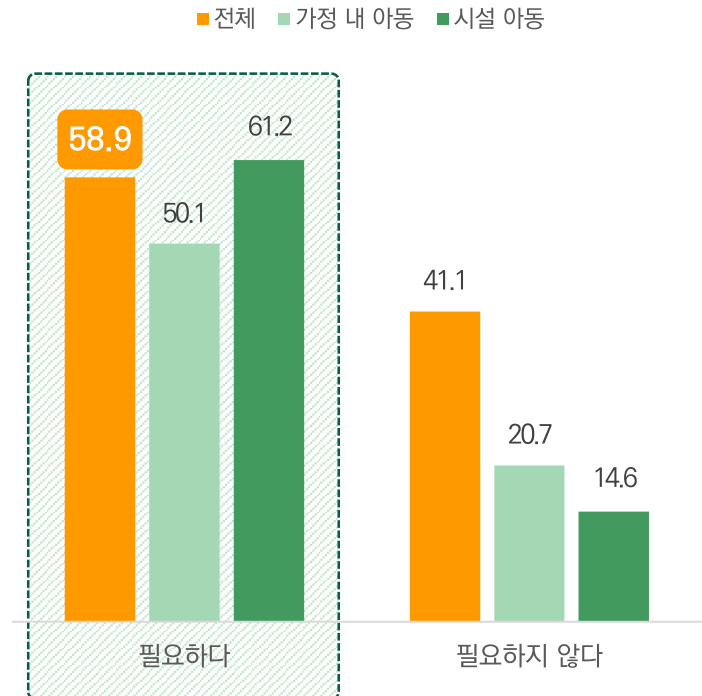
## 정서적 어려움이 관계에 미친 영향

[Base: 정서적 어려움 경험 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 전문가 도움 필요 인식

[Base: 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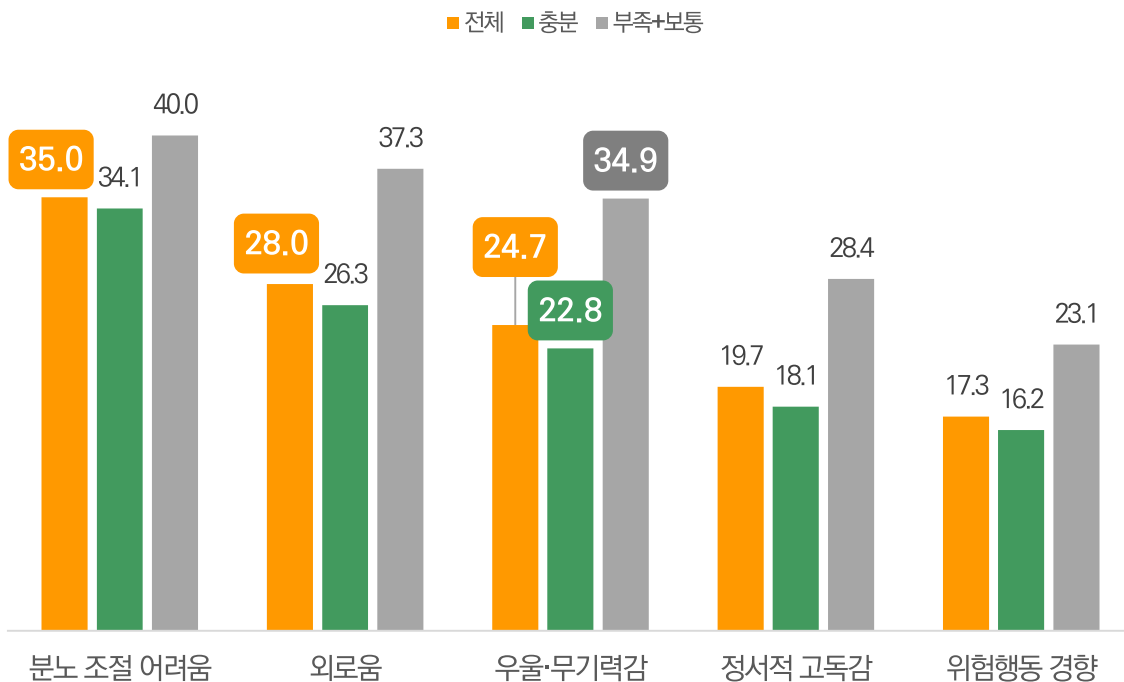


## 나. 중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정서적 어려움

- 중학생의 정서적 어려움 경험률은 '분노 조절 어려움'(35.0%), '외로움'(28.0%), '우울·무기력감'(24.7%) 순으로 높게 나타남.
- 우울·무기력감 항목에서 후원금 충분군 아동은 22.8%, 부족군 아동은 34.9%로 나타나, 경제적 지원 수준에 따른 정서적 격차가 확인됨.
- 정서적 어려움의 주된 원인은 '뚜렷한 이유 없음'(30.0%)으로 가장 높아, 명확한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내면적 불안과 감정 기복이 큰 시기임을 보여줌.
- 이어서 '주변 사람들과의 관계'(19.7%), '성적 불만족'(14.7%)을 이유로 응답해, 대인관계 갈등과 학업 부담이 주요 스트레스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.
- 이유 없이 느끼는 불안과 관계 및 학업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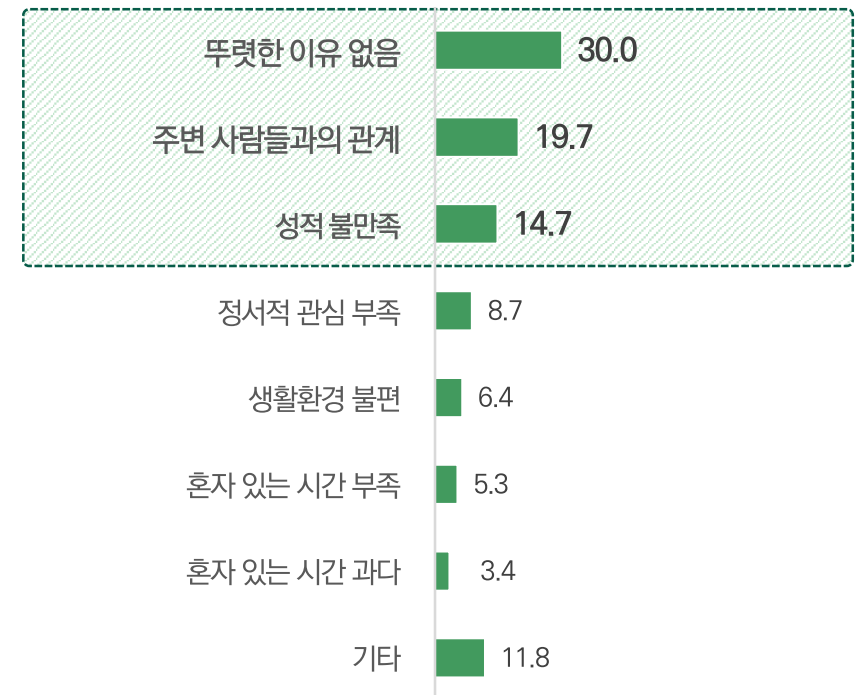
### 정서적 어려움 경험 비율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정서적 어려움 발생 원인

[Base: 정서적 어려움 경험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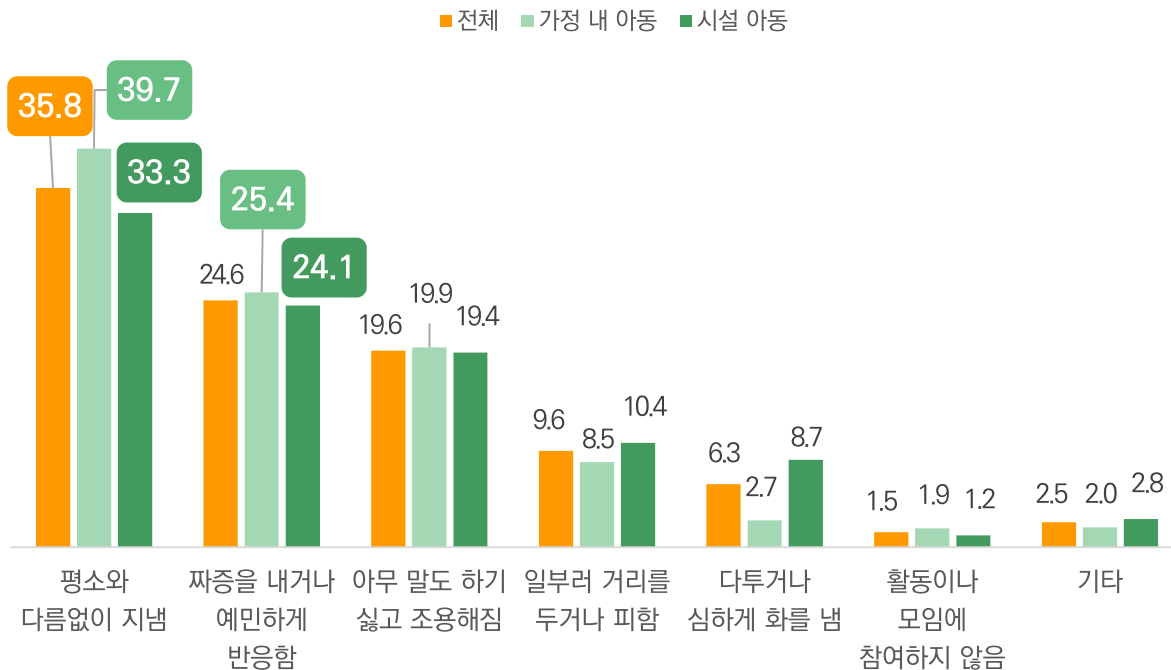
## 나. 중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정서적 어려움

- 어려움을 느껴도 '평소와 다름없이 지냄'(35.8%)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.
- 가정 내 아동은 '평소와 다름없이 지냄'이 39.7%로 가장 높고, '짜증을 내거나 예민하게 반응함'은 25.4%로 나타남.
- 반면, 시설 아동은 '평소와 다름없이 지냄'은 33.3%로 가정 내 아동보다 낮으며, '짜증을 내거나 예민하게 반응함' 비율은 24.1%로 확인됨.
- 전문가 도움이 '필요하다'는 응답이 45.5%로, 가정 내 아동(40.4%)보다 시설 아동(48.2%)에서 더 높게 나타남.

⇒ 중학생은 초등학생과 달리, 정서적 어려움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일상적 행동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확인됨.  
 ⇒ 전문가 도움 필요성 응답이 높게 나타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적 개입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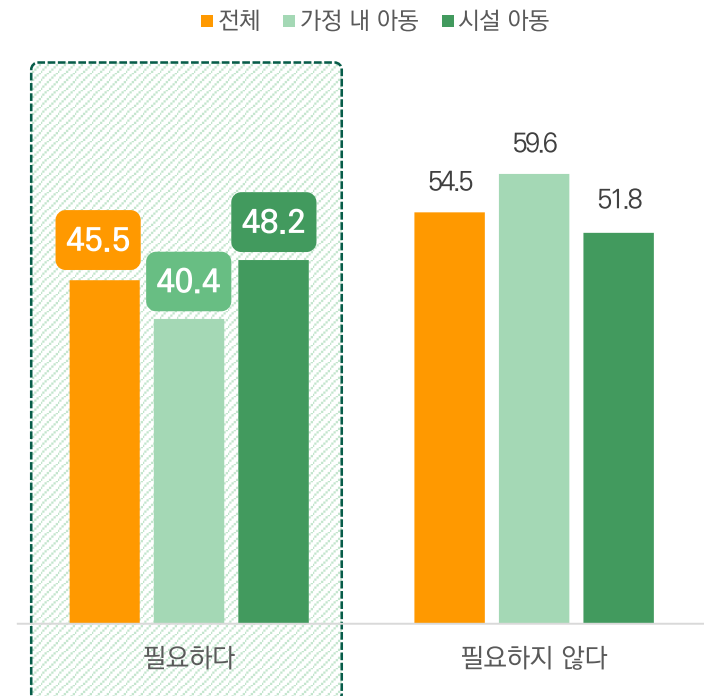
### 정서적 어려움이 관계에 미친 영향

[Base: 정서적 어려움 경험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전문가 도움 필요 인식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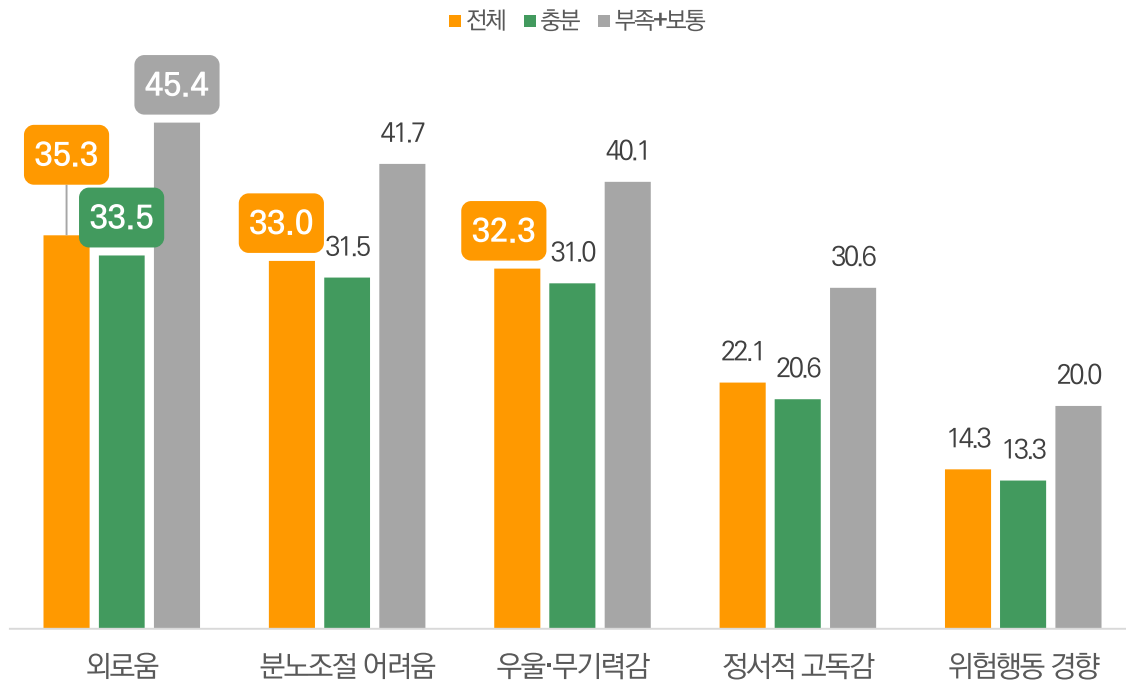


## 다. 고등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정서적 어려움

- 고등학생의 정서적 어려움 경험률은 '외로움'(35.3%), '분노 조절 어려움' (33.0%), '우울·무기력감'(32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남.
- 외로움 항목에서 후원금 충분군 아동은 33.5%, 부족+보통군 아동은 45.4%로 확인되어, 경제적 지원 수준에 따른 정서적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줌.
- 정서적 어려움의 주된 원인은 '뚜렷한 이유 없음'(33.9%)으로 가장 높아, 명확한 이유 없이 느끼는 정서적 불안이 고등학생 시기에 더욱 두드러짐을 시사함.
- 이어서 '성적 불만족'(17.4%), '주변 사람들과의 관계'(12.9%)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, 학업 부담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.
- 명확한 원인이 없는 불안감과 성적 부담, 관계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정서적 어려움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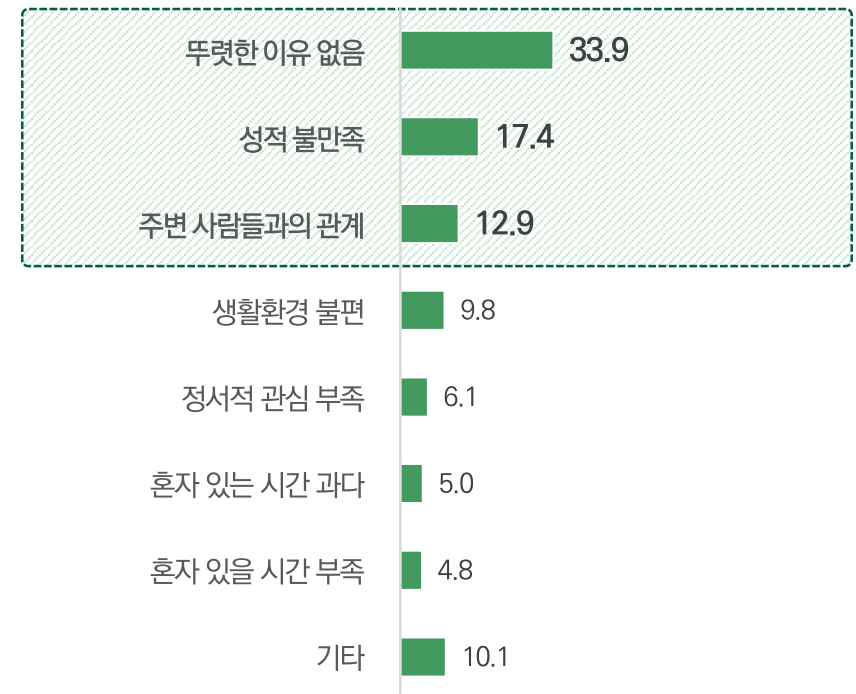
### 정서적 어려움 경험 비율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

### 정서적 어려움 발생 원인

[Base: 정서적 어려움 경험 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

## 다. 고등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정서적 어려움

- 어려움을 느껴도 '평소와 다름없이 지냄'(39.9%)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.
- 가정 내 아동은 '평소와 다름없이 지냄'이 43.0%로 가장 높고, '짜증을 내거나 예민하게 반응함'은 19.4%로 나타남.
- 반면, 시설 아동은 '평소와 다름없이 지냄'은 35.6%로 가정 내 아동보다 낮으며, '짜증을 내거나 예민하게 반응함' 비율은 20.9%로 확인됨.
- 전문가 도움이 '필요하다'는 응답은 40.9%이며, 가정 내 아동(37.6%)보다 시설 아동(44.6%)에서 더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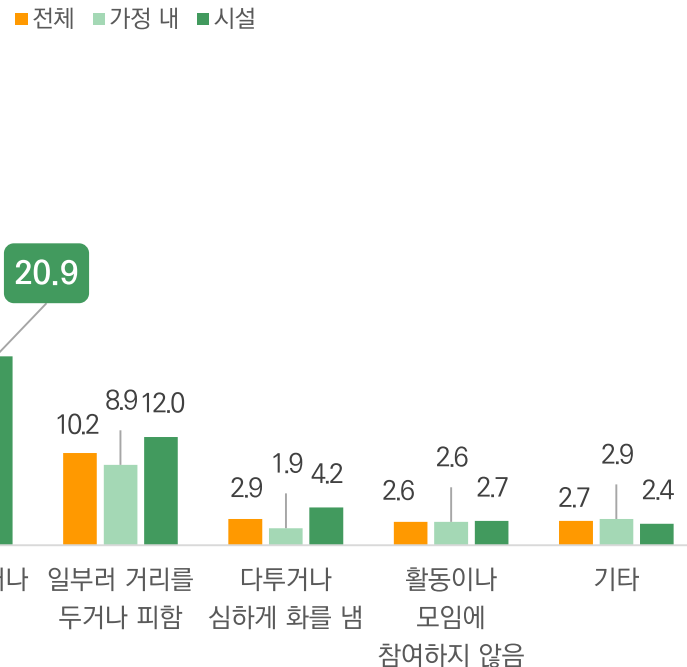
⇒ 고등학생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평소의 행동을 유지하는 경향이 전 학령 중 가장 강하게 나타남.

⇒ 반면 시설 아동은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거리두기 등 행동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뚜렷해, 정서 표현 방식에서 두 그룹 간 차이가 확인됨.

⇒ 또한 시설 아동의 전문가 도움 필요 인식이 더 높아,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요구가 크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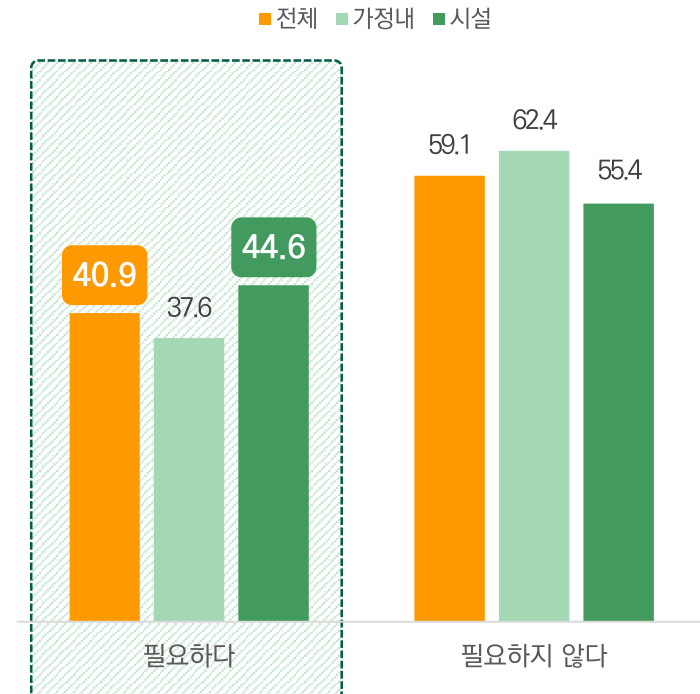
### 정서적 어려움이 관계에 미친 영향

[Base: 정서적 어려움 경험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전문가 도움 필요 인식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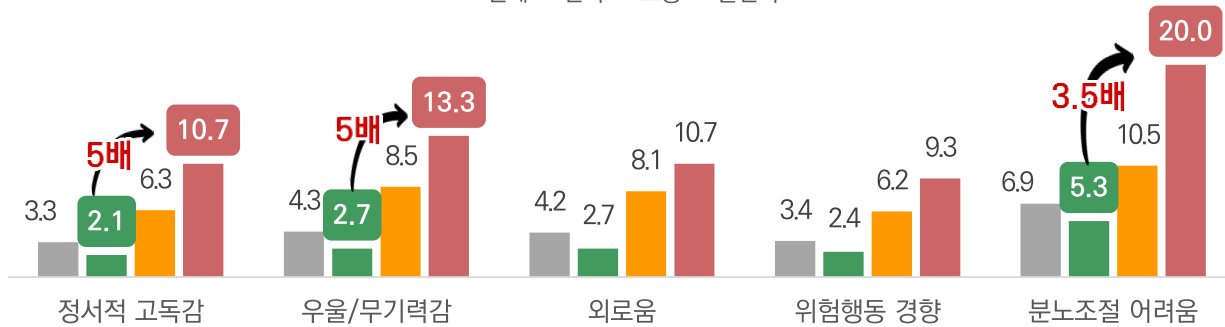


## 라. 주거환경 만족도별 근황 분석 결과 : 정서적 어려움

-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전반적으로 주거환경 만족군보다 불만족군에서 정서적 어려움이 두드러짐. 중학생은 정서적 어려움 중 ‘분노조절 어려움’에서 불만족군의 ‘자주 경험’ 비율이 20.0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만족군(5.3%) 대비 약 3.5배의 차이가 확인됨. 또한 불만족군의 ‘우울/무기력감’(13.3%)과 ‘정서적 고독감’(10.7%) 역시 만족군 대비 약 5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.
- 고등학생은 ‘우울/무기력감’에서 불만족군의 ‘자주 경험’ 비율이 21.0%로 가장 높았으며, 만족군(4.3%) 대비 약 4.5배 차이를 보임. 이어 ‘외로움’과 ‘분노조절 어려움’도 각각 18.1%, 16.1%로 나타나, 만족군(3.7%, 4.3%) 대비 4~5배 수준의 차이가 확인됨.
- 정서적 어려움의 원인에서도 불만족군은 ‘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’와 ‘집이나 생활환경이 편하지 않아서’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, 특히 중학생의 ‘집이나 생활환경 불편’ 응답은 29.8%로 만족군(3.9%) 대비 7배 이상 차이를 보임. 고등학생 역시 동일 항목에서 불만족군(24.2%)이 만족군(7.1%) 대비 3배 가량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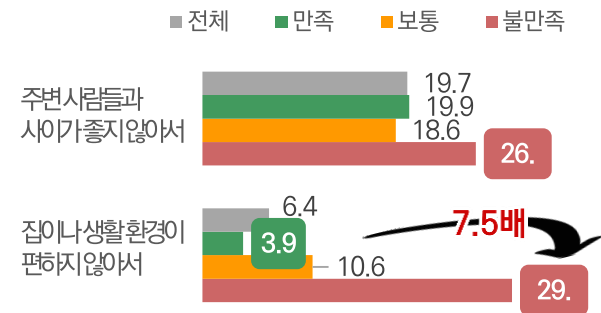
### 정서적 어려움 ‘자주 경험’ 비율

■ 전체 ■ 만족 ■ 보통 ■ 불만족 [Base:중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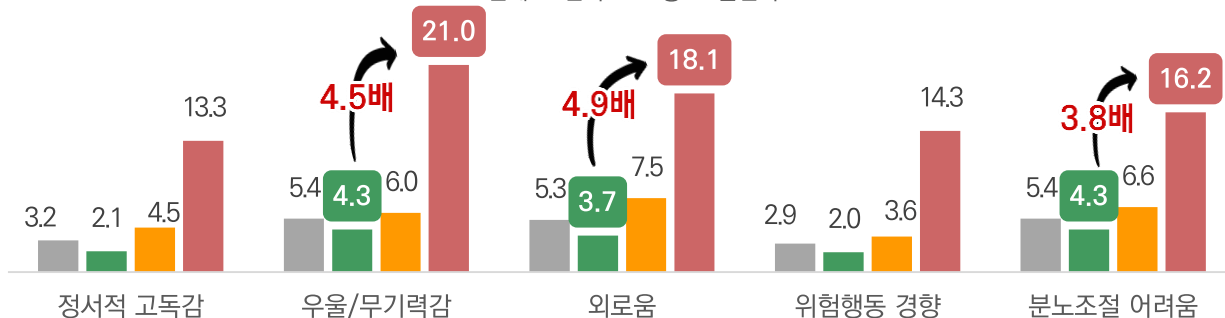


### 정서적 어려움 주요 발생 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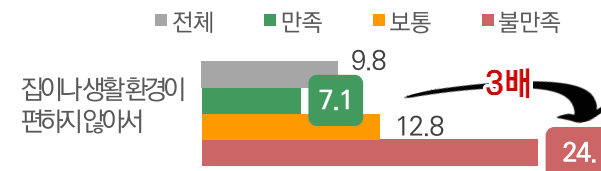
■ 전체 ■ 만족 ■ 보통 ■ 불만족 [Base:중학생 전체, Unit:%]



■ 전체 ■ 만족 ■ 보통 ■ 불만족 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■ 전체 ■ 만족 ■ 보통 ■ 불만족 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 라. 주거환경 만족도별 욕구 분석 결과 : 정서적 어려움

- 중학생의 경우 정서적 어려움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 간 큰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유사하며, ‘일부러 거리를 두거나 피함’, ‘다투거나 심하게 화를 냄’ 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.
- 고등학생 역시 전반적인 경향은 유사하나, 주거환경 불만족군에서 ‘짜증을 내거나 예민하게 반응함’ 응답이 31.6%로 가장 높게 나타나, 주거환경 불만족 시 정서적 어려움이 감정 반응의 변화로 표출되는 양상이 일부 확인됨.
- 전문가 도움 필요 인식은 중·고등학생 모두에서 집단 간 큰 차이 없이 고르게 나타나,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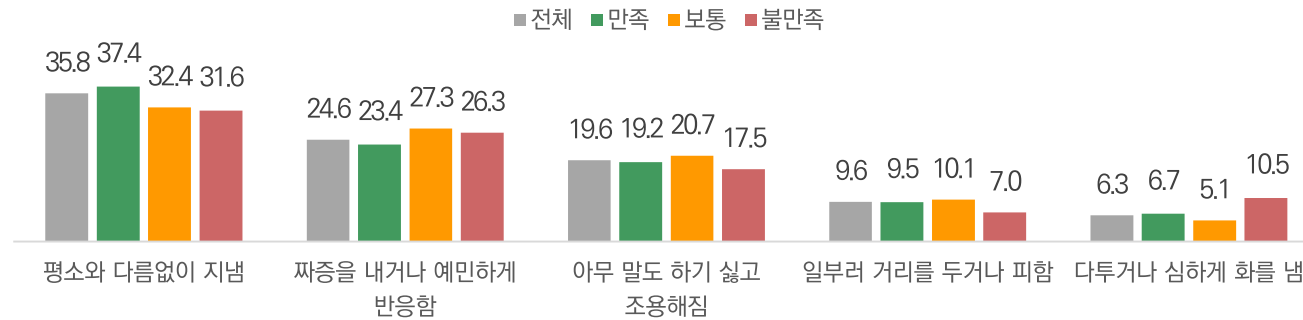
⇒ 정서적 어려움은 중·고등학생 모두에서 집단 간 큰 격차 없이 나타나, 학령 전반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서 지원이 필요함.

⇒ 다만 고등학생은 주거환경 불만족 시 짜증·예민함 등 감정 반응 변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져, 감정 조절 중심의 예방적 지원이 요구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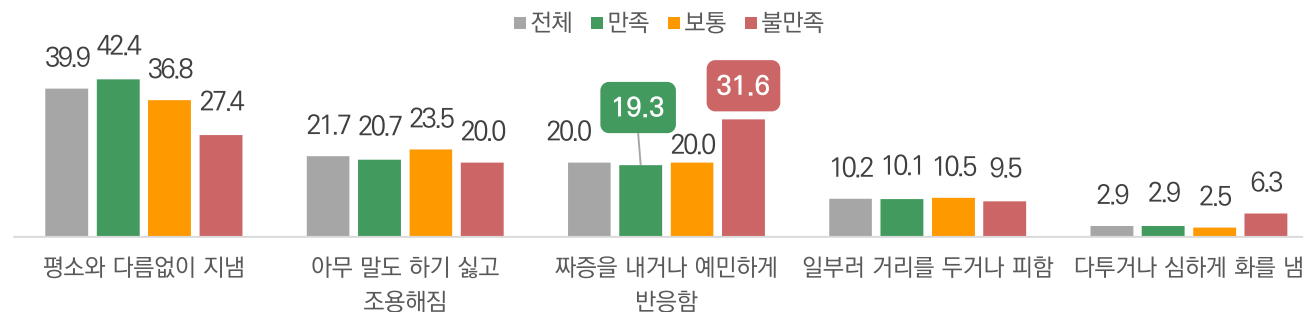
⇒ 또한 전문가 도움 필요 인식이 집단 간 유사한 점을 고려해, 접근성 높은 상담 연계 체계 강화가 필요함.

### 정서적 어려움이 관계에 미친 영향

[Base: 정서적 어려움 경험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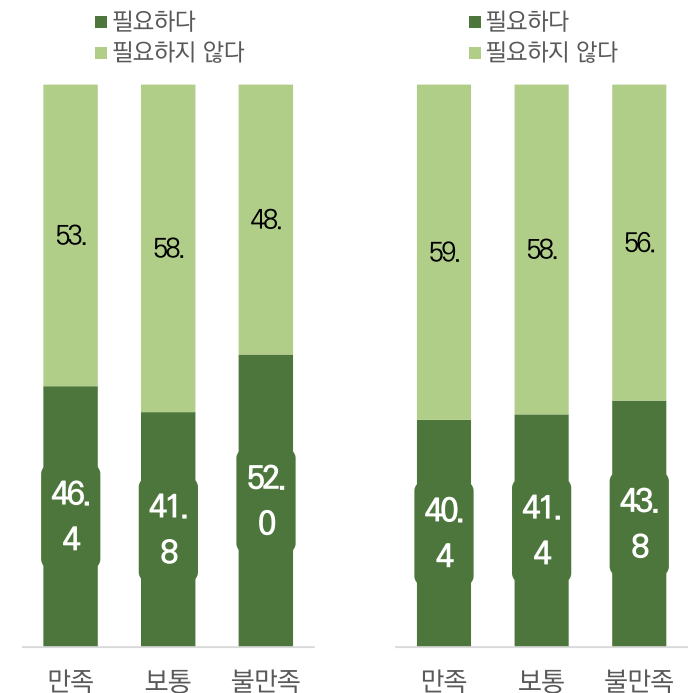
[Base: 정서적 어려움 경험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전문가 도움 필요 인식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 마. 학령간 분석 결과 및 시사점 - 정서적 어려움

##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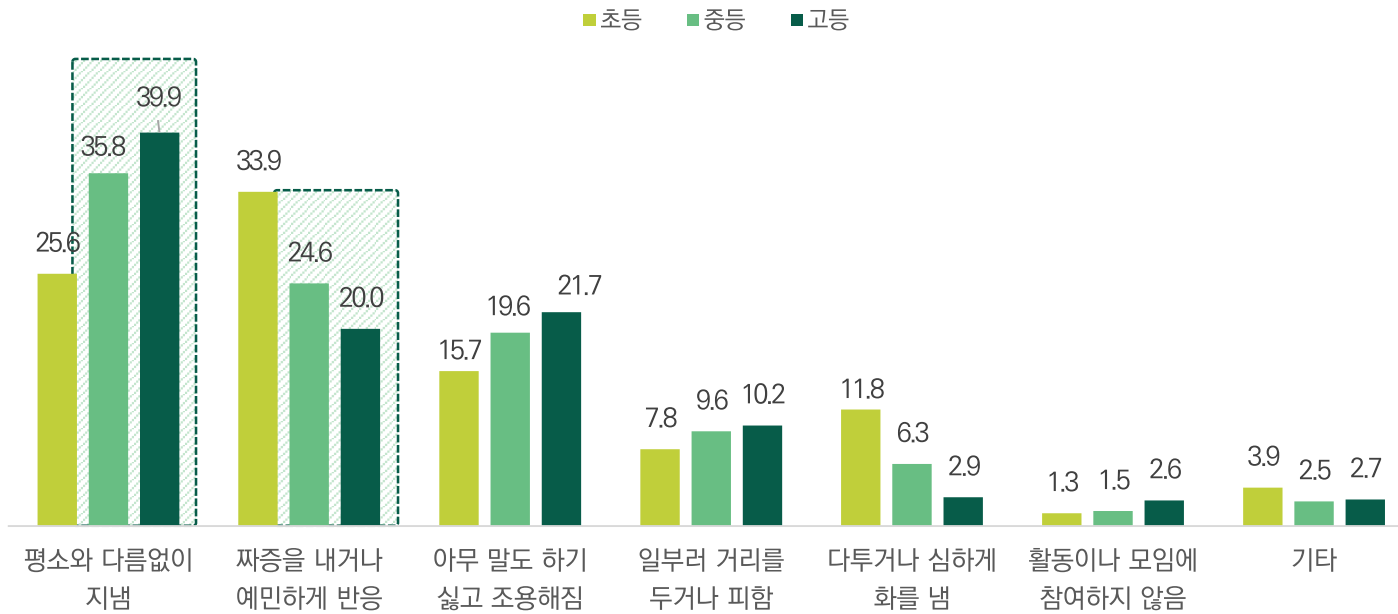
- 중·고등학생 모두 정서적 어려움을 느낄 때 ‘평소와 다름없이 지냄’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(중 35.8%, 고 39.9%).
- ‘짜증을 내거나 예민하게 반응함’은 중학생 24.6%, 고등학생 20.0%로, 외부 표출보다는 일상 행동을 유지하는 비중이 더 큼.
- 전문가 도움이 ‘필요하다’는 응답은 초등학생이 58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중학생 45.5%, 고등학생 40.9%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임.

## 시사점

- 중·고등학생은 정서적 어려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특성이 있어, 내면화된 정서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관찰 및 상담 체계 강화가 필요함.
- 전문가 개입 필요성 응답이 높게 나타난 만큼, 학교·지역 기반의 심리정서 지원 접근성 확대가 요구됨.
- 특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학생도 실제로는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정서 상태 점검을 위한 정기적 표준화 검사와 주기적 면담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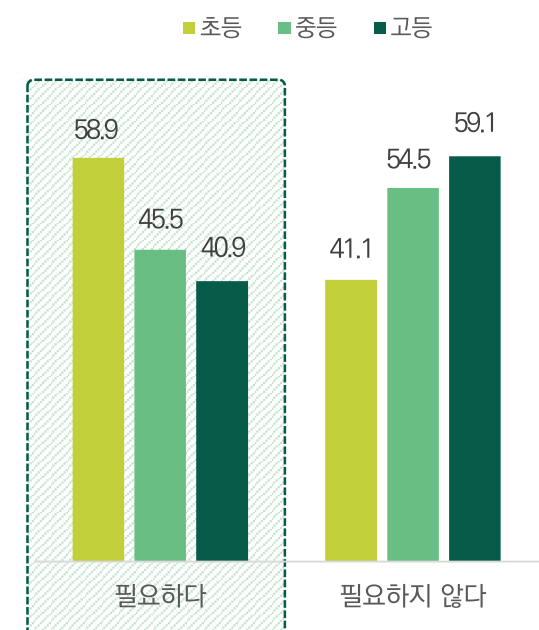
### 정서적 어려움이 관계에 미친 영향

[Base: 정서적 어려움 경험 초·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전문가 도움 필요 인식

[Base: 초·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PART /



# 주요 주제별 분석 결과

1.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2. 스트레스
3. 정서적 어려움
4. 주관적 행복감 및 관계 만족도
5. 새학기 현황
6. 사교육
7.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8. 자립 능력과 준비 정도
9.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10.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# 가. 미취학 아동 - 근황 분석 결과 :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 생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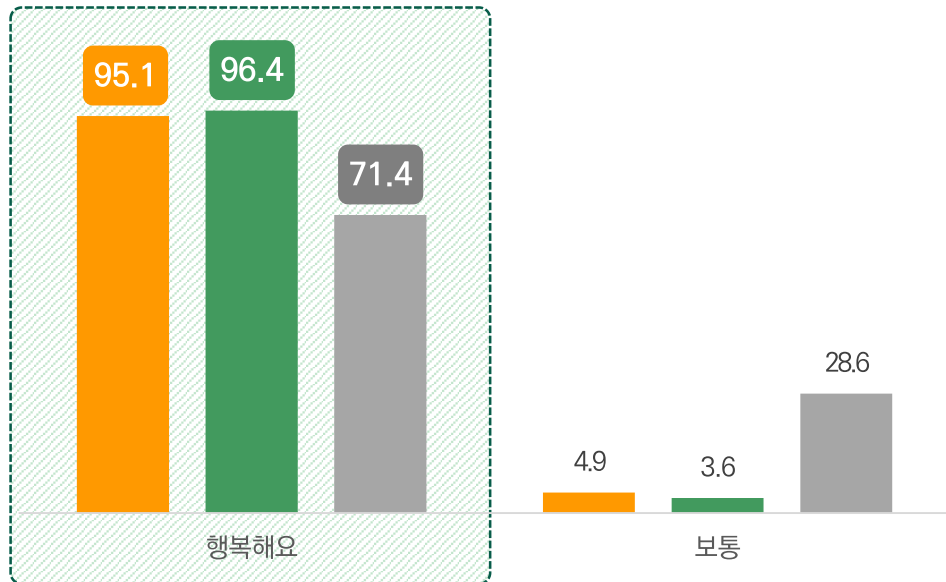
- 미취학 아동에게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 0점부터 10점까지 숫자 중에 고르게 한 결과, 평균 8.9점(10점 만점)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, 7~10점을 응답한 아동('행복해요')의 비율 역시 95.1%로 대부분의 미취학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수준으로 보임.
- 후원금 '충분' 그룹은 96.4%로 평균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, '부족+보통' 그룹의 행복 응답률은 71.4%로 큰 격차가 나타나, 후원금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.
- 행복을 위해서는 '새로운 경험(여행 등)'(30.1%)과 '친구 관계'(29.7%)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, 다양한 체험 활동과 사회성 발달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냄.

## 주관적 행복감

[Base:미취학 아동 전체, Unit:%,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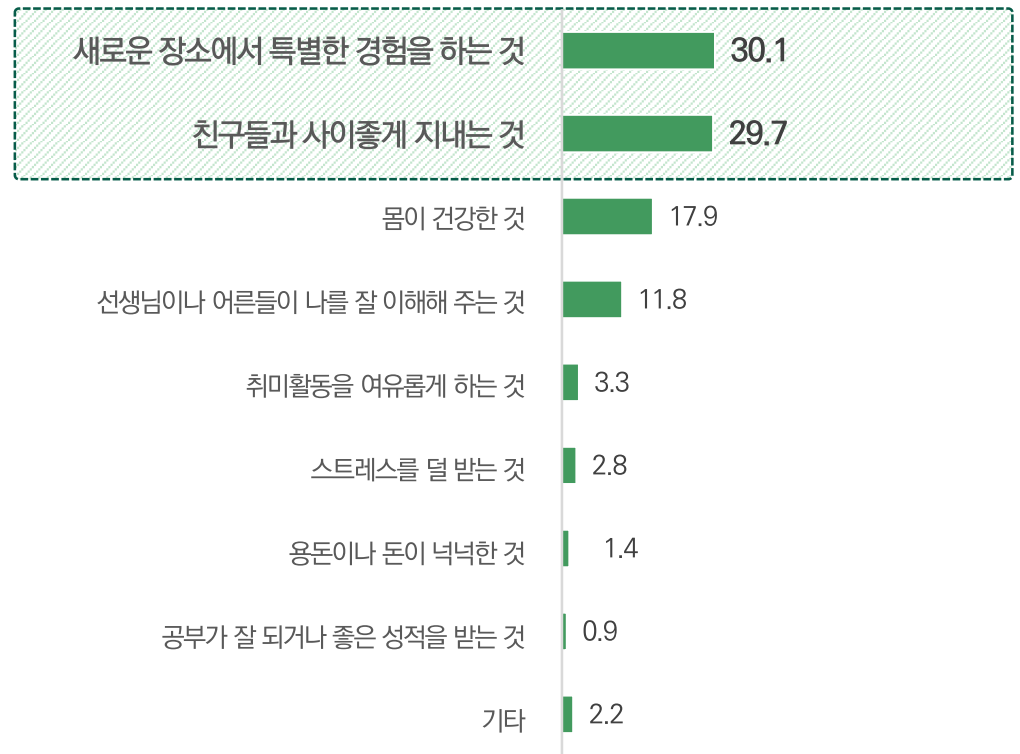
미취학 아동 전체 평균 : 8.9점

■ 전체 ■ 충분 ■ 부족+보통



##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

[Base: 미취학 아동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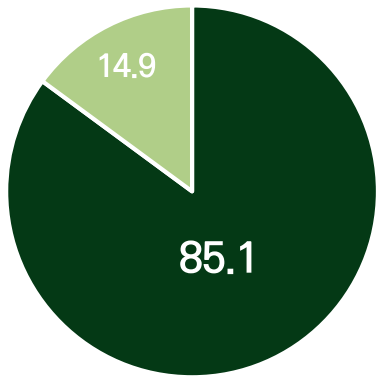
## 나. 초등학생 - 근황 분석 결과 :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 생활

- 초등학생의 평균 행복 점수는 8.2점(10점 만점)이며, 7~10점으로 응답한(‘행복해요’) 비율도 85.1%로 행복감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.
- 행복을 위한 요소로 ‘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’(30.1%)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또래 관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.
- 그 외에는 ‘취미활동’(15.6%), ‘새로운 경험’(15.3%)도 행복 요인으로 나타나, 개인의 즐거움에 대한 욕구도 함께 확인됨.
- 학교생활 만족도(‘매우 만족’+‘만족’)는 84.0%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, 그 주요 이유 역시 ‘친구들과 잘 지내서’(51.0%)로 확인됨.
- 초등학교로 진학하자, 또래 관계가 아동의 행복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
### 주관적 행복감

[Base:초등학생 전체, Unit:%, 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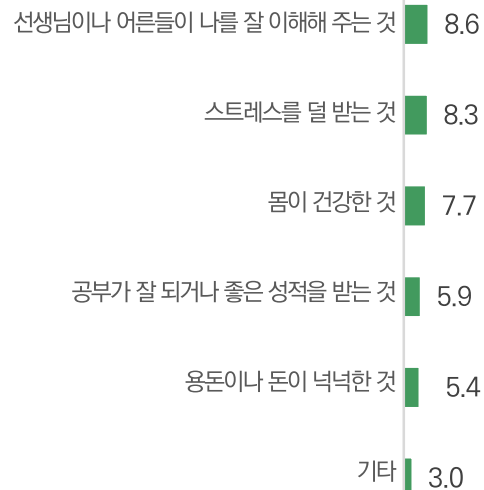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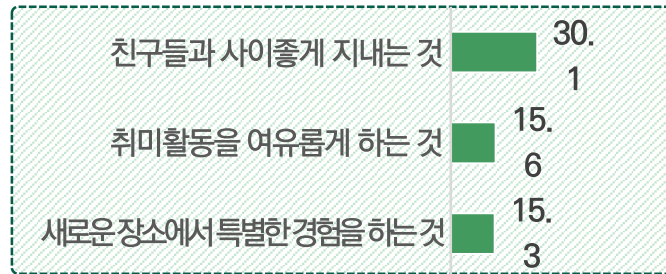
초등학생 전체 평균 : 8.2점



■ 행복해요 ■ 보통

###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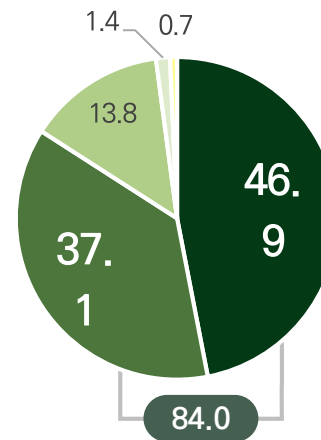
[Base: 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학교 생활 경험 종합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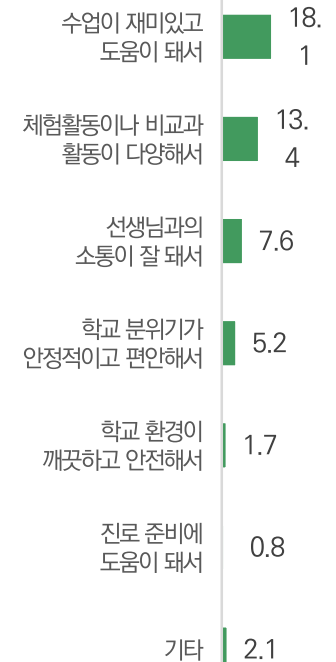
[Base: 학교생활 만족 응답 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학교 생활 만족도



■ 매우 만족  
■ 만족  
■ 보통  
■ 불만족  
■ 매우 불만족

친구들과 잘 지내서 51.0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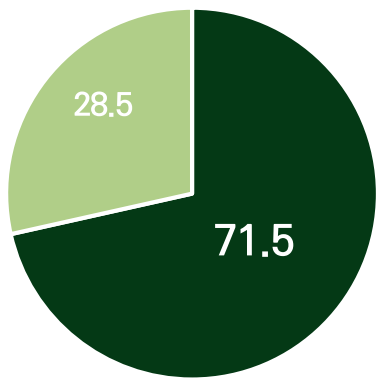
# 다. 중학생 - 근황 분석 결과 :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 생활

- 중학교의 평균 행복 점수는 7.2점(10점 만점)이며, 7~10점('행복해요')으로 응답한 비율은 71.5%로 초등학교(85.1%) 대비 낮아짐.
- 행복을 위한 요소로 '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'(22.5%)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또래 관계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게 나타남.
- 그 외에는 '취미활동'(16.1%), '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'(12.8%)도 행복요인으로 나타나, 중학생 시기 늘어나는 정서적 부담 속에서 개인적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강화된 것으로 보임.
- 학교생활 만족도('매우 만족'+ '만족')는 71.3%로 초등학생(84.0%)에 비해 낮아졌으나, 만족 이유는 역시 '친구들과 잘 지내서'(63.7%)로 확인됨.
- 중학생 시기에 또래 관계가 행복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속됨을 알 수 있음.

## 주관적 행복감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 %, 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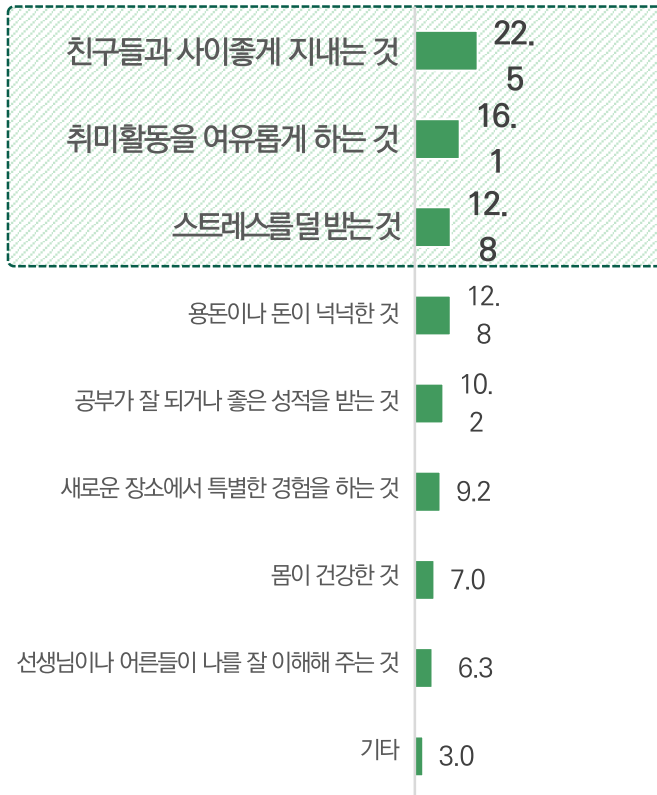
중학생 전체 평균 : 7.2점



■ 행복해요 ■ 보통

##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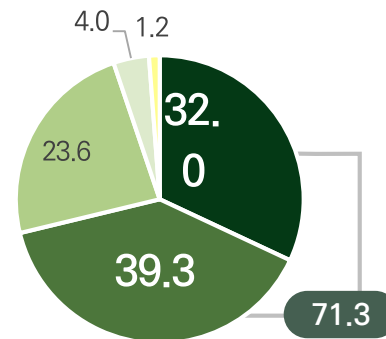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 %]



## 학교 생활 경험 종합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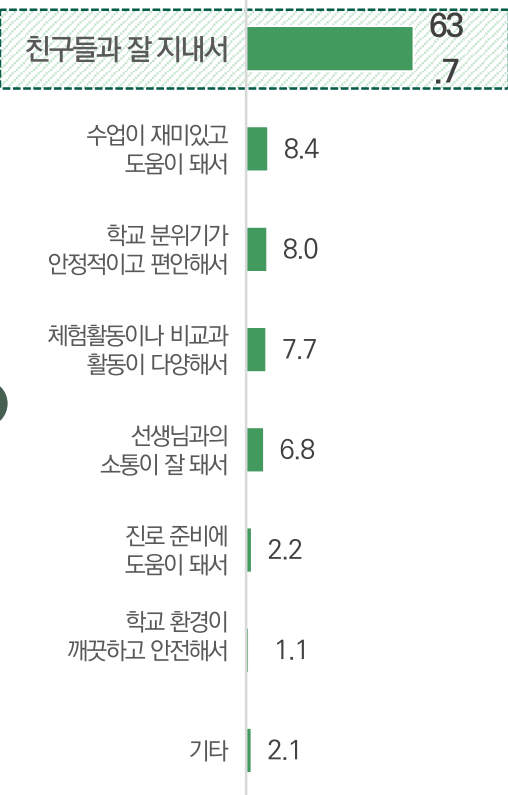
[Base: 학교생활 만족 응답 중학생 전체, Unit: %]

학교 생활 만족도



■ 매우 만족한다  
■ 만족한다  
■ 보통이다  
■ 불만족한다  
■ 매우 불만족한다

친구들과 잘 지내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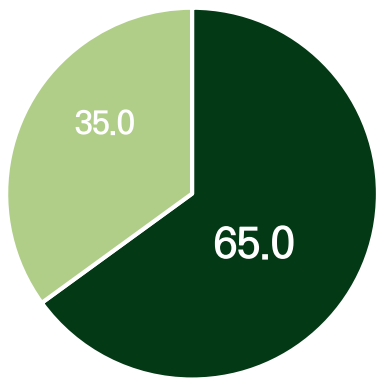
## 라. 고등학생 - 근황 분석 결과 :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 생활

- 고등학생의 평균 행복 점수는 6.8점(10점 만점)이며, 7~10점('행복해요')으로 응답한 비율도 65.0%로 전 학령 중 최저치를 기록함.
- 행복을 위한 요소로 '용돈·돈'(19.5%)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, 고등학생 시기 경제적 여유와 자원 접근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함.
- 그 외에는 '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'(16.2%), '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'(13.8%)도 행복요인으로 나타나, 정서적 안정과 또래 지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됨.
- 학교생활 만족도('매우 만족'+ '만족')는 64.2%로 역시 전 학령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, 만족 이유는 역시 '친구들과 잘 지내서'(61.5%)로 확인됨.
- 고등학생 시기에도 또래 관계가 학교생활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음.

### 주관적 행복감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 %, 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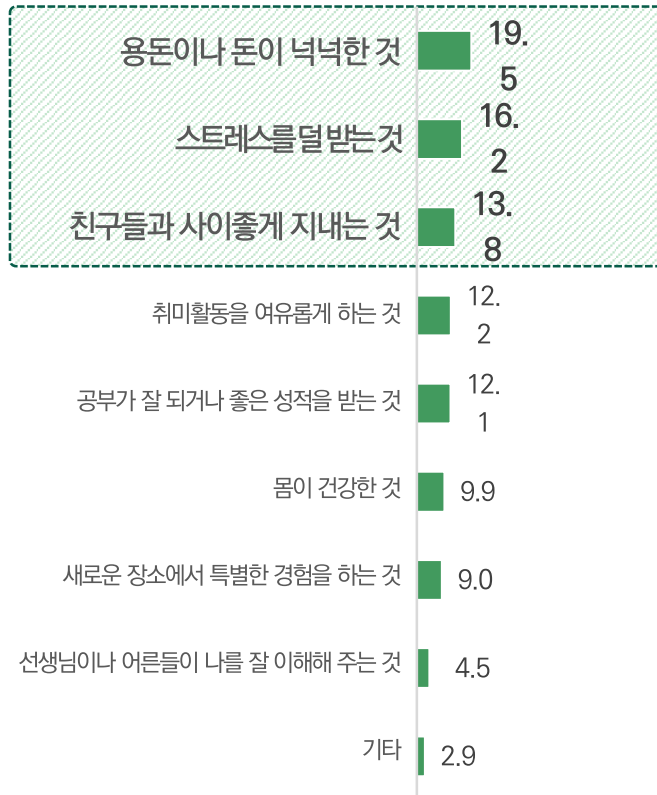
고등학생 전체 평균 : 6.8점



■ 행복해요 ■ 보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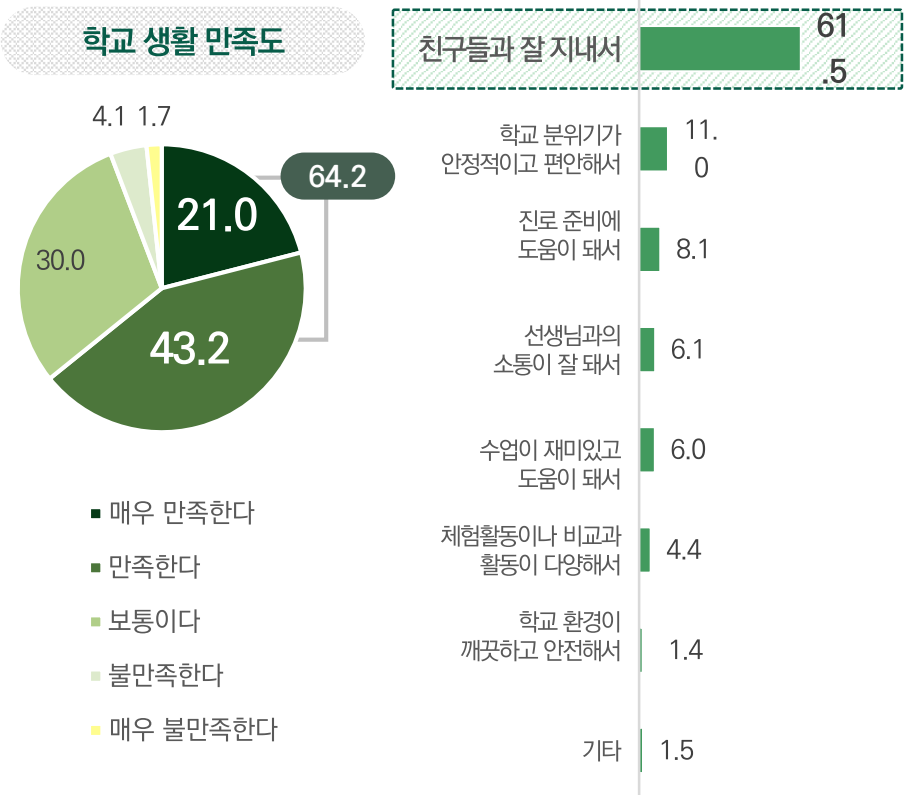
###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

### 학교 생활 경험 종합 분석

[Base: 학교생활 만족 응답 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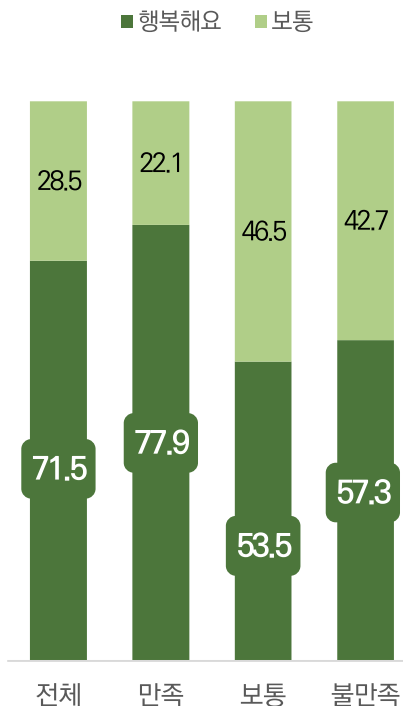


# 마. 주거환경 만족도별 **근황** 분석 결과 :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 생활 - 중학생

- 중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주거환경 만족군이 77.9%로 가장 높고, 보통군(53.5%), 불만족군(57.3%)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.
-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서는 만족군이 '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'을 24.5%로 선택해 불만족군(5.3%) 대비 약 4배 높았고, 불만족군은 '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'을 28.0%로 꼽아 만족군(11.6%)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남.
- 경제적 요인인 '용돈이나 돈이 넉넉한 것' 역시 불만족군이 18.7%로 가장 높아, 주거환경 불만족과 경제적 부담 인식이 연결되는 양상을 보임.
-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도 만족군 78.8%, 불만족군 48.0%로 큰 차이가 나타나 주거환경 만족도가 전반적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.
- 주거환경이 만족스러운 학생은 행복감·대인관계·학교생활 전반에서 높은 만족 수준을 보이며, 불만족군은 스트레스 완화·경제적 지원·학교 적응 측면에서 필요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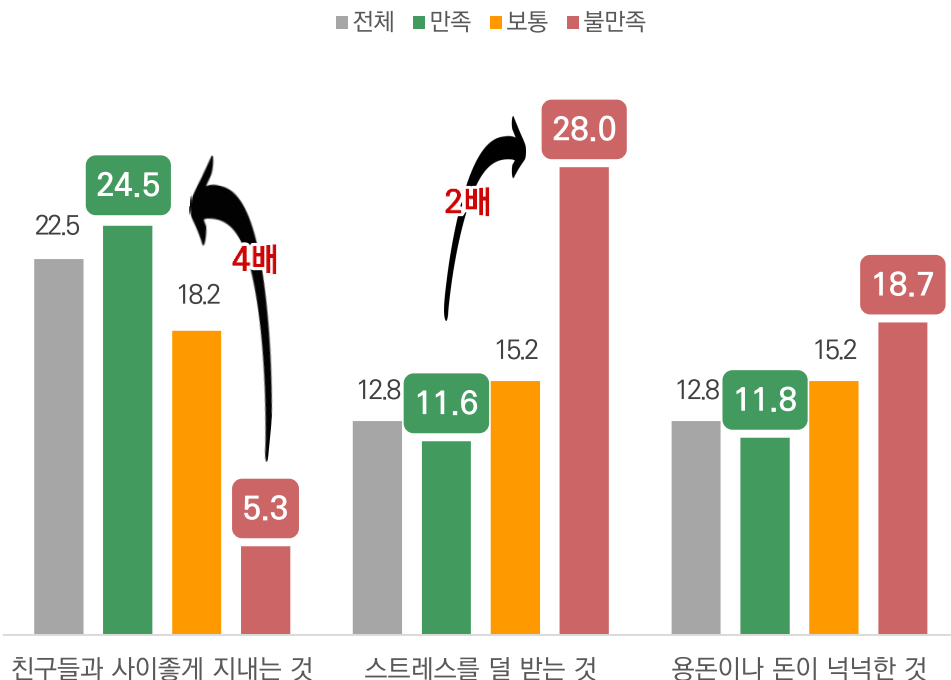
## 주관적 행복감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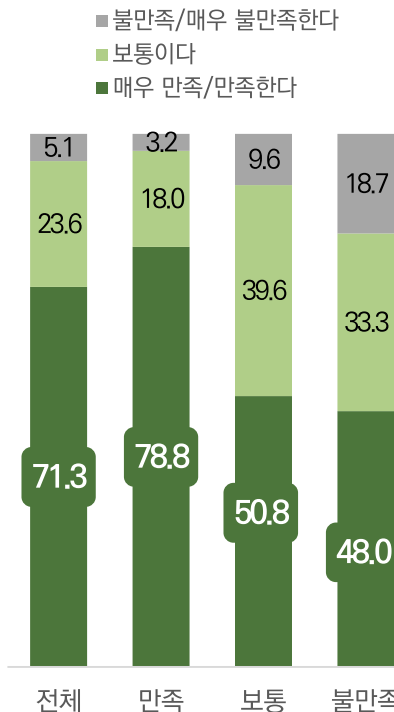
##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## 학교 생활 만족도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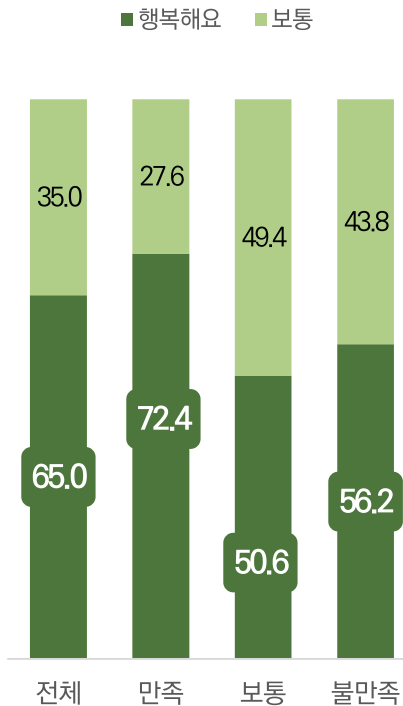


# 마. 주거환경 만족도별 **근황** 분석 결과 :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 생활 - 고등학생

- 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주거환경 만족군이 72.4%로 가장 높고, 보통군(50.6%)·불만족군(56.2%)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.
- 행복 요소에서는 불만족군이 '용돈이나 돈이 넉넉한 것'을 29.5%로 가장 많이 선택해 경제적 필요도가 두드러졌으며, 만족군은 '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'(15.5%)을 상대적으로 높게 꼽음.
- '몸이 건강한 것'에서도 만족군 10.9%, 불만족군 3.8%로 격차가 확인되어 건강 관련 요구 역시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남.
-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군 73.3%, 불만족군 43.8%로 큰 차이가 나타나, 주거환경 만족도가 학교 적응 및 전반적 생활 만족에 유의미하게 작용함.
- 주거환경 만족군은 행복감·관계·학교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을 보인 반면, 불만족군은 경제적 필요와 학교 적응 측면에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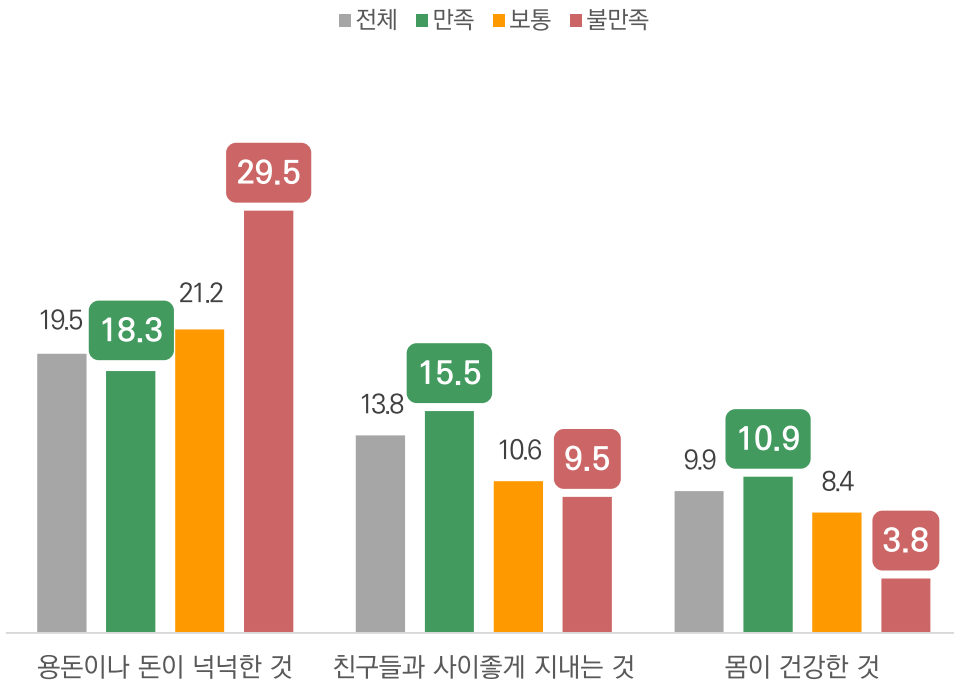
## 주관적 행복감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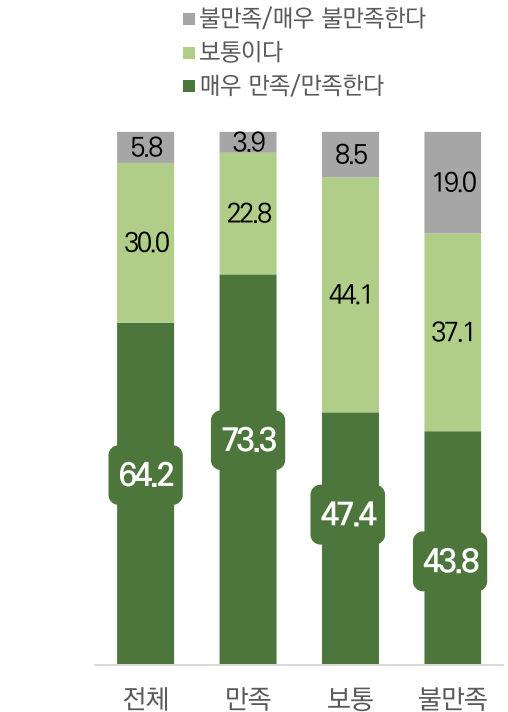
##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 학교 생활 만족도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 바. 학령간 분석 결과 및 시사점 - 주관적 행복감 및 학교 생활

##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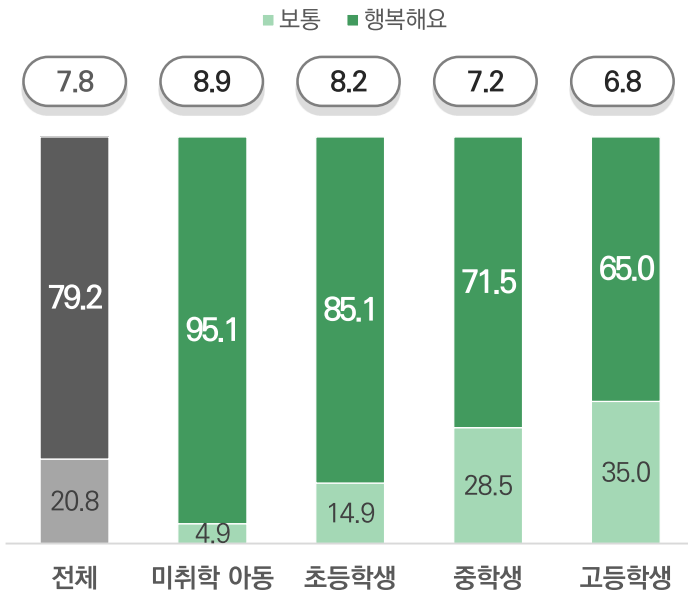
- 학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미취학 8.9점에서 고등학생 6.8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.
- 학교생활 만족도 점수는 학령간 차이는 적으나, '만족한다' 비율이 초등학생 84.0%에서 고등학생 64.2%로 크게 떨어짐.
- 행복 요인은 미취학아동, 초등학생, 중학생에서 '친구 관계'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, 고등학생은 '경제적 요인' 중요하게 나타남. '취미활동'은 취학 아동 전반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임.

## 시사점

- 행복감과 학교 만족도가 학령 상승에 따라 크게 낮아지므로, 특히 중·고등학생 대상 정서·관계·스트레스 지원 강화가 필요함.
- 대부분의 학령에서 또래 관계가 핵심 요인인 만큼, 관계 형성 및 갈등 조정 프로그램이 필요함.
- 고등학생은 경제적인 부담 완화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요구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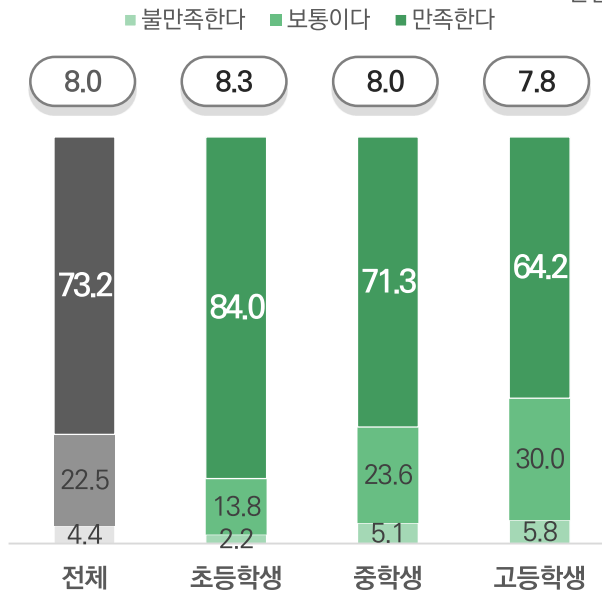
### 학령별 행복감 변화

[Base: 학령 별 전체, Unit: %, 점(10점 만점)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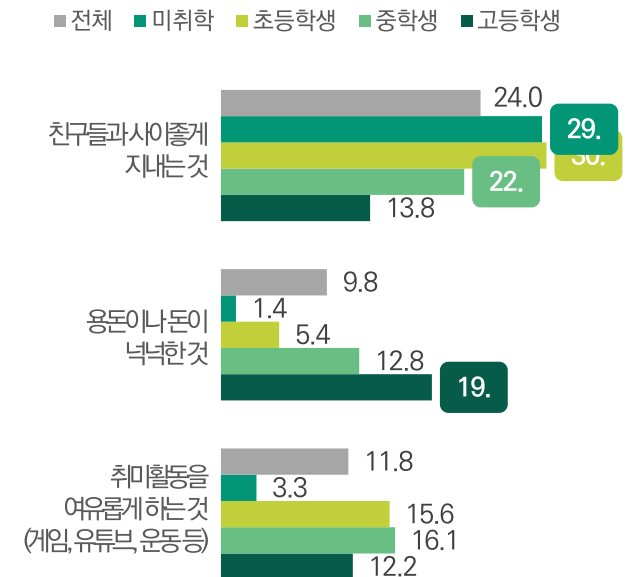
### 학령별 학교생활 만족도 변화

[Base: 초·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 %, 점(10점 만점)]



###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

[Base: 학령 별 전체, Unit: %]



PART /



# 주요 주제별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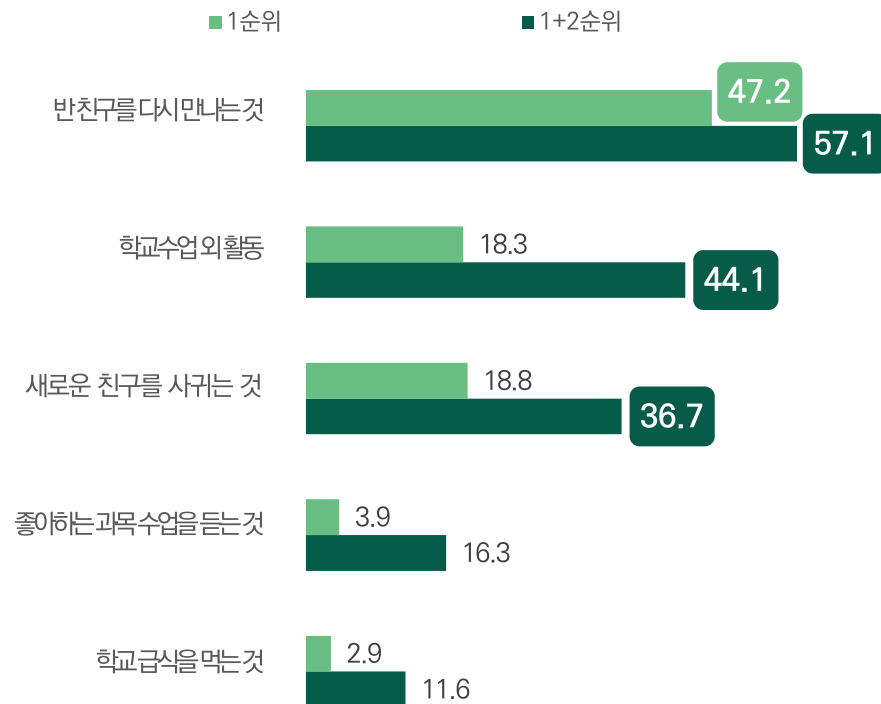
1.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2. 스트레스
3. 정서적 어려움
4. 주관적 행복감 및 관계 만족도
5. 새학기 현황
6. 사교육
7.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8. 자립 능력과 준비 정도
9.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10.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# 가. 초등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새학기 현황

- 초등학생의 새학기 기대 요소 중 1순위는 '반 친구 다시 만나기'가 47.2%로 가장 높고, 1+2순위 기준으로 57.1%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.
- 이어서 '학교수업 외 활동'이 44.1%, '새로운 친구 사귀기'가 36.7%를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'관계 형성' 기대가 중심을 이룸.
- 새학기에 이루고 싶은 목표 역시 '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'가 52.0%로 가장 높고, '새로운 친구 사귀기'(10.9%), '숙제·과제 잘 하기'(8.4%) 순으로 이어짐.
-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의 새학기 기대와 목표는 학업보다 '친구 관계 형성'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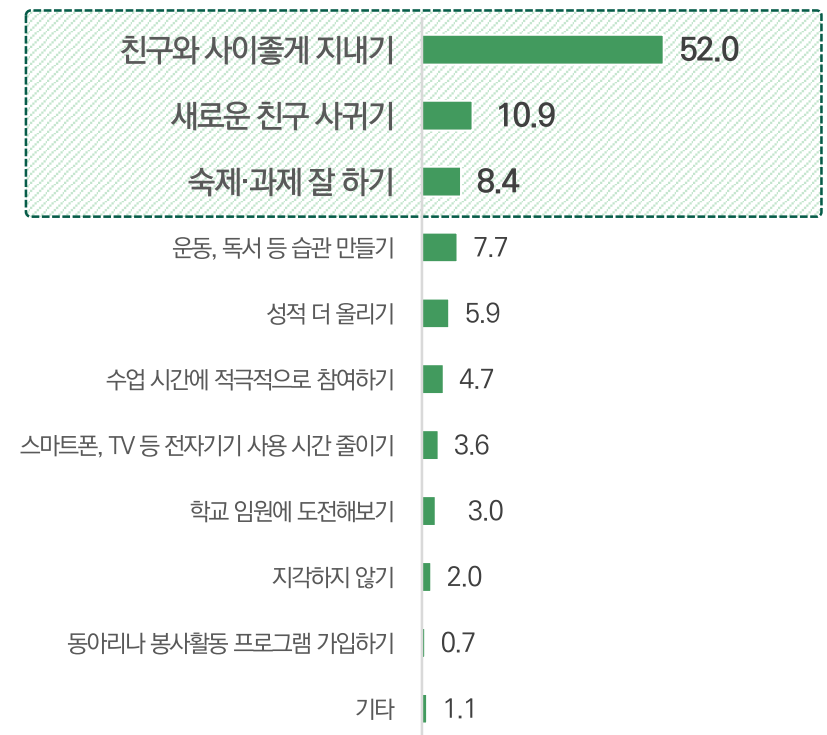
## 새학기 준비 시 가장 기대되는 것

[Base: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 새학기에 이루고 싶은 목표(1순위)

[Base: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 가. 초등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새학기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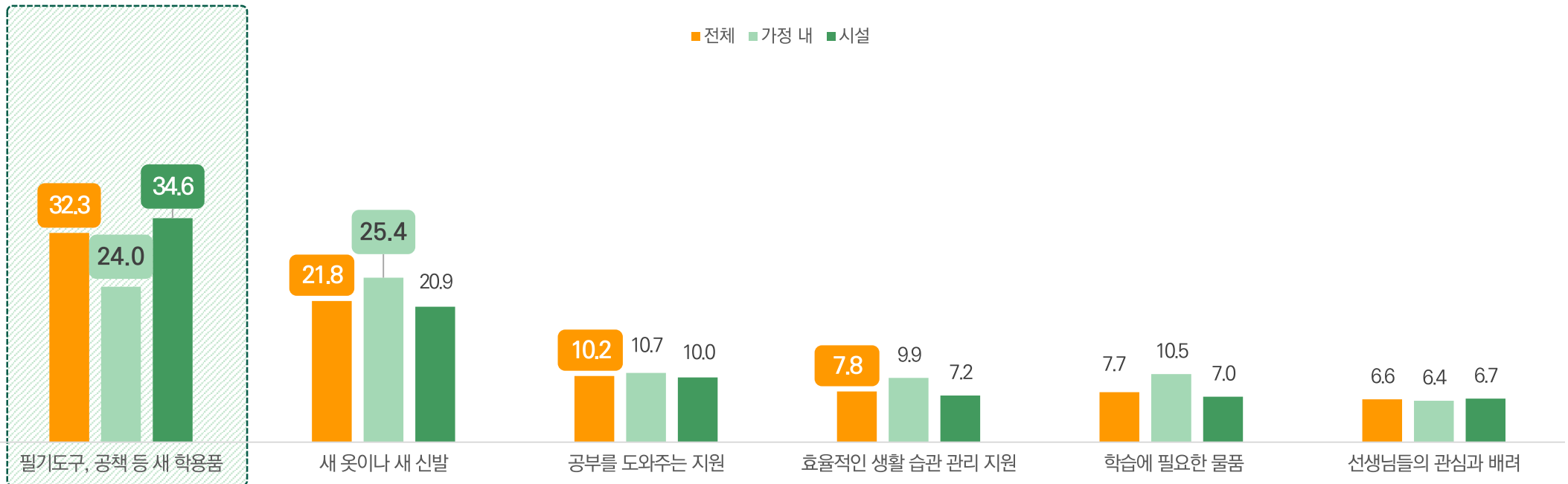
- 새학기 준비에서 가장 필요한 항목은 ‘필기도구, 공책 등 새 학용품’(32.3%)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가정 내 아동(24.0%)보다 시설 아동(34.6%)에서 더 큰 필요도가 확인됨.
- 그 다음으로는 ‘새 옷이나 새 신발’(21.8%)이 꼽혔고, 특히 가정 내 아동(25.4%)에서 요구 수준이 높게 나타남.
- 이외의 항목인 ‘공부를 도와주는 지원’(10.2%), ‘효율적인 생활습관 관리 지원’(7.8%)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,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준비는 학용품·의류 등 기본적인 물질적 기반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.

⇒ 새학기 준비 부담은 학용품·의류 등 기본 물품 수요가 가장 크며, 특히 시설 아동에서 학용품 요구도가 높아 기초 물품 지원의 우선 필요성이 확인됨.

⇒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학습 동기·성취보다 준비물과 환경적 기반 마련에 대한 필요가 더 크기 때문에, 학기 초에는 실질적 물품 중심 지원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.

## 새학기를 준비하며 필요한 것 (1순위)

[Base: 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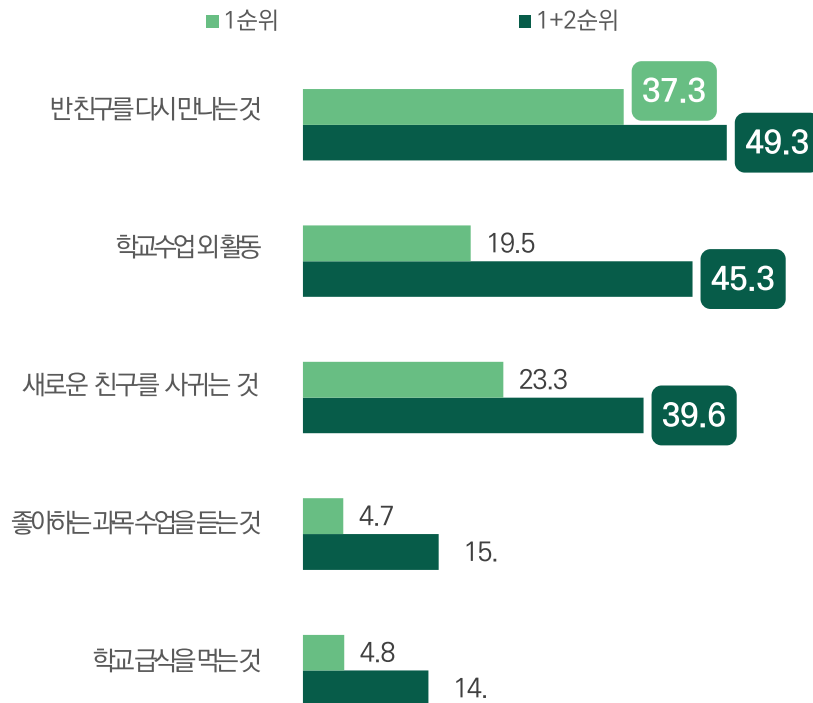


## 나. 중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새학기 현황

- 중학생의 새학기 기대 요소 중 1순위는 ‘반 친구를 다시 만나기’가 37.3%로 가장 높고, 1+2순위 기준으로도 49.3%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보임.
- 이어 ‘학교수업 외 활동’이 45.3%, ‘새로운 친구 사귀기’가 39.6%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‘관계 형성’과 ‘활동 경험’에 대한 기대가 중심을 이룸.
- 새학기에 이루고 싶은 목표 역시 ‘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’가 41.9%로 가장 높고, ‘성적 더 올리기’(13.1%), ‘새로운 친구 사귀기’(12.2%) 순으로 이어짐.
- 전반적으로 중학생의 새학기 기대와 목표는 학업 성취보다 ‘친구 관계’와 ‘학교생활 적응’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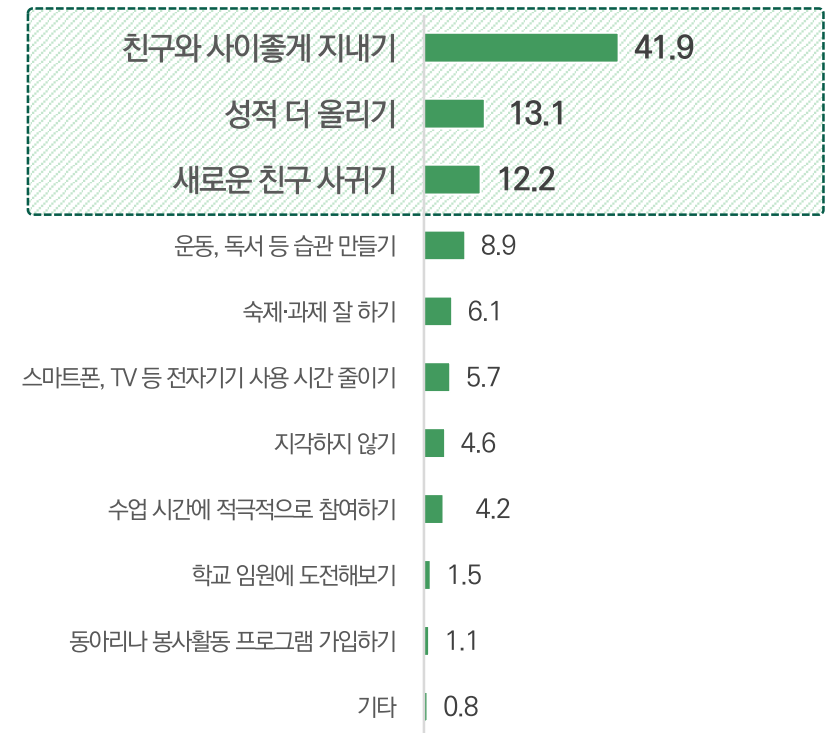
### 새학기 준비 시 가장 기대되는 것

[Base:중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새학기에 이루고 싶은 목표(1순위)

[Base:중학생 전체, Unit:%]



## 나. 중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새학기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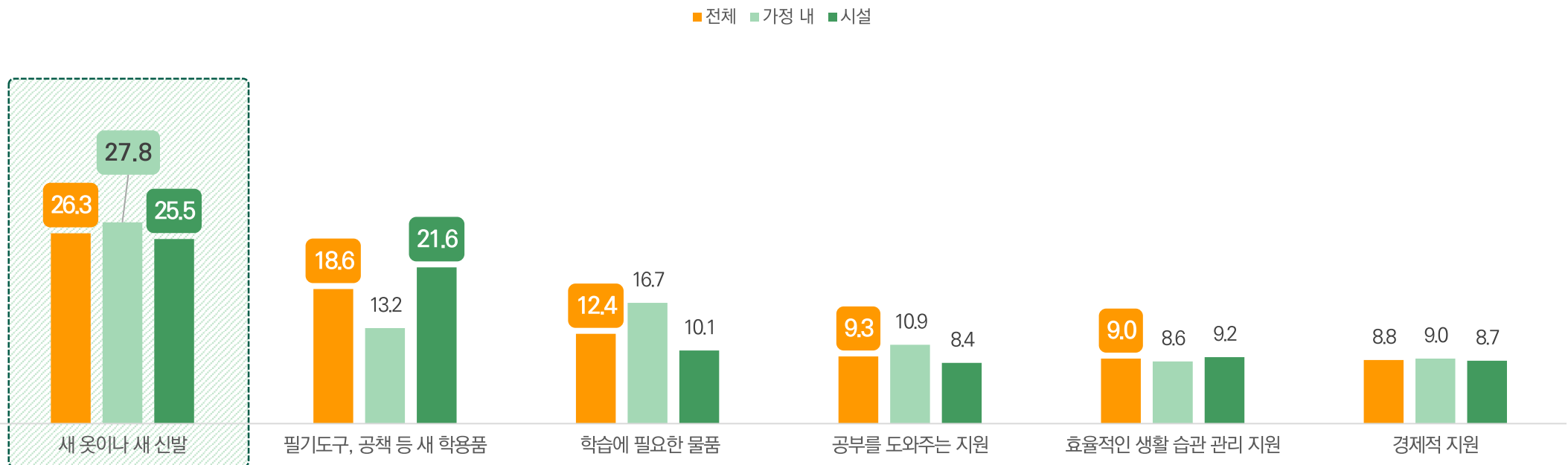
- 새학기를 준비하며 가장 필요한 항목은 ‘새 옷이나 새 신발’(26.3%)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가정 내 아동(27.8%)과 시설 아동(25.5%)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요구 수준이 확인됨.
- 그 다음으로는 ‘필기도구, 공책 등 새 학용품’(18.6%)이 꼽혔고, 특히 시설 아동(21.6%)에서 필요도가 더 높아 기본 학용품 준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.
- ‘학습에 필요한 물품’(12.4%), ‘공부를 도와주는 지원’(9.3%), ‘효율적인 생활습관 관리 지원’(9.0%)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, 중학생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항목은 의류·학용품 등 기초 물질 기반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.

⇒ 새학기 준비에서 가장 큰 부담은 의류·학용품 등 기본 물품이며, 특히 시설 아동에서 학용품 수요가 높아 기초 물품 지원의 우선 필요성이 확인됨.

⇒ 전반적으로 중학생은 학습 동기나 성취 지원보다 실질적인 준비물 확보가 더 시급한 필요로 나타나, 학기 초에는 의복·학용품 중심의 실질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.

### 새학기를 준비하며 필요한 것 (1순위)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 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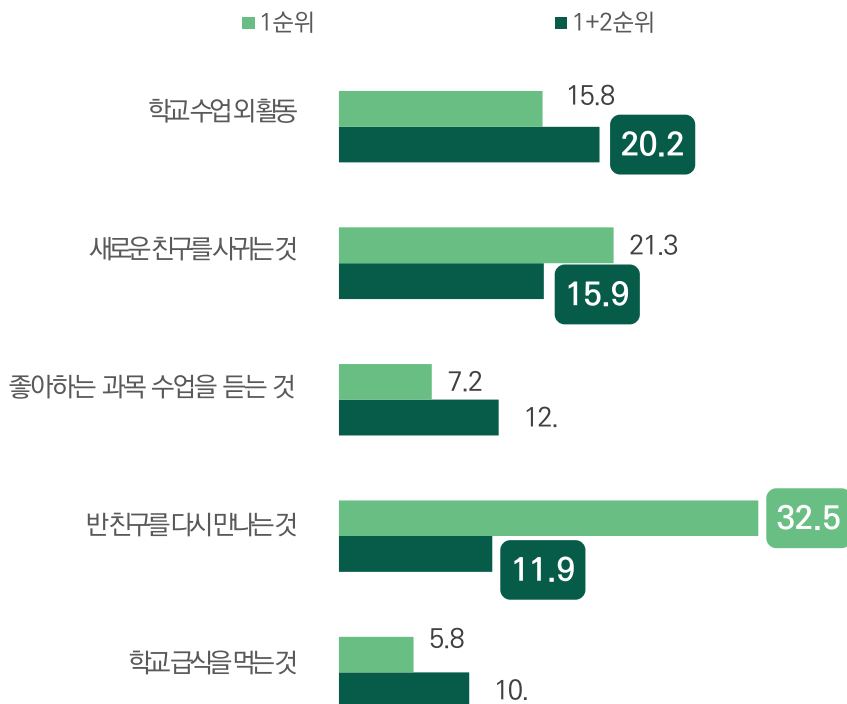


## 다. 고등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새학기 현황

- 고등학생의 새학기 기대 요소 중 1순위는 ‘반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’이 32.5%로 가장 높으며, 1+2순위 기준으로는 11.9%로 나타남.
- 이어 ‘학교수업 외 활동’이 20.2%, ‘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’이 15.9%로 나타나, 전반적으로 ‘친구 관계’ 외에도 학교생활 전반의 경험에도 관심이 분포하는 모습이 확인됨.
- 새학기에 이루고 싶은 목표에서는 ‘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’가 33.2%로 가장 높고, ‘성적 더 올리기’(14.4%), ‘운동, 독서 등 습관 만들기’(11.7%) 순으로 이어짐.
-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의 새학기 기대와 목표는 관계 형성과 더불어 학업·자기관리 등 실질적인 생활 습관 개선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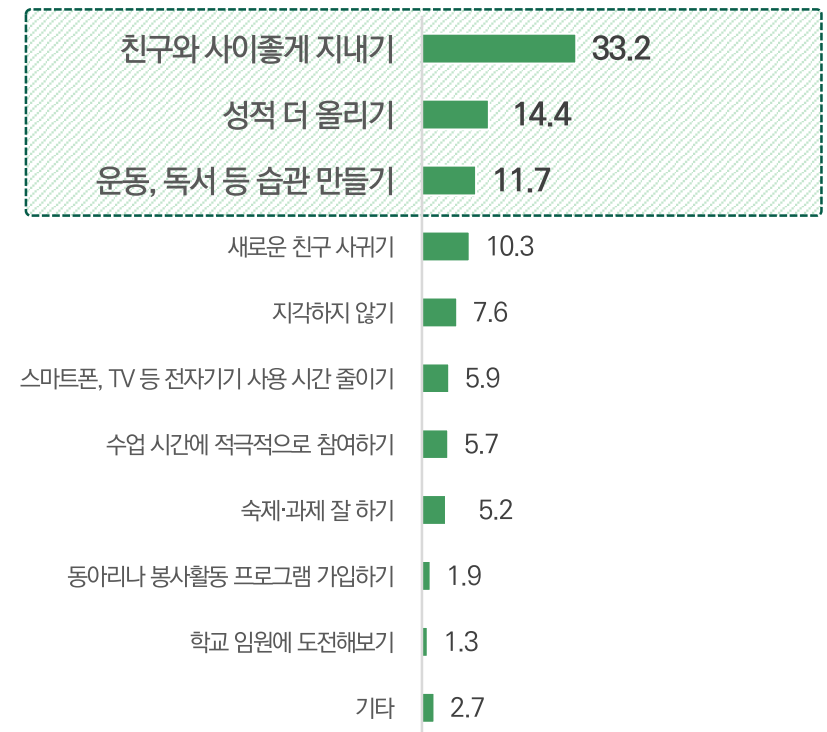
### 새학기 준비 시 가장 기대되는 것
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새학기에 이루고 싶은 목표(1순위)
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 다. 고등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새학기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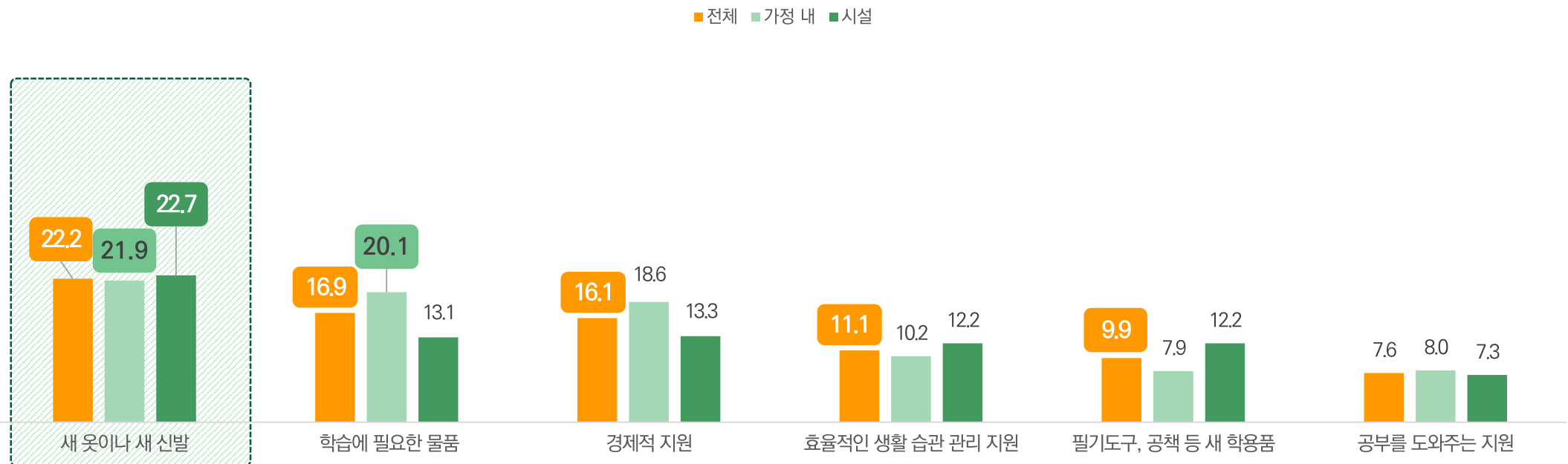
- 새학기를 준비하며 가장 필요한 항목은 ‘새 옷이나 새 신발’(22.2%)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가정 내 아동(21.9%)보다 시설 아동(22.7%)이 약간 더 높은 수준을 보임.
- 그 다음으로는 ‘학습에 필요한 물품’(16.9%)이 꼽혔고, 특히 시설 아동(20.1%)에서 필요도가 높아 생활·학습 준비물 확보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됨.
- ‘경제적 지원’(16.1%), ‘효율적인 생활습관 관리 지원’(11.1%), ‘필기도구·공책 등 새 학용품’(9.9%) 등은 비교적 낮은 비중으로 나타나, 고등학생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의류·학습 물품 등 기본 물품 중심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.

⇒ 고등학생의 새학기 준비 부담 역시 의류·학습 준비물 등 기본 물품이 중심이며, 특히 가정 내 아동에서 학습 관련 물품 수요가 크게 나타나 기초 물품 지원의 우선 필요성이 확인됨.

⇒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은 성취·학습 동기보다 실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필요가 더 큰 경향을 보여, 학기 초에는 의류·학습 물품 등 실질적 물품 중심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.

### 새학기를 준비하며 필요한 것 (1순위)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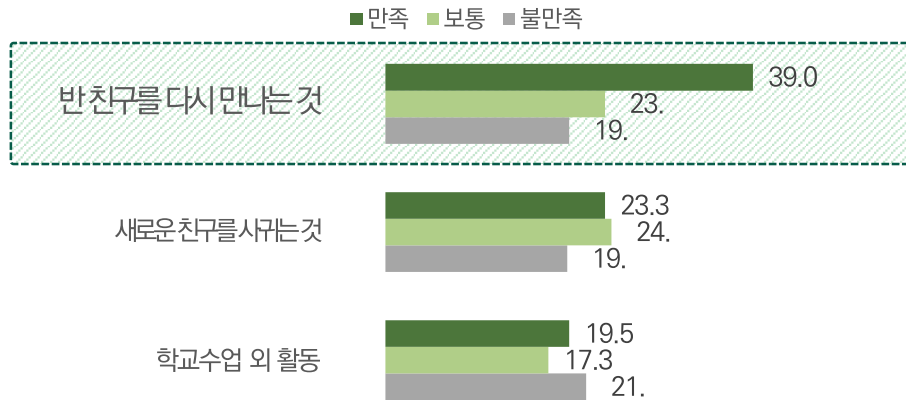


## 라. 주거환경 만족도별 **근황** 분석 결과 : 새학기 현황

- 중·고등학생 모두 새학기 준비 시 가장 기대되는 것과 새학기에 이루고 싶은 목표의 1순위가 동일하게 ‘친구 관계’ 중심으로 나타남.
- 구체적으로 새학기 준비 시 가장 기대되는 점에서는 ‘반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’, 새학기에 이루고 싶은 목표에서는 ‘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’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여, 학령과 주거환경 만족도와 관계없이 또래 관계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이 공통적으로 높음을 시사함.
- 이외 항목들은 집단 간 순위와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아, 전반적인 새학기 인식은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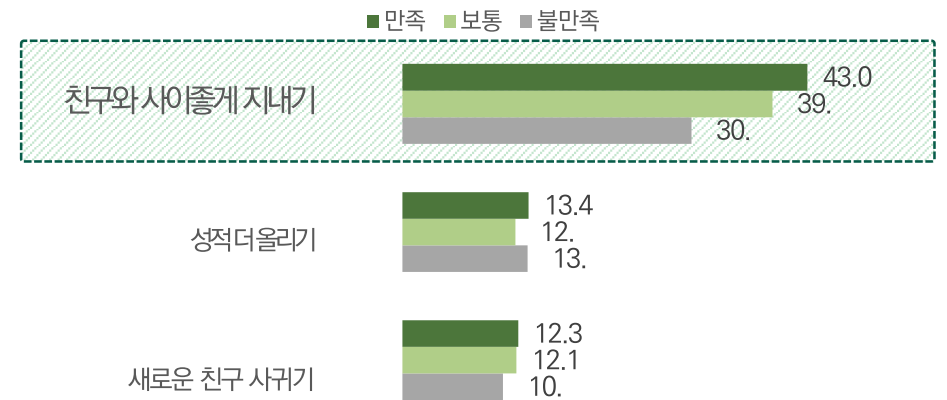
### 새학기 준비 시 가장 기대되는 것(1순위)

[Base:중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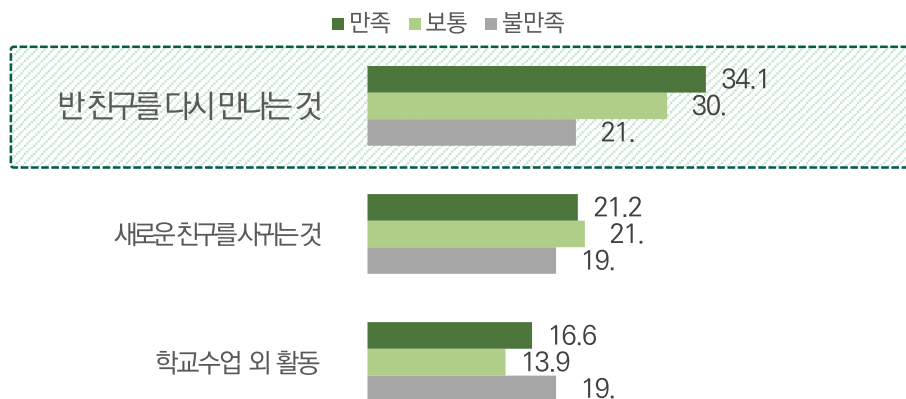


### 새학기에 이루고 싶은 목표(1순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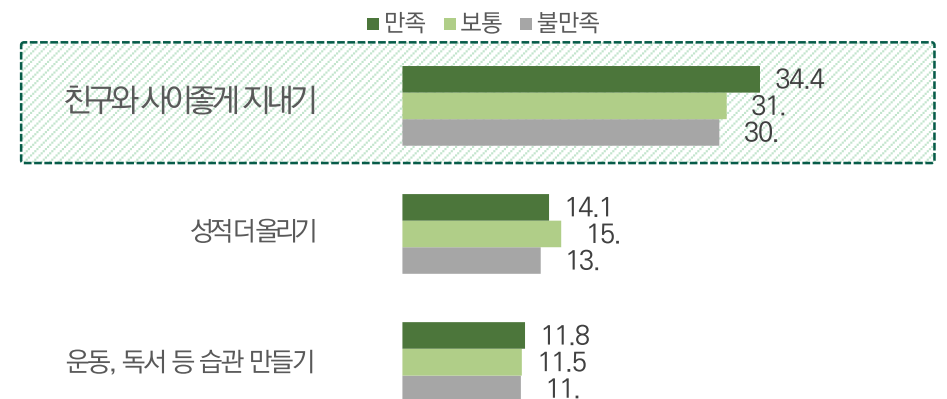
[Base:중학생 전체, Unit:%]


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 라. 주거환경 만족도별 욕구 분석 결과 : 새학기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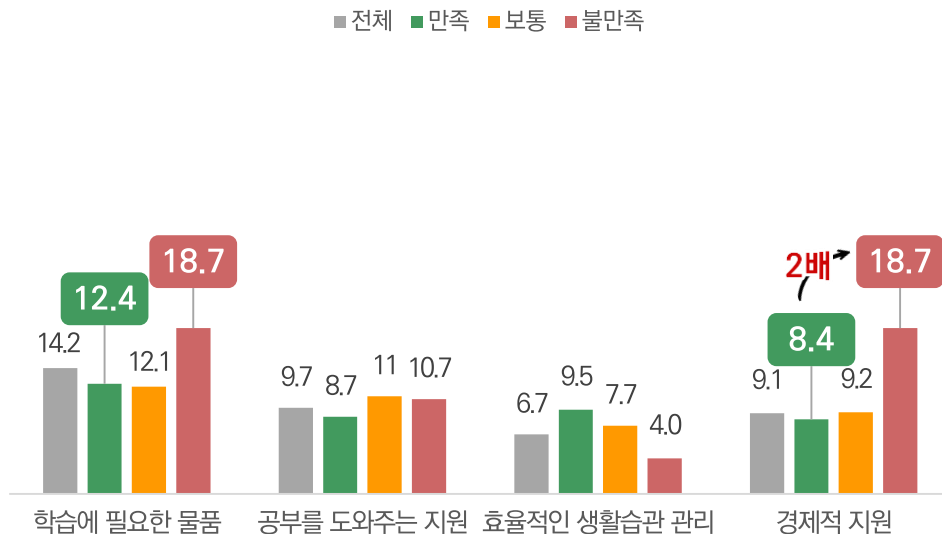
- 중학생은 ‘학습에 필요한 물품’ 요구가 불만족군 18.7%로 만족군(12.4%)보다 높아 기본 학습 준비물 필요도가 더 크게 나타남.
- 반면 ‘경제적 지원’ 요구가 불만족군 18.7%로 만족군(8.4%) 대비 약 2배 높게 나타나 경제적 부담 인식이 두드러짐.
- 고등학생은 ‘경제적 지원’이 불만족군 32.4%로 만족군(14.6%) 대비 2배 이상 높아 새학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.
- ‘효율적인 생활습관 관리’ 수요는 만족군(11.9%) 대비 불만족군에서 낮게 나타나, 자기관리·생활 패턴 관련 요구는 만족군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.

⇒ 중학생은 학습 물품·경제적 지원 등 기본적·현실적 지원 요구가 불만족군에서 높게 나타나, 기초학습 준비와 생활비 보조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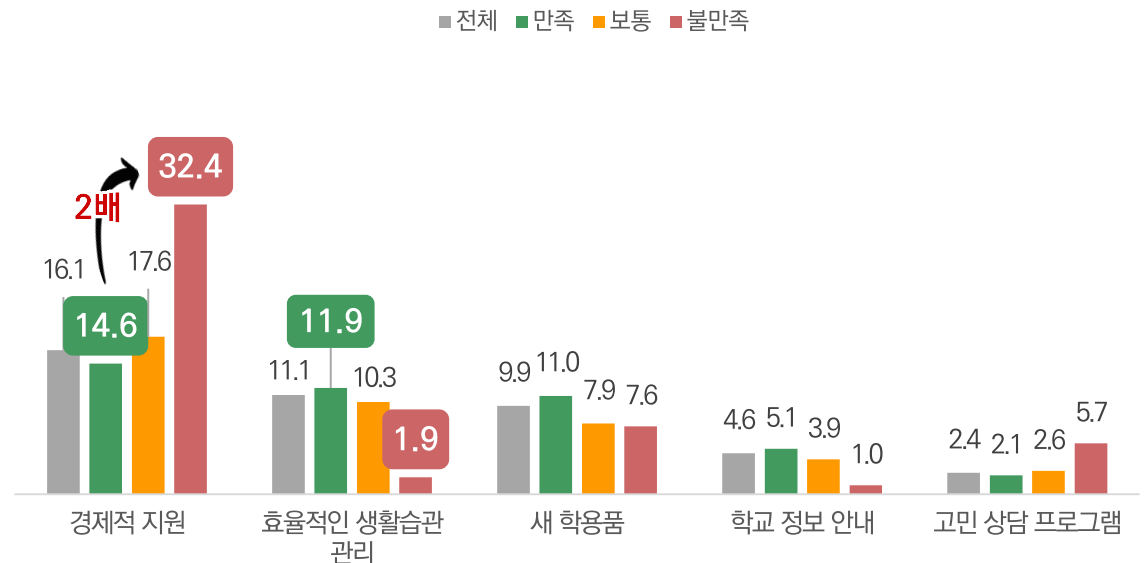
⇒ 고등학생은 학업·입시 부담이 커짐에 따라 경제적 지원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하며, 정보 안내·상담 프로그램 요구도 높아 입시 및 생활 기반 지원 강화가 요구됨.

### 새학기를 준비하며 필요한 것 (1순위)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 %]

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

# 마. 학령간 분석 결과 및 시사점 - 새학기 현황

##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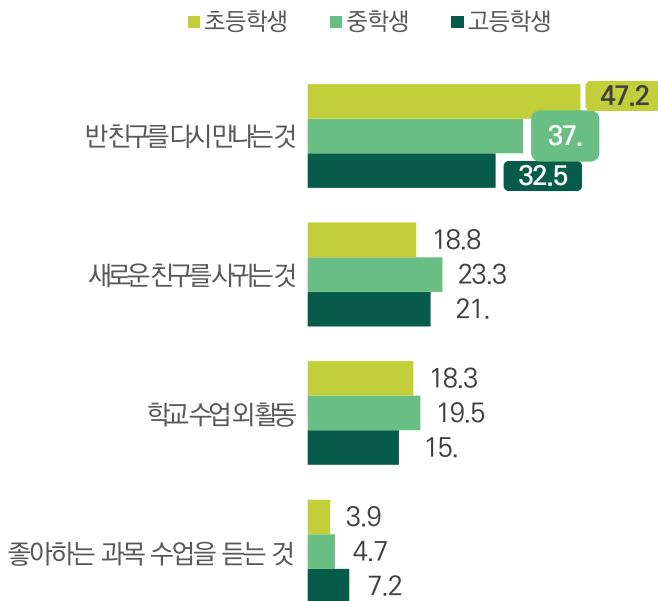
- 새학기 기대는 학령이 높아질수록 관계적 기대가 감소하며, '반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것' 비중은 초 47.2%, 중 37.3%, 고 32.5%로 점차 감소함.
- 새학기 목표에서도 관계 형성 비중이 초 52.0%, 중 41.9%, 고 33.2%로 줄어드는 반면, 고등학생은 '성적 올리기' 등 학업 중심 목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짐.
- 새학기 준비 요소는 초·중학생은 실물 준비물 중심, 고등학생은 공부 계획·생활 리듬 조정 등 자기관리 필요도가 높아지는 양상임.

## 시사점

- 새학기 기대와 목표에서 관계적 요소가 핵심이므로, 학기 초 또래 관계 형성과 학급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함.
- 학령이 높아질수록 관계 기대는 감소하고 학업 부담은 증가하므로, 초·중학생은 정서·관계 중심, 고등학생은 학업·자기관리 중심 지원이 요구됨.
- 새학기 준비 요소가 실물 준비에서 자기관리로 이동하므로, 초·중학생은 준비물·학습환경 지원이, 고등학생은 자기 관리·계획 지원이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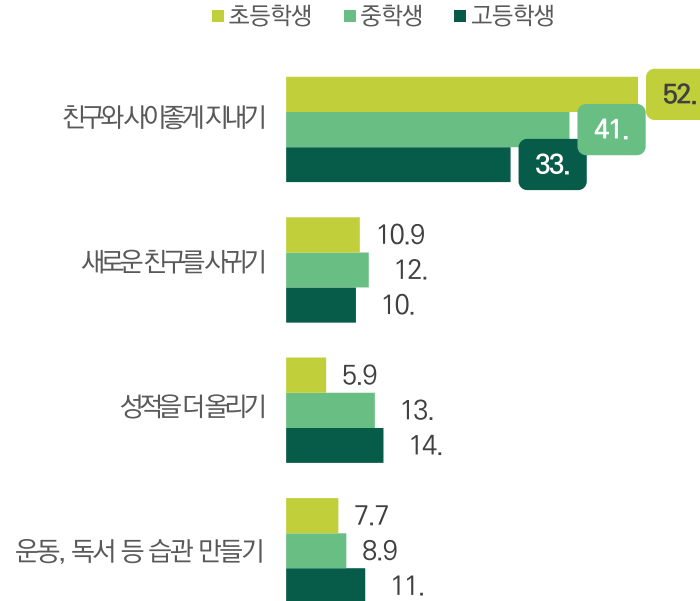
### 새학기 준비 시 가장 기대되는 것(1순위)

[Base: 초·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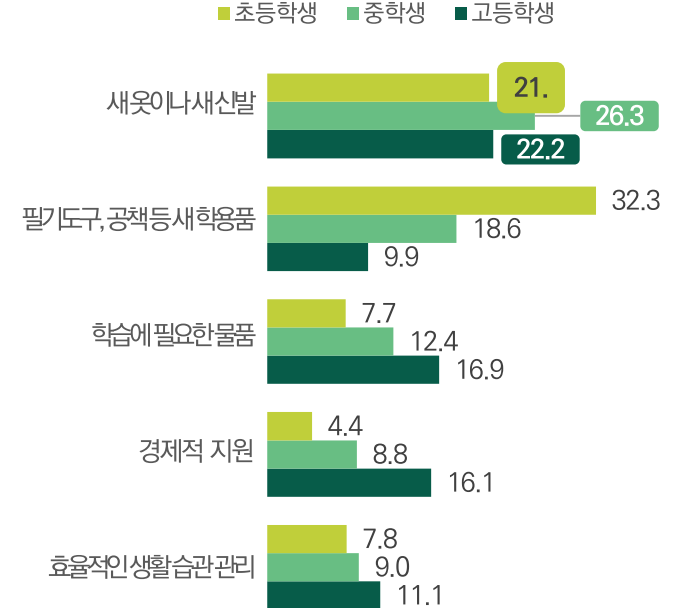
### 새학기에 이루고 싶은 목표(1순위)

[Base: 초·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

### 새학기를 준비하며 필요한 것(1순위)

[Base: 초·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

PART /



# 주요 주제별 분석 결과

1.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2. 스트레스
3. 정서적 어려움
4. 주관적 행복감 및 관계 만족도
5. 새학기 현황

6. 사교육
7.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8. 자립 능력과 준비 정도
9.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10.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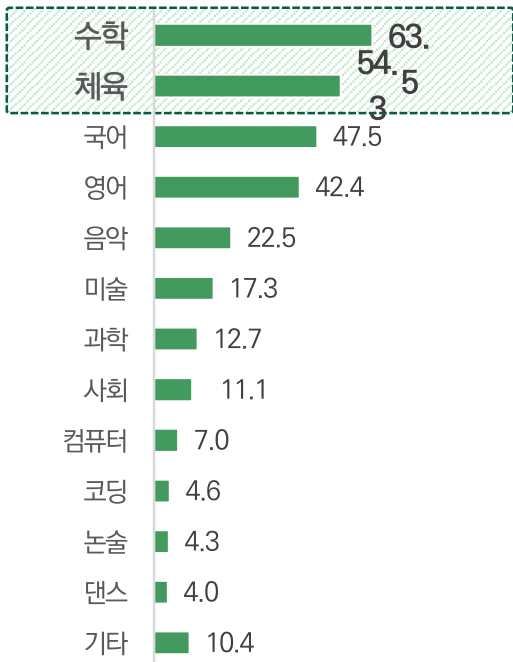
# 가. 초등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사교육

- 초등학생의 주중 평균 사교육 시간은 2.7시간이며, 참여 과목은 수학(63.5%), 체육(54.3%) 순으로 높게 나타남.
- 사교육 만족도는 전체 79.2%로 높은 편이나, 후원금 '충분' 그룹(81.1%) 대비 '부족+보통' 그룹은 55.6%로 크게 낮아, 경제적 도움에 대한 체감 정도가 사교육 만족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.
- 사교육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'수업 난이도 부담'(28.4%), '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서'(21.1%)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.
- 특히 농어촌 지역 아동은 '주변에 갈 만한 학원이 없어서'(17.6%) 비중이 도시 지역(대도시 5.7%, 중소도시 7.3%) 대비 2배 이상 높아, 지역 간 교육 접근성 격차가 두드러짐.

##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 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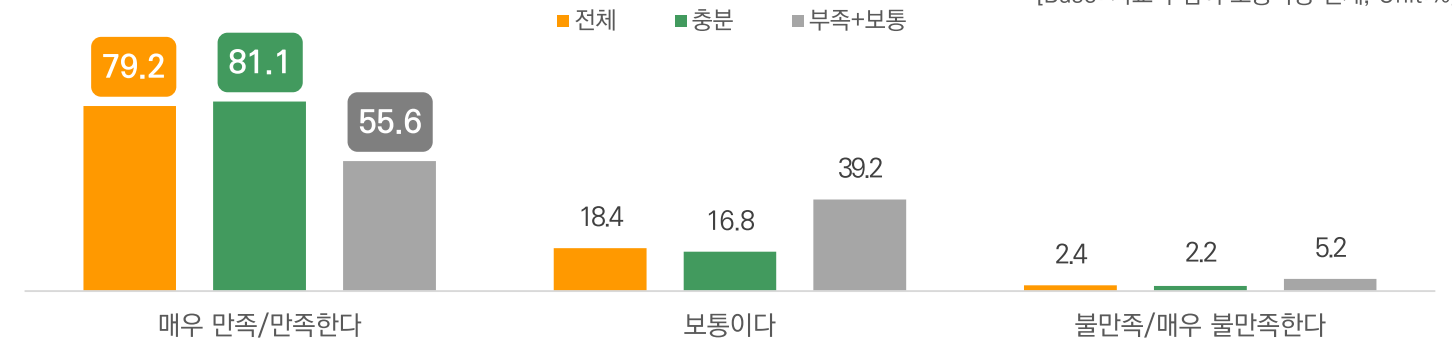
[Base: 사교육 참여 초등학생 전체, Unit: %, 시간]

초등학생 주중 평균 사교육 시간 : 2.7시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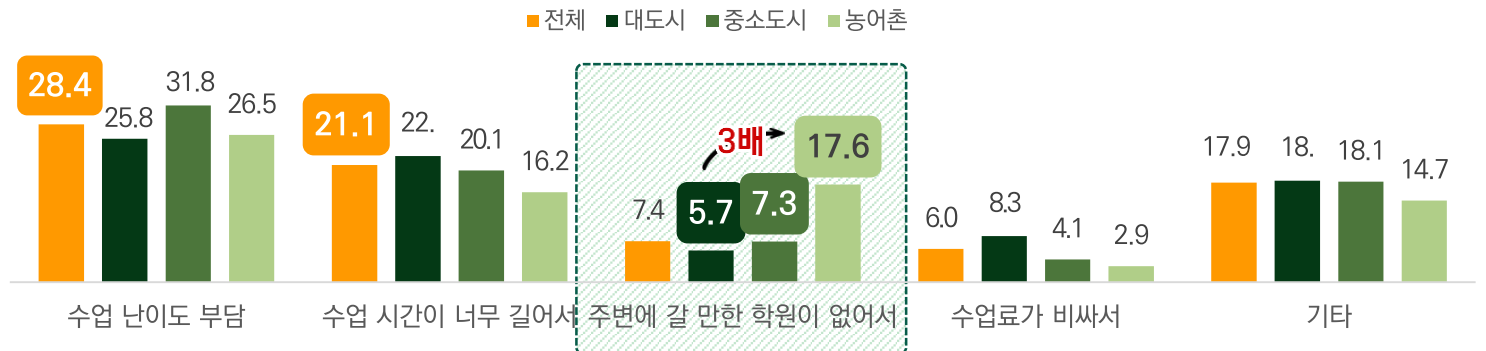
## 사교육 만족도

[Base: 사교육 참여 초등학생 전체, Unit: %]



## 사교육 불만족 이유

[Base: 사교육 만족도 불만족/보통 응답 초등학생 전체, Unit: %]



# 가. 초등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사교육

- 초등학생은 체육(22.2%)을 가장 받고 싶은 과목으로 선택해 예체능 사교육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, 미술·영어·음악 등 다양한 관심이 분포함.
- 사교육을 이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‘근처에 다니고 싶은 학원이 없어서’ (17.4%), ‘학원비가 비싸서’(16.4%), ‘딱히 다닐 기회가 없어서’(13.6%)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. 특히 농어촌 지역은 ‘근처에 다니고 싶은 학원이 없어서’ 비율이 37.5%로 중소도시, 대도시 대비 약 3배 높아,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두드러짐.
- 사교육에서 기대하는 점으로는 ‘꿈에 가까워질 것 같다’(25.8%), ‘공부가 더 재미있어질 것 같다’(16.4%), ‘성적 향상’(16.3%) 순으로 나타나, 사교육이 흥미·동기 향상과 진로 탐색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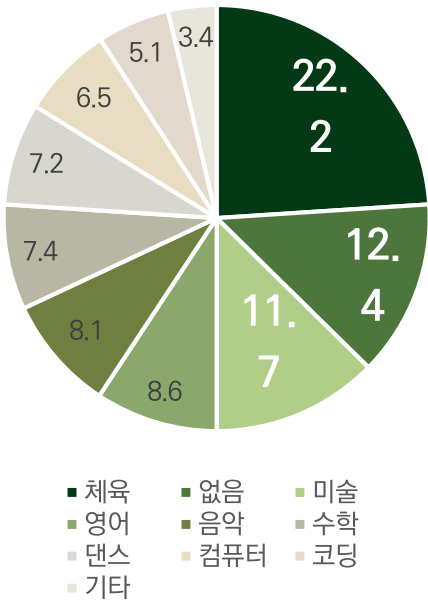
⇒ 농어촌 아동의 사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도입 혹은 온라인 교육 지원이 필요함.

⇒ 학원 선택지가 부족한 지역을 위해 소규모 그룹수업·온라인 연계 교육 등 대안적 학습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.

⇒ 아동의 흥미·동기 향상을 위한 진로·재능 탐색형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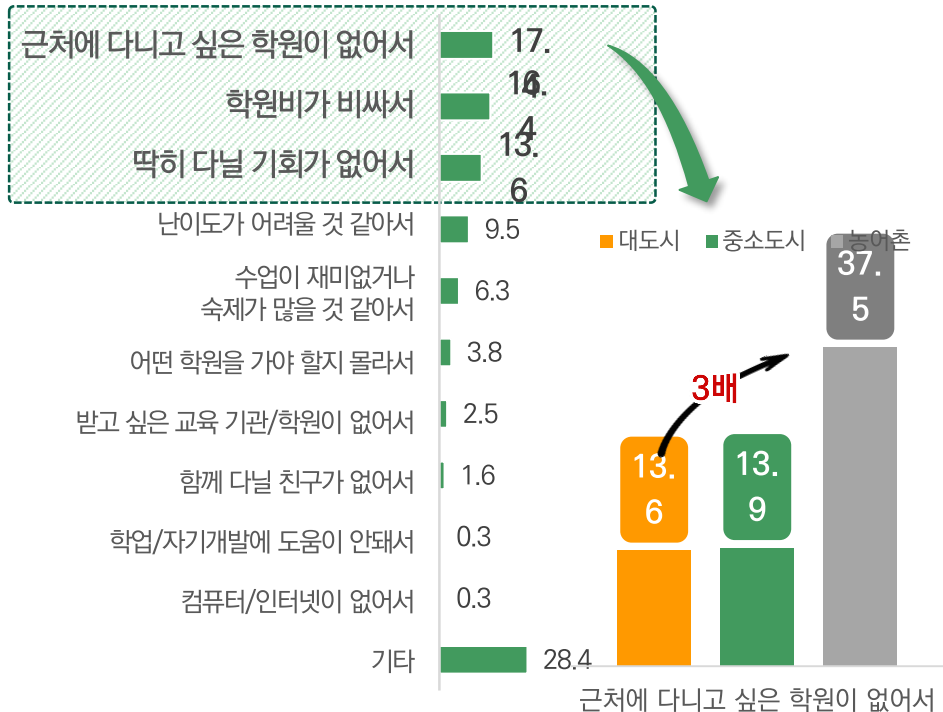
## 가장 받고 싶은 사교육 과목

[Base: 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 사교육을 이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

[Base: 사교육 비참여 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 사교육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

[Base: 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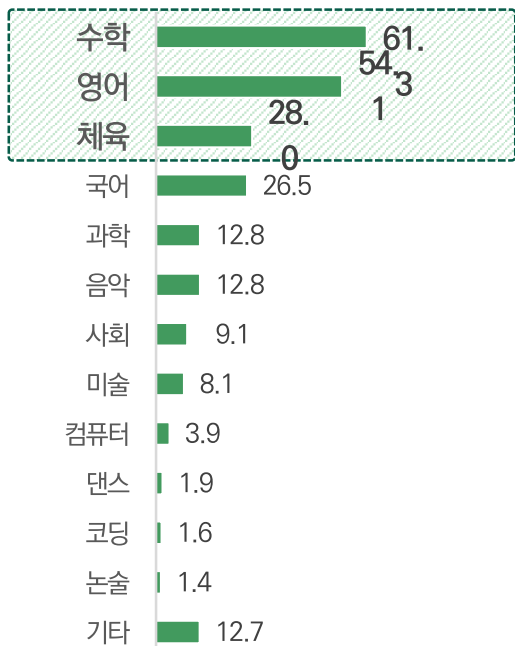
## 나. 중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사교육

- 중학생의 주중 평균 사교육 시간은 3.0시간으로 초등학생보다 증가하였으며, 참여 과목은 수학(61.3%), 영어(54.1%), 체육(28.0%) 등 교과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남.
- 사교육 만족도는 전체 68.2%로, 초등학생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. 후원금 ‘충분’ 그룹(72.1%)이 ‘부족+보통’ 그룹(46.7%) 보다 높아, 후원금이 도움이 된다고 느낄수록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임.
- 사교육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‘수업 난이도 부담’(22.5%), ‘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서’(16.6%), ‘수업료가 비싸서’(12.1%) 순으로 나타남.
- 농어촌 지역은 ‘주변에 갈 만한 학원이 없음’ 비율이 12.5%로 대도시(5.0%), 중소도시(9.0%)보다 높아, 중학생 시기에도 지역 간 교육 접근성의 차이가 지속됨.

###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 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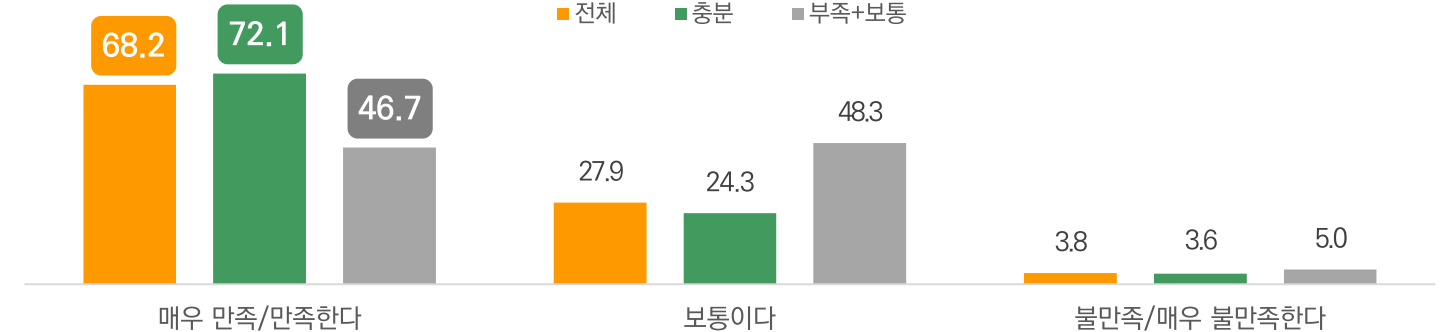
[Base: 사교육 참여 중학생 전체, Unit:%,시간]

중학생 주중 평균 사교육 시간 : 3.0시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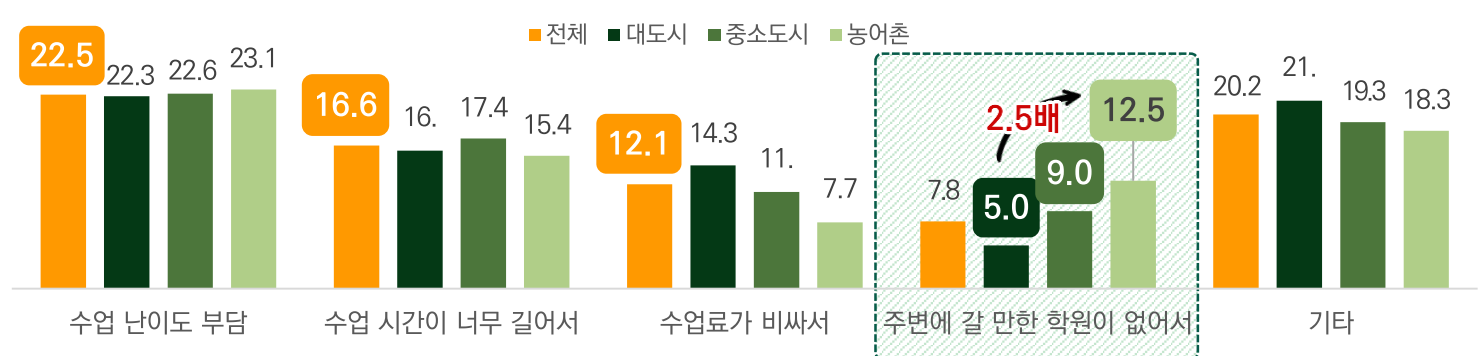
### 사교육 만족도

[Base: 사교육 참여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사교육 불만족 이유

[Base: 사교육 만족도 불만족/보통 응답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## 나. 중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사교육

- 중학생은 초등과 동일하게 체육 선호가 가장 높고(20.6%), 사교육 비참여 의향(16.3%)도 적지 않음. 학업 과목 선호는 영어(11.3%), 수학(10.6%)이 비슷한 수준이며, 음악(6.8%), 미술(6.3%) 등에 대한 선호도 고르게 분포함.
- 사교육 이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‘학원비 부담’(21.4%)이며, ‘근처에 다니고 싶은 학원이 없어서’(13.6%)도 높은 비율로 나타남. 특히 농어촌 지역의 해당 비율이 29.9%로 도시 대비 약 3배 높아,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크게 나타남.
- 사교육에 대한 기대는 ‘꿈에 좀 더 가까워질 것 같다’(25.8%), ‘성적이 오를 것 같다’(25.0%)가 가장 높으며, ‘어려운 내용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’(12.1%) 등 학업 보완 효과에 대한 기대도 확인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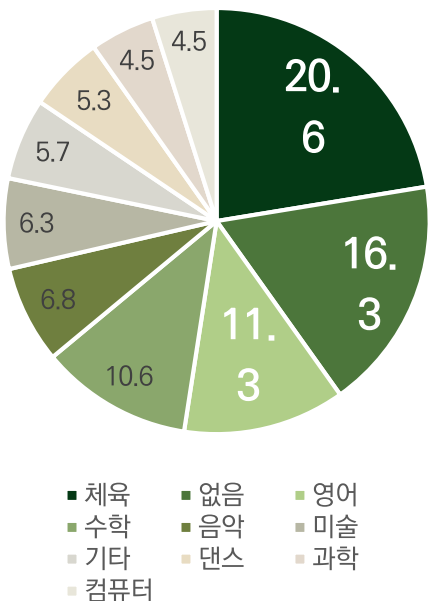
⇒ 농어촌 아동의 사교육 접근성이 특히 낮으므로, 찾아가는 교육·온라인 대안 프로그램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.

⇒ 학원비 부담이 가장 큰 장벽으로 나타난 만큼, 사교육·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·교육비 보조가 필요함.

⇒ 아동의 진로·성취 기대가 높으므로, 흥미·진로 탐색 중심의 공공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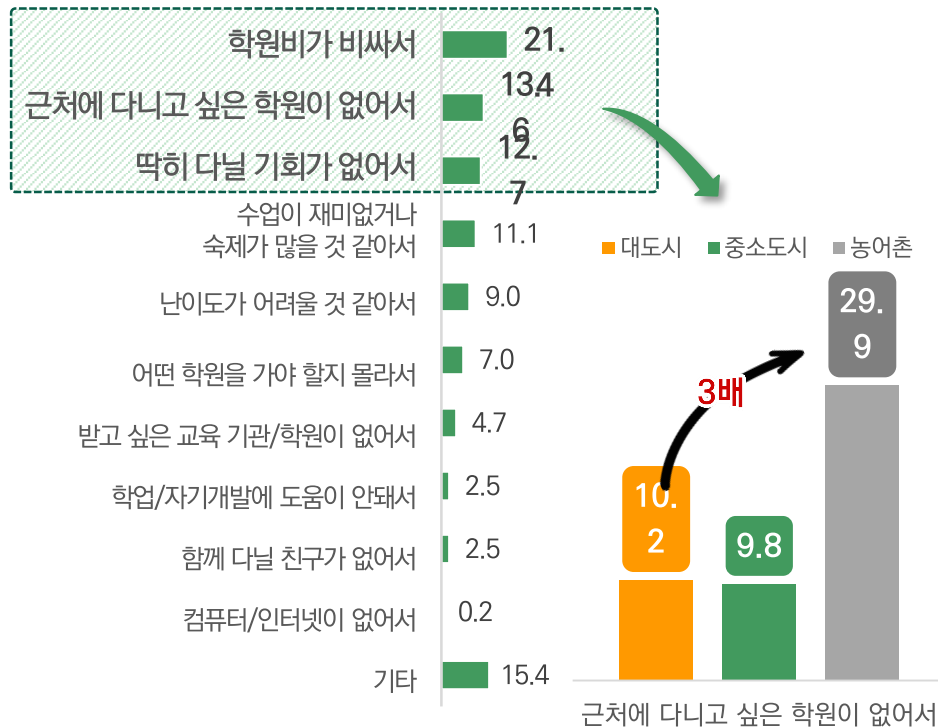
### 가장 받고 싶은 사교육 과목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사교육을 이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

[Base: 사교육 비참여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사교육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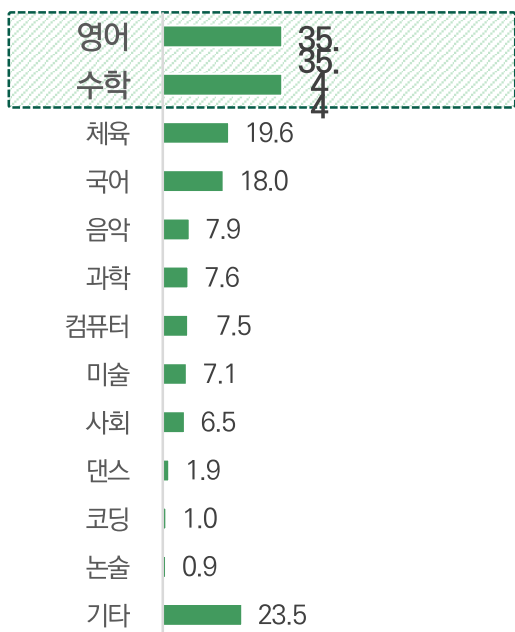
# 다. 고등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사교육

- 고등학생의 주중 평균 사교육 시간은 2.4시간으로 중학생보다 감소하였으며, 참여 과목은 영어(35.4%), 수학(35.4%) 등 입시 관련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나타남.
- 사교육 만족도는 전체 64.5%로, 후원금 '충분' 그룹(68.6%)이 '부족+보통' 그룹(39.2%)보다 높아 후원금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아동일수록 사교육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.
- 불만족 이유는 '수업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'(24.7%), '수업료가 비싸서'(17.8%), '필요한 사교육 학원 부재'(11.6%) 순으로 나타나, 난이도와 비용 부담이 주요 장벽으로 확인됨.
- 농어촌 학생은 '주변에 갈 만한 학원이 없음'(16.3%) 비율이 도시 지역(대도시 8.2%, 중소도시 7.8%) 대비 약 2배 높아, 고등학생 시기에도 지역 접근성 격차가 지속됨.

##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 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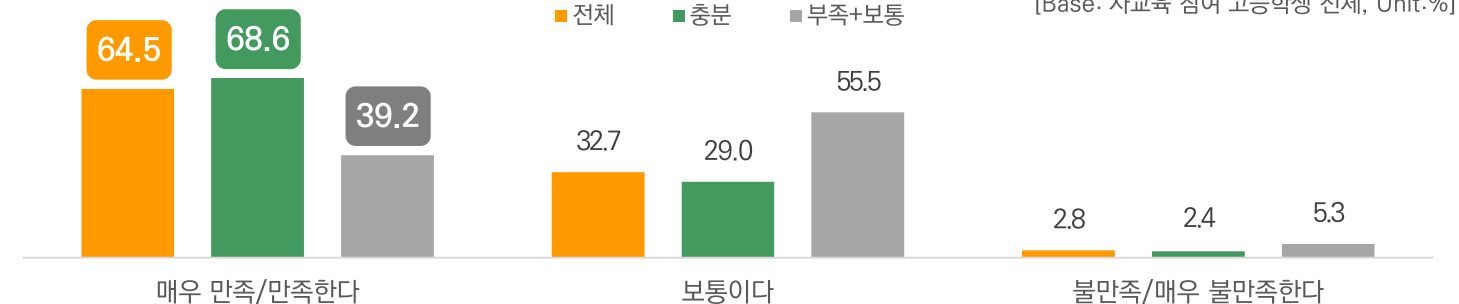
[Base: 사교육 참여 고등학생 전체, Unit:%,시간]

고등학생 주중 평균 사교육 시간 : 2.4시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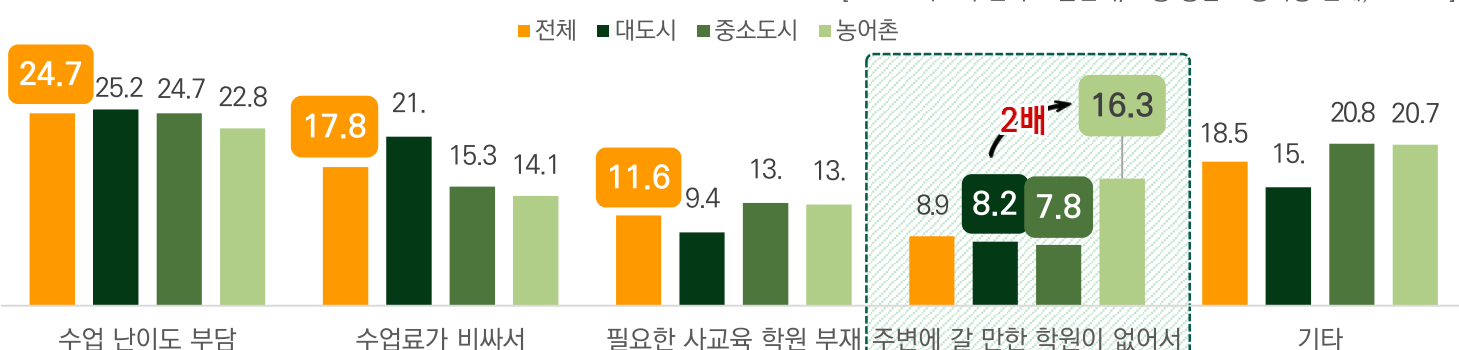
## 사교육 만족도

[Base: 사교육 참여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 사교육 불만족 이유

[Base: 사교육 만족도 불만족/보통 응답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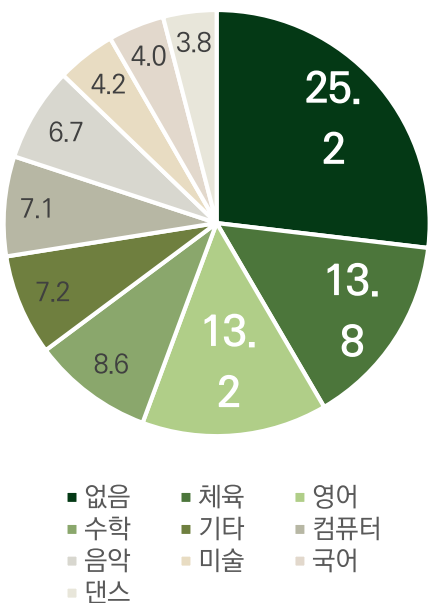
## 다. 고등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사교육

- 고등학생은 '없음(25.2%)' 비율이 가장 높아 사교육 희망 과목이 없다는 응답이 두드러지며, 이후 체육(13.8%), 영어(13.2%) 순으로 나타남.
- 사교육 이용 어려움은 '학원비 부담'(27.9%)이 가장 높고, '딱히 다닐 기회가 없어서'(13.8%), '근처에 다니고 싶은 학원이 없어서'(9.4%)가 뒤를 이음.
- 특히 농어촌 학생은 '근처에 다니고 싶은 학원이 없음'(18.9%)이 대도시(6.9%), 중소도시(8.3%) 대비 약 3배 높아,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크게 나타남.
- 사교육 기대에서는 '꿈에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'(30.6%)', '성적이 오를 것 같아요'(19.8%) 순으로 나타남.

⇒ 고등학생은 사교육을 진로·입시 목표 달성의 직접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, 진로 탐색과 학업 성취를 연계한 맞춤형 학습·멘토링 지원이 필요함.  
 ⇒ 농어촌의 높은 접근성 제약은 입시 준비 자원 격차를 키울 수 있어, 온라인 강의·지역 거점형 학습 지원 등 접근성 개선 대책이 요구됨.  
 ⇒ 또한 '없음' 비중이 가장 높아 무의향 학생 대상 진로 탐색·동기 강화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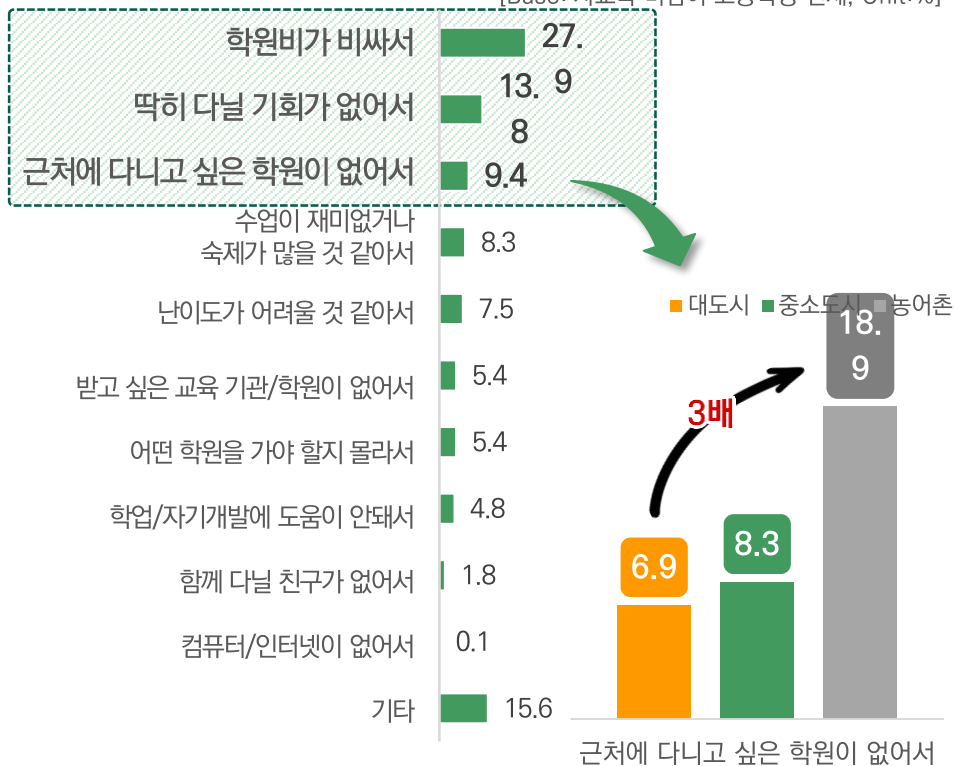
### 가장 받고 싶은 사교육 과목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사교육을 이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

[Base: 사교육 비참여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사교육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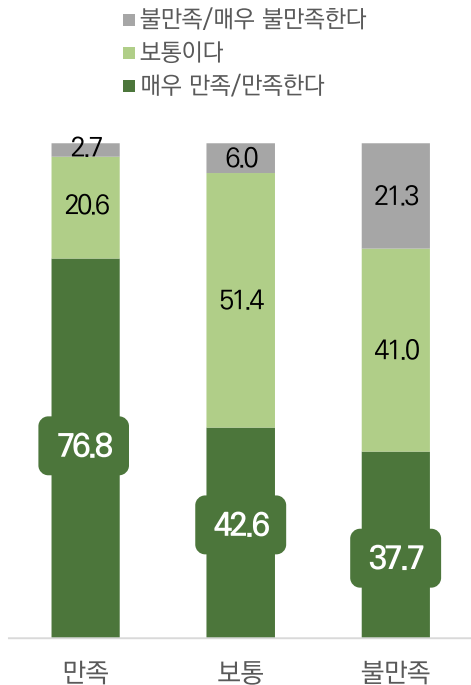


## 라. 주거환경 만족도별 **근황** 분석 결과 : 사교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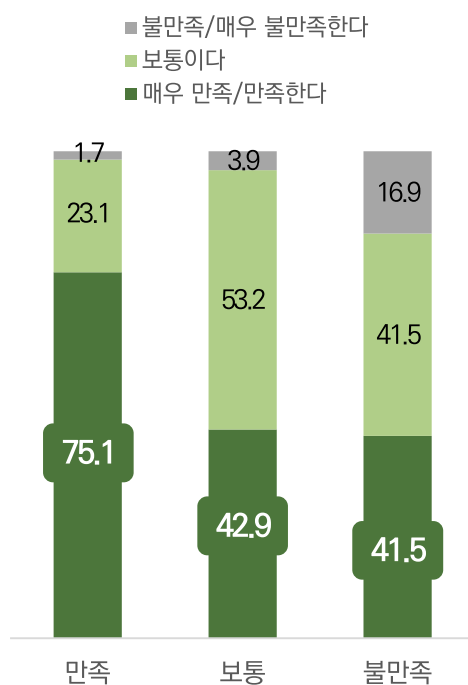
- 중학생의 사교육 만족도는 만족군이 76.8%, 보통군 42.6%, 불만족군 37.7%로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을수록 사교육 만족 수준이 크게 낮아짐.
- 고등학생 역시 만족군이 75.1%로 가장 높은 반면, 보통군 42.9%, 불만족군 41.5%로 만족군과 비만족군 간 격차가 뚜렷하게 확인됨.
- 중학생의 사교육 불만족 이유 중 '수업료가 비싸서'는 불만족군 23.7%로 만족군(10.5%) 대비 크게 높게 나타나, 사교육 수업료 부담이 주거환경 불만족군에서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임.
- 고등학생은 '수업 난이도 부담'이 불만족군 28.9%로 만족군(12.7%) 대비 높게 나타나, 난이도·학습량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드러남.
-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교육 경험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며, 불만족군은 난이도·비용 등 학업 부담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.

### 사교육 만족도

[Base: 사교육 참여 중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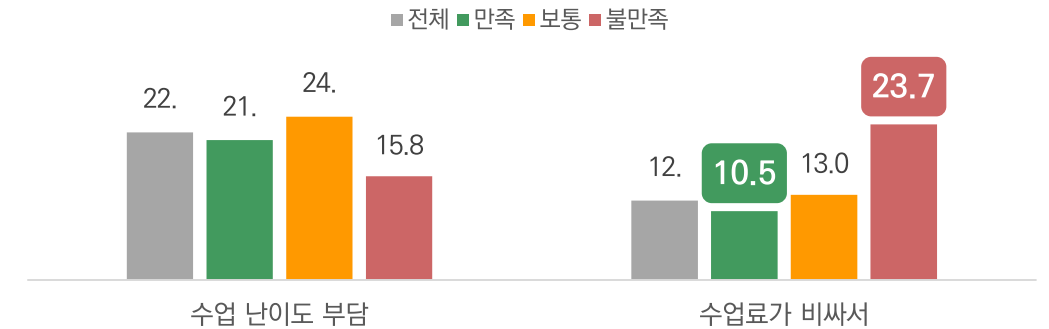


[Base: 사교육 참여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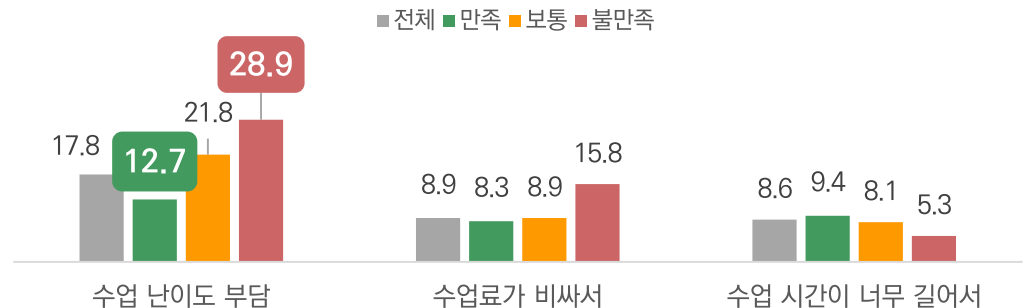


### 사교육 불만족 이유

[Base: 사교육 만족도 불만족/보통 응답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[Base: 사교육 만족도 불만족/보통 응답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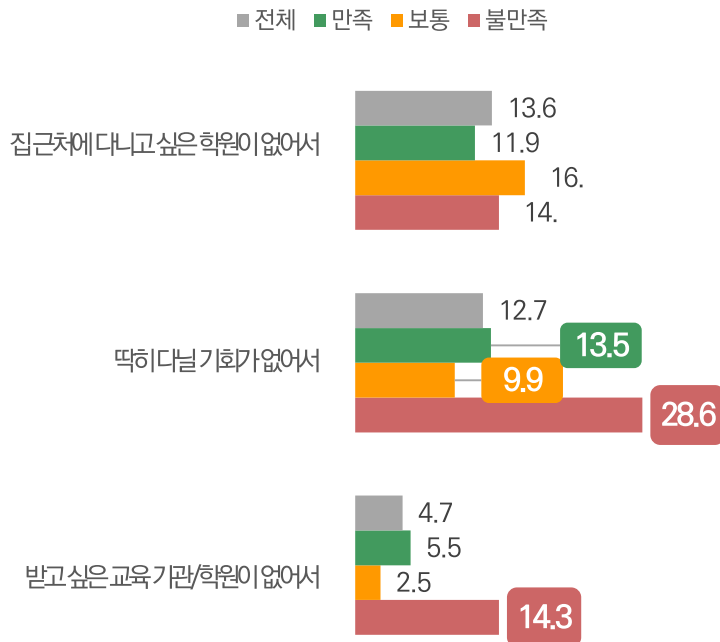
## 라. 주거환경 만족도별 욕구 분석 결과 : 사교육

- 중학생은 ‘딱히 다닐 기회가 없음’이 만족군(13.5%)·보통군(9.9%) 대비 불만족군에서 28.6%로 가장 높아, 사교육 접근 기회 부족이 두드러짐.
- ‘받고 싶은 교육기관·학원 없음’도 불만족군에서 14.3%로, 다른 그룹보다 확연히 높아 선택지의 부족 문제가 확인됨.
- 고등학생은 ‘학원비가 비싸서’가 보통군 34.8%, 불만족군도 32.5%로 비용 부담이 공통 어려움으로 나타남.
- ‘집 근처에 다니고 싶은 학원이 없음’은 만족군(9.2%)과 보통군(8.4%)에 비해 불만족군에서 22.5%로 2배 이상 높아, 학원 선택지 한계가 뚜렷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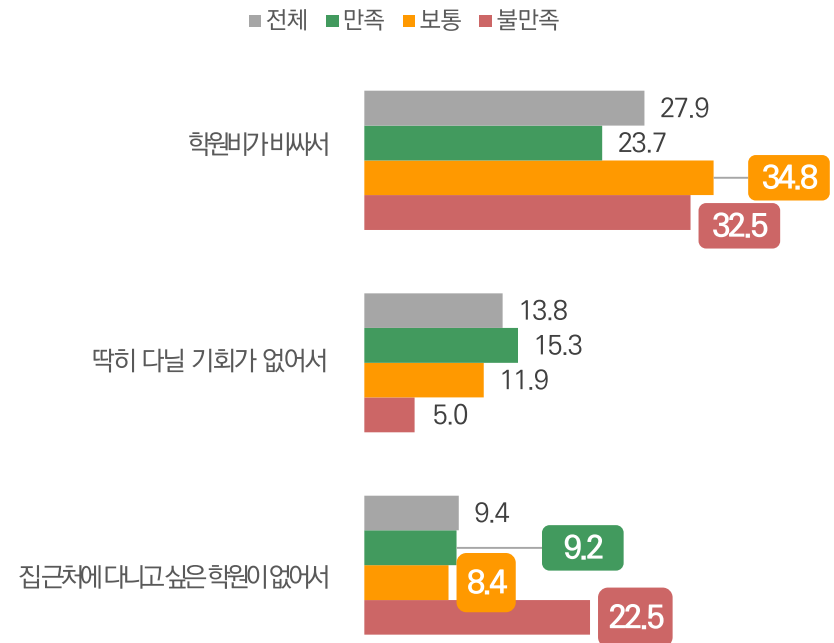
⇒ 중학생은 사교육 기회 자체가 부족해, 방과후·온라인 등 학습 기회 확대가 필요함.  
 ⇒ 고등학생은 학습비 부담과 기회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, 보충·심화 프로그램 및 학습비 지원이 요구됨.  
 ⇒ 학령별 제약이 달라, 중학생은 ‘학습 기회 제공’, 고등학생은 ‘진학 중심 지원’에 초점을 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.

### 사교육을 이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

[Base: 사교육 비참여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[Base: 사교육 비참여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 마. 학령간 분석 결과 및 시사점 - 사교육

##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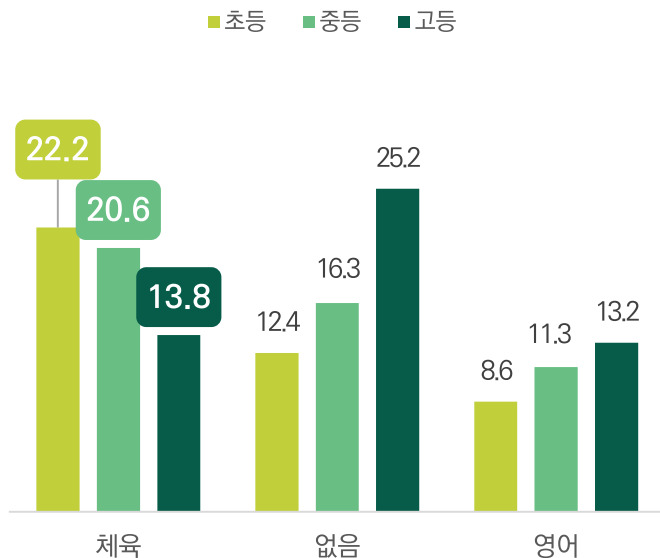
- 사교육 희망 과목은 학령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. 초등은 체육 등 예체능 선호가 높고, 중학생은 영어·체육 비중이 비슷해지며, 고등에서는 '없음' 응답이 크게 증가함.
- 또한 사교육 이용 어려움은 전 학령에서 '비용 부담'이 가장 높지만, 초등은 '기관 부족', 중등은 '기회 부족', 고등은 '학업 부담·비용'이 상대적으로 높아 장애 요인이 학령별로 다르게 나타남.
- 전체적으로 학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의 목적이 흥미 중심 → 성적 향상 → 진로·미래 대비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남.

## 시사점

- 학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 목적이 '흥미/보충'에서 '성적/진로 대비'로 이동해, 고등학생 대상의 진로/학업 계획 지원이 필요함.
- 초등·중등은 지역별 기관·기회 부족으로 접근성 격차가 커, 대체 학습과 기본 학습 보완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됨.
- 중학생은 성적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이므로, 맞춤형 학습 코칭과 정서 상담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.
- 고등학생은 '없음' 응답 증가로 사교육 선택이 제한될 수 있어, 학교 중심의 학습 지원 환경이 중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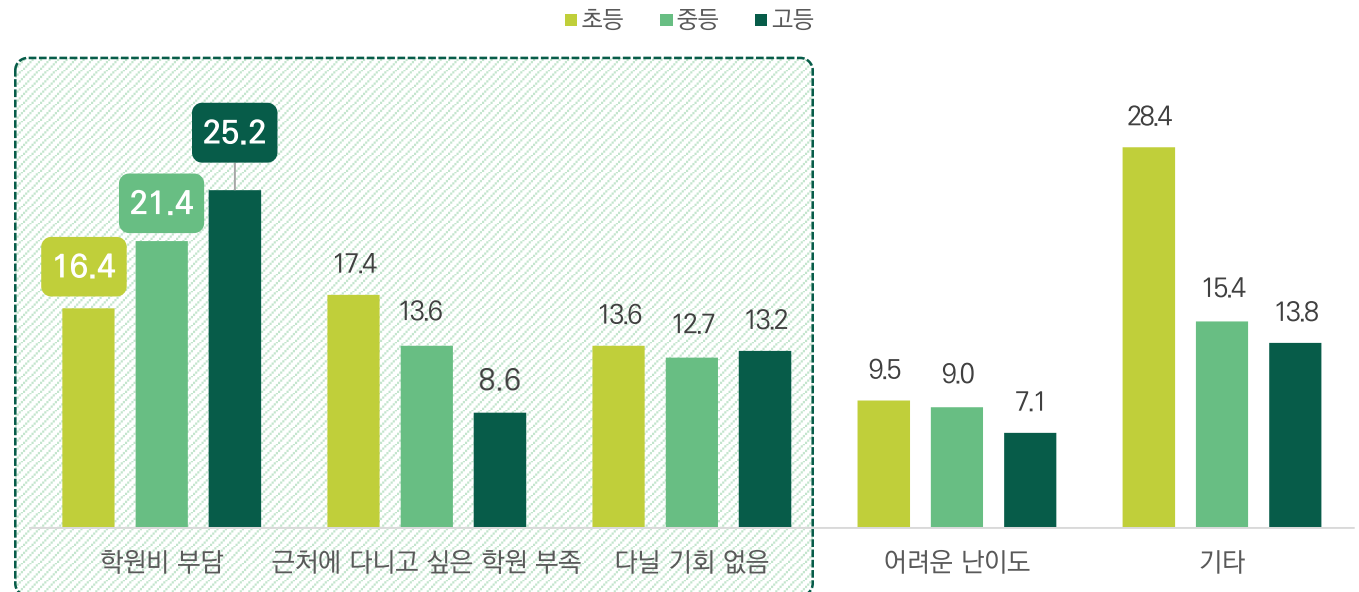
### 가장 받고 싶은 사교육 과목

[Base: 초·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사교육을 이용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

[Base: 사교육 비참여 초·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 바. 종합 제언 : 「배움의 날개」 프로젝트

## “배움의 날개, 어디서나 펼치다”

- ✎ 중소도시는 학원비 부담(21.3%)과 기회 부족(20.5%)이 주요 이유임.
- ✎ 농어촌은 근처에 원하는 학원이 없어(37.5%) 교육 접근성의 한계가 두드러짐.

### 콘텐츠 구성안

교육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고,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학습 지원 콘텐츠

#### 핵심 메시지

- ☑ “배움의 공간은 교실에만 있지 않다.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.”

#### 콘텐츠 목표

- ☑ 지역·경제적 격차에 관계없이 아동이 학습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
- ☑ 온라인·오프라인 연계형 콘텐츠로 꾸준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
- ☑ 농어촌·중소도시 등 소외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한 지속가능한 학습 인프라 마련

#### 콘텐츠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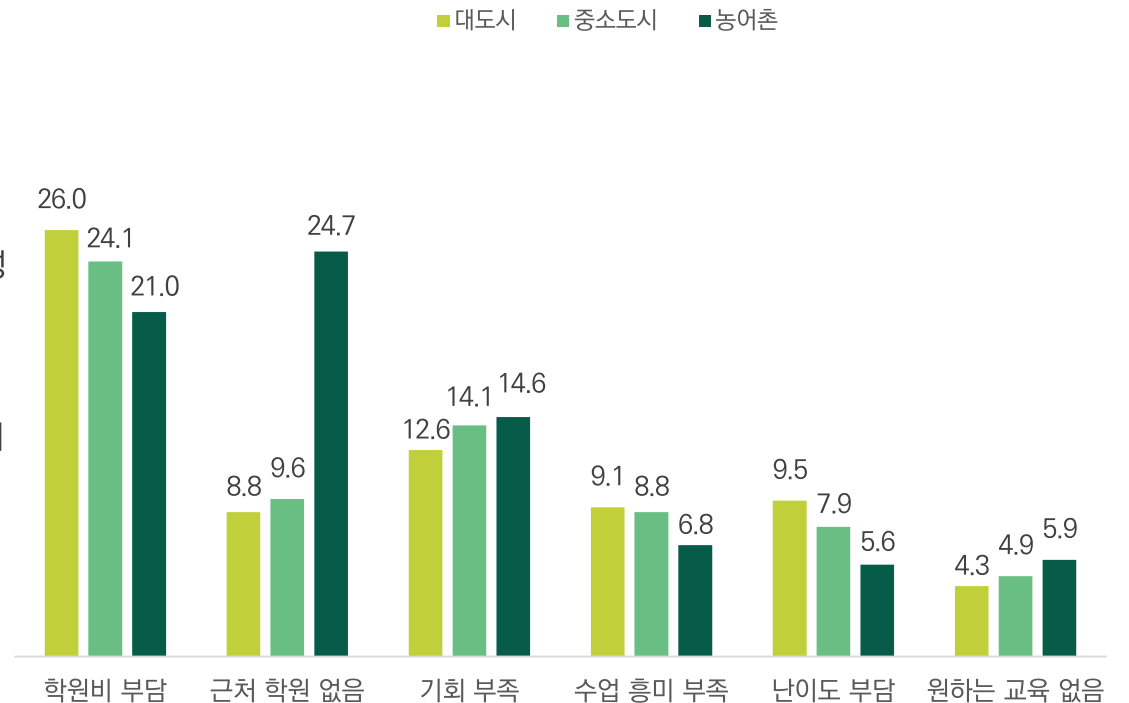
- ☑ 디지털 튜터 (AI 기반 온라인 학습 플랫폼) : 지역·소득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(“AI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요”)
- ☑ 멘토링 연결 프로그램 (‘배움 친구’) : 대학생·전문가와 1:1 비대면 멘토링 (학습 도움 + 진로 대화)
- ☑ 찾아가는 배움버스 : 농어촌·도서지역 순회형 학습 체험 버스 운영 (“학교 밖 학교”)

#### 기대 효과

- ☑ 지역 간 학습 접근성 격차 완화
- ☑ 학습 동기 및 자존감 향상
- ☑ 멘토링을 통한 정서적·인지적 지원
- ☑ 교육 자원의 공정한 분배 기반 마련

### 사교육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점

[Base: 초/중/고 사교육 비참여 전체, Unit:%]



PART /



# 주요 주제별 분석 결과

1.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2. 스트레스
3. 정서적 어려움
4. 주관적 행복감 및 관계 만족도
5. 새학기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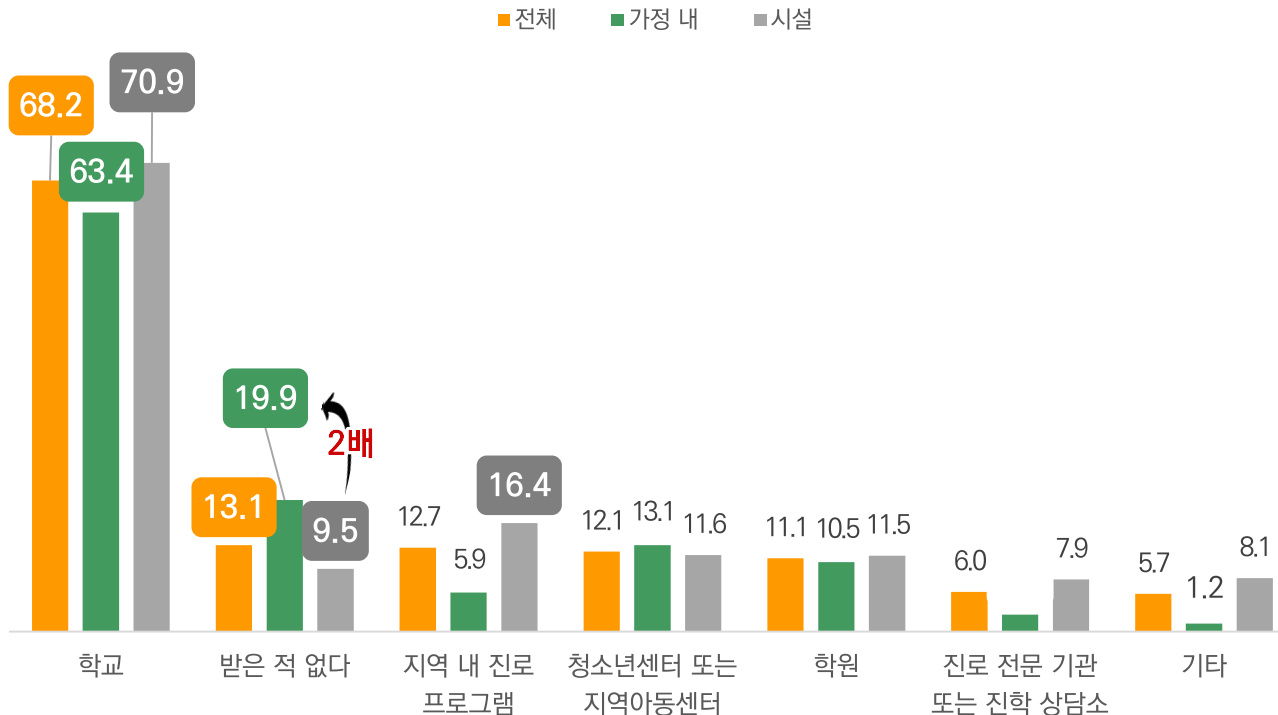
6. 사교육
7.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8. 자립 능력과 준비 정도
9.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10.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# 가. 중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
- 중학생의 10명 중 7명(68.2%)은 ‘학교’에서 진로교육을 경험함.
- 가정 내 아동은 학교 내 진로교육 경험 비율이 63.4%로 시설 아동(70.9%)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, ‘받은 적 없다’ 비율도 19.9%로 시설 아동(9.5%) 대비 2배 가량 높게 나타나, 가정 내 아동의 진로 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임을 보여줌.
- 시설 아동은 학교 외에도 ‘지역 내 진로 프로그램’ 참여 경험도 16.4%로 나타나,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로 관련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됨.
- 진로 결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‘나에게 맞는 직업을 모르겠다’(50.7%)로 절반 이상이 적합한 진로 탐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‘진로체험 및 탐색 기회 부족’(16.0%)이 그 뒤를 이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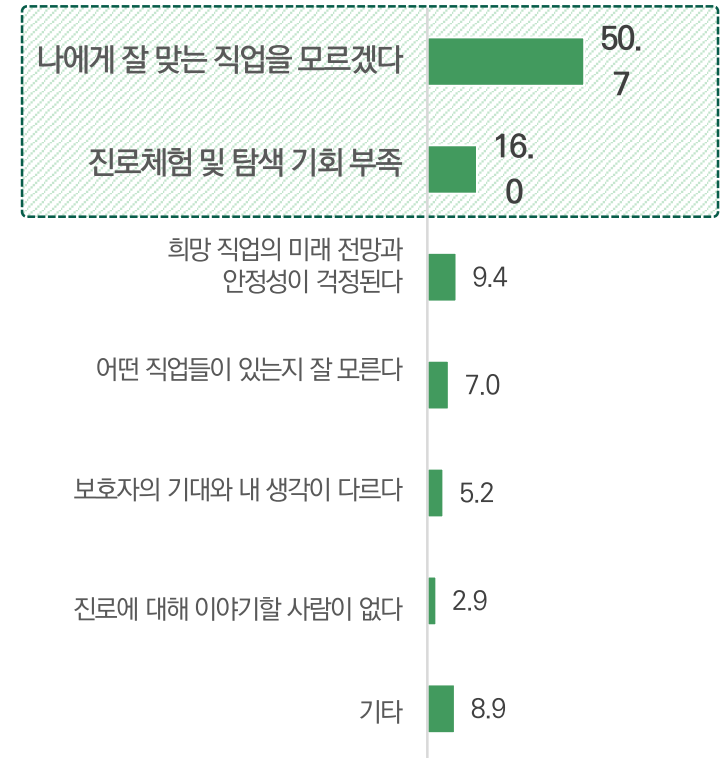
## 진로 교육 경험 유무

[Base:중학생 전체, Unit:%]



## 진로 설정 시 어렵게 느껴지는 요인

[Base:중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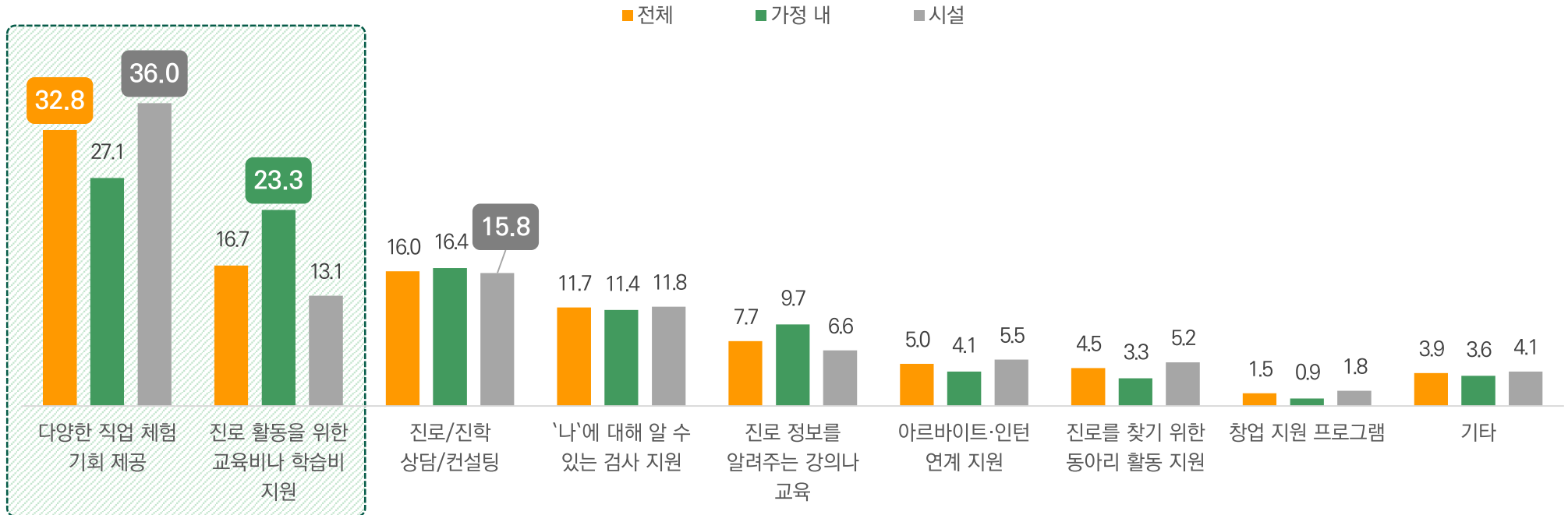
# 가. 중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
- 중학생은 ‘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’(32.8%) 요구가 높아 실제 경험 기반의 진로 탐색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남.
- 시설 아동도 ‘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’ 요구가 36.0%로 가장 높고, 교육비·학습비 지원 요구보다는 ‘진로·진학 상담’(15.8%) 요구가 2순위로 나타남.
- 반면, 가정 내 아동은 ‘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’ 응답 비율이 27.1%로 상대적으로 낮고, ‘교육비·학습비 지원’(23.3%) 요구가 높게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주요 제약으로 확인됨.

⇒ 중학생은 실제 경험 기반의 직업 체험 기회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, 직업 체험 프로그램 및 현장 연계 활동 확대가 필요함.  
 ⇒ 시설 아동은 직업 체험의 경험 제공과 함께 맞춤형 진로 상담·정보 제공 강화가 필요함.  
 ⇒ 가정 내 아동은 직업 체험의 기회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됨.

## 진로 설정시 필요한 지원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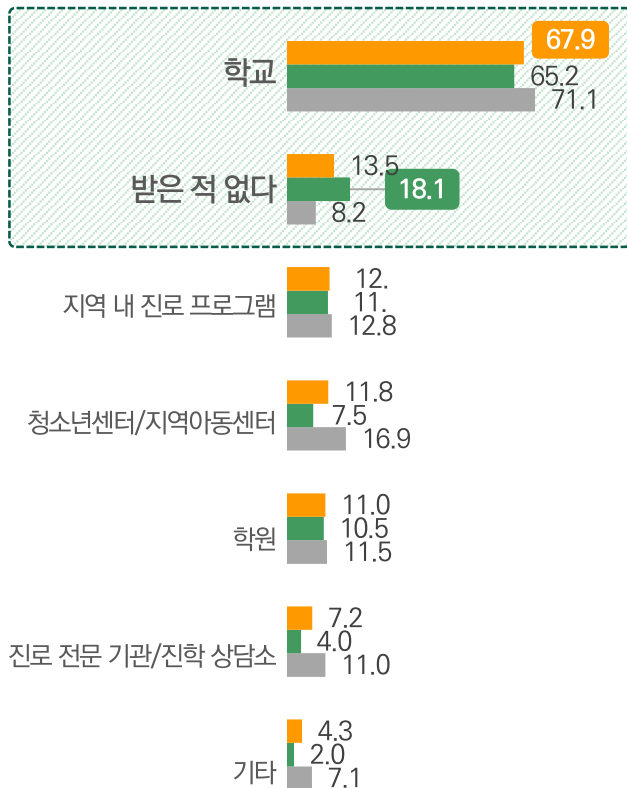
# 나. 고등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
- 고등학생의 10명 중 7명(67.9%)은 ‘학교’에서 진로 교육을 경험함.
- 가정 내 아동은 ‘받은 적 없다’ 비율이 18.1%로 시설 아동(8.2%)보다 높아, 진로 교육의 접근성의 격차가 확인됨.
- 진로 설정 시 느껴지는 어려움은 ‘나에게 맞는 직업 모름’(45.9%)이 가장 크며, ‘진로체험 및 탐색 기회 부족’(16.3%), ‘미래 안정성에 대한 우려’(14.5%) 순으로 나타남.
- 졸업 직후 진로는 ‘4년제 진학’이 43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시설 아동은 전문대, 취업 비중이 비교적 높음.

## 진로 교육 경험 유무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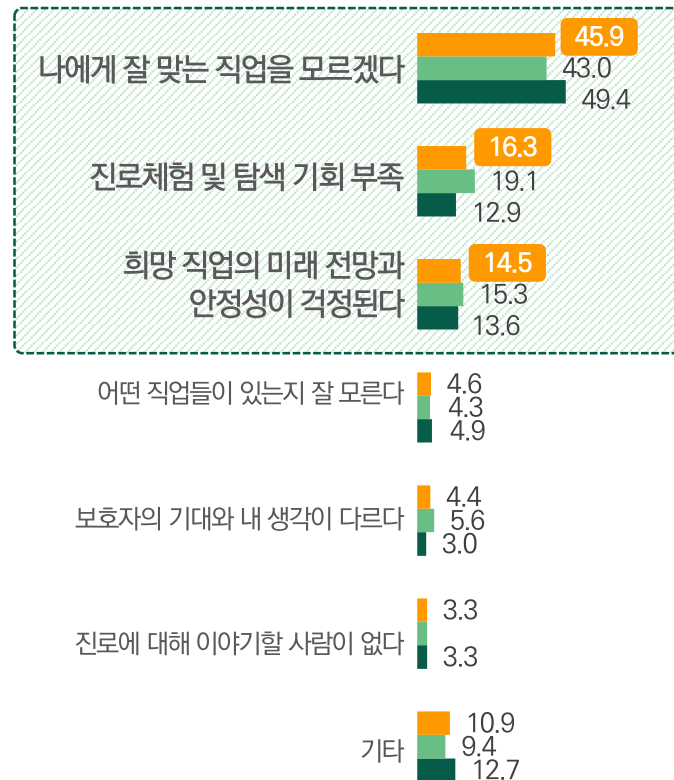
■ 전체 ■ 가정 내 ■ 시설



## 진로 설정 시 어렵게 느껴지는 요인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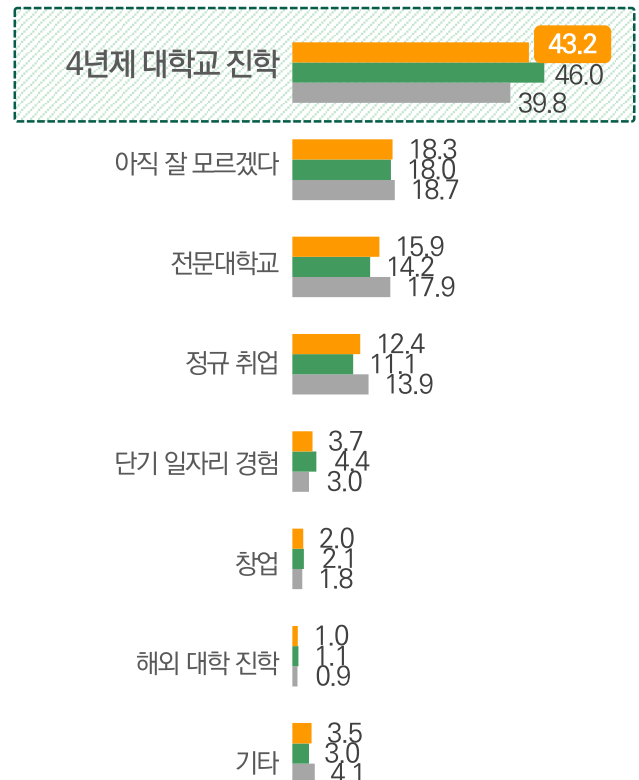
■ 전체 ■ 가정 내 ■ 시설



## 고등학교 졸업 직후 희망 진로/진학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■ 전체 ■ 가정 내 ■ 시설



## 나. 고등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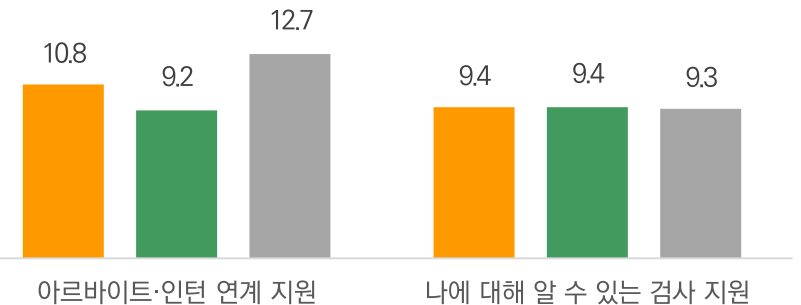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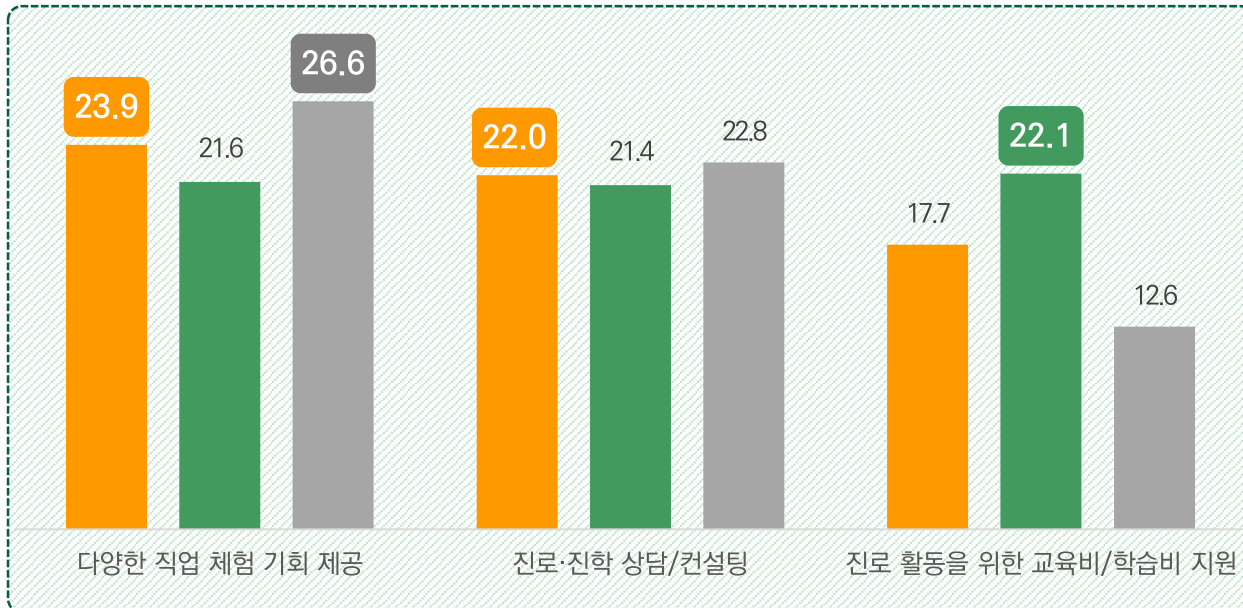
- 고등학생은 ‘다양한 직업 체험 제공’(23.9%)과 ‘진로·진학 상담/컨설팅’(22.0%)에 대한 요구가 높아, 경험 제공과 전문적 상담 지원이 동시에 중요해지는 단계임을 보여줌.
- 시설 아동도 ‘다양한 직업 체험 제공’이 26.6%로 가장 높아 경험 기반 지원의 필요가 크게 나타남.
- 반면 가정 내 아동은 교육비·학습비 지원 요구가 22.1%로 가장 높고, 시설 아동(12.6%)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여 경제적 부담이 진로 탐색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줌.

⇒ 고등학생은 직업 체험과 진로·진학 상담 요구가 모두 높아 두 영역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음.  
 ⇒ 시설 아동은 체험 요구가 특히 높아 현장 기반 진로지원이 우선 필요함.  
 ⇒ 가정 내 아동은 교육비 부담이 크게 나타나 비용 완화 중심의 지원이 요구됨.

### 진로 설정 시 필요한 지원

■ 전체 ■ 가정 내 ■ 시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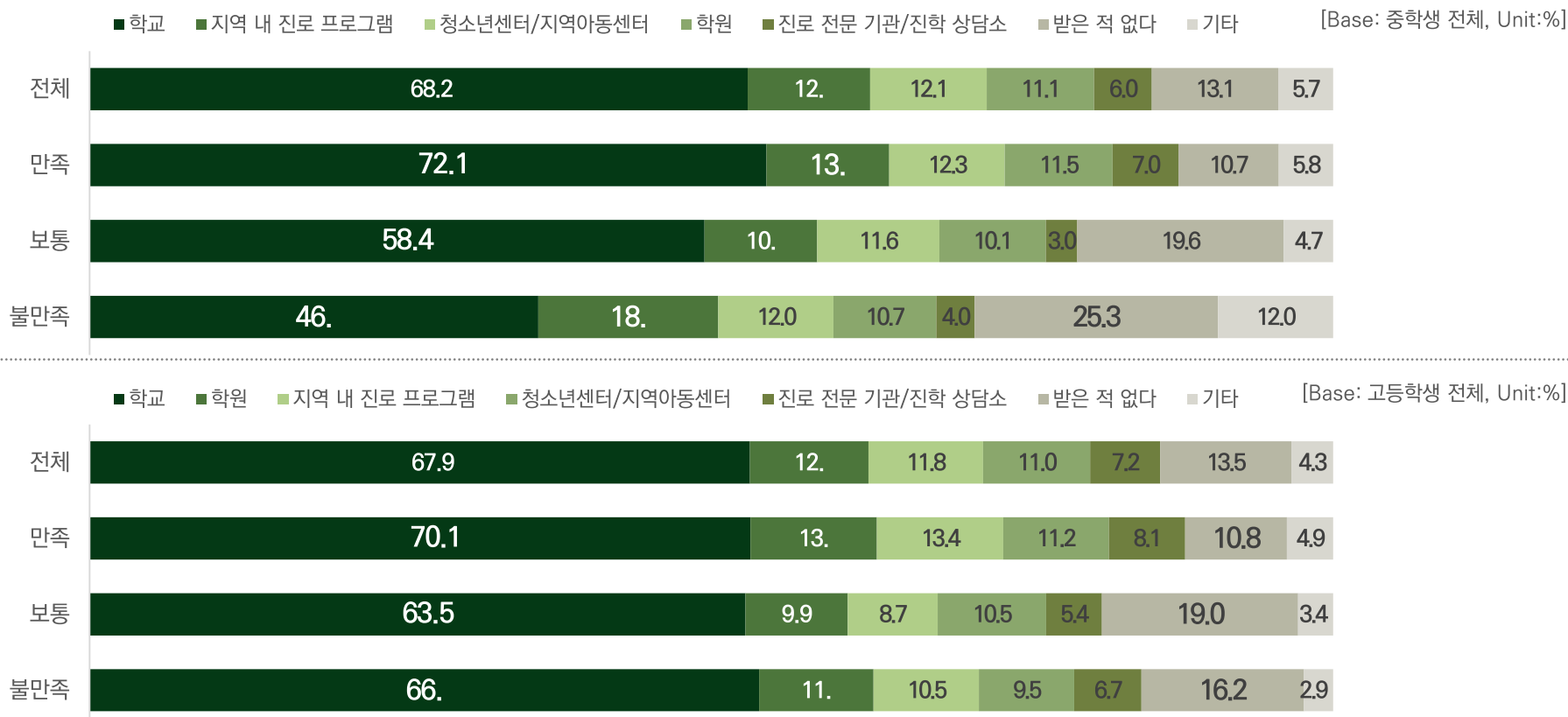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 다. 주거환경 만족도별 **근황** 분석 결과 :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
- 중학생은 ‘학교’ 기반 진로 교육 참여가 만족군 72.1%로 가장 높고, 보통군 58.4%, 불만족군 46.7%로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라 참여율 격차가 크게 나타남.
- 중학생의 ‘지역 내 진로 프로그램’ 참여는 만족군(13.1%)보다 불만족군(18.7%)이 더 높아 학교 밖 프로그램 의존도 차이도 확인됨.
- 중학생에서 ‘받은 적 없다’ 응답은 불만족군 25.3%로 가장 높아 진로 교육 접근성 격차가 뚜렷함.
-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 교육 참여는 만족군(70.1%)이 가장 높으나, 보통군(63.5%)·불만족군(66.7%)과 그룹 간 차이가 크지 않음.
- 고등학생의 ‘받은 적 없다’ 응답도 만족군 10.8%, 보통군 19.0%, 불만족군 16.2%로 그룹 간 차이가 중학생만큼 크지 않아, 전체적으로 진로 교육 경험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남.

### 진로 교육 경험유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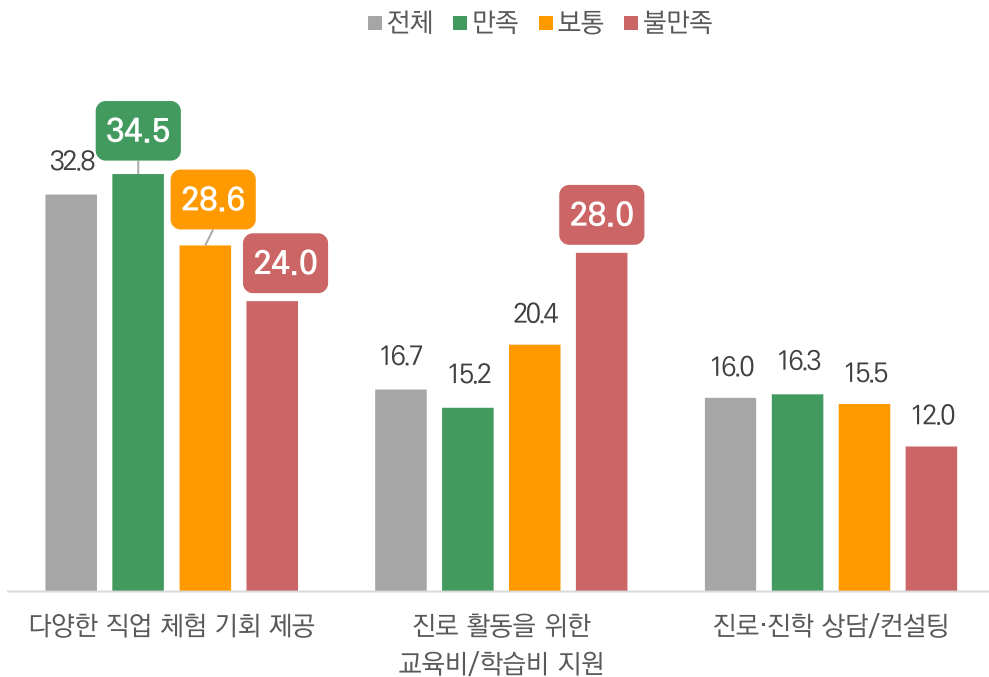


## 다. 주거환경 만족도별 욕구 분석 결과 :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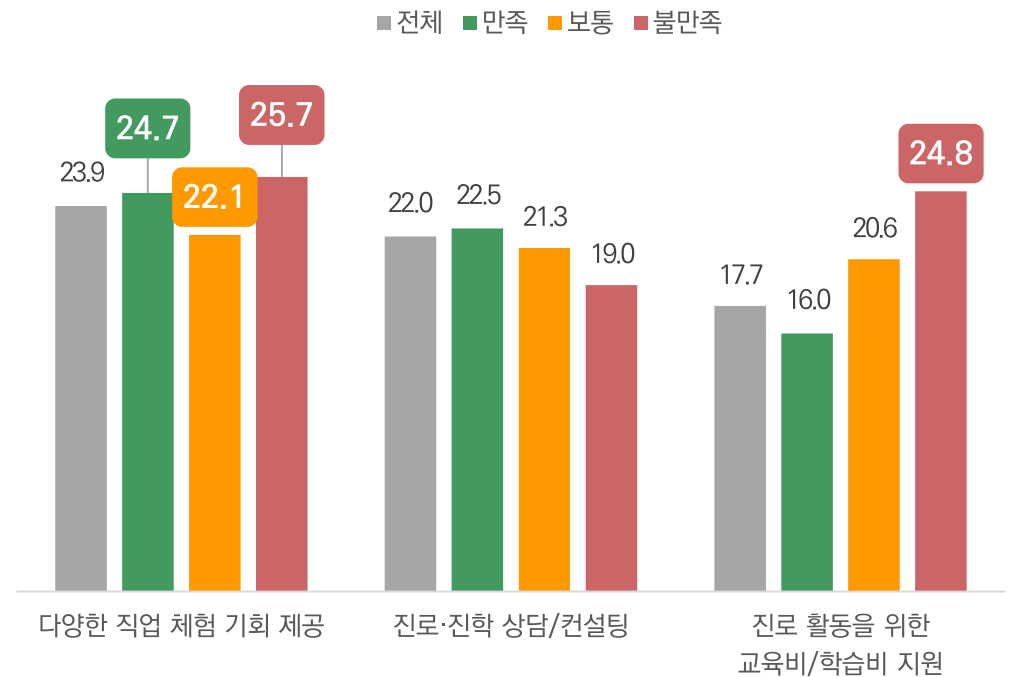
- 중학생의 ‘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’ 요구는 만족 34.5%, 보통 28.6%, 불만족 24.0%로 만족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, 체험 중심의 진로 수요가 뚜렷함.
- 중학생의 ‘진로 활동을 위한 교육비·학습비 지원’ 요구는 불만족 그룹에서 28.0%로 가장 높게 나타나, 경제적 제약을 해소할 지원이 요구됨.
- 고등학생의 ‘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’ 요구는 만족 24.7%, 보통 22.1%, 불만족 25.7%로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, 특히 불만족군에서 수요가 조금 더 높음.
- 고등학생의 ‘진로 활동을 위한 교육비·학습비 지원’은 불만족 그룹에서 24.8%로 **전체 높고 비용 부담이 적은** 것으로 보임.

⇒ 중학생은 체험 기반 진로 탐색 수요가 높아 실제 직업 세계를 접할 수 있는 활동 확대가 필요함.  
 ⇒ 중·고등학생 모두 불만족군에서 교육비 지원 요구가 높아 진로 체험·상담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참여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.  
 ⇒ 고등학생은 진학과 연계된 상담·컨설팅과 비용 지원 수요가 높아 실질적인 진학 준비 지원이 필요함.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 라. 학령간 분석 결과 및 시사점 -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
##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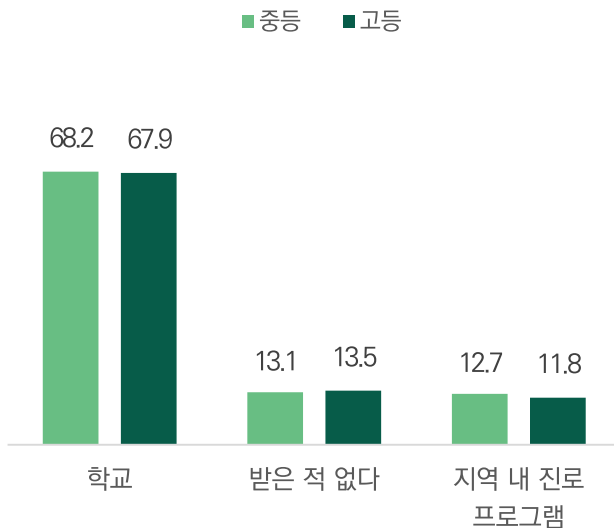
- 진로교육 경험은 두 그룹 모두 학교 중심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큰 차이는 없음.
- 진로 고민은 '나에게 잘 맞는 직업을 모르겠다'가 공통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, 고등학생은 '미래 전망·안정성 고민' 비중이 중학생보다 더 높아(중 9.4% → 고 14.5%) 현실적 고민 단계로 이동한 모습임.
- 필요한 지원은 모두 '다양한 직업 체험 제공'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, 중학생은 체험 편중, 고등학생은 체험, 진학 상담, 학습비 지원을 함께 요구하며 지원 항목이 다층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남.

## 시사점

- 중학생은 진로 고민이 시작되는 단계이므로, 다양한 직업 체험과 현장 기반 활동을 통해 직업 세계를 폭넓게 접할 기회 제공이 중요함.
- 고등학생은 진학 방향과 직업 전망을 함께 고려하는 시기이므로, 진로/진학 상담, 학습비 지원 등 현실적 의사결정을 돕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.
- 학령이 높아질수록 진로 설정에 대한 어려움이 체험 부족 → 진학/미래 안정성으로 이동하므로, 학교 및 지역기관 중심의 단계별 진로 설계 프로그램 구축이 요구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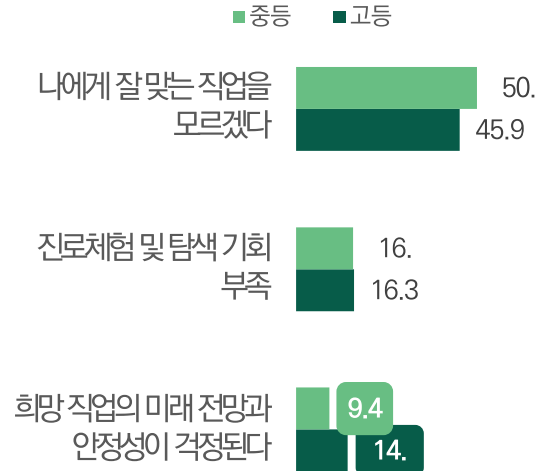
### 진로 교육 경험 유무

[Base: 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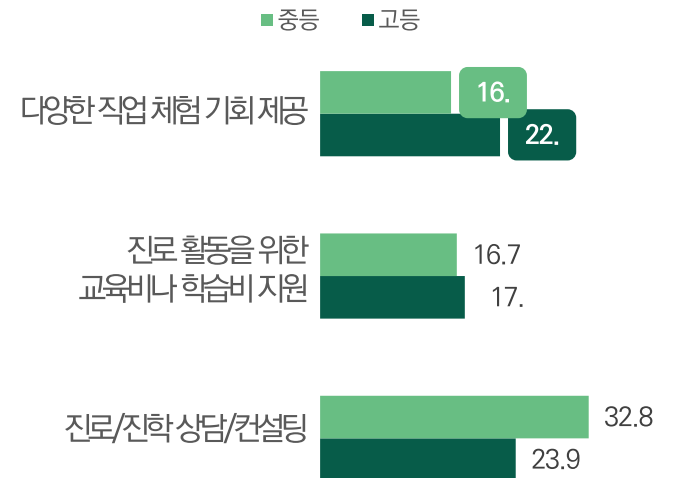
### 진로 설정 시 어려움

[Base: 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진로 설정 시 필요한 지원

[Base: 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PART /



# 주요 주제별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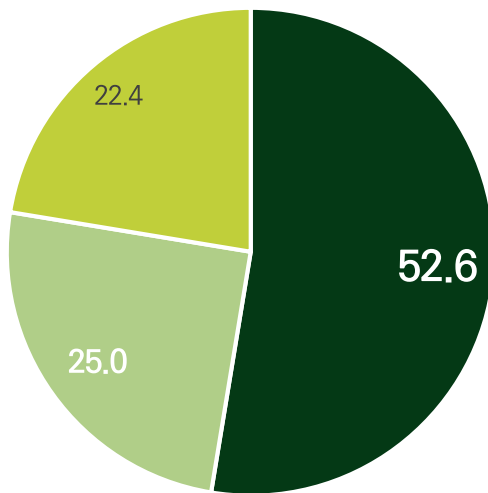
1.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2. 스트레스
3. 정서적 어려움
4. 주관적 행복감 및 관계 만족도
5. 새학기 현황
6. 사교육
7.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8. 자립 능력과 준비 정도
9.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10.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# 가. 중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자립 능력과 준비 정도

- 중학생은 '경제적 자립'(52.6%)을 가장 중요한 자립 영역으로 인식하며, 이어 심리·정서적 자립(25.0%), 사회적 자립(22.4%) 순으로 중요하게 여김.
- 반면 현재 자립 준비 정도는 '경제적 자립'이 4.4점(10점 만점)으로 다른 자립 영역(심리·정서 5.1점, 사회 5.2점)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남.
- 중학생은 '경제적 자립'을 가장 중요한 자립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(52.6%), 실제 경제적 자립 준비 정도는 10점 만점에 4.4점으로, 심리·정서(5.1점), 사회적 자립(5.2점) 준비 정도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남.
- 즉, 경제적 자립은 자립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, 준비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나 중요도 대비 취약한 영역으로 확인됨.

## 가장 중요한 자립 분야 (1순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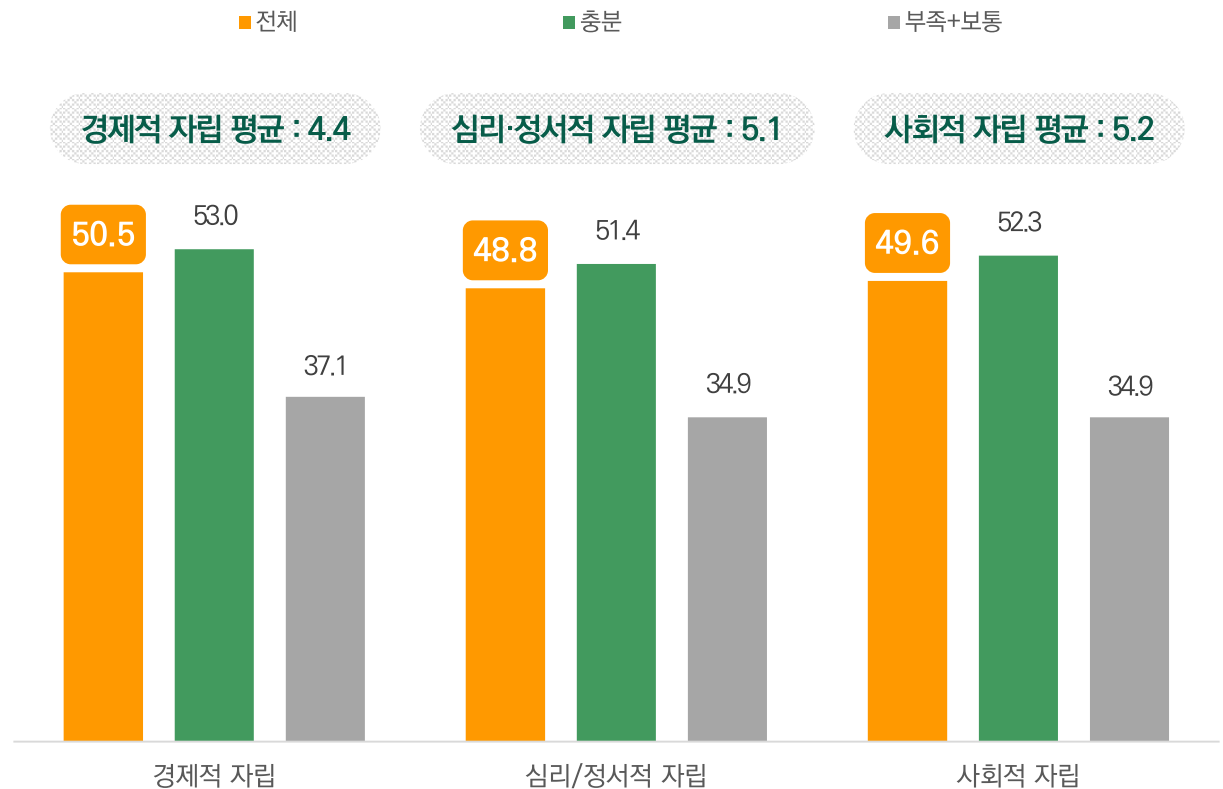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- 경제적 자립
- 심리/정서적 자립
- 사회적 자립

## 현재 자립 준비 정도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, 점(10점 만점)]



# 가. 중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자립 능력과 준비 정도

- 중학생은 진로적성검사·상담(25.4%), 관심 분야 학습비 지원(22.9%), 자립준비금 지원(20.5%) 요구가 높아 진로 상담과 경제적 자원 확보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남.
- 가정 내 아동은 진로적성검사·상담(28.8%) 요구가 시설 아동(23.4%)에 비해 높게 나타나, 전문적인 진로 상담에 대한 필요가 상대적으로 큼.
- 한편 필요한 자립기술은 '생활기술(25.7%)'과 '금융관리(25.5%)'가 가장 높아, 기초 생활능력과 경제 관리 역량 강화가 중요한 영역으로 확인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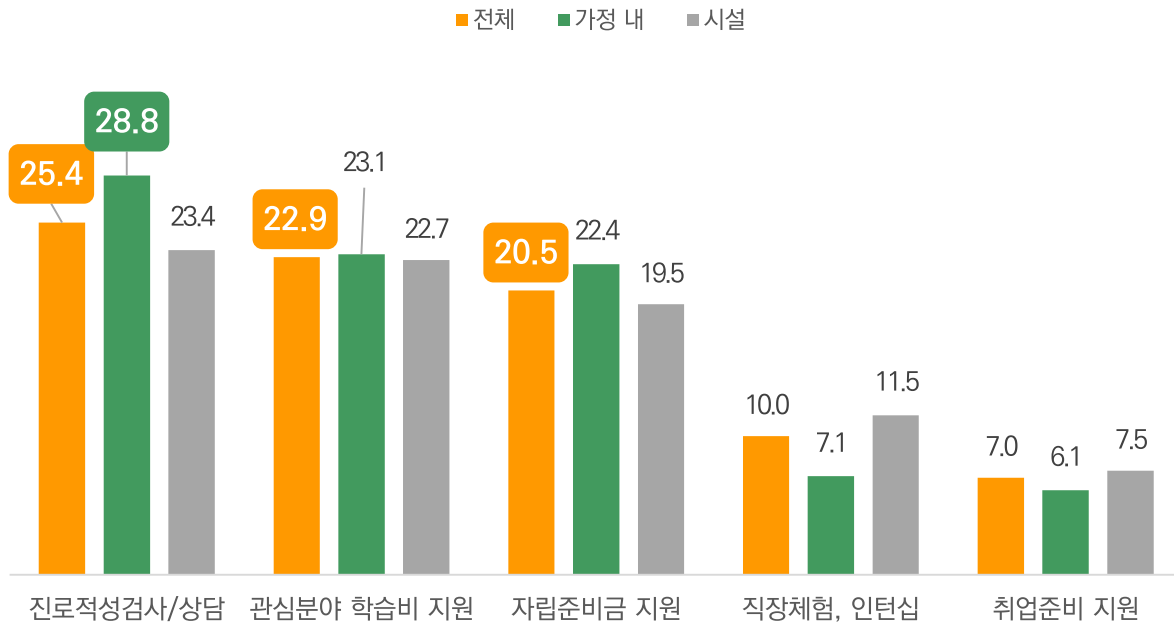
⇒ 중학생의 자립 준비에서는 진로 상담 지원이 핵심 요소로 나타나, 진로적성검사와 전문 상담을 결합한 체계적 진로지원 강화가 필요함.

⇒ 가정 내 아동은 전문 상담 요구가 특히 높아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이 요구되며, 경제적 자원 부족도 함께 고려해야 함.

⇒ 실생활 중심의 생활·금융 교육 지원 강화도 요구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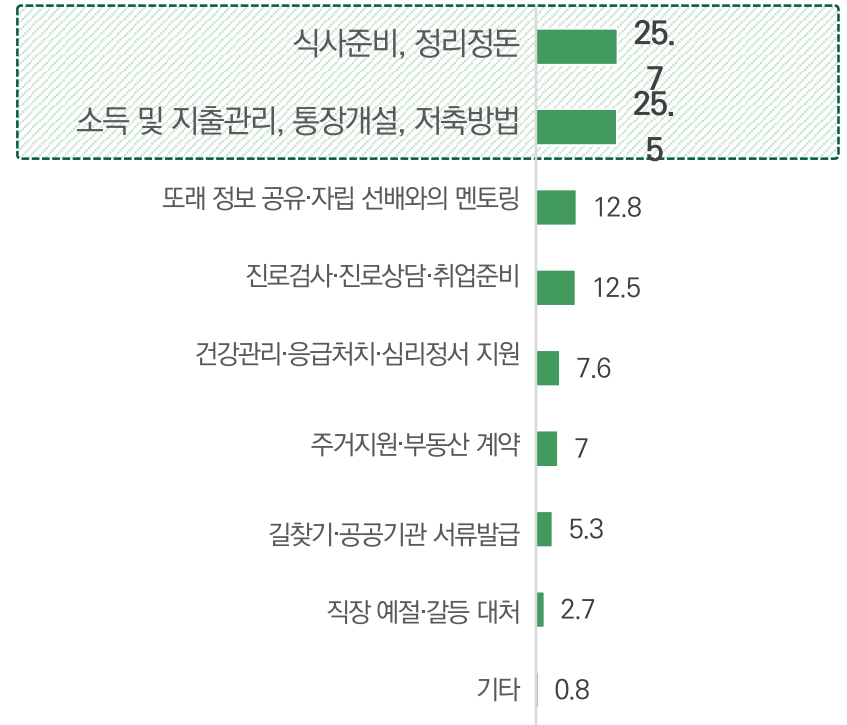
##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(1순위)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## 가장 필요한 자립 기술 분야 (1순위)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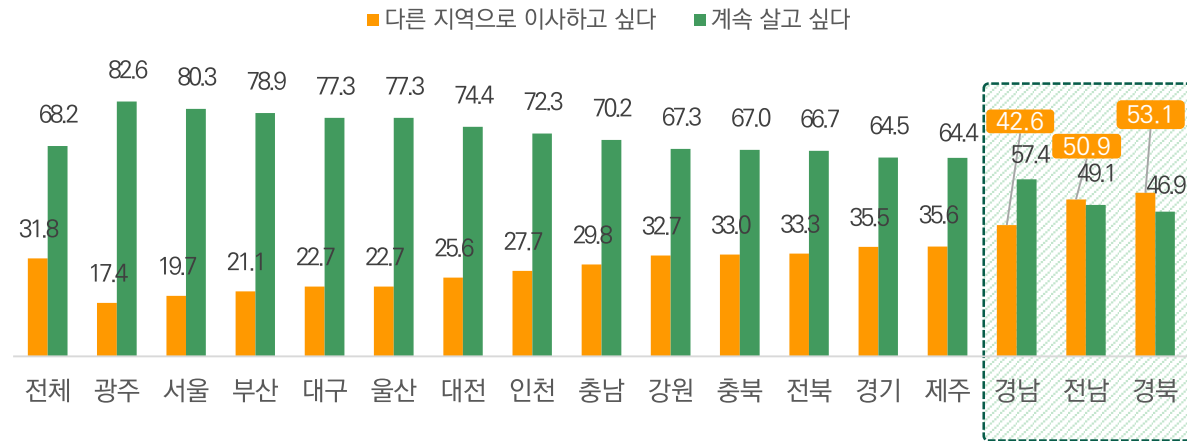


# 가. 중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자립 후 거주지 이동 희망

- 광주·서울·부산 등 도시권은 해당 지역에서 자립 후 거주 지속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, 경북·전남·경남은 자립 후 타 지역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53.1%, 50.9%, 42.6%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 이동을 희망하는 모든 지역에서 1순위로 선호하는 지역은 서울로 확인됨.
- 이동을 희망하는 이유로 '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서'가 24.6%로 가장 높고, 여가 및 문화 생활(21.9%), 주거 환경(15.3%)이나 교육 환경(12.5%)도 주요한 이유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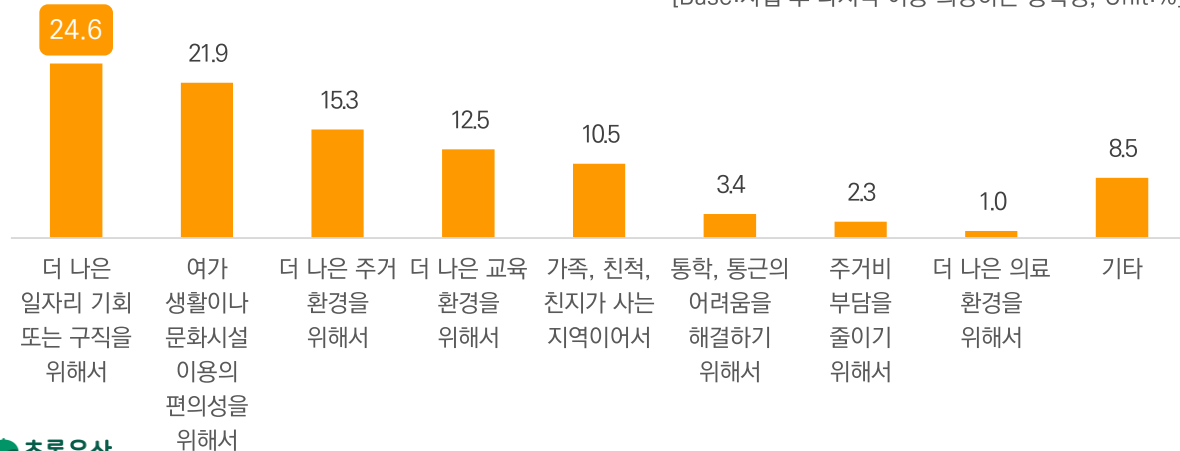
## 자립 후 거주지 이동 희망 여부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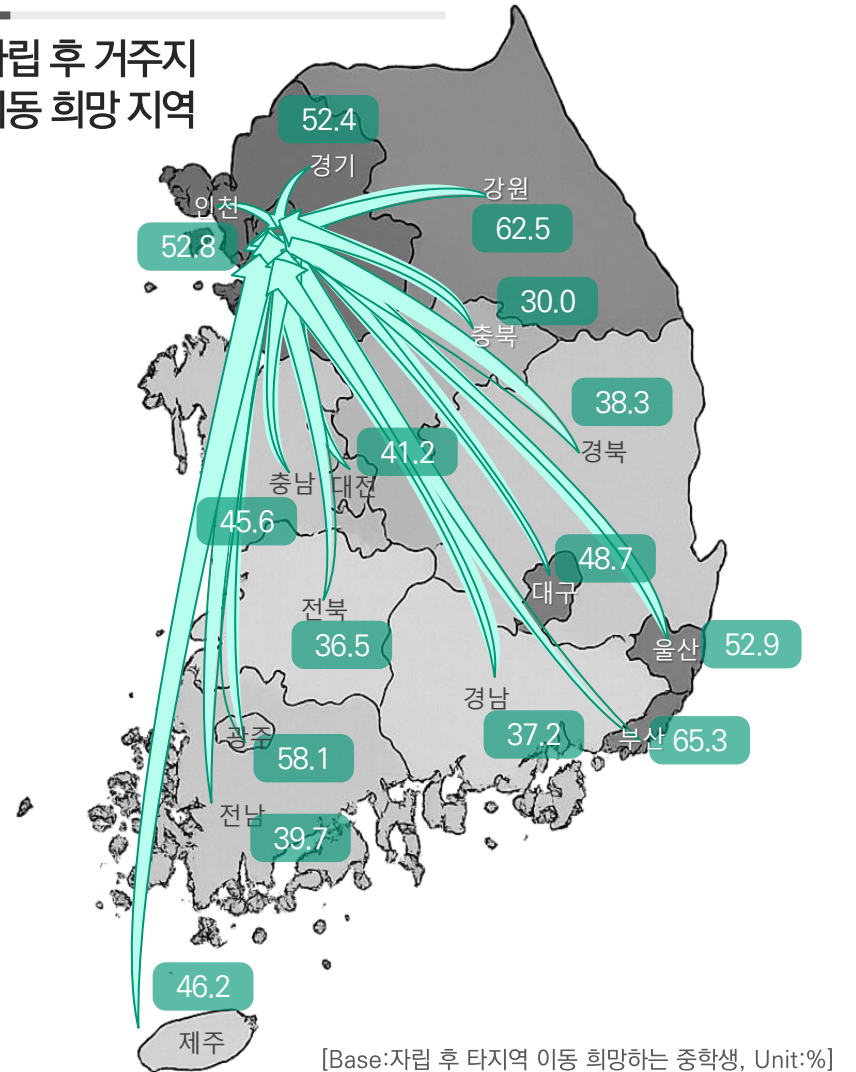


## 자립 후 거주지 이동 희망 이유

[Base: 자립 후 타지역 이동 희망하는 중학생, Unit:%]



## 자립 후 거주지 이동 희망 지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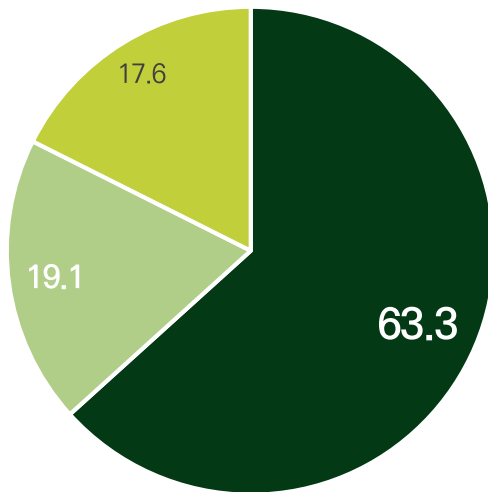
[Base: 자립 후 타지역 이동 희망하는 중학생, Unit:%]

## 나. 고등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자립 능력과 준비 정도

- 고등학생도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'경제적 자립'(63.3%)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, 심리·정서적 자립(19.1%), 사회적 자립(17.6%) 순으로 나타남.
- 반면 경제적 자립 수준은 4.6점(10점 만점)으로 나타나 다른 영역(심리·정서 5.6점, 사회적 5.7점)보다 가장 낮게 나타남.
- 자립을 앞둔 고등학생 단계임에도 자립 준비 수준은 세 영역 모두 5점 전후에 머물러 높지 않게 나타남. 이는 향후 자립 과정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음.

### 가장 중요한 자립 분야 (1순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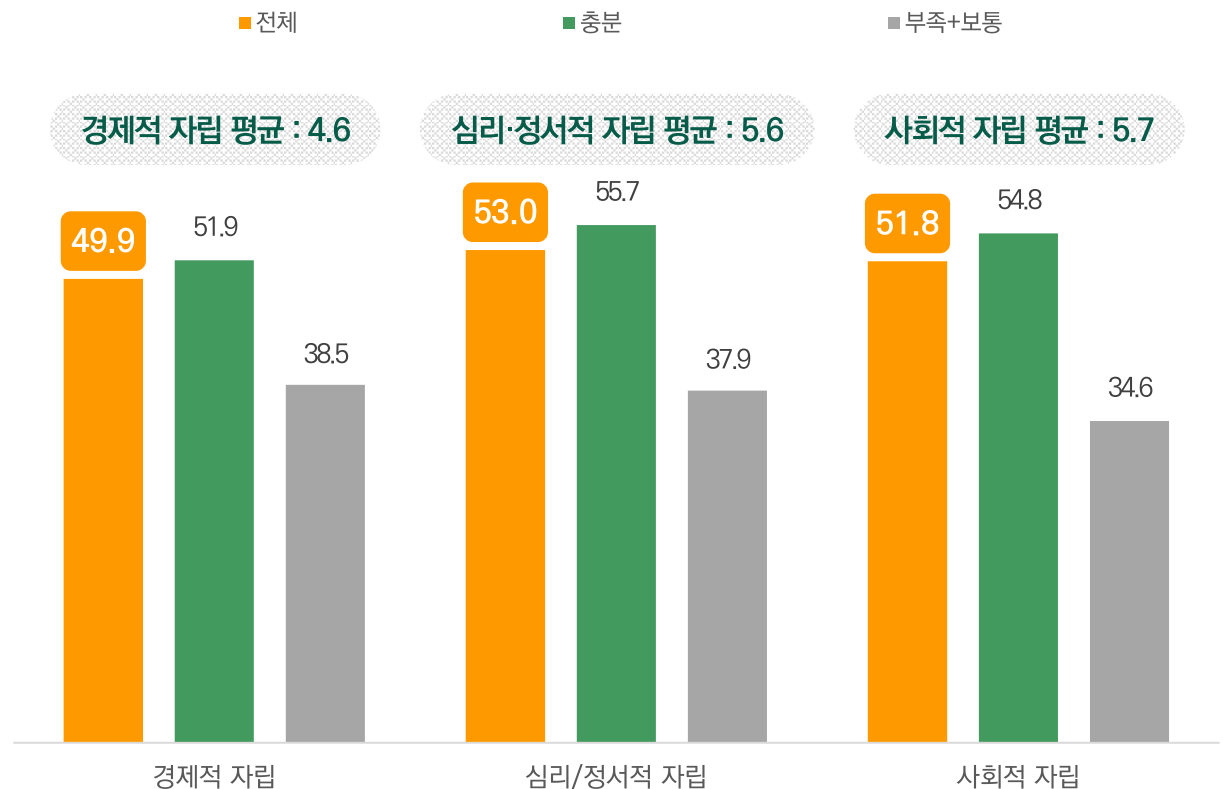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- 경제적 자립
- 심리/정서적 자립
- 사회적 자립

### 현재 자립 준비 정도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, 점(10점 만점)]



## 나. 고등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자립 능력과 준비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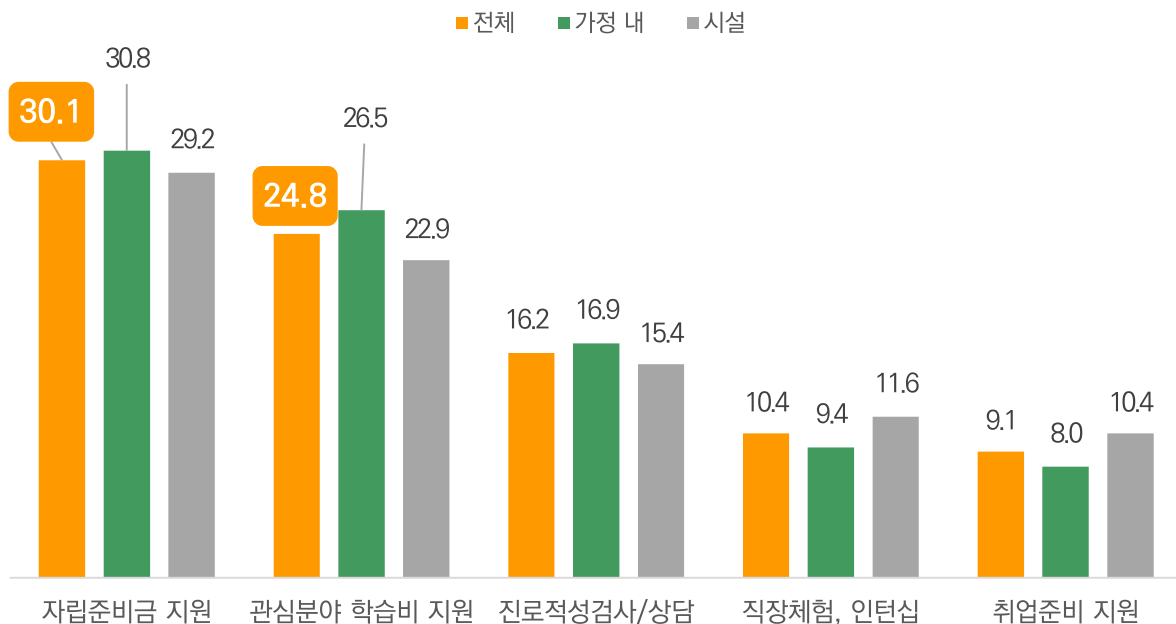
- 고등학생은 '자립준비금 지원(30.1%)'과 '관심분야 학습비 지원(24.8%)' 요구가 가장 높아, 경제적 기반 마련 욕구가 두드러짐.
- 필요한 자립기술은 '소득·지출관리(35.1%)'가 압도적으로 높아, 실질적 금융 역량 강화가 핵심 필요로 나타남.

⇒ 고등학생에게는 비용 지원과 금융·주거 역량처럼 현실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지원이 최우선으로 필요함.

⇒ 경제적 지원 + 실무형 자립기술 교육을 결합한 맞춤형 자립지원 체계가 요구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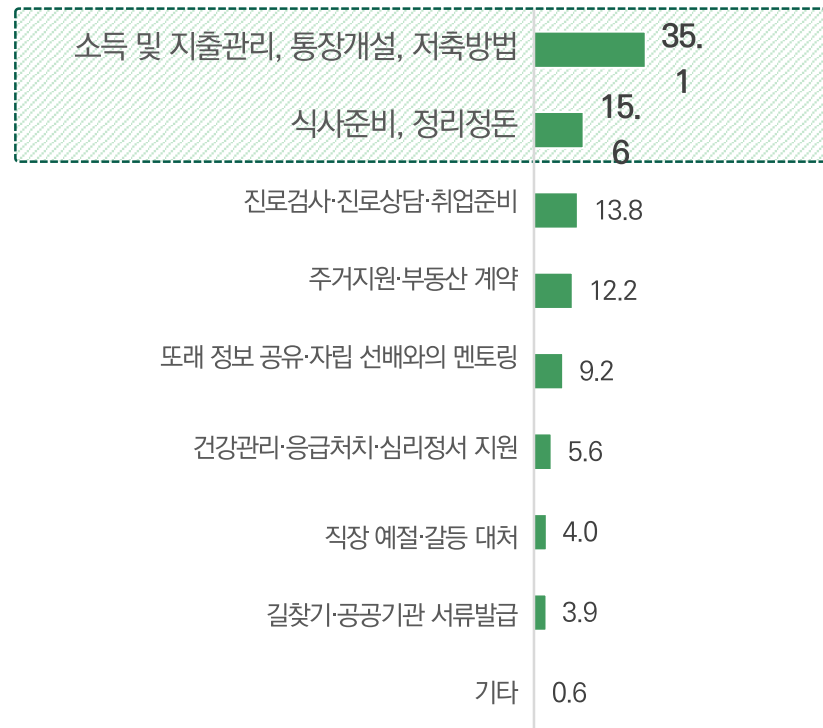
###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(1순위)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가장 필요한 자립 기술 분야 (1순위)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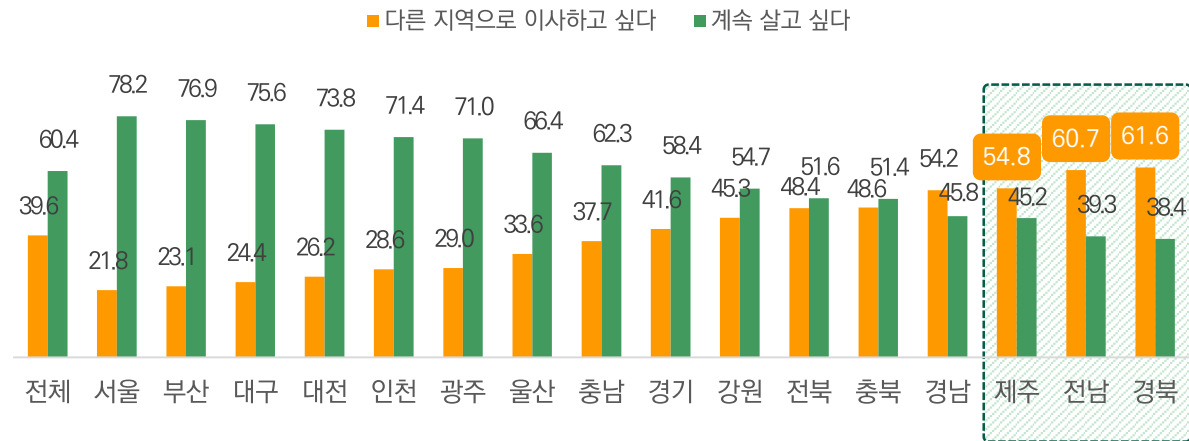


## 나. 고등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자립 후 거주지 이동 희망

- 서울·부산·대구 등 도시권은 자립 후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거주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, 경북·전남·제주는 자립 후 타 지역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61.6%, 60.7%, 54.8%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 이동을 희망하는 모든 지역에서 1순위로 선호하는 지역은 서울로 확인됨.
- 이동을 희망하는 이유로 '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서'가 32.1%로 가장 높고, 주거 환경(15.1%)이나 여가 및 문화생활(13.3%), 교육 환경(12.0%)도 주요한 이유로 나타남.

### 자립 후 거주지 이동 희망 여부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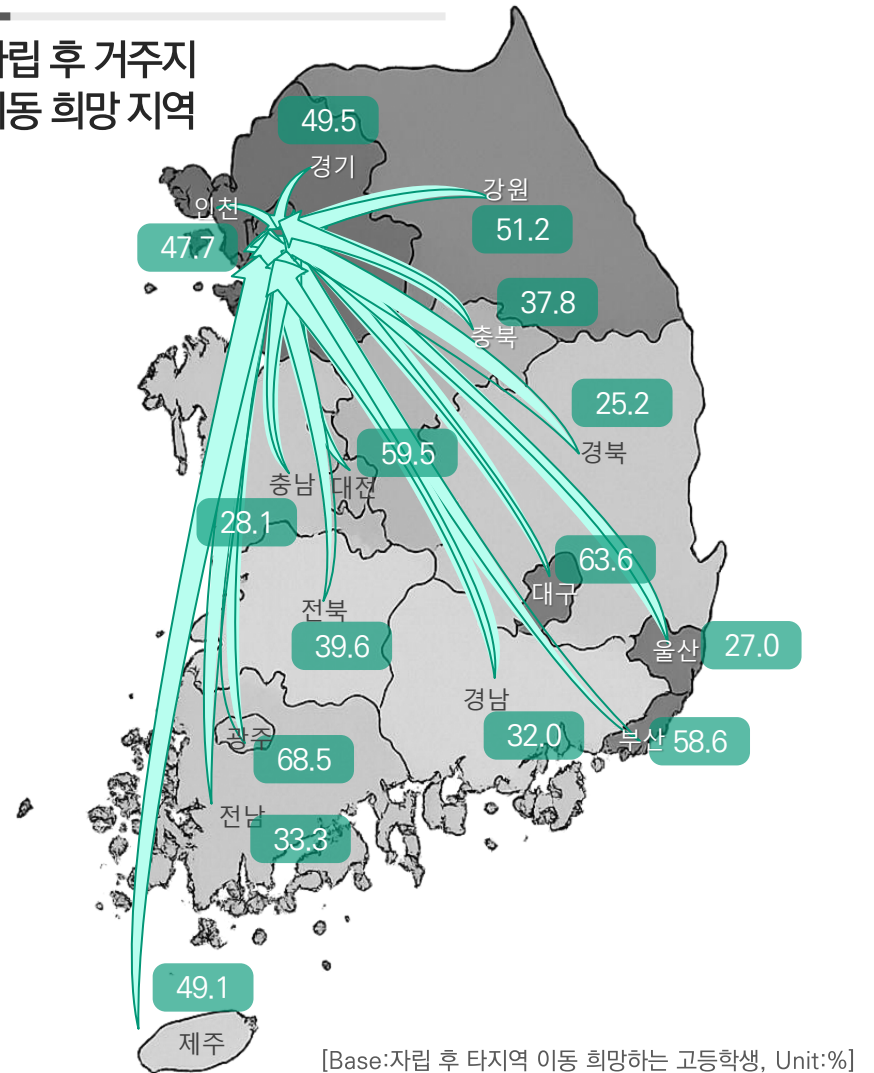


### 자립 후 거주지 이동 희망 이유

[Base: 자립 후 타지역 이동 희망하는 고등학생, Unit:%]



### 자립 후 거주지 이동 희망 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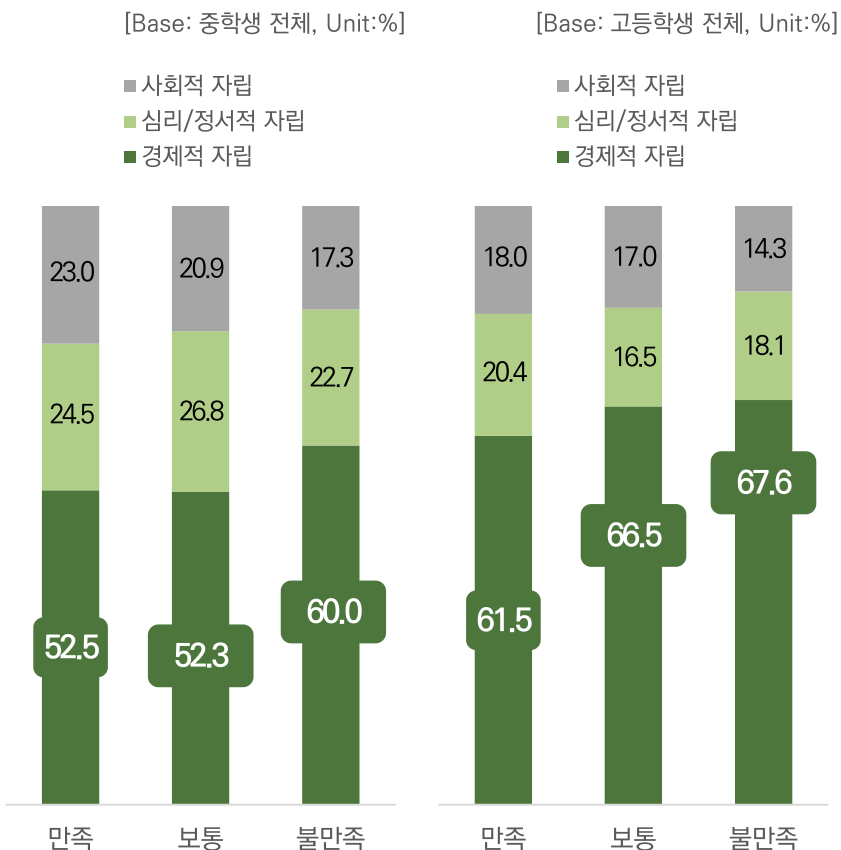


[Base: 자립 후 타지역 이동 희망하는 고등학생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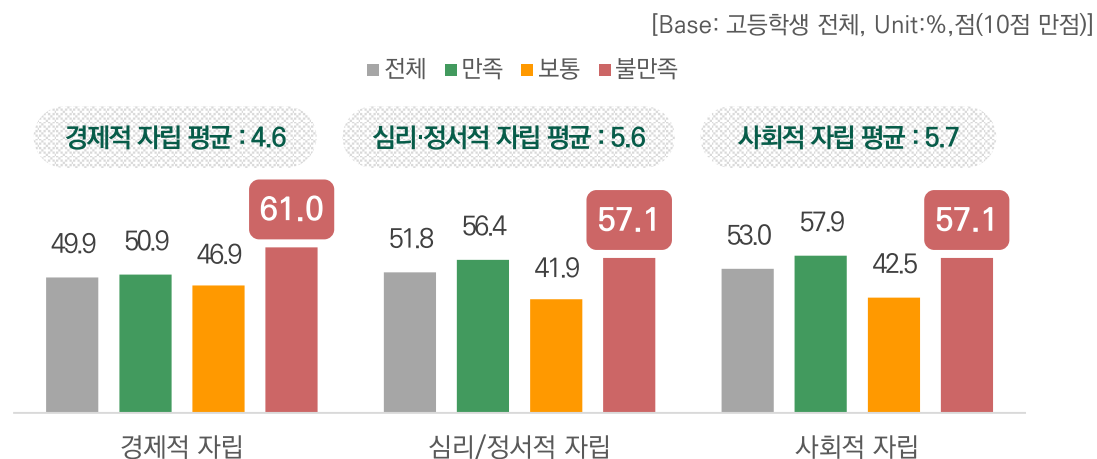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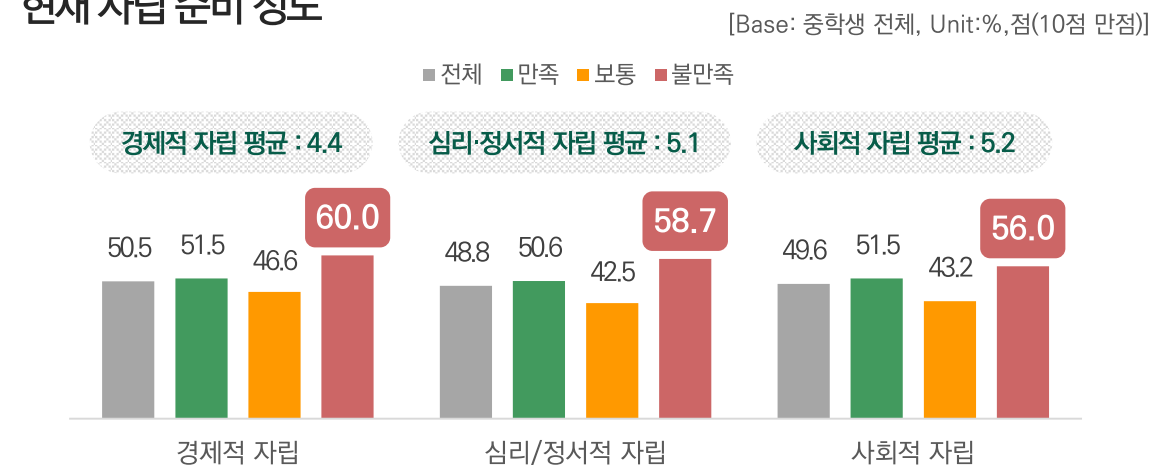
## 다. 주거환경 만족도별 **근황** 분석 결과 : 자립 능력과 준비 정도

- 중·고등학생 모두 가장 중요한 자립 분야로 ‘경제적 자립’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, 주거환경 만족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순위를 보임. 다만 불만족군일수록 경제적 자립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남.
- 현재 자립 준비 정도를 보면, 중·고등학생 모두에서 경제적 자립 준비 수준이 심리·정서적 자립, 사회적 자립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나, 중요도 인식과 준비 수준 간의 간극이 확인됨.
- 한편 자립 준비 수준은 전반적으로 불만족군에서 더 높게 나타나, 주거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을수록 자립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.

### 가장 중요한 자립 분야 (1순위)



### 현재 자립 준비 정도



## 다. 주거환경 만족도별 욕구 분석 결과 : 자립 능력과 준비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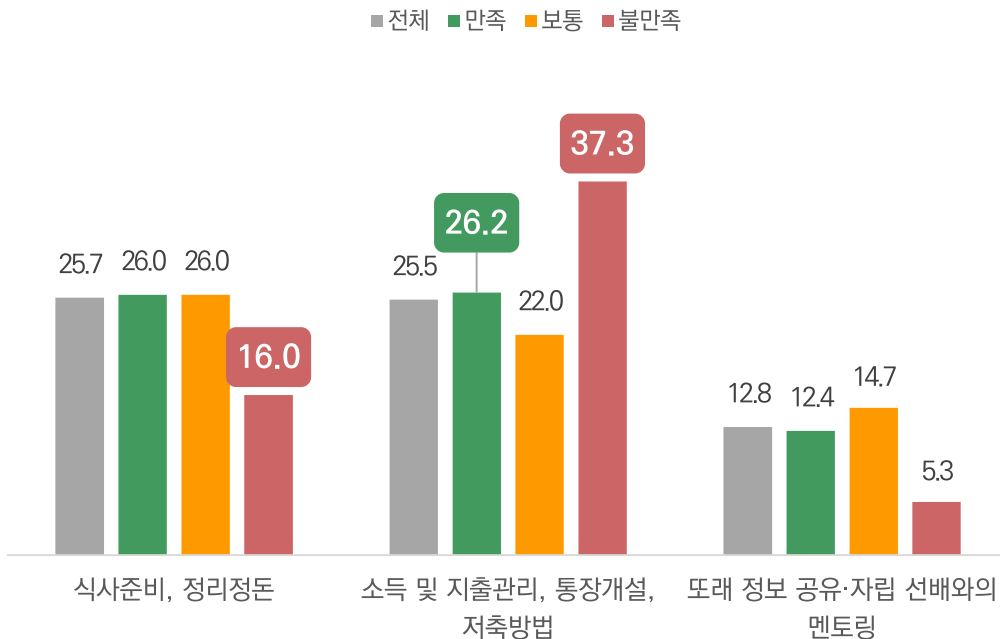
- 중학생은 '식사준비·정리정돈' 필요도가 불만족 16.0%로 가장 낮게 나타나, 기본 생활기술에 대한 요구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.
- 반면 '소득·지출관리·통장개설·저축방법'은 만족 26.2%, 불만족 37.3%로 가장 높아, 경제 관리와 금융 기초 역량에 대한 필요가 두드러짐.
- 고등학생 역시 해당 항목의 필요도가 만족 36.5%로 가장 높아, 진학·취업 등 현실적인 자립 준비 과정에서 금융 관리 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음.
- 또한 고등학생의 '진로검사·진로상담·취업준비'는 불만족군에서 19.0%로 가장 높아, 진로·진학 정보 접근에서의 그룹 간 격차가 확인됨.

⇒ 중학생·고등학생 모두 금융관리 역량 필요가 높아, 용돈관리·저축방법 등 기초 금융교육을 단계별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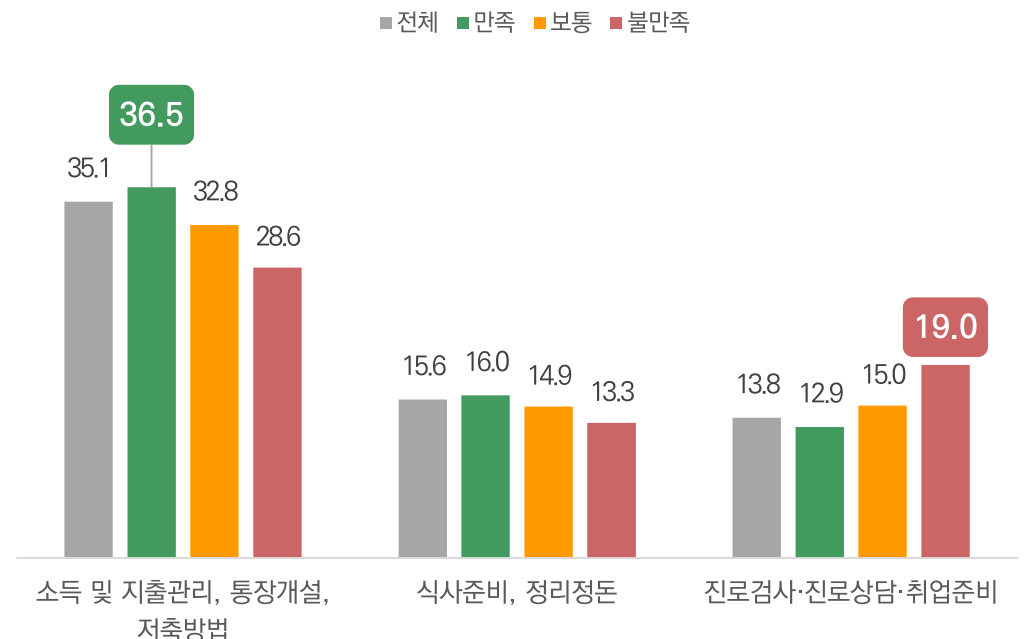
⇒ 또한 고등학생 불만족군에서 진로·진학 정보 요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, 진로검사·상담 등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이 요구됨.

### 가장 필요한 자립 기술 분야 (1순위)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%]



[Base: 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 라. 학령 간 비교 분석 - 자립 능력과 준비도 비교 (중·고등학생)

##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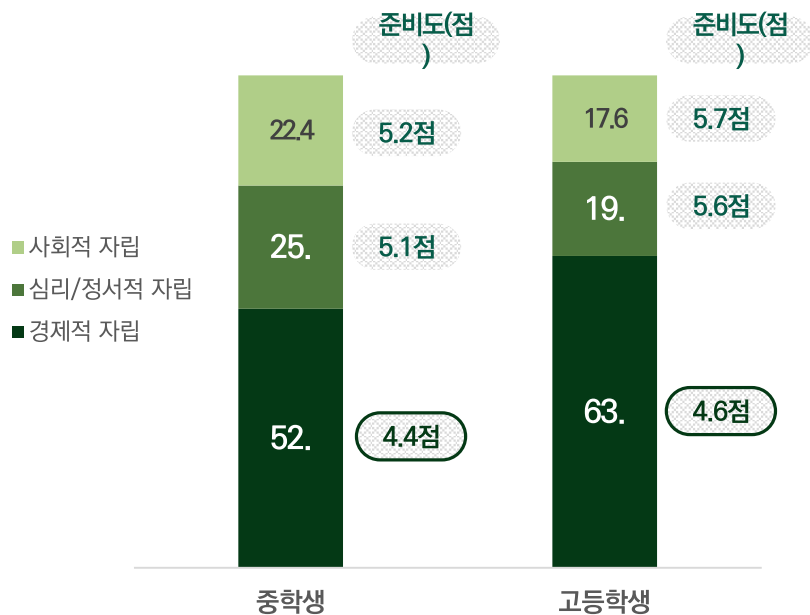
- 중·고등학생 모두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 인식은 높으나, 준비 수준은 중요도 대비 낮음(중학생 4.4점, 고등학생 4.6점/10점 만점).
- 고등학생의 지역 이탈 욕구가 39.6%로 중학생(31.8%)보다 높게 나타남.
- 중학생의 이동 희망 이유로는 일자리·구직활동(24.6%) 외에도 여가·문화 접근성(21.9%)에 대한 욕구도 높은 편이지만, 고등학생의 경우 일자리·구직활동(32.1%) 욕구가 강하게 나타남.

## 시사점

- 중·고등학생 모두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나 준비 수준은 낮아, 인식-준비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.
- 학령이 높아질수록 진로·취업 중심의 자립 요구가 뚜렷해지는 만큼, 경제교육에서 진로·취업 연계까지 단계별 자립 지원 강화가 요구됨.
- 지역 여건에 따라 자립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, 지역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자립·진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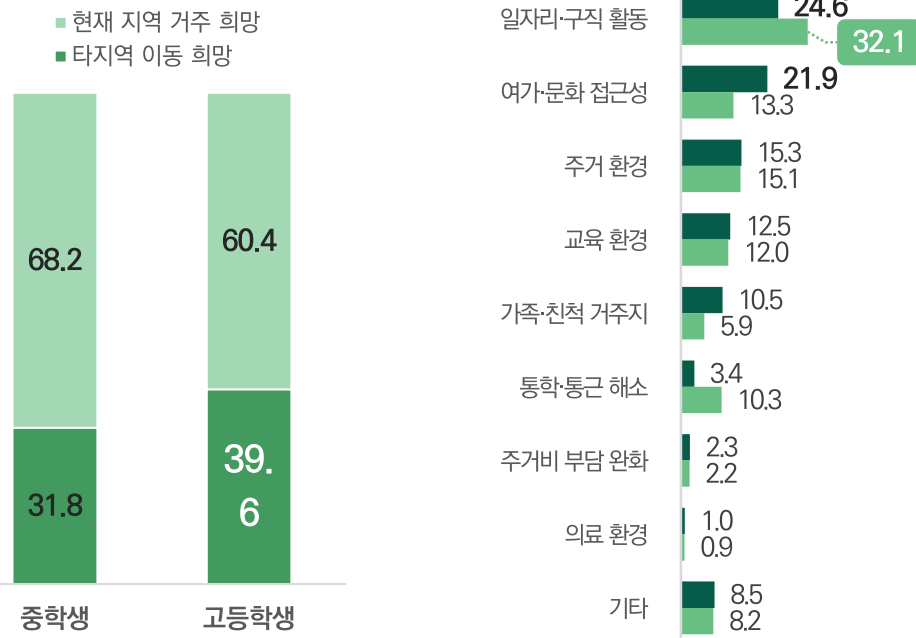
### 자립 분야별 중요성 인식 및 준비도

[Base: 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

### 지역 이탈 의향 및 이동 희망 이유

[Base: 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

# 마. 종합 제언 : 「첫 번째 자립」 프로젝트

## “내 손으로 키우는 첫 번째 자립”

- ✍ 중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자립기술 분야(1순위)는 생활(25.7%) > 경제관리(25.5%) > 선배와의 멘토링(12.8%)
- ✍ 고등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자립기술 분야(1순위)는 경제관리(35.1%) > 생활(15.6%) > 진로(13.8%)
- ✍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어른(자립)의 요소가 아니라 가진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는지까지도 고민하고 있음. 후원금을 주는 것에서 나아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관리하고 교육의 중요성 강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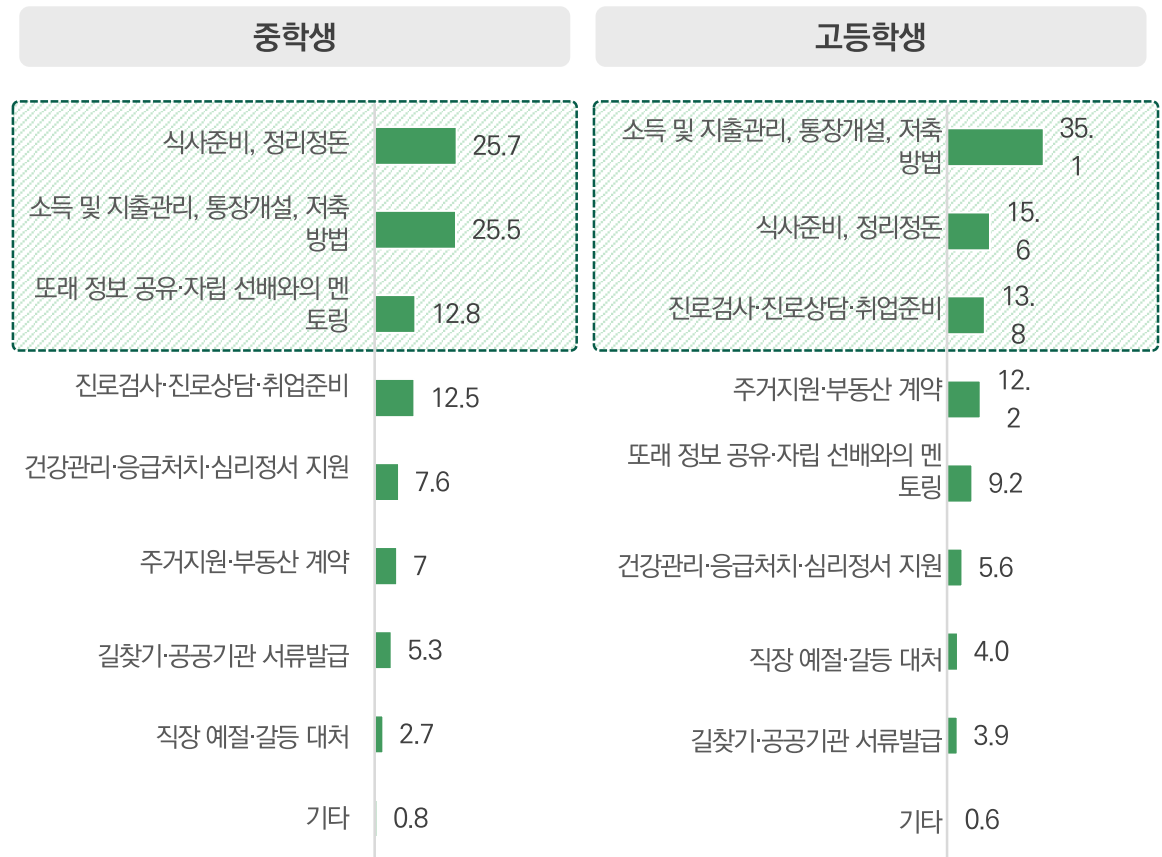
### 콘텐츠 구성안

아동·청소년이 경제관리 역량을 통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역량 강화 콘텐츠

<b>핵심 메시지</b>	☑ “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, 내가 가진 자원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관리할 줄 아는 것이다.”
<b>콘텐츠 목표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☑ 경제적 자립 기초 역량 강화 — 수입·지출·저축의 개념과 관리 기술 습득</li> <li>☑ 합리적 소비 습관 형성 — 충동구매보다 가치소비 중심의 경제 태도 교육</li> <li>☑ 자기주도적 자원관리 능력 배양 — 후원 중심 지원을 ‘자립형 성장교육’으로 전환</li> <li>☑ 자립에 대한 긍정적 자기인식 강화 — “나는 내 삶을 계획할 수 있다”는 효능감 향상</li> </ul>
<b>콘텐츠 내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☑ 체험형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</li> <li>☑ 진로·자립 토크 콘서트 : 선배 자립청년, 사회인과의 대화로 “경제관리 = 자기인생관리” 인식 확산</li> </ul>
<b>기대 효과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☑ 경제적 판단력 및 자원관리 능력 강화</li> <li>☑ 건전한 소비·저축 습관 형성</li> <li>☑ 자립에 대한 구체적 준비와 자신감 향상</li> <li>☑ 후원에서 교육 중심으로의 자립지원 패러다임 전환</li> </ul>

### 가장 필요한 자립 기술 분야 (1순위)

[Base: 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PART /



# 주요 주제별 분석 결과

1.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2. 스트레스
3. 정서적 어려움
4. 주관적 행복감 및 관계 만족도
5. 새학기 현황
6. 사교육
7.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8. 자립 능력과 준비 정도
9.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10.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# 가. 초등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
- 초등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은 아동의 4대 기본 권리에 대해 내용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온라인 피해 경험으로 '비방·욕설 댓글 노출'(30.1%)과 '가짜·과장 정보 시청'(29.2%) 노출이 잦았으며, 특히 가정 내 아동이 시설 아동보다 유해 콘텐츠, 허위정보, 악성댓글 노출률이 높아 가정 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가 시급함.
- 온라인 아동권리 교육 경험률은 64.8%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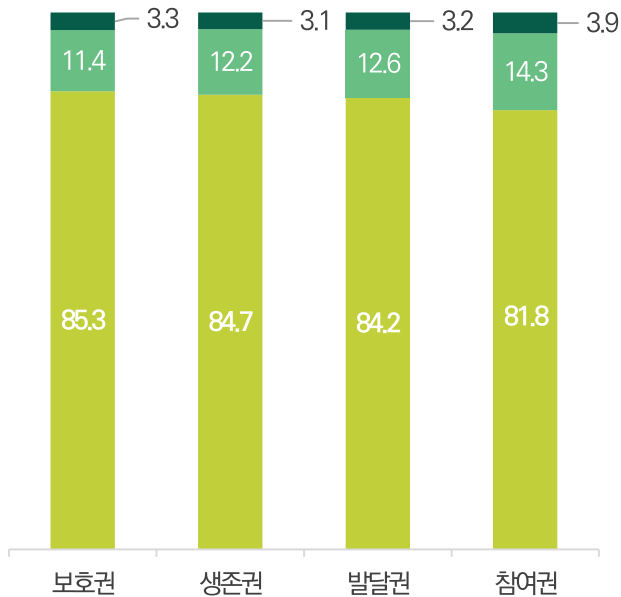
\* 디지털 리터러시란?

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, 지식, 태도를 포괄하는 능력으로,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'사용'하는 것을 넘어 정보를 '이해'하고, '평가'하며, '창조'하고, '소통'하는 모든 능력

## 아동 4대 권리 인지도

[Base: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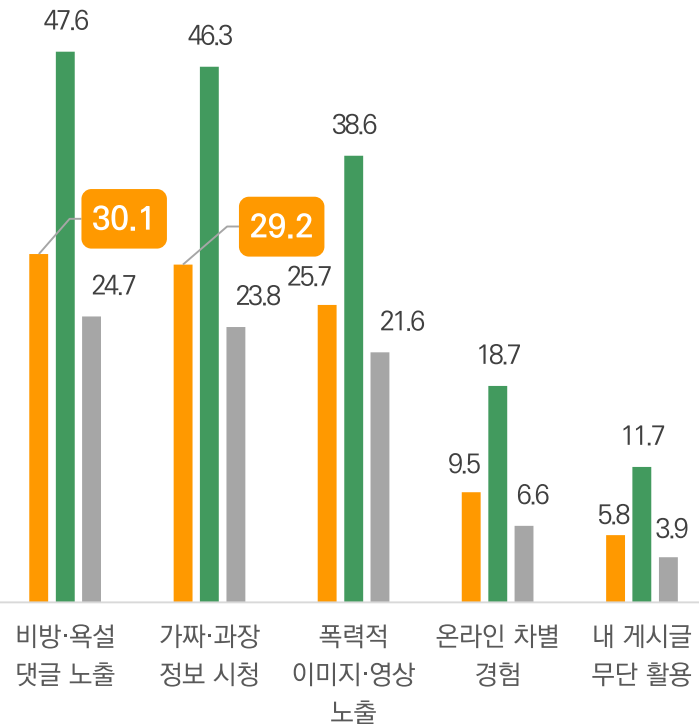
- 내용을 잘/약간 알고 있음
- 들어본적 있지만 내용은 모름
- 들어본적 없음



## 온라인 피해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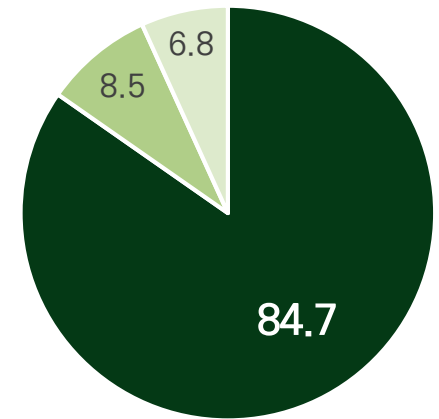
[Base:초등학교 고학년 전체, Unit:%]

- 전체
- 가정 내
- 시설



##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경험

[Base:초등학교 고학년 전체, Unit:%]



- 교육을 받은 적 있다
- 교육을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
- 받은 적 없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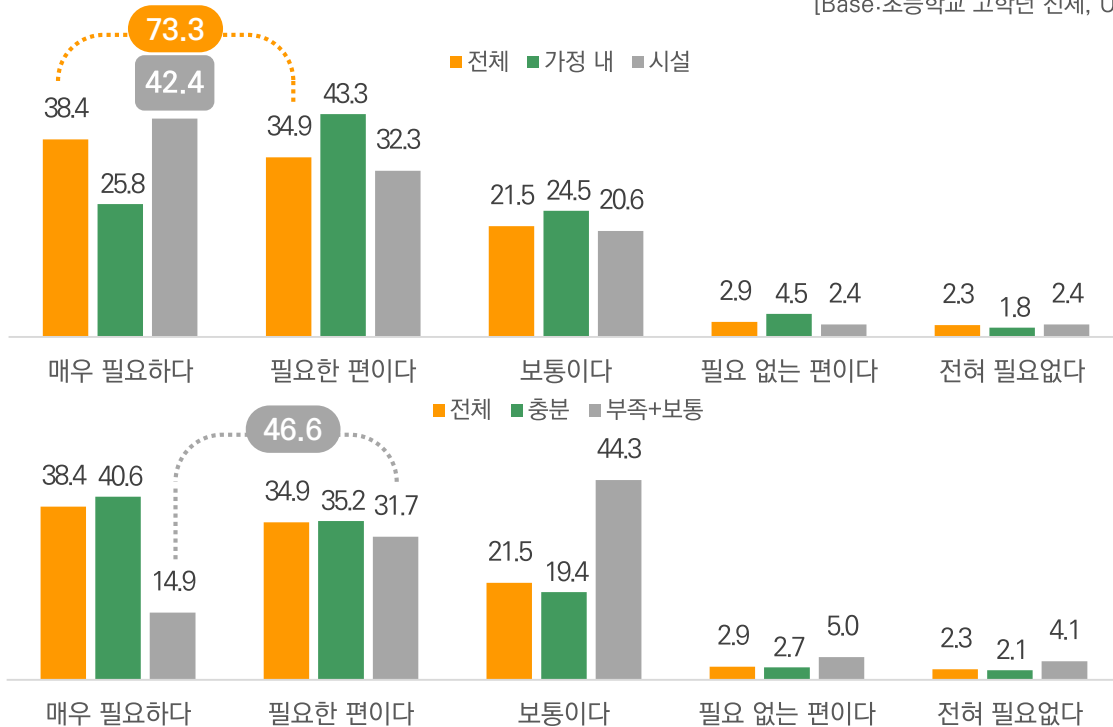
# 가. 초등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
-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필요도는 73.3%로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.
- 시설 아동은 '매우 필요하다' 응답(42.4%)이 더 높게 나타나, 온라인 환경 취약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함.
- 또한 후원금 부족+보통군 아동은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필요도는 낮지만(46.6%), '보통'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.
-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위해 필요한 보호 방안으로는 '법 제정'(34.5%)과 '학교 교육 강화'(24.3%)가 가장 높게 나타남.

⇒ 초등학생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교육이 보편적·기본 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봄.  
 ⇒ 특히 시설 아동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위험 인식이 더 강하게 보여, 아동권리교육 필요도에서 그룹 간 차이가 확인됨.  
 ⇒ 정책·학교 기반의 체계적인 온라인 아동권리 보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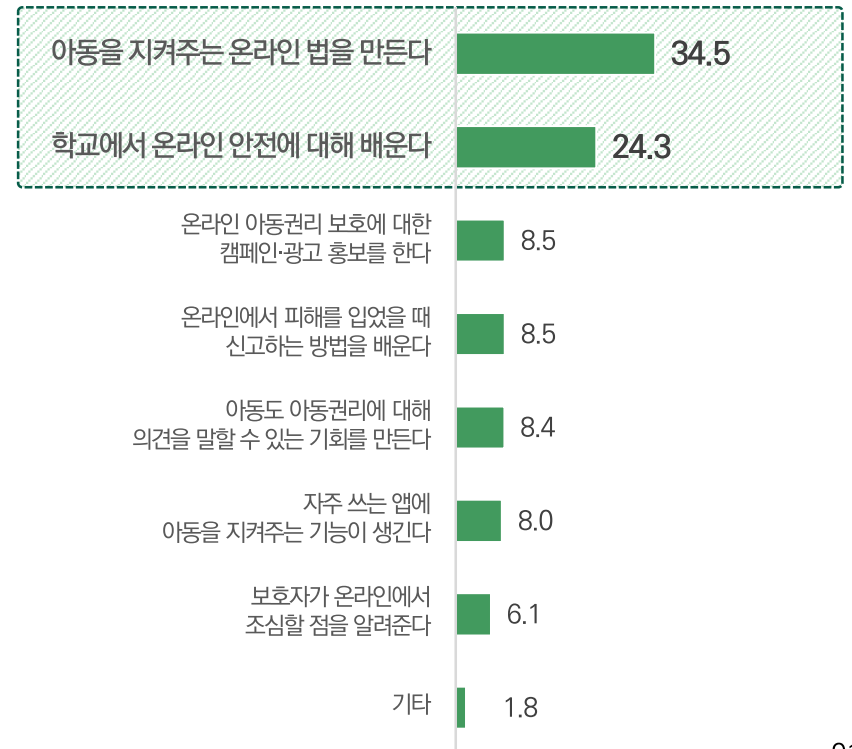
##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필요도

[Base:초등학교 고학년 전체, Unit:%]



##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

[Base:초등학교 고학년 전체, Unit:%]



# 나. 중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
- 중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은 아동의 4대 기본 권리 내용도 알고 있다고 응답함.
- 온라인 피해 경험으로 '비방·욕설 댓글 노출'(48.3%)과 '가짜·과장 정보 시청'(44.9%) 노출이 잦았으며, 특히 가정 내 아동이 시설 아동보다 유해 콘텐츠, 허위정보, 악성댓글 노출률이 높아 가정 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가 시급함.
- 온라인 아동권리 교육 경험률은 59.1%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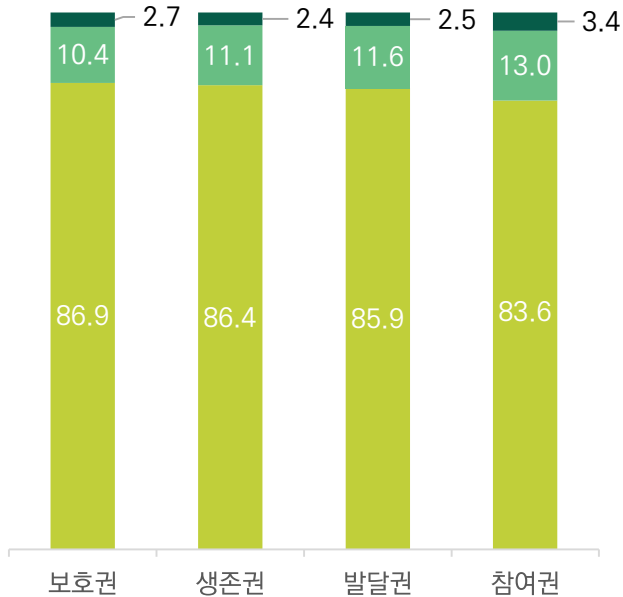
\* 디지털 리터러시란?

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, 지식, 태도를 포괄하는 능력으로,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'사용'하는 것을 넘어 정보를 '이해'하고, '평가'하며, '창조'하고, '소통'하는 모든 능력

## 아동 4대 권리 인지도

[Base:중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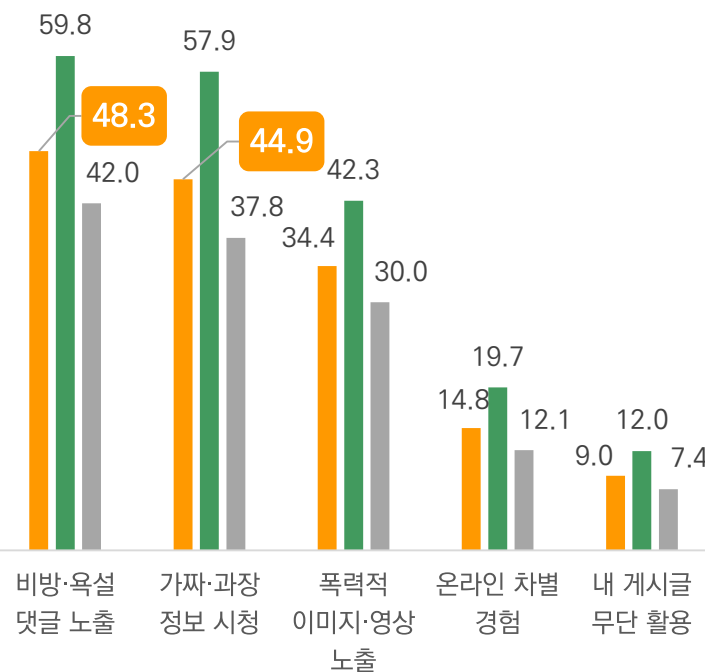
- 들어본 적 없음
-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모름
- 내용을 잘/약간 알고 있음



## 온라인 피해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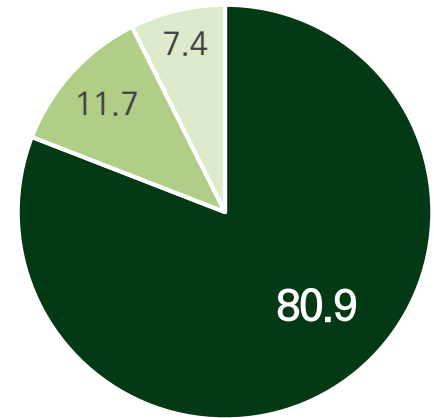
[Base:중학생 전체, Unit:%]

- 전체
- 가정 내
- 시설



##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경험

[Base:중학생 전체, Unit:%]



- 교육을 받은 적 있다
- 교육을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
- 받은 적 없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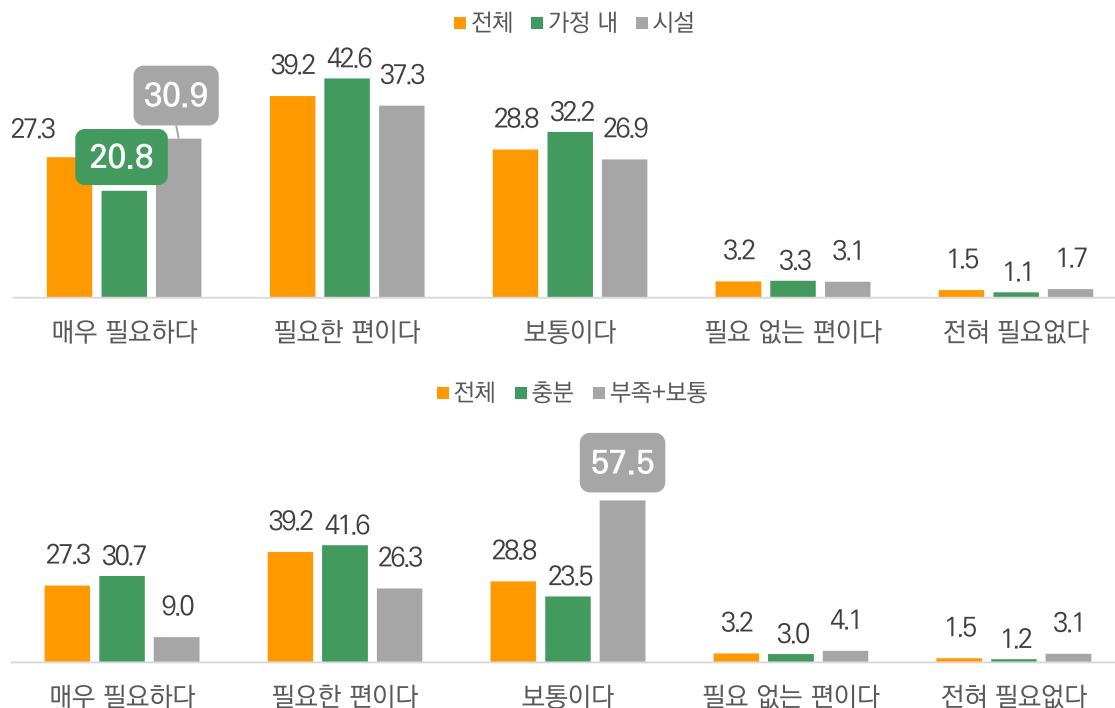
## 나. 중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
-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필요도는 전반적으로 높지만, 시설 아동의 ‘매우 필요하다’ 응답(30.9%)이 가정 내 아동(20.8%)보다 높게 나타남.
- 후원금 부족+보통군 중학생은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‘보통이다’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(57.5%),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그룹으로 보임.
-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방안으로는 시설 아동이 ‘온라인 법 제정’(33.3%)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, 제도적 보호 장치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큼.

⇒ 시설 아동은 온라인 위험에 대한 체감도가 크고 집중적·강화형 교육이 요구됨.  
 ⇒ 후원금 부족+보통군 중학생은 교육 필요성 인식이 낮아,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.  
 ⇒ 법·정책·학교 기반의 체계적 온라인 아동권리 보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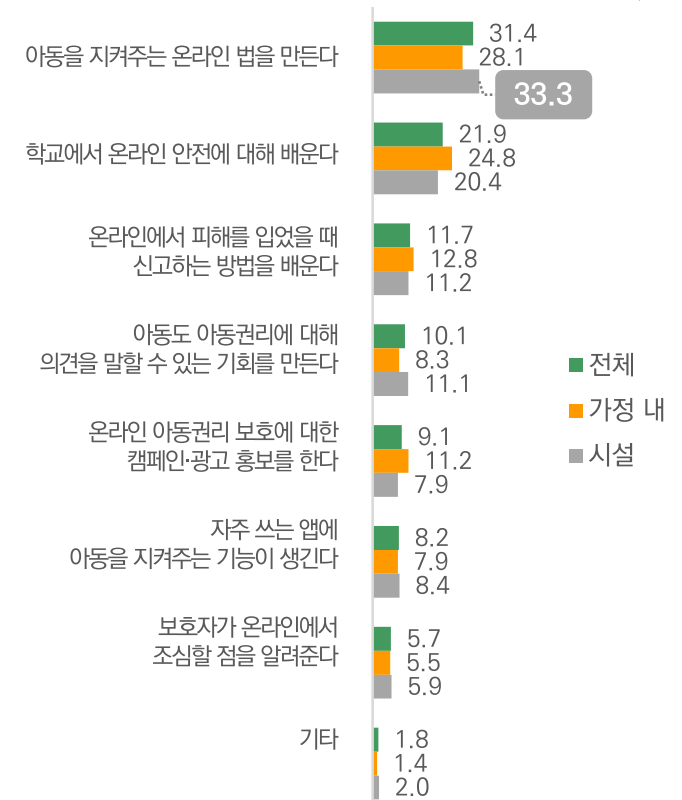
###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필요도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 %]



###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 %]



# 다. 고등학생- (1) 근황 분석 결과 :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
- 고등학생은 아동의 4대 기본 권리 중 참여권(79.1%) 인지도가 가장 낮음.
- 온라인 피해 경험으로 '비방·욕설 댓글 노출'(53.1%)과 '가짜·과장 정보 시청'(53.1%)이 초등학생, 중학생에 비해 더 크며, 특히 가정 내 아동이 시설 아동보다 유해 콘텐츠, 허위정보, 악성댓글 노출률이 높아 가정 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가 시급함.
- 온라인 아동권리 교육 경험률(55.3%)은 전 학령 중 가장 낮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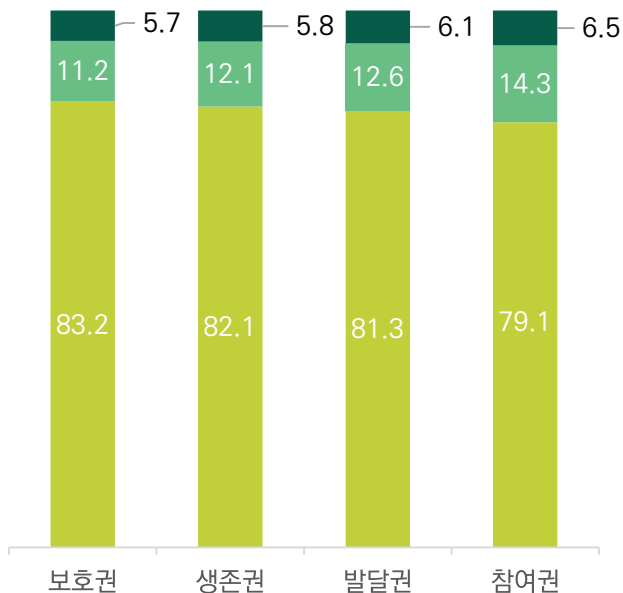
\* 디지털 리터러시란?

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, 지식, 태도를 포괄하는 능력으로,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'사용'하는 것을 넘어 정보를 '이해'하고, '평가'하며, '창조'하고, '소통'하는 모든 능력

## 아동 4대 권리 인지도
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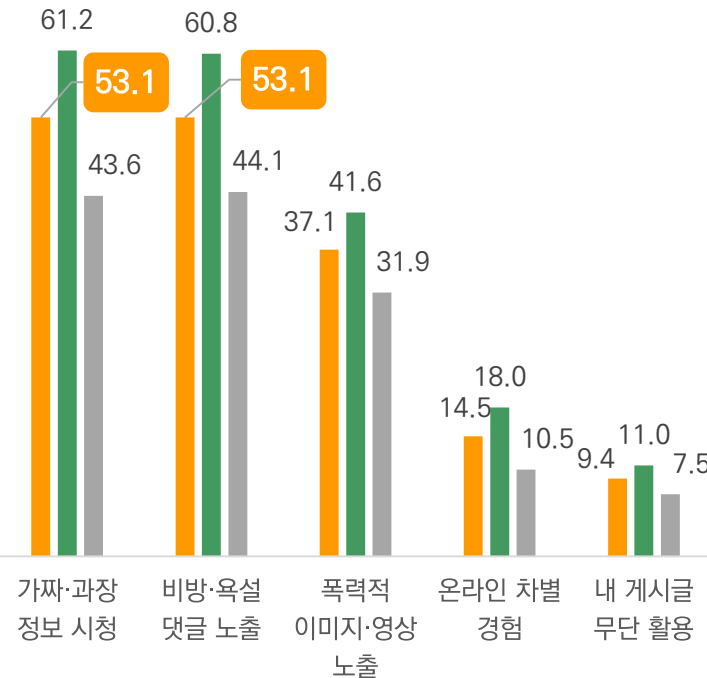
- 들어본 적 없음
- 들어본 적 있지만 내용은 모름
- 내용을 잘/약간 알고 있음



## 온라인 피해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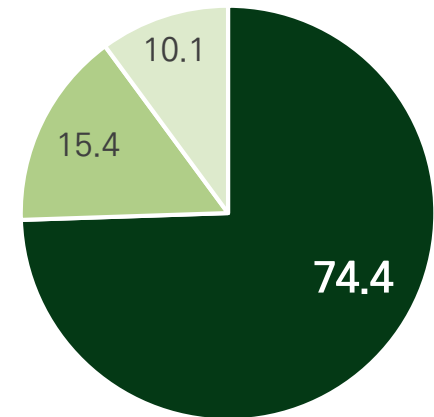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- 전체
- 가정 내
- 시설



##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경험
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- 교육을 받은 적 있다
- 교육을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
- 받은 적 없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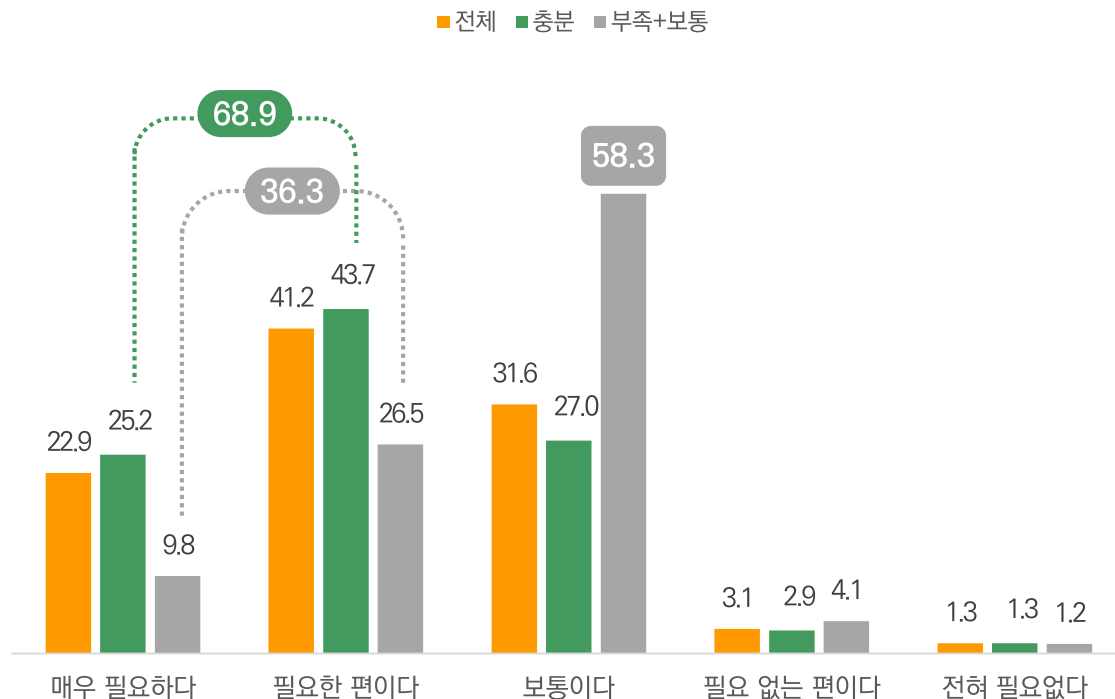
## 다. 고등학생- (2) 욕구 분석 결과 :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
-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필요도는 대부분 높지만, 후원금 부족+보통군은 ‘필요하다’ 응답이 36.3%로 후원금 충분군(68.9%) 대비 크게 낮아 교육 인식 격차가 뚜렷함을 알 수 있음.
- 또한 ‘보통이다’ 응답이 58.3%로 매우 높아, 교육 필요성을 명확히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강함.
- 보호 방안으로는 ‘온라인 법 제정’이 29.9%, ‘학교 교육 강화’가 20.7%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함.

⇒ 고등학생은 후원금 수준에 따른 온라인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교육 필요성 인식 격차가 크게 나타남. 다른 학령에 비해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.  
 ⇒ 아동권리교육 필요도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, 인식 제고 캠페인 및 동기 강화 교육이 시급히 요구됨.  
 ⇒ 법·정책·학교 기반의 구조적 온라인 권리 보호 안전장치 구축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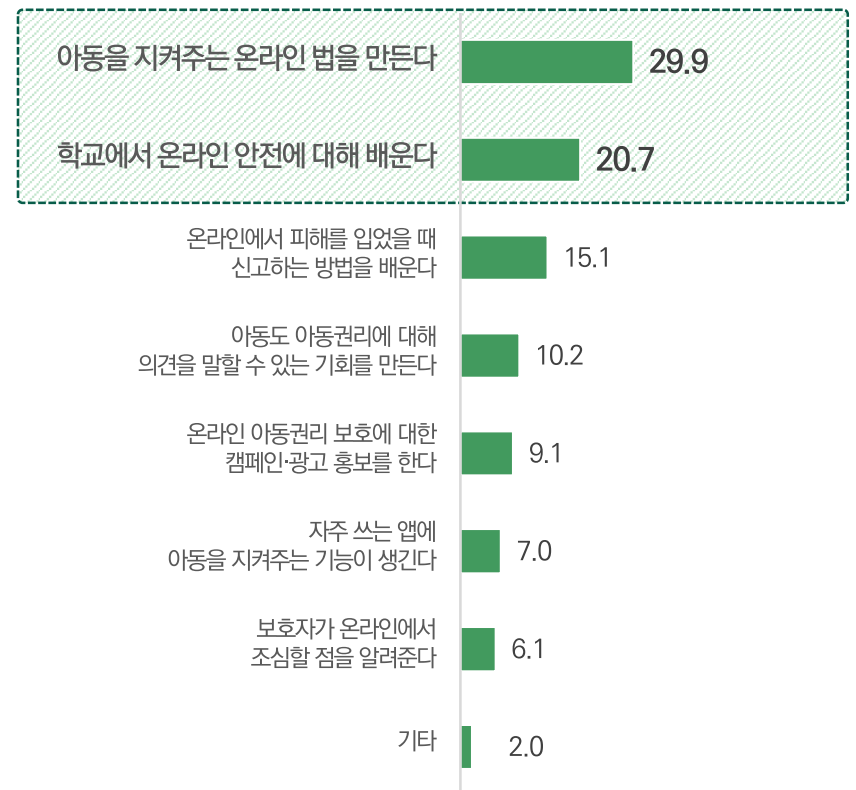
###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필요도
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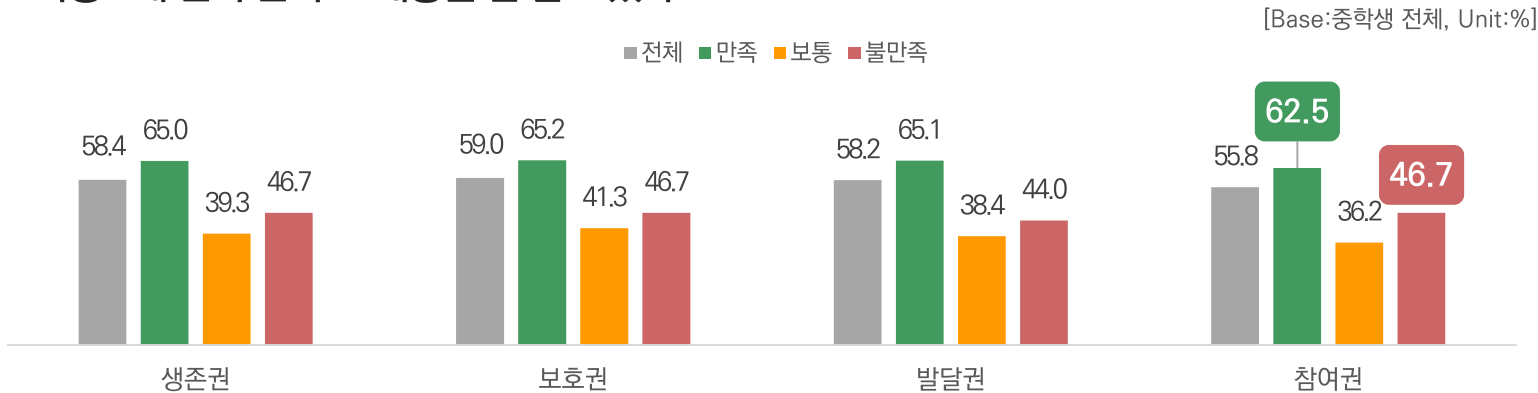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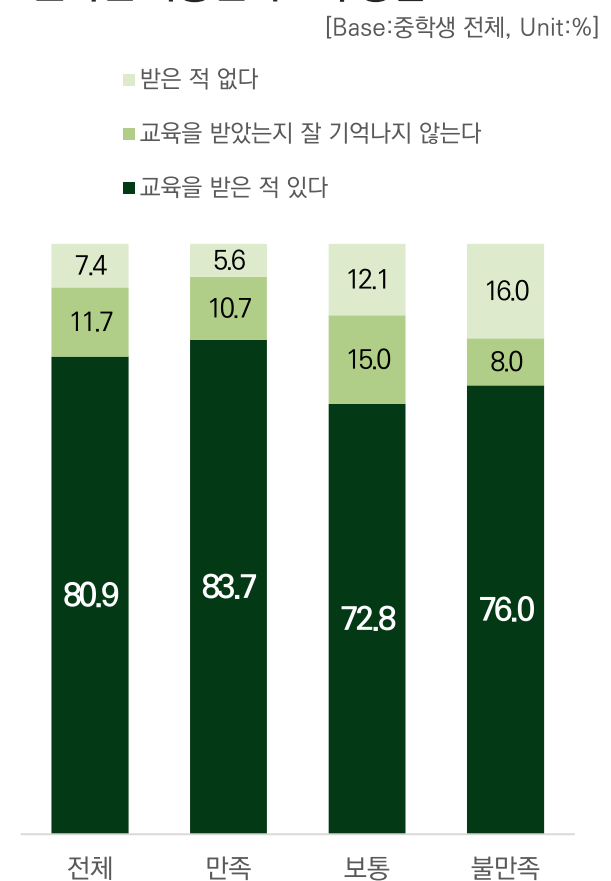
## 라. 주거환경 만족도별 **근황** 분석 결과 :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 - 중학생

- 아동 4대 권리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주거환경 만족군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, 특히 참여권에서 만족군 62.5%, 불만족군 46.7%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.
- 온라인 피해 경험은 대체로 주거환경 불만족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, 비방·욕설 콘텐츠 노출이 만족군 44.9%, 불만족군 65.3%로 가장 큰 격차를 보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취약성이 두드러짐.
-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경험에서는 주거환경 만족군의 교육 경험률이 63.7%로 가장 높고, 보통군 46.0%, 불만족군 49.3%로 과반 이하로 나타남.
- 전반적으로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권리 인지도와 교육 경험이 높고, 온라인 피해는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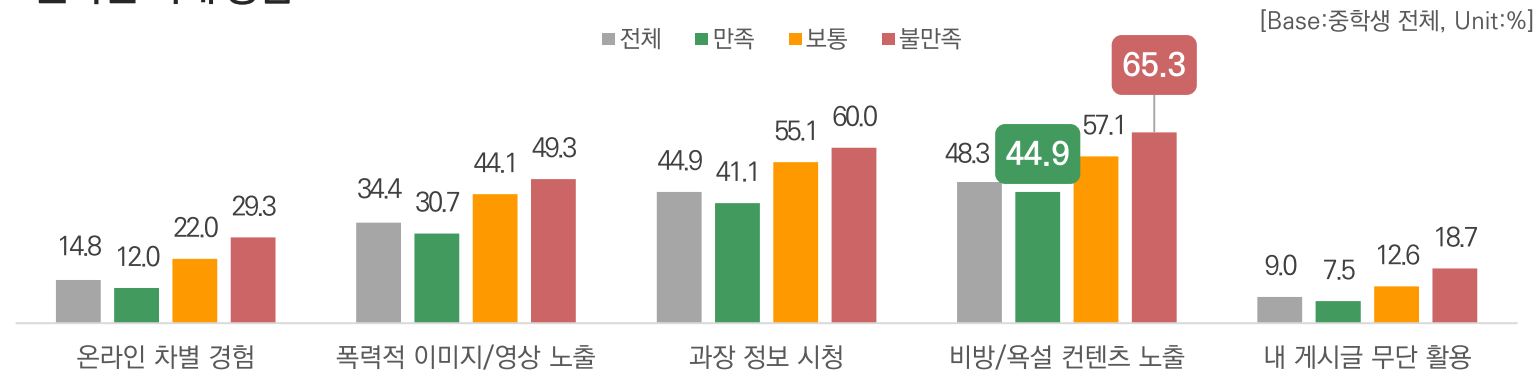
### 아동 4대 권리 인지도 '내용을 잘 알고 있다'



###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경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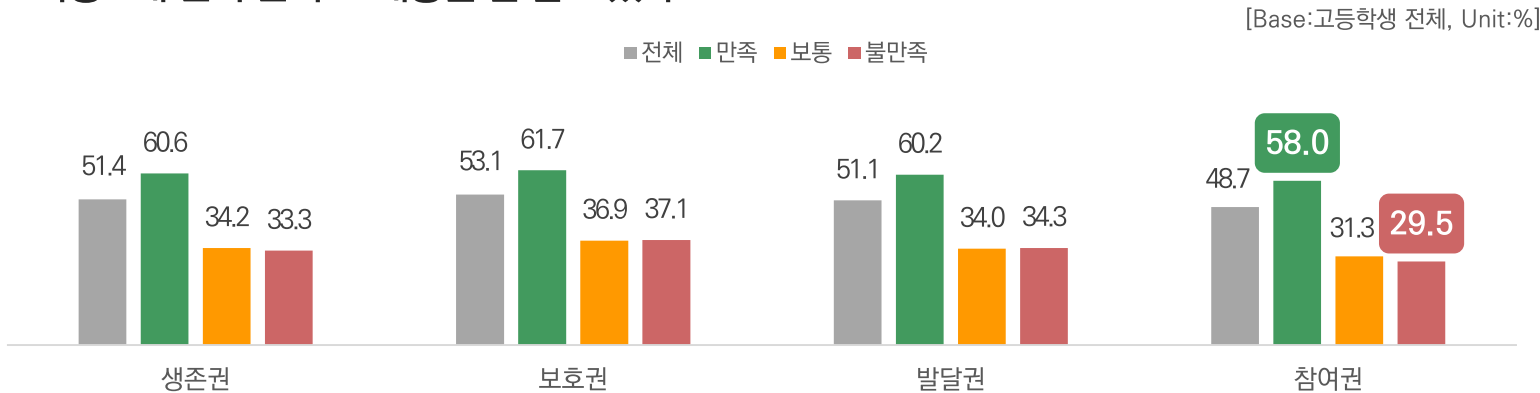
### 온라인 피해 경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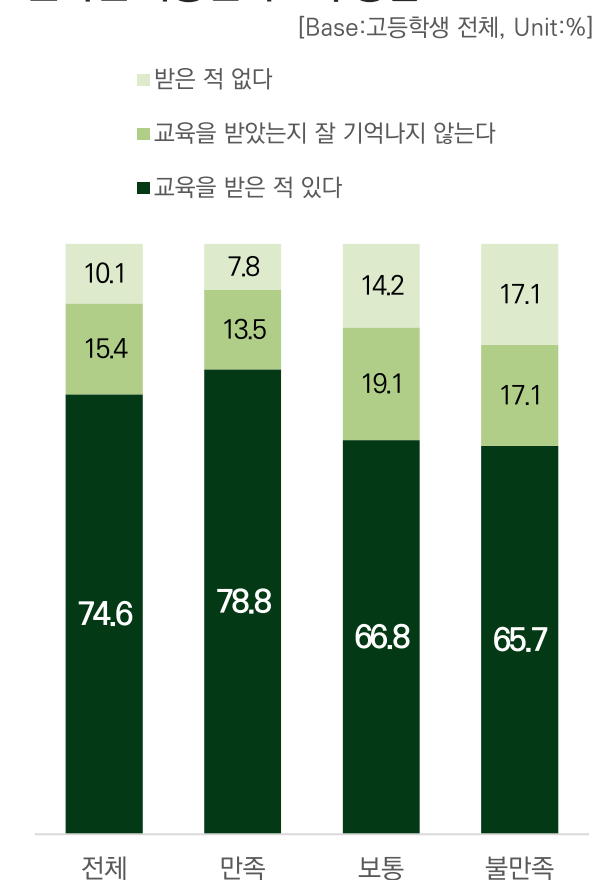
## 라. 주거환경 만족도별 **근황** 분석 결과 :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 - 고등학생

- 아동 4대 권리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만족군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, 참여권에서 만족군 58.0%, 불만족군 29.5%로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.
- 온라인 피해 경험은 대부분 불만족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, 과장 정보 시청의 경우 만족군 48.3%, 불만족군 74.3%로 격차가 크게 확인됨.
-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경험에서는 만족군의 교육 경험률이 60.9%로 가장 높고, 보통군 45.7%, 불만족군 35.2%로 만족군과의 차이가 뚜렷함.
- 전반적으로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권리 인지와 교육 경험은 높고, 온라인 피해는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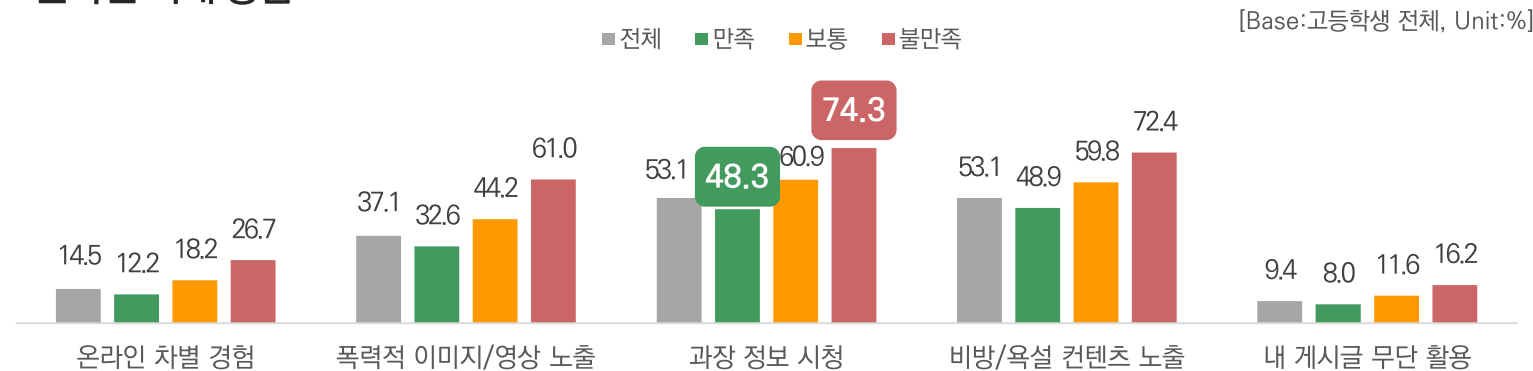
### 아동 4대 권리 인지도 '내용을 잘 알고 있다'



###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경험



### 온라인 피해 경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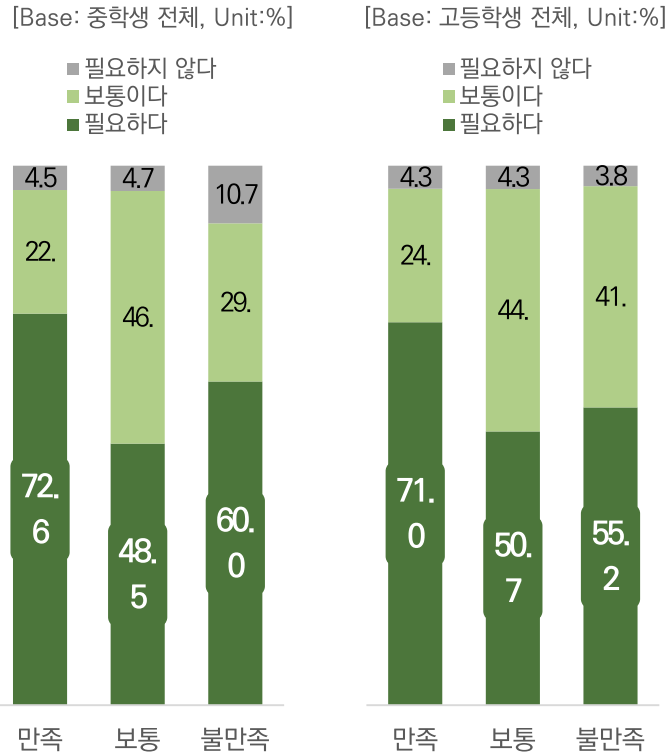
## 라. 주거환경 만족도별 욕구 분석 결과 :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
-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필요도에 대해 중·고등학생 모두에서 ‘필요하다’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주거환경 만족도 집단 간 차이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음.
- 다만 중·고등학생 모두 만족군에서 필요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됨.
-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소 역시 중·고등학생 모두 ‘아동을 지켜주는 온라인 법을 만드는 것’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, ‘학교에서 온라인 안전 교육’, ‘피해 발생 시 신고 방법 교육’ 순으로 나타나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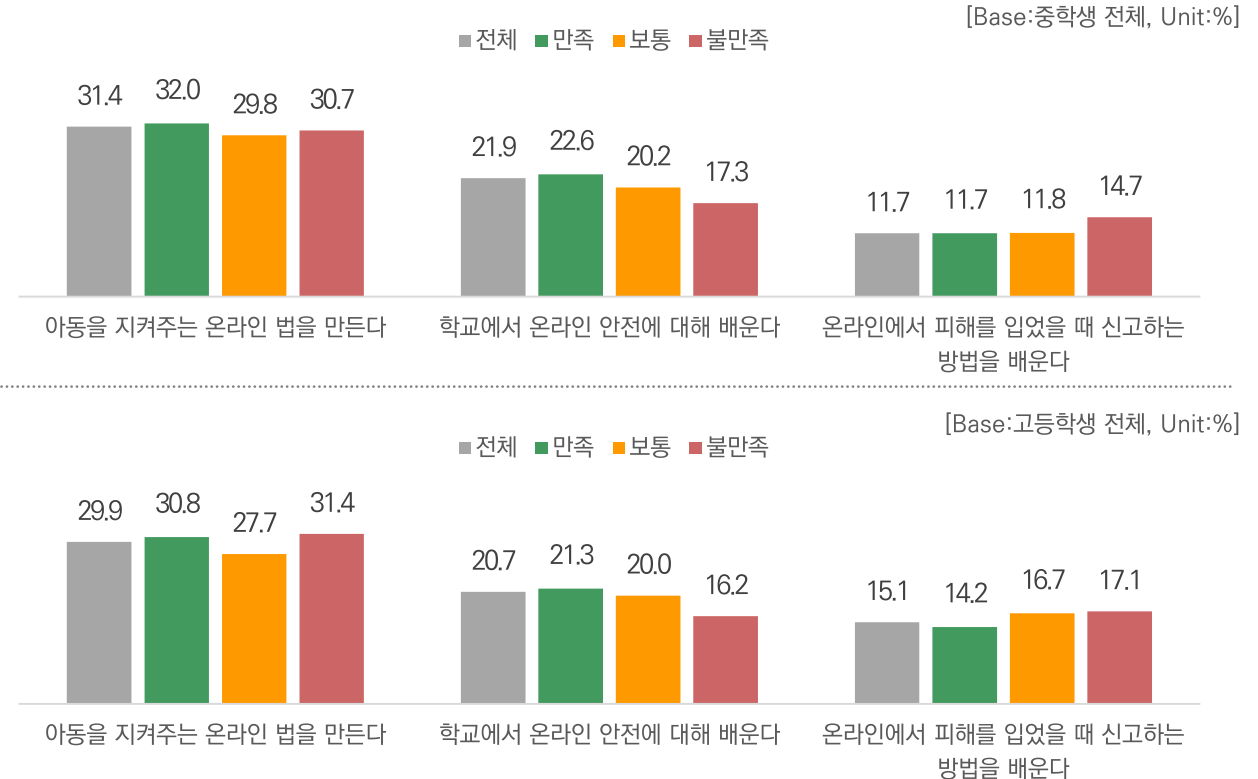
⇒ 온라인 아동권리교육과 보호 필요 인식은 주거환경 만족도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, 특정 집단에 한정된 개입보다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접근이 적절함을 시사함.

⇒ 이에 따라 온라인 안전 교육, 권리 인식 교육, 피해 발생 시 대응·신고 방법 안내를 기본 교육으로 확대하고, 법·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의 지원이 필요함.

###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필요도



###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



# 마. 학령 간 분석 결과 및 시사점 :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
##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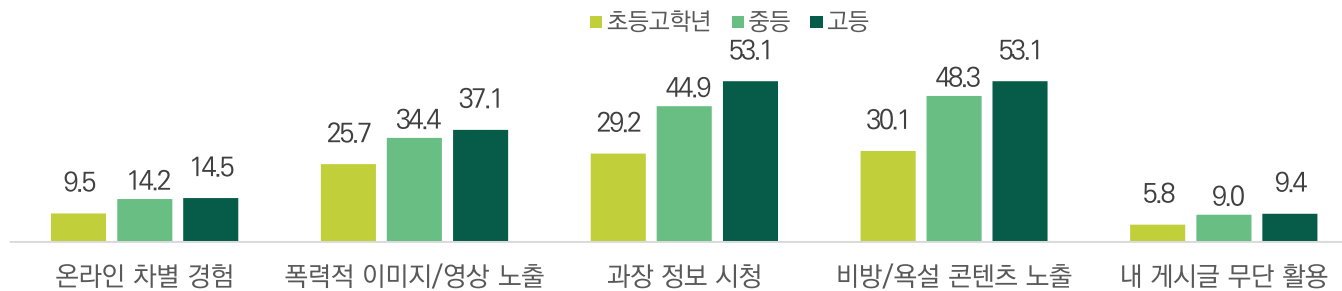
- 온라인 피해 경험은 모든 항목에서 학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함.
- 아동권리 보호 방안으로는 모든 학령에서 '온라인 법 제정'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(초등 34.5%, 중등 31.4%, 고등 29.9%)하였으며, 고등학생은 '신고 방법 학습' 비중이 15.1%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.

## 시사점

- 학령이 높아질수록 노출되는 온라인 위험이 커지므로, 단계별로 위험 유형에 맞춘 맞춤형 온라인 안전교육이 필요함.
- 특히 고등학생에게는 신고·대응 역량 강화 중심의 실질적 교육이 요구되며, 전 학령 공통으로는 법·제도 기반의 안전망에 대한 체계적 안내가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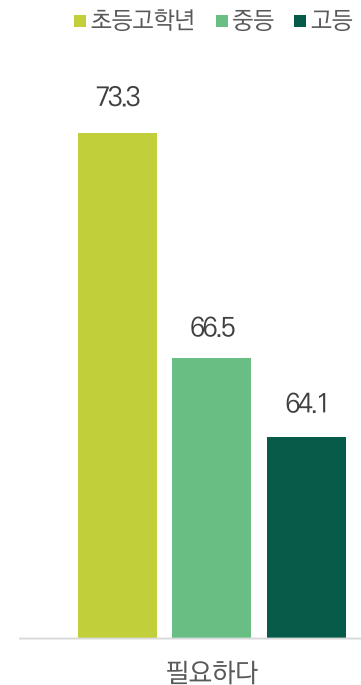
### 온라인 환경 피해 경험

[Base: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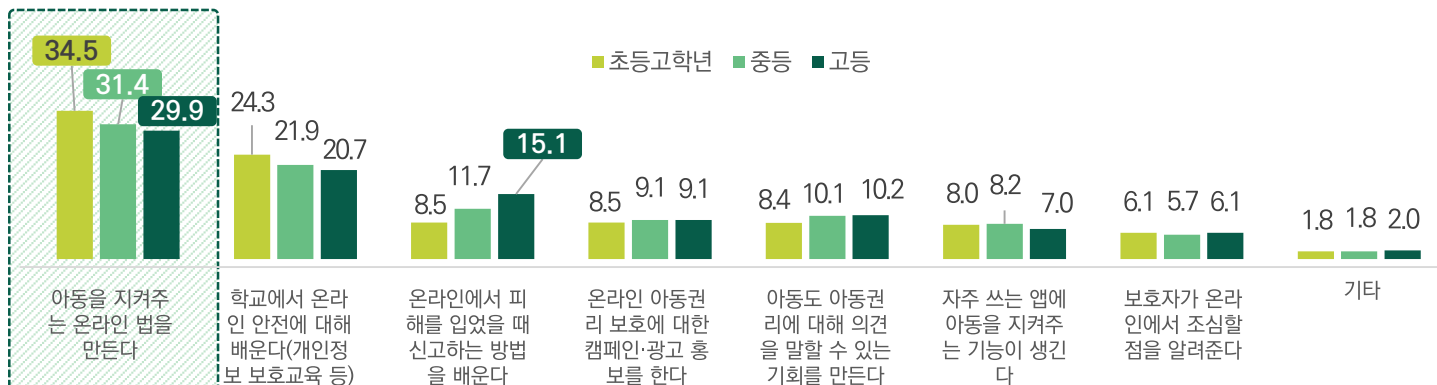
### 온라인 아동권리 교육 필요도

[Base: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

[Base: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 바. 종합 제언 : (1) 「내가 만드는 권리세상」 프로젝트

## “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만들어요”

- ✍ 시설 아동은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교육 경험률이 높아 시설 중심 교육은 성과가 있음.
- ✍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 아동권리교육 강화가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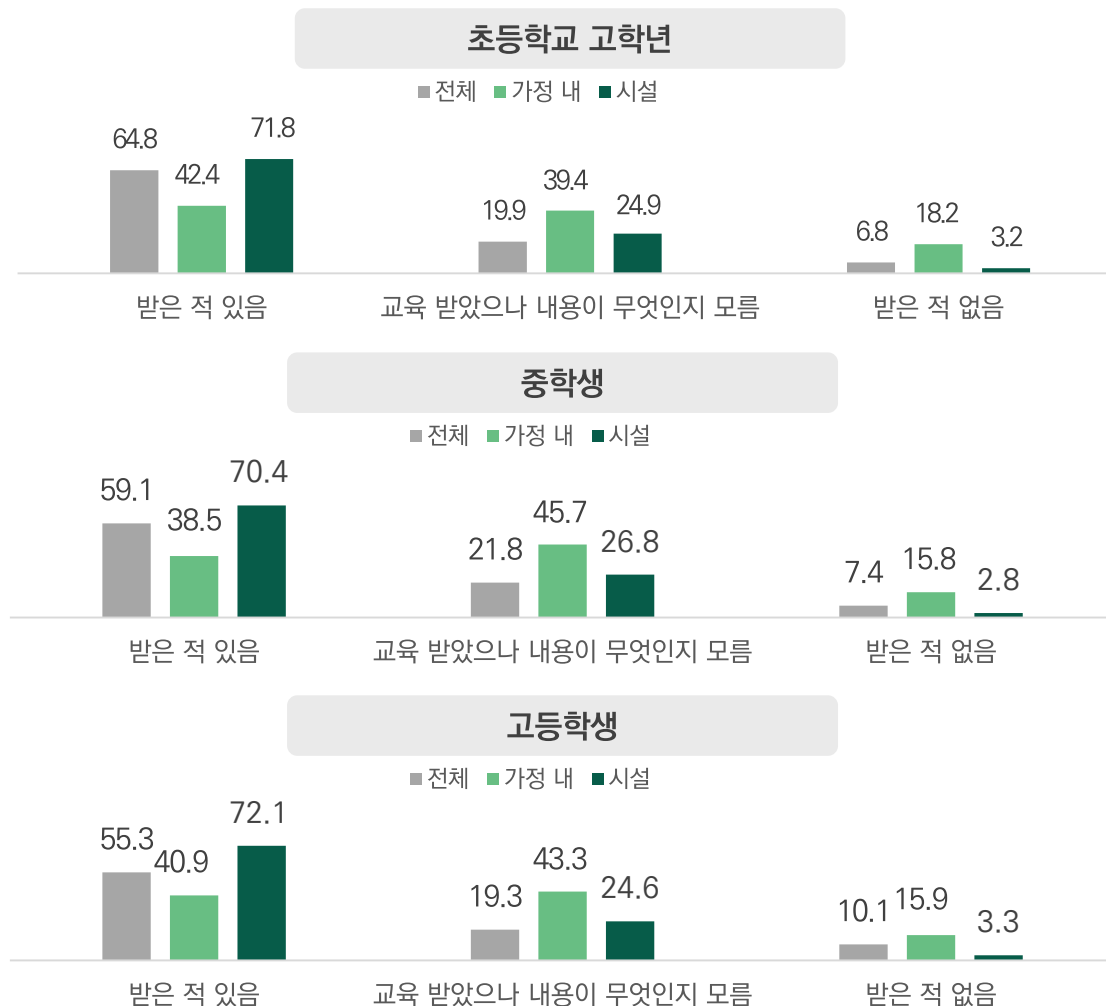
### 콘텐츠 구성안

가정 아동의 권리 인식과 참여 역량을 높여,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권리 인식 강화 콘텐츠

핵심 메시지	☑ “모든 아동은 권리를 배울 권리가 있다.”
콘텐츠 목표	☑ 아동권리 인식 확산-가정 내 권리교육 접근성 보완 ☑ 참여 중심 학습-권리를 ‘배우는 것’에서 ‘실천하는 것’으로 확장 ☑ 가정 단위 공감 형성-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권리 대화 문화 조성 ☑ 균형적 교육 확산-시설 중심 교육에서 지역·가정 중심으로 확대
콘텐츠 내용	☑ 권리 탐험 북 제작: UN 아동권리협약 기반으로 4대 권리(생존·보호·발달·참여)를 이야기 중심으로 학습 ☑ ‘나의 권리 선언’ 영상 챌린지: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표현하는 짧은 영상 제작 활동 ☑ 가정 참여형 캠페인 ‘권리 대화의 날’: 부모·자녀가 함께 ‘우리 가족의 권리 선언문’을 만드는 참여형 이벤트
기대 효과	☑ 가정 아동의 권리 인식 및 실천력 향상 ☑ 부모·가정 단위의 권리교육 참여 확산 ☑ 아동의 자기표현력 및 참여의식 강화 ☑ 지역 간·가정 간 아동권리교육 격차 완화

### 온라인 아동권리 교육 경험

[Base: 초·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 바. 종합 제언 : (2) 「안전한 클릭」 프로젝트

### “온라인에서의 안전한 클릭, 건강한 나.”

- ✍ 가정 내 아동은 하루 평균 인터넷 장시간 사용하는 반면, 시설 아동은 단시간 사용하고 있음.
- ✍ 가정 내 아동이 시설 아동보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허위정보/악성댓글 등 온라인 피해경험 노출 비율이 높음.
- ✍ 가정 내 디지털 습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가 필요함.

#### 콘텐츠 구성안

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자신을 보호하고, 건강한 온라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

##### 핵심 메시지

- ☑ “스마트한 세상, 나를 지키는 것도 나의 힘이에요.”

##### 콘텐츠 목표

- ☑ 아동 스스로 디지털 권리(표현·안전·정보접근)의 의미를 인식하게 함
- ☑ 허위정보·악성댓글 등 온라인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력 강화
- ☑ 부모·교사 없이도 스스로 ‘안전한 사용 습관’을 형성하도록 지원
- ☑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

##### 콘텐츠 내용

- ☑ ‘디지털 세상 속 나’ 워크북 제작: 실제 사례 기반으로 허위정보, 악성댓글, 개인정보 유출을 스스로 인식하고 대처법을 배우는 워크북
- ☑ 게임형 학습 콘텐츠 제작: 악성댓글 차단·사이버 친구 지키기가짜뉴스 판별 미션
- ☑ 디지털 리터러시 교실: 디지털 권리, 정보 판별력, 온라인 감정관리 수업 (학교·시설 연계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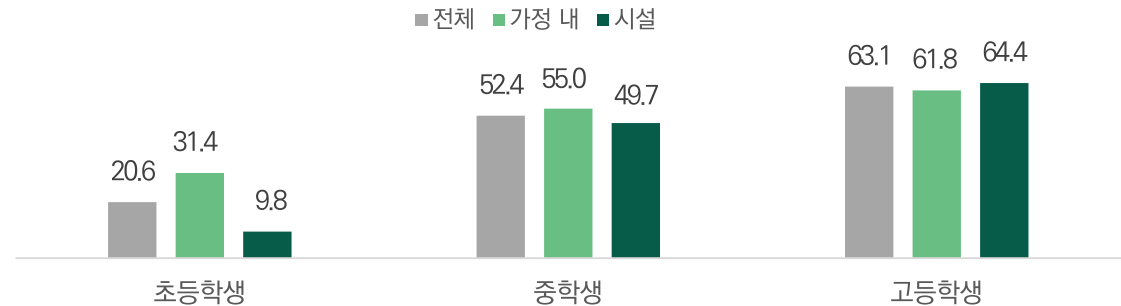
##### 기대 효과

- ☑ 아동의 디지털 안전 인식 제고
- ☑ 올바른 정보판별력(리터러시) 강화
- ☑ 사이버폭력·악성댓글 피해 예방
- ☑ 건강한 디지털 습관 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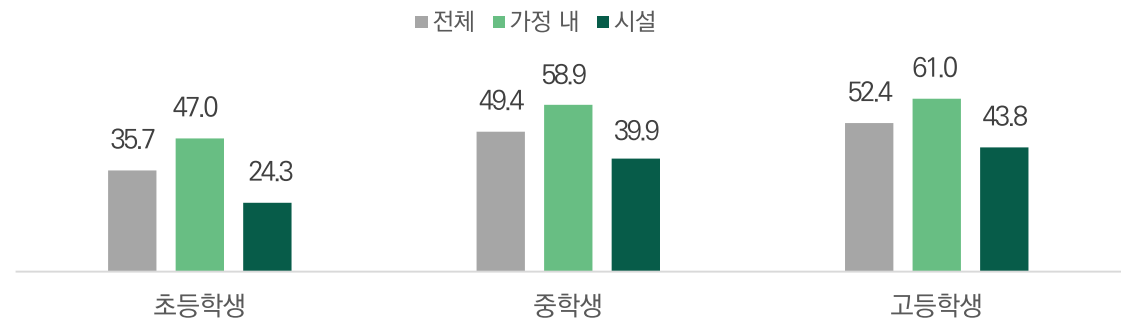
#### 디지털 이용 패턴 및 온라인 위험 노출

[Base: 초·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##### 주중 인터넷 사용 시간 (3시간 이상)



##### 온라인 유해환경 노출률



\* 디지털 리터러시란?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, 지식, 태도를 포괄하는 능력으로,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'사용'하는 것을 넘어 정보를 '이해'하고, '평가'하며, '창조'하고, '소통'하는 모든 능력

PART /



# 주요 주제별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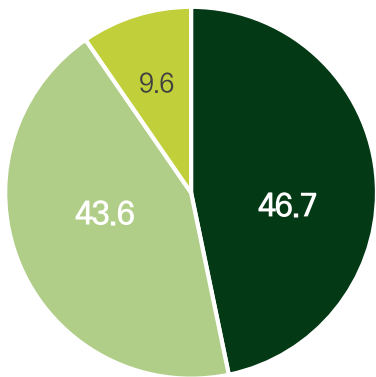
1. 식사의 질과 영양 상태
2. 스트레스
3. 정서적 어려움
4. 주관적 행복감 및 관계 만족도
5. 새학기 현황
6. 사교육
7. 진로 교육과 진로 고민
8. 자립 능력과 준비 정도
9. 아동권리 및 온라인 환경
10.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# 가. 미취학 아동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- 미취학 아동은 후원금을 주로 생활비(46.7%)와 교육·학습·자기계발비(43.6%)에 사용함.
- 특히 가정 내 아동은 '식료품 구입비'(32.0%)에, 시설 아동은 미래 자립을 위한 '디딤씨앗통장'(39.6%)에 사용함.
- 교육비는 주로 '학습지'(21.4%), 의료비는 주로 '의약품·영양제'(38.5%)에 사용됨.
- 후원 후 가장 큰 변화로 '건강하게 쑥쑥 자라게 되었다'(26.5%)를 응답하여, 후원금이 아동의 기본적인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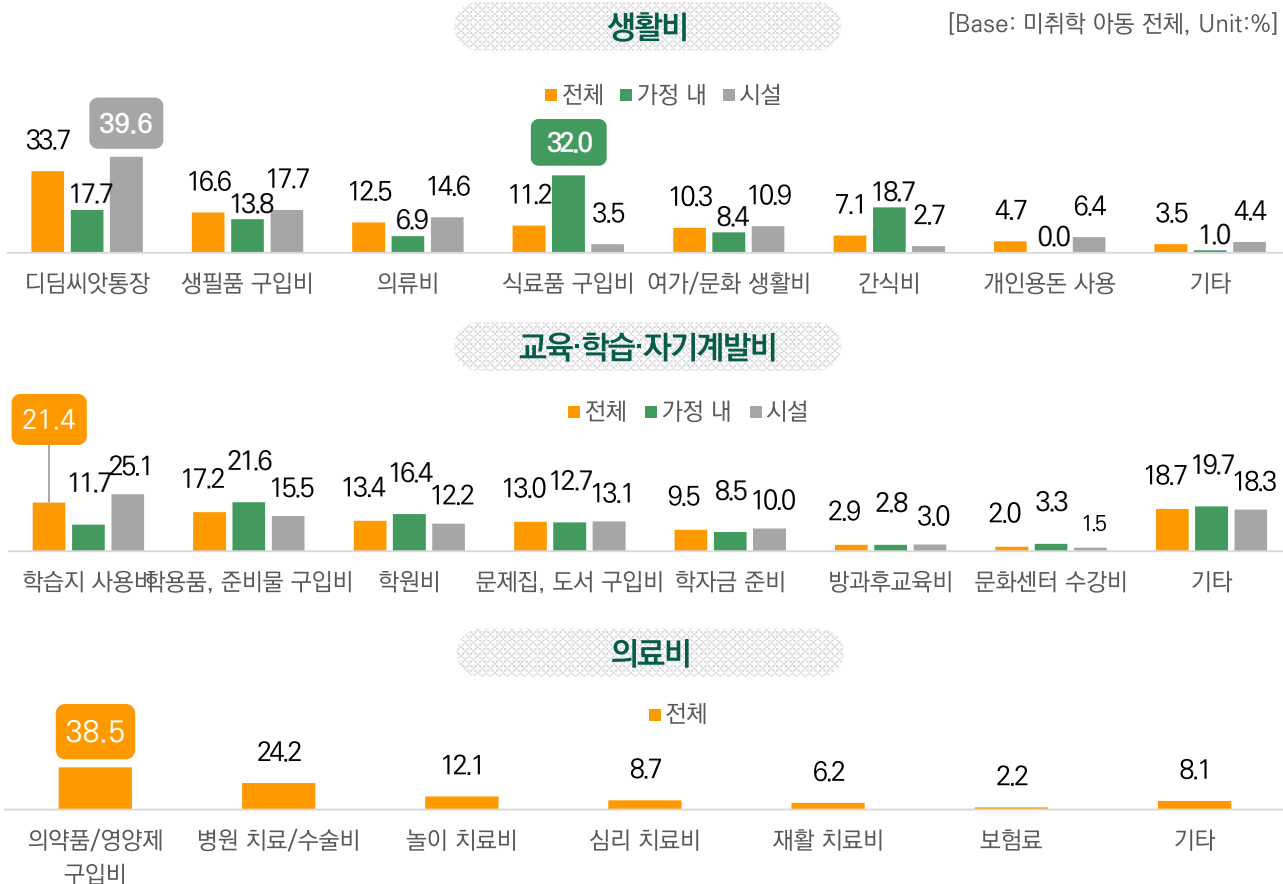
## 후원금 사용처 비중

[Base: 미취학 아동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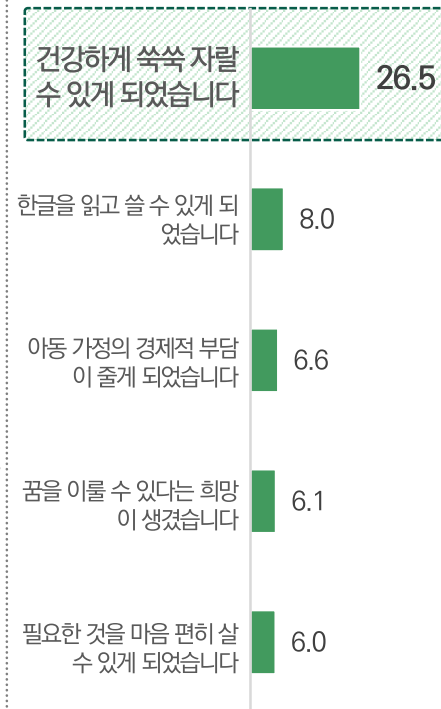
- 생활비
- 교육/학습/자기계발비
- 의료비

## 후원금 세부 사용처



## 후원 후 가장 큰 변화

[Base:미취학 아동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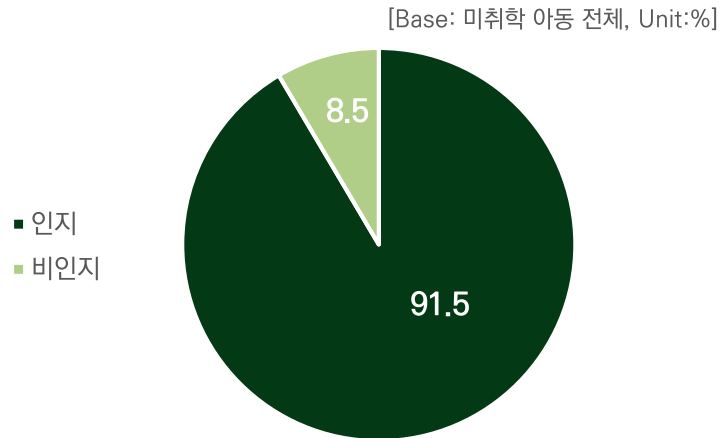


# 가. 미취학 아동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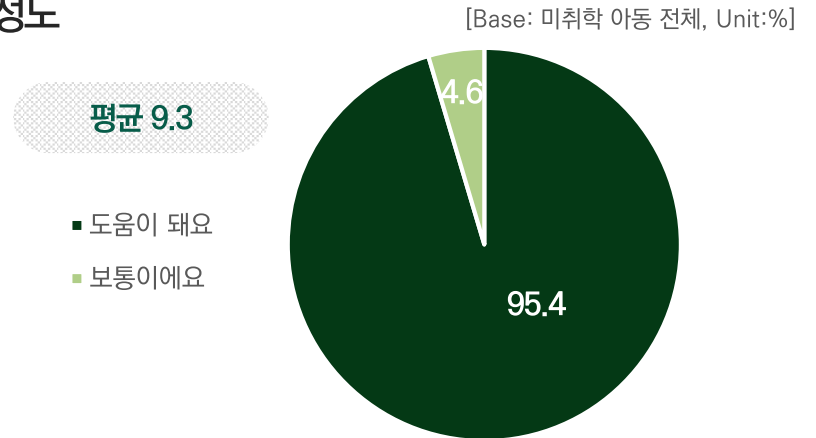
- 미취학 아동의 후원금 인지율은 91.5%로, 후원금 지원 사실을 잘 알고 있음.
- 후원금 지속 희망도는 98.1%로 거의 전원 수준이며, 후원금 도움 정도는 95.4%가 '도움이 돼요'고 응답해 체감 효과가 가장 높은 학령대로 나타남.
- 후원금 충분도는 86.9%로 높으나, 가정 내 아동(72.4%)은 시설 아동(91.7%) 대비 낮게 나타나 지원 체감의 격차가 확인됨.

⇒미취학 단계에서는 후원금 인지·효과·지속 희망 모두 매우 높아, 후원금이 가장 강하게 체감되는 연령대임.  
 ⇒다만 가정 내 아동의 충분도 인식이 시설 아동보다 낮아, 가정 환경에서의 지원 체감 개선을 위한 맞춤형 보완책이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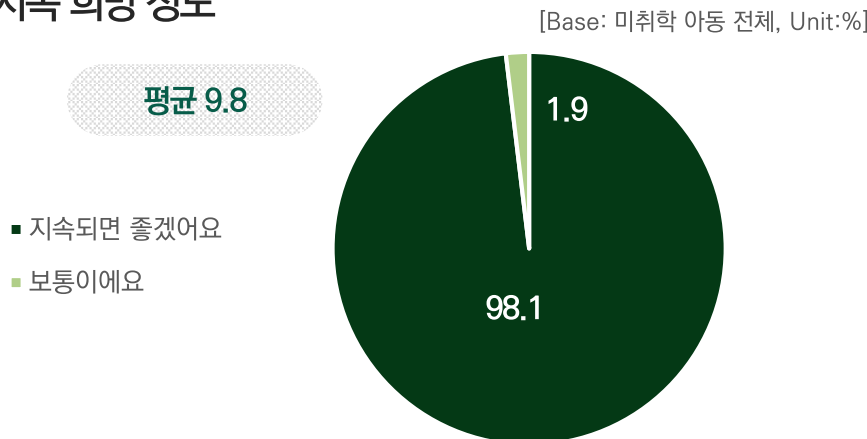
### 후원금 인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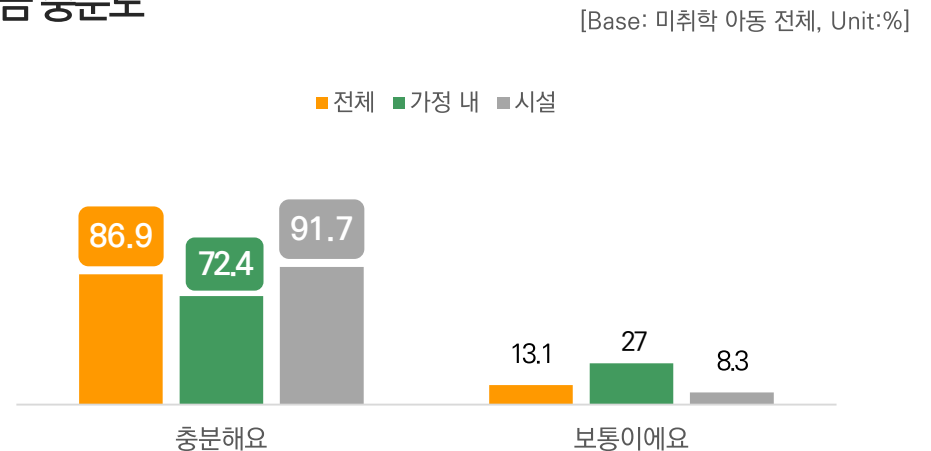
### 후원금 도움 정도



### 후원금 지속 희망 정도



### 후원금 충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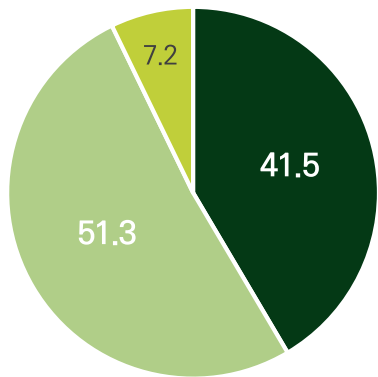


# 나. 초등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- 초등학생은 후원금을 주로 교육·학습·자기계발비(51.3%)와 생활비(41.5%)에 사용함.
- 교육비는 ‘학원비’(38.3%)가 압도적으로 높고, 이어 학용품·준비물(14.2%), 문제집·도서(12.1%), 학습지(11.7%) 순으로 나타남.
- 생활비 사용처는 ‘디딤씨앗통장’(33.8%)이 가장 높고, ‘개인용돈’(12.9%), ‘의류비’(11.1%), ‘생필품 구입’(10.9%) 순으로 나타남.
- 특히 가정 내 아동은 식료품 구입(31.9%) 비중이 높아 즉각적 생계 보완 지출이 두드러지는 반면, 시설 아동은 ‘디딤씨앗통장’(40.1%) 비중이 높아 미래 자립을 준비하는 장기적 활용이 뚜렷하게 나타남.
- 후원 후 가장 큰 변화로는 ‘건강하게 쑥쑥 자라게 되었다’(10.5%)를 꼽아, 후원금이 아동의 기본적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.

## 후원금 사용처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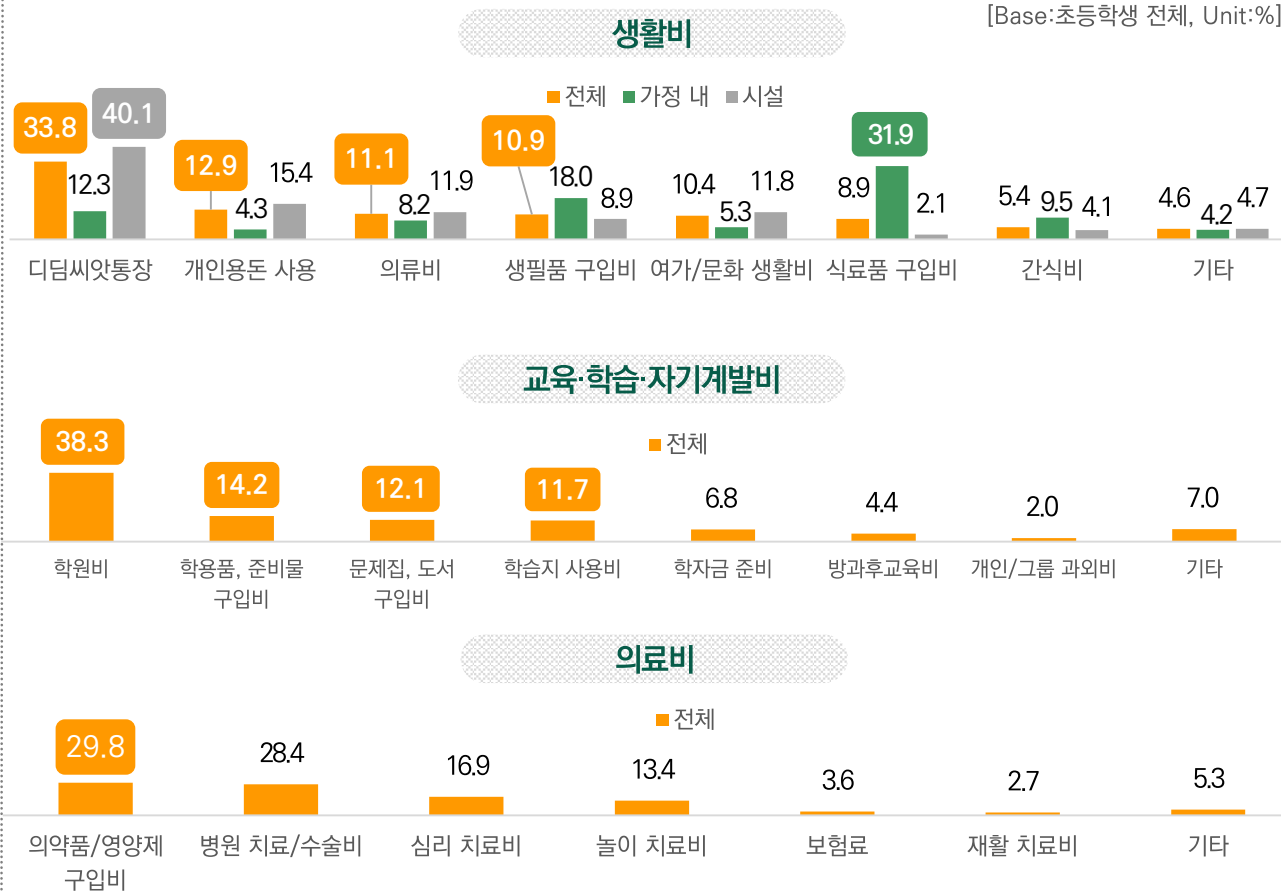
[Base: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

- 생활비
- 교육/학습/자기계발비
- 의료비

## 후원금 세부 사용처

[Base: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 후원 후 가장 큰 변화

[Base: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 나. 초등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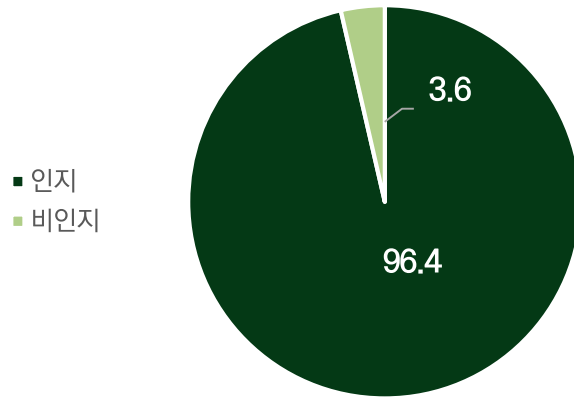
- 초등학생의 후원금 인지율은 96.4%로 매우 높아, 후원금 지원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음.
- 후원금 지속 희망 의사는 97.1%, 후원금 도움 정도는 93.2%임.
- 후원금 충분도는 86.4%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나, 가정 내 아동은 69.0%로 시설 아동(91.1%) 대비 낮아 체감 격차가 존재함.

⇒ 초등학생에게 후원금은 일상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.

⇒ 전반적으로 성별·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, 가정 내 아동의 도움 체감 및 지속 희망이 시설 아동보다 다소 낮은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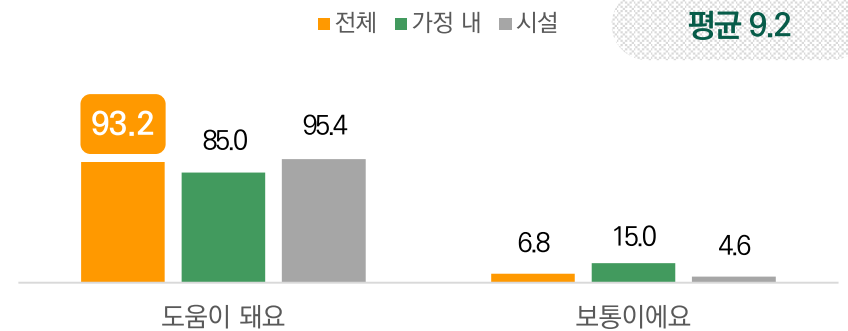
### 후원금 인지율

[Base: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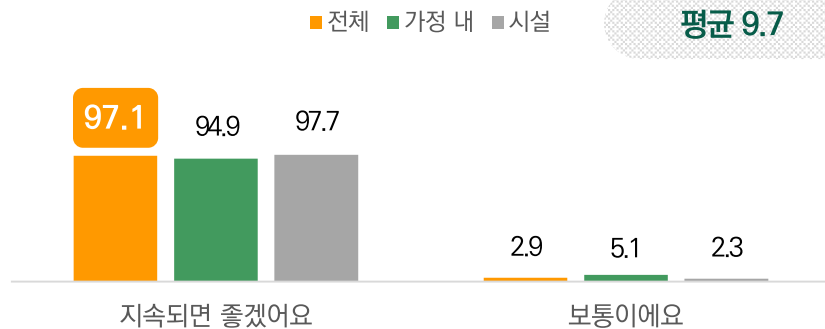
### 후원금 도움 정도

[Base: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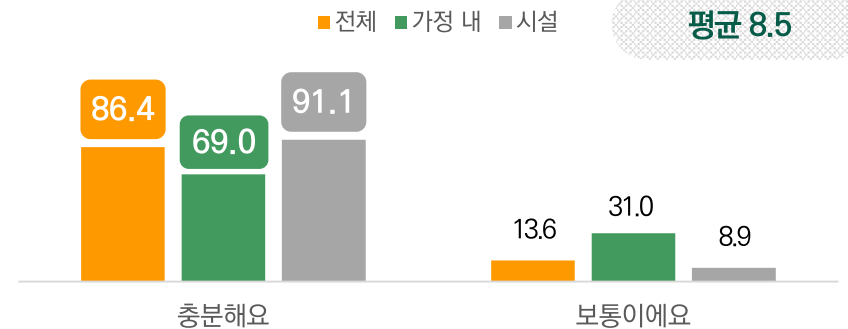
### 후원금 지속 희망 정도

[Base: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후원금 충분도

[Base:초등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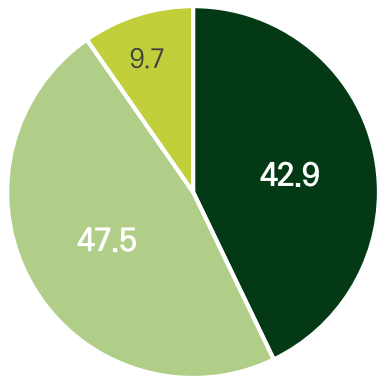


# 다. 중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- 중학생은 후원금을 주로 ‘교육·학습·자기계발비’(47.5%)와 ‘생활비’(42.9%)에 사용함.
- 교육비는 ‘학원비’(40.8%)가 가장 높고, 이어 ‘문제집·도서’(15.3%), ‘학용품·준비물’(13.7%) 순으로 나타남.
- 생활비 사용처는 ‘디딤씨앗통장’(24.4%) 비중이 가장 높고, 이어 개인용돈(16.7%), 생필품(13.7%), 식료품(12.7%) 순으로 나타남.
- 특히 가정 내 아동은 식료품 구입(29.5%)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당장 필요한 생활지출을 메우는 즉각적 생계 보완 패턴이 나타남.
- 반면 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(32.5%) 비중이 높아 미래 자립을 준비하는 장기적 활용이 두드러짐.
- 후원 후 가장 큰 변화로는 ‘경제적 부담 감소’(9.4%)를 꼽아, 후원금이 중학생의 학업 참여·정서 안정·가정 경제 완화 등에 폭넓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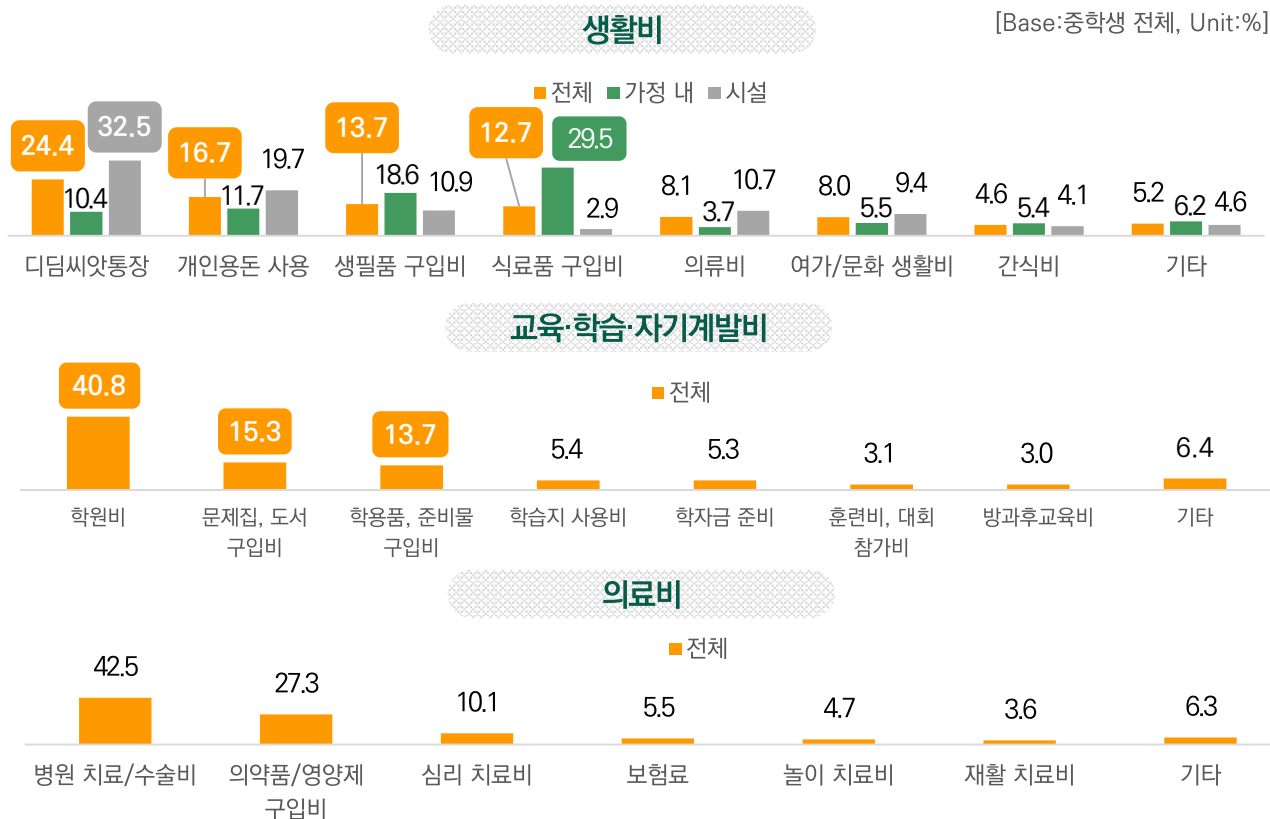
## 후원금 사용처 비중

[Base:중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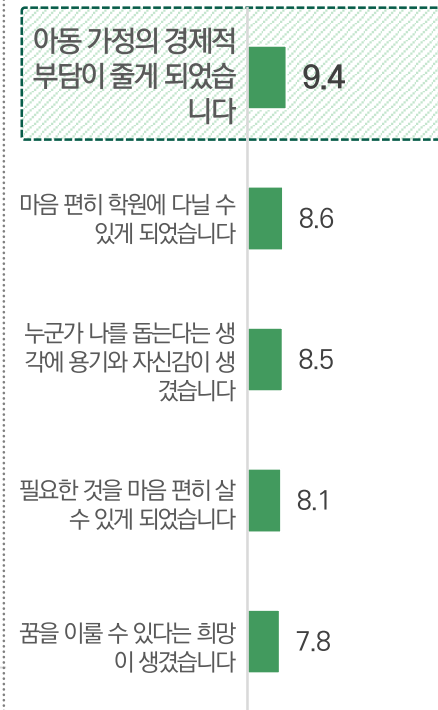
- 생활비
- 교육/학습/자기계발비
- 의료비

## 후원금 세부 사용처



## 후원 후 가장 큰 변화

[Base:중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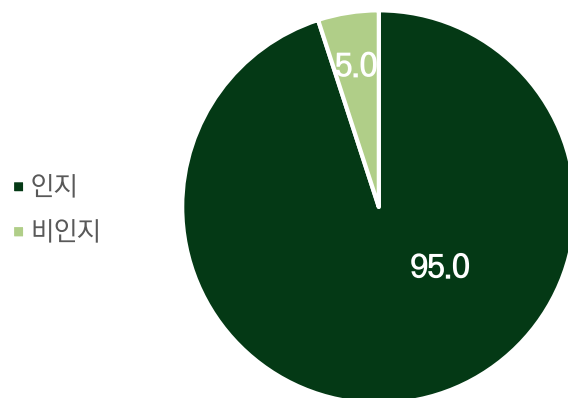
## 다. 중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- 중학생의 후원금 인지율은 95.0%로 매우 높아, 대부분 지원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.
- 후원금 지속 희망도는 92.4%로 높지만, 미취학·초등학생보다는 낮음.
- 후원금 도움 체감은 85.4%로 초등학생 대비 낮아지며, 가정 내 아동(81.8%)이 시설아동(87.5%)보다 도움 체감이 더 낮음.
- 후원금 충분도는 78.3%로, 특히 가정 내 아동(70.8%)은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.

⇒ 중학생 시기에는 후원금 도움 정도나 지속 희망 정도가 낮아, 후원금 효과 체감이 다소 약해지는 양상이 나타남.  
⇒ 후원금 충분도는 가정 내 아동과 시설 아동 간의 체감 격차가 존재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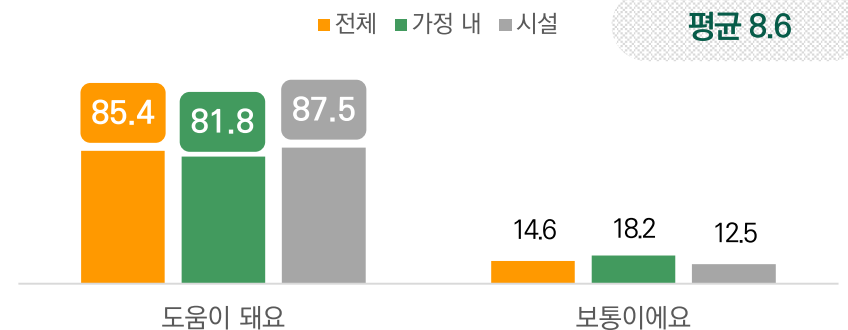
### 후원금 인지율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 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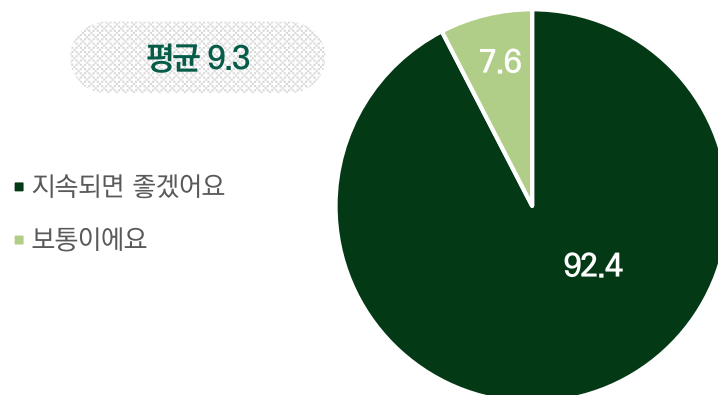
### 후원금 도움 정도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 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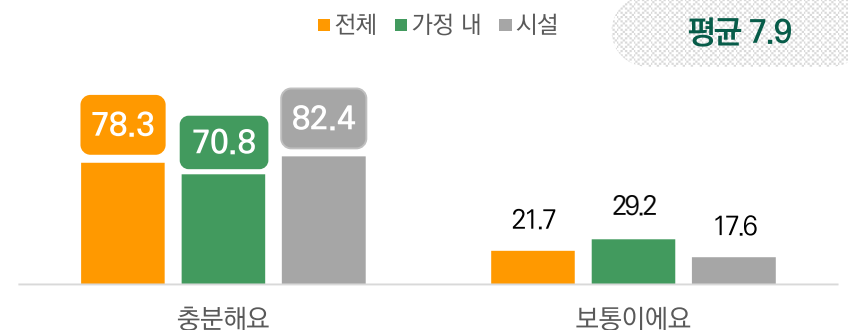
### 후원금 지속 희망 정도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 %]



### 후원금 충분도

[Base: 중학생 전체, Unit: 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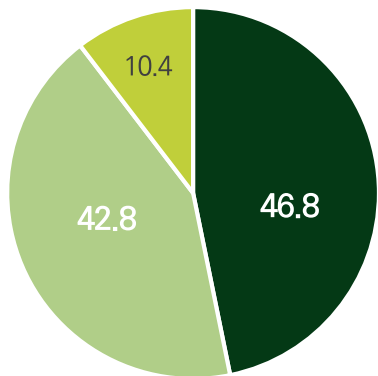


# 라. 고등학생 - (1) 근황 분석 결과 :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- 고등학생은 후원금을 주로 '생활비'(46.8%)와 '교육·학습·자기계발비'(42.8%)에 사용함.
- 생활비 사용처는 '디딤씨앗통장'(20.7%) 비중이 가장 높고, 이어 개인용돈(16.2%), 식료품(14.4%), 생필품(14.2%) 순으로 나타남.
- 특히 가정 내 아동은 식료품 구입(24.0%)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, 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(34.7%) 비중이 높음.
- 교육비는 '학원비'(31.7%)가 가장 높고, 이어 문제집·도서(17.4%), 학용품·준비물(12.6%) 순으로 나타남.
- 후원 후 가장 큰 변화로는 '경제적 부담 감소'(12.3%) 등이 꼽혀, 후원금이 고등학생의 학업 지속, 진로 준비, 정서 안정,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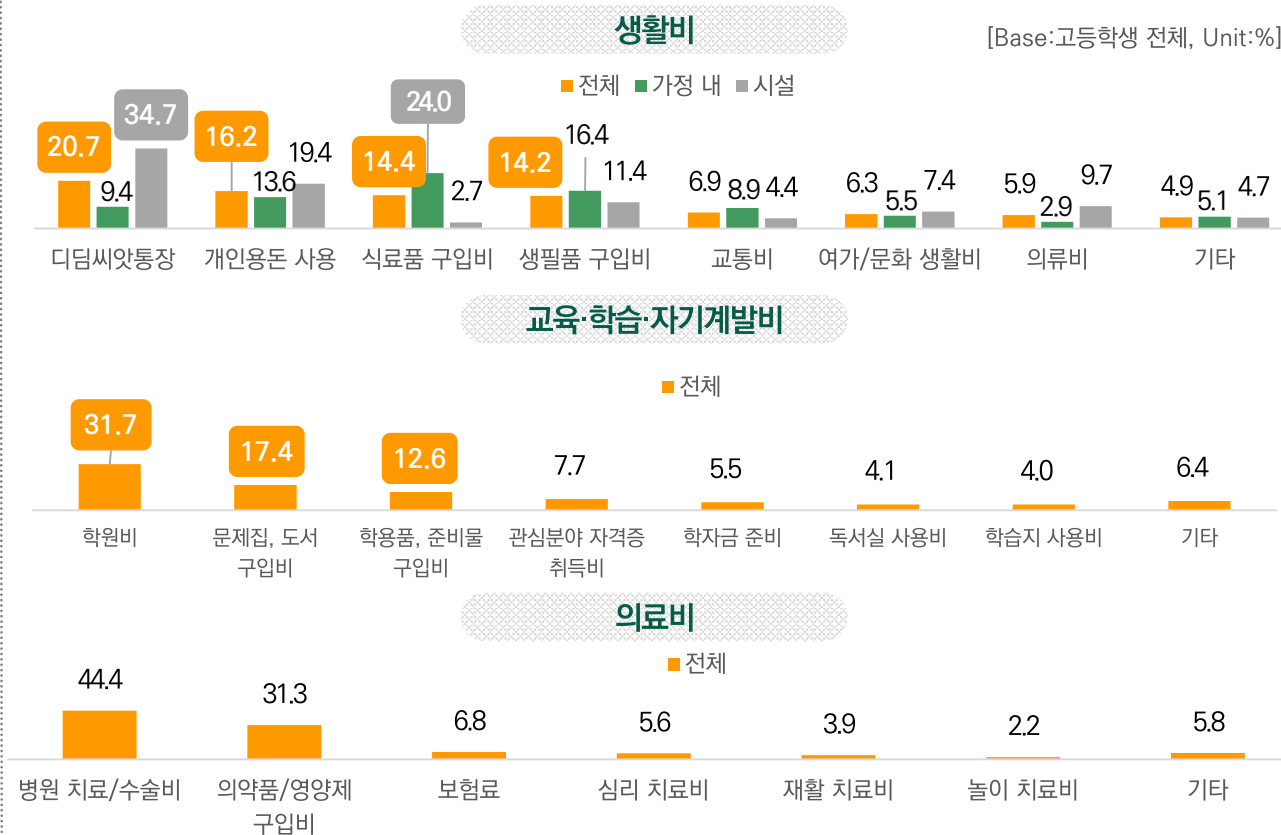
## 후원금 사용처 비중
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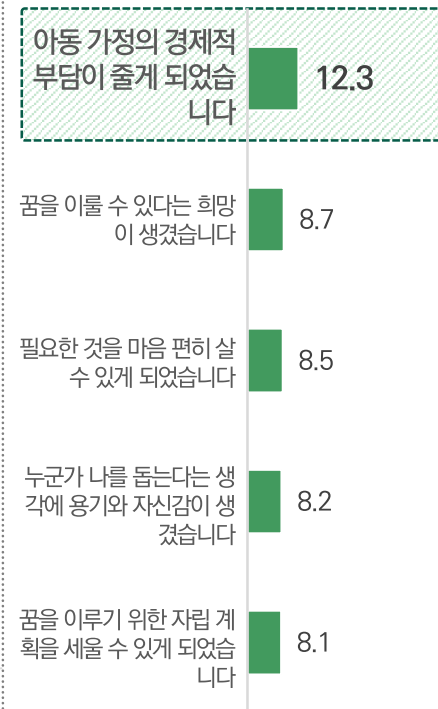
- 생활비
- 교육/학습/자기계발비
- 의료비

## 후원금 세부 사용처



## 후원 후 가장 큰 변화
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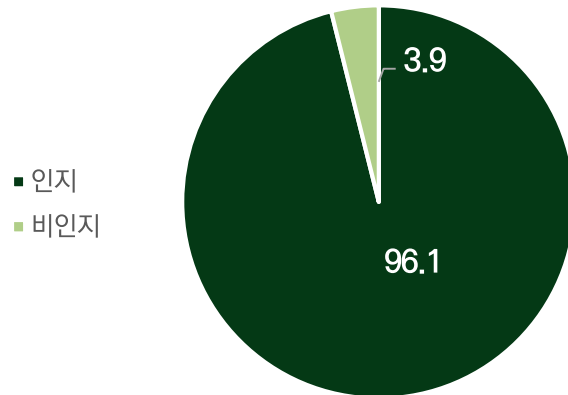
## 라. 고등학생 - (2) 욕구 분석 결과 :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- 고등학생의 후원금 인지율은 96.1%로 매우 높음.
- 후원금 지속 희망도는 92.6%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, 전체적으로 학령이 높아질수록 후원금 영향력이 다소 약해지는 경향이 나타남.
- 후원금 도움 정도는 86.2%, 후원금 충분도는 77.1%로 중학생과 유사한 수준이며, 가정 내 아동의 충분 인식(73.0%)이 시설 아동(81.9%)보다 뚜렷하게 낮아 체감 격차가 존재함.

⇒ 고등학생은 다른 학령에 비해 학업, 진로 준비 등 자립을 앞두고 있기에 지출 부담이 가장 큰 시기임.  
 ⇒ 후원금 충분도는 전체 학령 중 가장 낮아, 후원금 수준에 대한 현실적인 제고가 필요한 연령대로 파악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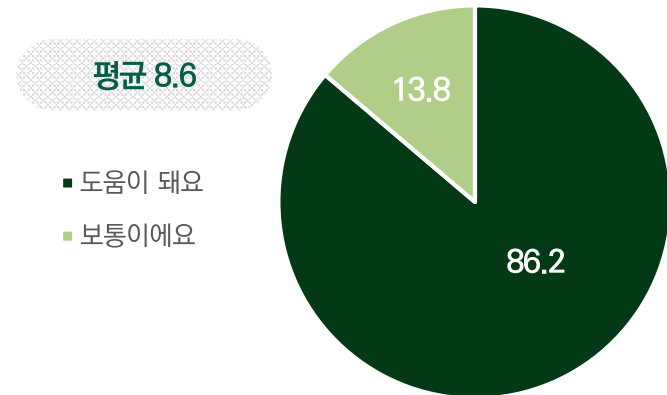
### 후원금 인지율
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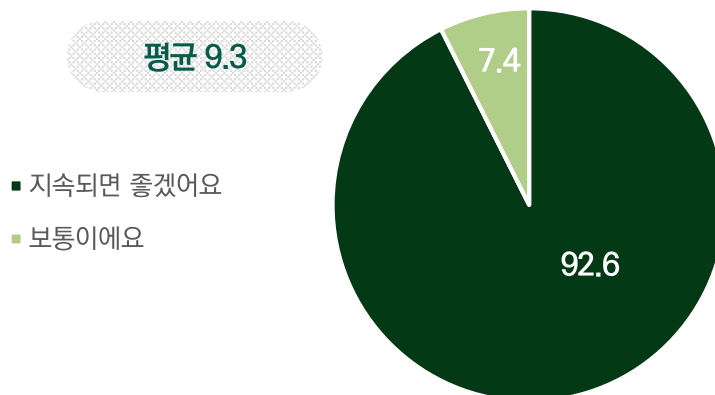
### 후원금 도움 정도
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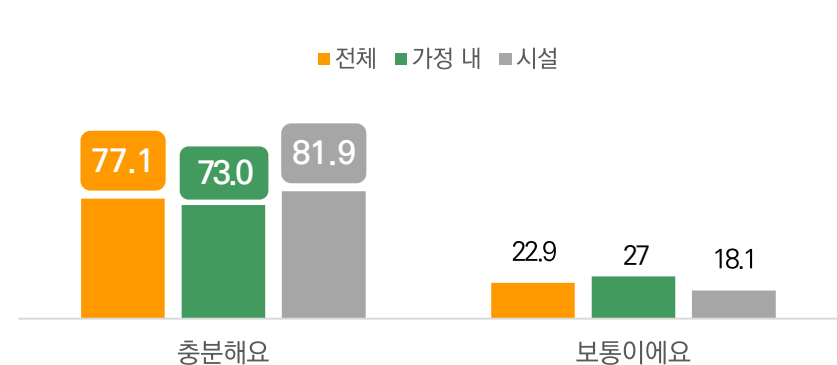
### 후원금 지속 희망 정도
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

### 후원금 충분도
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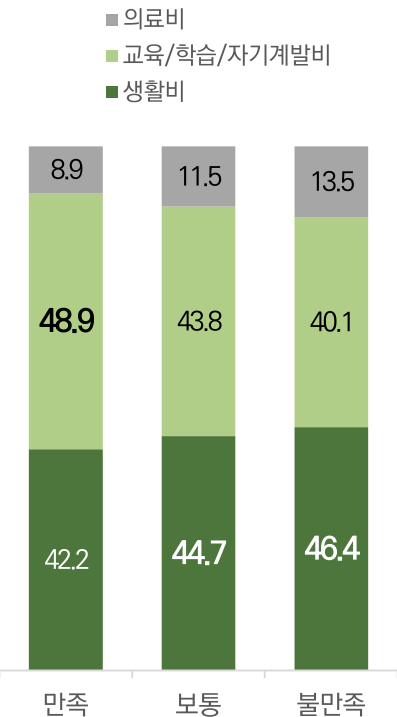


# 마. 주거환경 만족도별 **근황** 분석 결과 : 후원금 사용 및 인식 - 중학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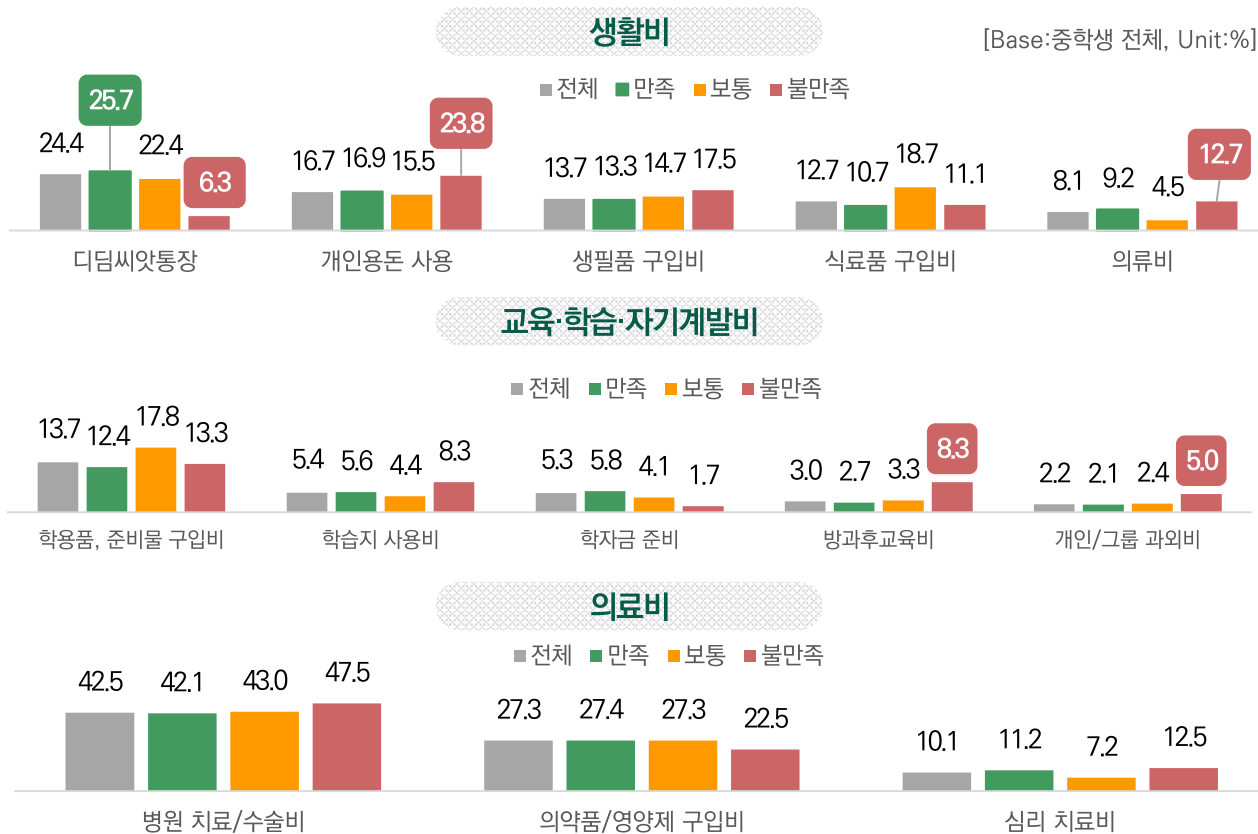
- 후원금 사용처 비중은 전반적으로 생활비와 교육·학습·자기계발비 위주로 구성되며, 주거환경 만족도 별 전반적인 사용 구조는 유사하게 나타남.
- 생활비 세부 사용에서 ‘디딤씨앗통장’ 사용은 만족군 25.7%로 불만족군 6.3%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, ‘개인용돈 사용’과 ‘의류비’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, 주거환경 불만족군에서 생활 필수 소비 의존이 더 큰 경향을 보임.
- 교육·학습·자기계발비에서 ‘방과후교육비’는 불만족군이 8.3%로 만족군 2.7% 대비 높게 나타났고, ‘개인/그룹 과외비’ 역시 불만족군이 5.0%로 다른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을수록 개인 사교육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됨.
- 후원 후 가장 큰 변화에서는 ‘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’에 대한 체감이 불만족군에서 12.0%로 만족군과 보통군 7.7% 대비 높아,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을수록 후원이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향이 확인됨.

## 후원금 사용처 비중

[Base:중학생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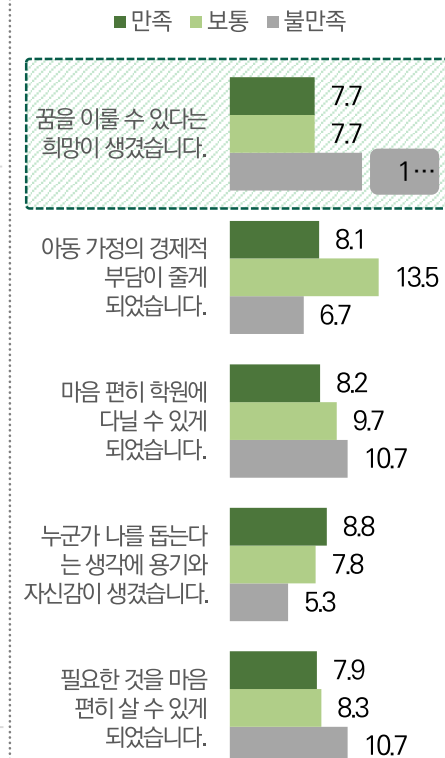


## 후원금 세부 사용처



## 후원 후 가장 큰 변화

[Base:중학생 전체, Unit:%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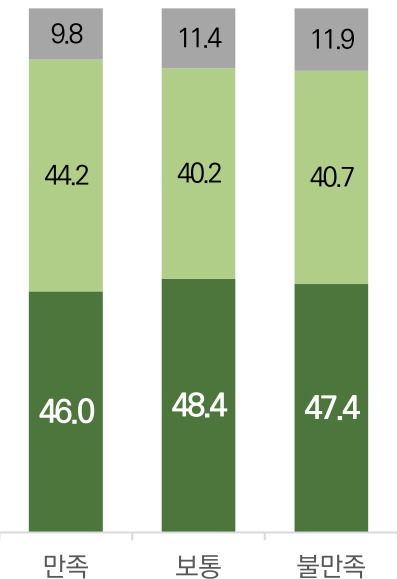
# 마. 주거환경 만족도별 **근황** 분석 결과 : 후원금 사용 및 인식 - 고등학생

- 후원금 사용처 비중은 전반적으로 생활비와 교육·학습·자기계발비 위주로 구성되며, 주거환경 만족도 별 전반적인 사용 구조는 유사하게 나타남.
- 생활비 세부 사용에서 ‘디딤씨앗통장’ 사용은 만족군 23.1%로 불만족군 12.2%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, 불만족군은 ‘개인용돈 사용’ 20.0%와 ‘교통비 지출’ 13.3%로 높아 생활 관련 필수 지출 부담이 더 큰 양상이 확인됨.
- 교육·학습·자기계발비에서 ‘학원비’는 만족군 34.3%로 불만족군 27.8% 대비 높게 나타난 반면, ‘문제집·도서 구입비’와 ‘독서실 이용비’는 불만족군이 각각 21.1%, 7.8%로 높아,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을수록 개인 학습 중심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됨.
- 후원 후 가장 큰 변화에서는 ‘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’는 인식이 불만족군 11.4%로, 만족군 5.1%, 보통군 4.9% 대비 높게 나타나,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을수록 후원의 긍정적 인식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양상이 확인됨.

## 후원금 사용처 비중
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■ 의료비  
■ 교육/학습/자기계발비  
■ 생활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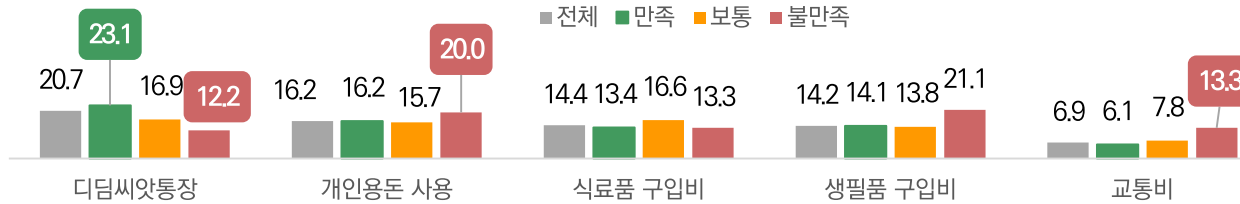


## 후원금 세부 사용처

### 생활비
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■ 전체 ■ 만족 ■ 보통 ■ 불만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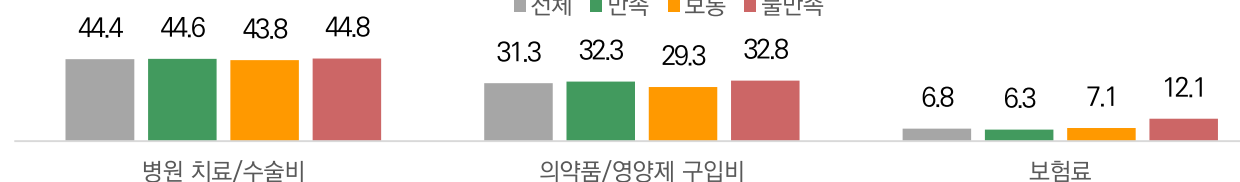
### 교육·학습·자기계발비

■ 전체 ■ 만족 ■ 보통 ■ 불만족



### 의료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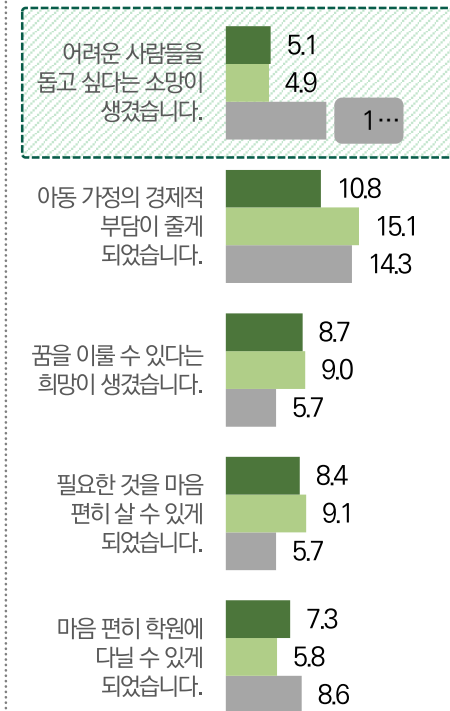
■ 전체 ■ 만족 ■ 보통 ■ 불만족



## 후원 후 가장 큰 변화

[Base:고등학생 전체, Unit:%]

■ 만족 ■ 보통 ■ 불만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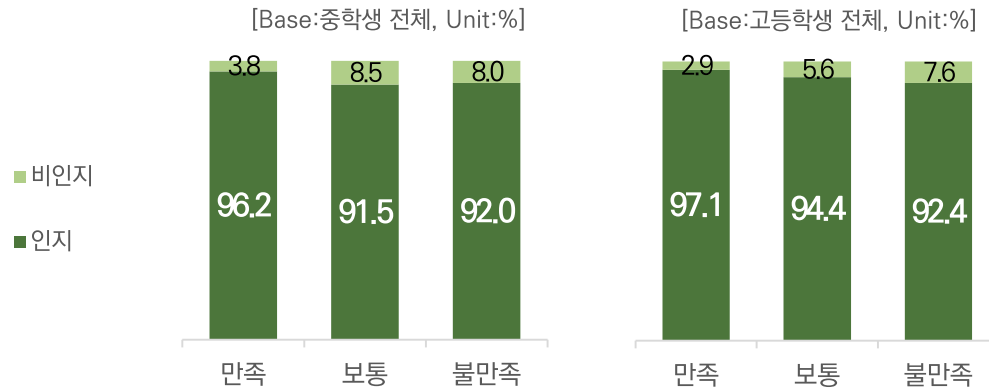


# 마. 주거환경 만족도별 욕구 분석 결과 :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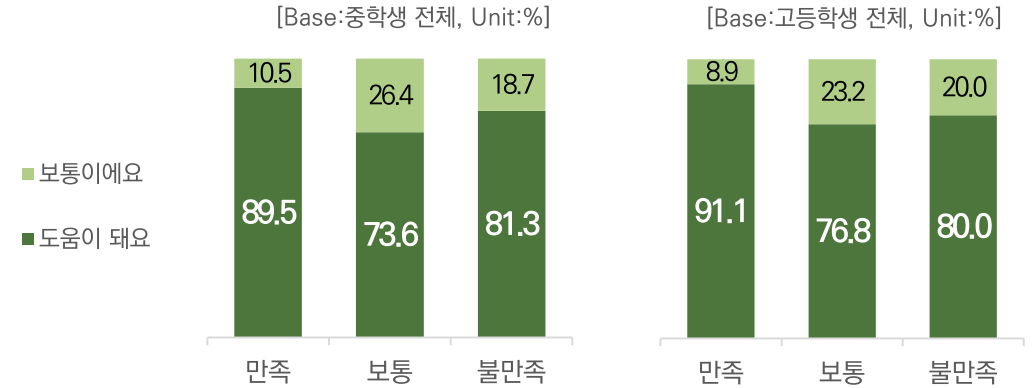
- 후원금 인지율은 중·고등학생 모두에서 모든 집단에서 90%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, 주거환경 만족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음.
- 후원금 도움 정도와 지속 희망 정도는 전반적으로 긍정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으나, 만족군 대비 보통·불만족군에서 체감 수준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, 특히 후원금 충분도 인식은 만족군에서 가장 높고 보통·불만족군으로 갈수록 낮아짐.

⇒ 후원금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아 제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함.  
 ⇒ 다만 주거환경 보통·불만족군에서는 후원금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,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보완적·추가 지원 연계가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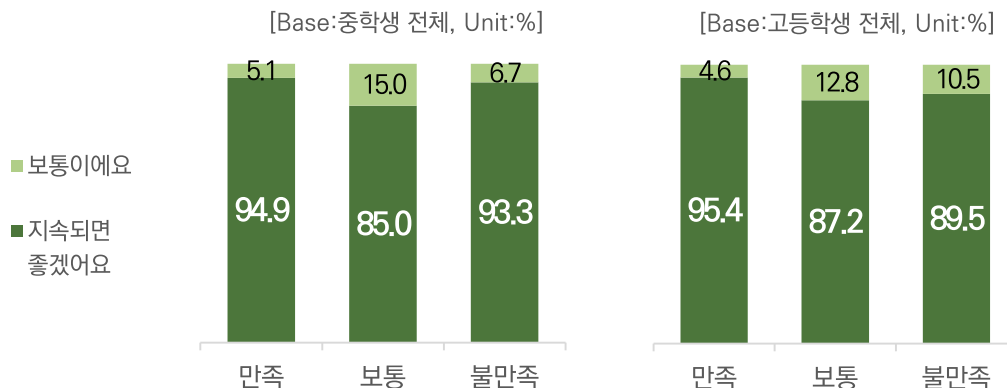
## 후원금 인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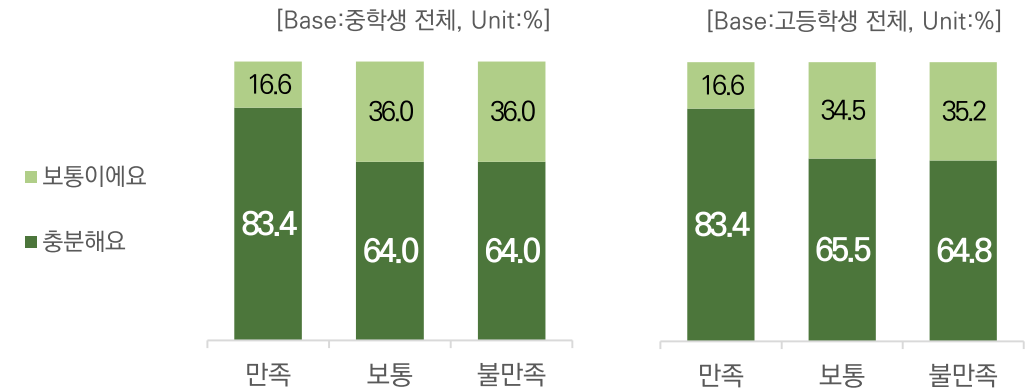
## 후원금 도움 정도



## 후원금 지속 희망 정도



## 후원금 충분도



# 바. 학령간 분석 결과 및 시사점 : 후원금 사용 및 인식

##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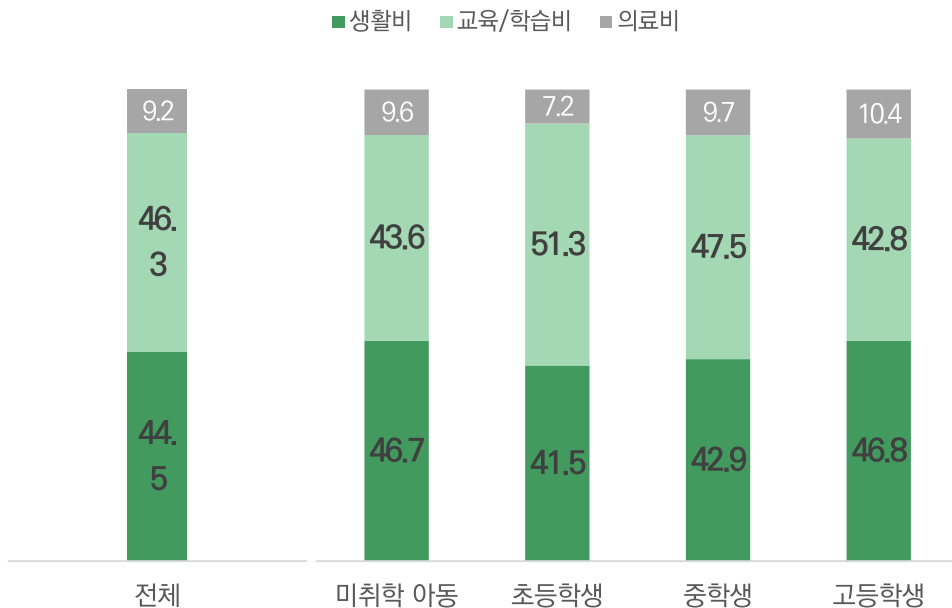
- 미취학 아동은 생활비 비중이 가장 높고(46.7%), 초등학생(51.3%), 중학생(47.5%)은 교육·학습/자기개발비가 가장 높음. 고등학생 시기에 생활비 비중이 증가(46.8%)하는 것은 자립 준비 지출 확대에 의한 것으로 보임.
- 후원금 부족군의 행복감은 모든 학령에서 충분군 대비 낮게 나타남. 후원금 충분 정도에 따른 그룹 간 격차는 중학생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(1.4점), 고등학생은 후원금 충분군의 행복감 수준 역시 가장 낮은 학령으로 확인됨.

## 시사점

- 학령별로 후원금의 필요 및 사용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, 학령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후원금 설계가 요구됨.
- 고등학생은 자립 준비 단계 진입으로 생활비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, 생활·자립 기반 지출을 고려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.
- 교육비 지출 구조는 미취학 아동은 학습지 중심, 초·중·고등학생은 학원비 중심으로 구분되어, 학령별 교육비 지원 방식의 차별화 필요함.
- 또한 후원금 부족 시 행복감이 모든 학령에서 낮게 나타나, 정서적 안정 유지를 위한 지속적·안정적 후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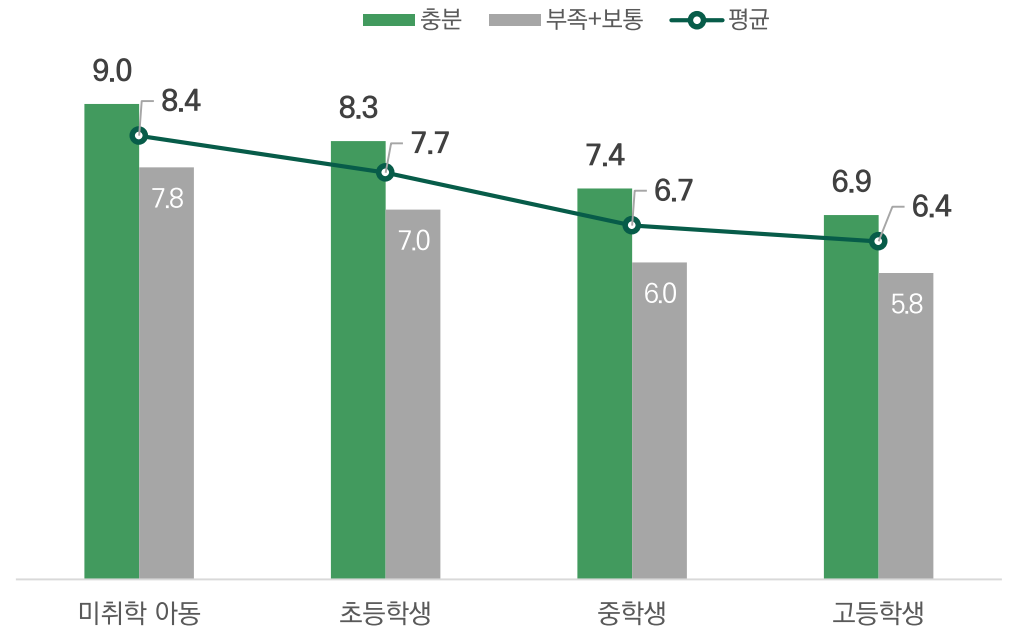
### 학령별 후원금 도움 정도 & 주요 사용처

[Base:학령 별 전체, Unit:%]



### 후원금에 따른 행복감 비교

[Base:학령 별 전체, Unit:점]



PART /



# 기타 주제별 분석 결과

1. 수면 시간 및 충분 정도
2. 방학 및 새학기 계획
3. 관심사 및 여가 활동
4. 장래희망

# 가. 수면 시간 및 충분 정도

##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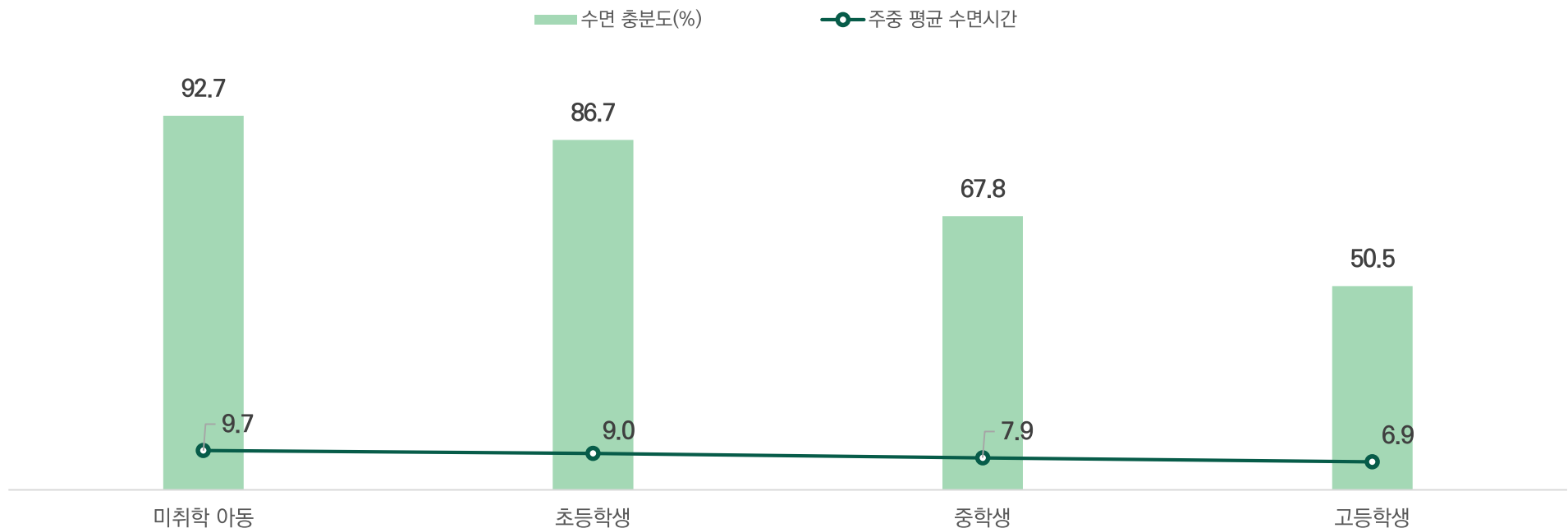
- 학령이 높아질수록 평균 수면 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함.
- 실제 수면 시간은 미취학 9.7시간에서 초등 9.0시간, 중등 7.9시간, 고등 6.9시간으로 낮아지며, 고등학생은 권장 수면 시간(8~10시간)에 크게 못 미침.
- 수면이 '충분하다'고 인식하는 비율도 고등학생은 50.5%에 그쳐, 학령 상승과 함께 수면 부족 양상이 나타남.

## 시사점

- 학업 부담 증가와 생활 리듬의 불규칙성이 학령 상승과 함께 악화됨.
- 고등학생의 수면 부족은 집중력, 정서 안정, 학습 효율 저하로 직결되므로, 학령별 수면 건강 교육 및 수면 위생 관리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. 특히 취약 연령대인 중·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면 개선 지원이 요구됨.

### 학령별 평균 수면 및 수면 만족도

[Base:학령 별 전체, Unit:%, 시간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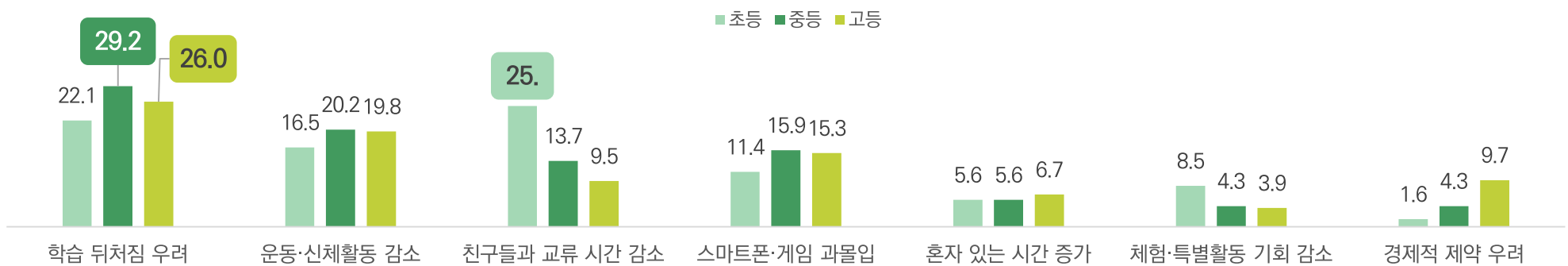
## 나. 방학 및 새학기 계획

- 초등학생이 방학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‘친구들과의 교류 시간 감소’(25.1%)이며, 새학기에 가장 기대되는 것 또한 ‘반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’(47.2%)으로, 또래 관계가 학교생활의 핵심 동기임을 보여줌.
-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방학에 ‘학습 진도’(29.2%, 26.0%)가 가장 걱정된다고 응답하여, 학업 부담이 시작됨을 보여줌.
- 중고등학생도 새학기에 기대되는 것은 ‘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’라고 응답하여 또래관계는 여전히 학교생활 만족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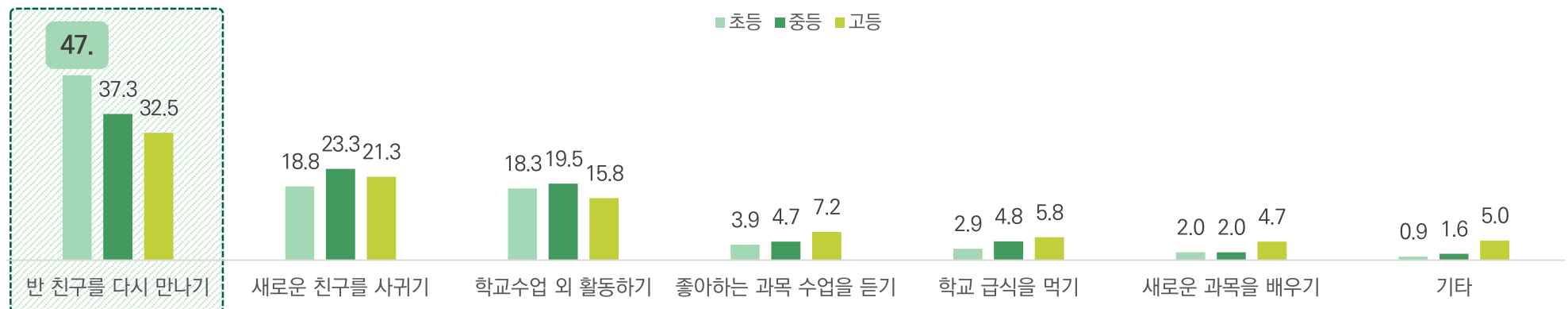
### 방학 및 새학기 계획 종합

[Base: 초·중·고등학생 전체, Unit: %]

#### 방학에 가장 걱정되는 것



#### 새학기에 가장 기대되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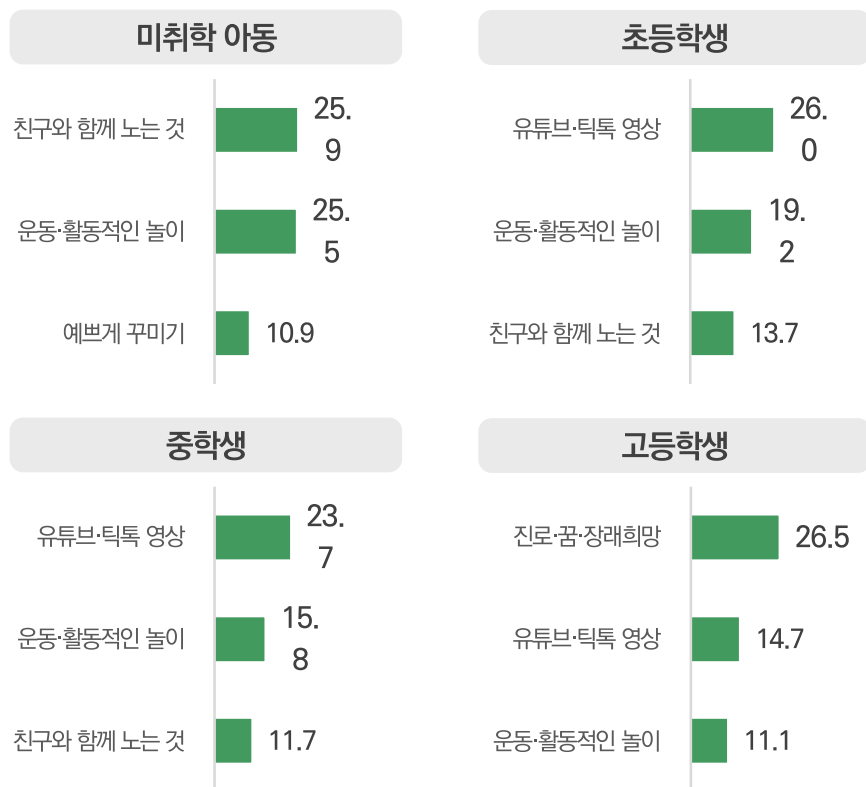


## 다. 관심사 및 여가 활동

- 미취학 아동은 ‘친구와 함께 노는 것’(25.9%)과 ‘운동·활동적인 놀이’(25.5%)를 가장 선호해 놀이와 또래관계 중심의 관심사가 두드러지며, 실제로 가장 자주 하는 놀이도 ‘장난감’으로 나타남.
-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‘유튜브·틱톡’(26.0%, 23.7%)을 최대 관심사로 응답해 디지털 미디어 활동 선호가 뚜렷하며, 여가활동에서도 초등학생은 ‘유튜브·틱톡 영상’ 시청이 가장 높고, 중학생은 ‘휴대폰·PC 게임’과 ‘유튜브·틱톡 영상’ 시청이 모두 높게 나타남.
- 고등학생은 ‘진로·꿈’(26.5%)을 가장 많이 선택해 학령이 높아질수록 관심이 높아 미디어에서 진로와 미래 준비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남, 다만 여가활동은 초등·중학생과 마찬가지로 ‘유튜브·틱톡 영상’ 시청이 가장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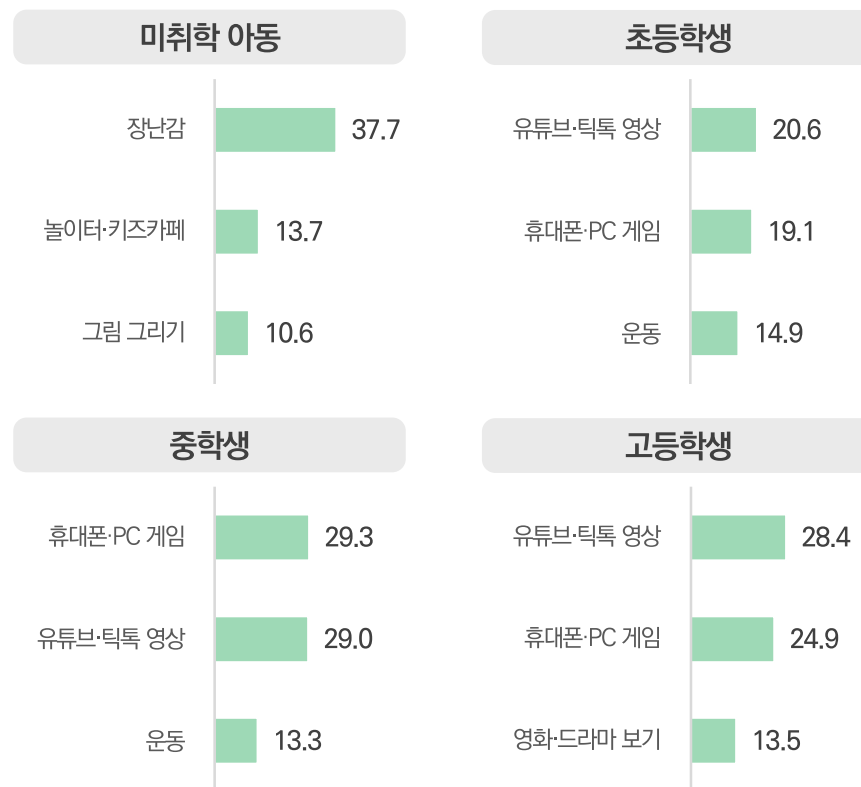
### 요즘 ‘나’의 최대 관심사

[Base:학령 별 전체, Unit:%]



### 요즘 가장 자주하는 놀이·여가 활동

[Base:학령 별 전체, Unit:%]



## 라. 장래희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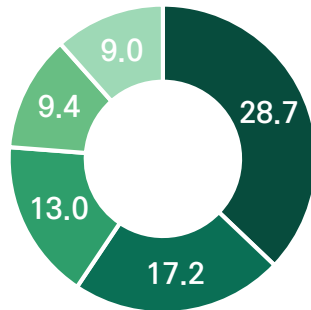
- 초등학생 장래희망은 '스포츠·게임'(24.2%), '문화 예술'(16.7%) 분야가 높아 흥미·취미 기반의 선호가 중심을 이룸.
- 중학생 장래희망은 '스포츠·게임'(21.1%), '문화·예술'(15.2%), '음식'(9.6%) 순으로 나타나, 흥미 중심이면서도 직업군 선택이 조금씩 다양해지는 경향이 보임.
- 고등학생 장래희망은 '의료·보건·사회복지'(13.2%), '문화·예술'(12.0%), '스포츠·게임'(11.4%) 순으로 응답해, 학령이 높아질수록 장래희망이 전문직·진로 현실성 중심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뚜렷함.

### 학령별 장래희망 TOP 5

[Base:학령 별 전체, Unit:%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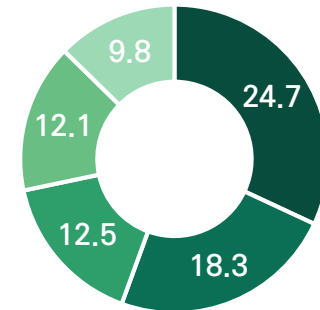
미취학 아동

- 법률/경찰/소방
- 문화 예술
- 기타
- 교육
- 스포츠/게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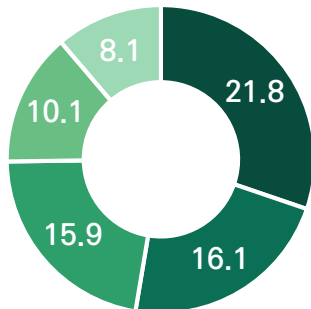
초등학생

- 스포츠/게임
- 문화 예술
- 법률/경찰/소방
- 기타
- 음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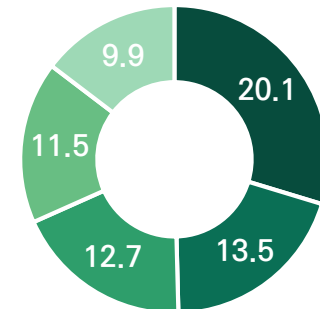
중학생

- 스포츠/게임
- 문화 예술
- 기타
- 음식
- 의료/보건/사회복지



고등학생

- 기타
- 의료/보건/사회복지
- 문화 예술
- 스포츠/게임
- 음식





## 2025년 국내 결연아동 근황조사 분석 보고서

발행처: 초록우산 후원서비스본부

발행일: 2025년 12월

홈페이지: [www.chorogusan.or.kr](http://www.chorogusan.or.kr)

대표번호: 1588-1940

자료조사: (주)한국리서치